장 편 소 설

광화상

온 영 수

평 양 출 판 사
주체109(2020)년

나오는 사람들

서 상 록　첨단기술연구소 소장

정 동 녀　서상록의 안해

서 필 몽　서상록의 아버지

서 지 연　서상록의 딸

지 은 금　서상록의 장모

명　　현　서상록의 친구, 해외동포학자

지그프리트　에쎈회사 총사장

싼 다 나　첨단기술연구소 연구사

장편소설 **자 화 상**

소설의 주인공인 서상록은 명예와 재부만을 절대시하며 자기 민족을 외면했던탓에 제손으로 파괴해버린 가정, 아버지로서 책임질수 없는 딸의 운명이라는 인생의 비극을 겪게 되며 마침내는 자신마저 지켜낼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되여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된다.

쓰라린 상실과 좌절로 이어지는 인생의 려정을 거치면서 그는 명예와 재부는 개인의 만족에 불과하며 민족적존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제 1 장

1

연청색하늘은 재빛구름으로 얼룩졌다. 창공을 뚫고나가기라도 할듯 어디선가 날아오른 한쌍의 새가 마침내 기운이 진했던지 고개를 박으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곤두박질치더니 별찌처럼 사라져버린다.

땅우에서는 려객들을 부리운 렬차가 달아오른 몸을 식히지도 못하고 다시 떠나야 하는것이 힘겨운듯 헐떡거린다. 역홈은 사람들로 붐볐다. 바바리아고원의 무덥고 건조한 계절이 다가오고있는것이다.

렬차의 기적소리는 서글픈 하소연같은 메아리로 사라져간다. 뾰족탑들 사이에 자리잡은 종루의 시계가 12시를 가까이하고있다.

역사를 나선 한사람이 인파를 헤치며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정수리까지 벗겨진 이마에 깊은 주름 두개가 자리잡았다. 침울하면서도 거만한 본색을 지닌 눈동자가 떠인 수북한 눈섭꼬리가 재빛을 띠여서인지 사색적인가 하면 위압감을 주고 네모진 억센 턱은 건장한 육체와 조화를 이루며 범접하기 어려운 기품도 엿볼수 있게 하는 사나이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돌리지 않은채 생각에 잠겨 걷는다.

유럽의 학계에서 권위있는 학자이며 첨단기술개발의 앞장에 선 연구소를 가지고있는 서상록이다. 이 사람의 성격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연구사업외에는 사회적인 교제가 빈곤한 사람이지만 정구와 경마를 즐기는 체육애호가이며 조형예술에 대한 독특한 감각도 가지고있어 회화와 조각작품도 창작할만큼 재능을 갖추고있었다.

건늠길을 건너 보리수나무들이 줄지어선 공원옆의 보도를 따라걷던 그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더니 주춤거려댔다.

한 녀인의 모습이 눈가에 다가들었던것이다.

중년기도 저무는듯싶은데 차림새는 수수하지만 고상한감을 준다. 여름철이 다가들자 녀자들은 벌써 짧은 옷들을 입고 다닌다. 유럽의 로출증은 젊은이들속에만 있는 증상이 아니다.

연회색양복을 입었을뿐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은 녀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걸어온다는 육감을 받았던지 고개를 돌렸다. 어딘가 피로가 어린 얼굴이지만 이목구비가 또박또박 그려놓은것만 같다. 깨끗한 흰자위에 담긴 유난히도 검은 눈동자가 옆으로 쏟아질듯 기울어졌다. 이어 입귀가 조금 열리며 소리없는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찾은건 꼭 만나야 할 일이 생겼다고 생각되기때문이예요.》

《나도 예견한바요.》

《그렇군요.》

무심히 이야기를 나누는 두사람의 얼굴에는 서로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것이 알렸다. 서상록이 한손으로 앞을 가리키자 녀인은 그 무언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따라섰다.

상록수들사이에 봇나무들이 정갈한 자태를 드러내며 두사람을 맞아준다. 풍화된 돌길의 틈새마다에 돋아난 풀들이 얼기설기 금을 그었다. 가지와 잎새들을 헤치고 해빛이 스며들어 조을고있는 길을 따라 조금 가니 강변이 나타났다.

서상록은 낯익은 곳에 이르자 주변을 흥심없이 둘러보고나서는 자그마한 바위우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려송연을 피워물었다.

강기슭에 선 녀인이 허리를 굽히며 손을 물속에 잠그더니 가볍게 저어댔다. 동그란 파문이 그려지는것을 이윽토록 지켜보던 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있겠지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말마디들은 예리했다.

서상록은 얼떠름한 표정을 그려보이지만 일부러 멍청이처럼 보이려는것같이 느껴질 행동거지를 취했다.

《애가 몇살인지 아세요?》

서상록은 말없이 머리만 주억댔다. 고개는 들지 않았지만 남자의 움직임과 표정을 감득하는지 녀인의 얼굴로는 가느다란 비웃음이 흘러갔다.

《결코 무관심할 당신이 아니예요. 그것만은 알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유산은 그애일거요.》

서상록은 자기가 준비해온 말을 하고있었다. 녀자의 반응은 민첩하고 날카로왔다. 물속에서 손을 걷은 녀인이 잽싸게 물기를 털어버리고나서 머리를 홱 저어댔다.

《어울리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요. 한번도 그애를 찾은 일 없는 당신이 올해에 들어와 두번씩이나 걸음을 했어요. 대학에.》

녀자의 눈길이 처음으로 남자에게 향했다. 누를길 없는 불만과 혐오감이 어린 눈동자에는 조소가 배였다. 그 눈빛은 속심을 감추지 말라는 요구를 담고있었다. 압도당한 심리로 해서인지 서상록은 두손을 벌려보이며 당황해하면서도 어리숙한 난색을 지었다.

《목적이 뭐예요?》

《순수한 학술교류로… 두번짼 초빙강의를 하려고 갔소. 우리 지연이가 한학년을 뛰여넘어 이젠 졸업론문을 준비하더구만. 당신 수고가 심장에 닿는걸 감지했소.》

《당신은 우리라는 단어를 나와 애앞에서는 쓰지 말아야 해요. 그 까닭은 구태여 말하지 않겠어요.》

서상록은 대응할 언어가 없는지 눈빛이 한층 침울해졌지만 자신을 잃어서는 안되였기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횡설수설해댔다.

기업경쟁이 극대화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초점을 모으고있는것은 첨단기술개발에서 이채를 띨수 있는 두뇌다. 따라서 인재에 대한 쟁탈전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체나 생존공간으로 삼고있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의 가치가 날로 증대된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두손을 모아잡고 선 녀인이 말했다.

《여전하군요. 당신은 비록 물질분해의 명수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자기만은 분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거예요.》

머리를 주억댄 서상록은 행동거지와는 다른 말을 했다.

《변할줄 모르는 당신의 견해에 머리를 숙이오. 인간은 세계속의 한 부분이요. 그 이상은 될수 없다는거요. 완고성이란 선대들이 물려준 타성일뿐이요.》

녀인의 턱이 약간 쳐들리며 앞에 앉은 남자를 도전적으로 노려보았다.

《내앞에서까지 강의를 할 생각은 마세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예요. 진리와 량심, 도덕을 거역하지 못하는 인간일 때에만 과학앞에서도 성실할수 있는거예요. 내가 또 안할 말을 하는군요.》

서상록은 눈시울을 좁히고는 능청맞은 웃음까지 지으며 녀인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엿볼수 있게 하는 얼굴이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도 선들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이런 얼굴을 두고 어느

한 모퉁이도 빈 곳이 없다고 말할것이다. 흠이라면 코끝이 약간 들리운것인데 경박해보이는가 하면 도고한감을 주는게 싫지 않았다.

그는 조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때아닌 장소에서 어울리지 않는 감상도 하는 사람이였다.

《당신이 우려하는 그 준비라는것에 대해 마음쓰지 말기를 바라오.》

서상록은 안심하라는 표현으로 두손을 쳐들어보였다. 그 침울한 얼굴에 새겨진 의미있는 웃음을 마주한 녀인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머리를 설레설레 젓고나서 말했다.

《믿어보지요. 우린 지금껏 자기주장대로 살아왔어요. 당신의 간섭이 오늘에 와서는 더욱 필요가 없어요.》

무정하다고 해야 할 말이지만 서상록은 그조차 탓하지 않았다. 이쯤하게 대하는것쯤은 적응력이 생긴듯 했다.

그는 조금도 노엽지 않게 여기며 제 생각을 주어섬기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이미 비난을 받았음에도 그는 수재들의 장래에 대하여 그럴듯하게 장식을 해댔다. 뛰여난 두뇌를 가진 대학졸업생들은 인재에로 가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졸업론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것이다. 그러자면 반드시 지도교원을 잘 만나야 하고 권위있는 연구기관들과 기업체들의 관심을 모아야 하는것이다. 당신도 이에 대해서는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딸의 장래를 담보하자면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에 주목을 돌려주기를 바란다고 진심어린 어조로 당부했다.

녀인은 마침내 지구성을 잃고 남자의 이야기에 지루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너무도 잘 아는 사내한테서 귀찮을만큼 들어온 설교를 당하는것으로 심리와 기분상태가 참기 어려운 계선에 이른것이다.

그는 찬바람이 이는 어조로 한정없을것 같은 이야기를 동강냈다.

《그만하세요. 지긋지긋하군요. 약속은 하면서 바라지 않는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다시말하지만 애의 장래에 간섭할 생각을 마세요.》

서상록은 말허리를 잘리우고서도 시무룩이 웃었다. 그로서는 이 녀인한테서 이러루한 랭대는 너무도 받은탓에 유감스럽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나 자기의 은폐된 속심을 이모저모로 정당화하여 앞으로의 기회에서 우세를 차지할 생각만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지연의 나이가 21살이고 인생의 기로에 다가서고있지 않소. 나로서는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싶을뿐이요.》

《안돼요. 필요없다는걸 재삼 강조해요. 당신은 앞에서 가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가장 단순한 그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 당신이라는걸 언제가면 인정하겠어요? 아니, 영원히 당신은 자기를 찾지 못할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나름의 만족으로 하여 정신적라태상태에 빠져들었기때문이예요. 따라서 우린 당신의 도움을 받을수 없으며 받아서는 안되는거예요.》

녀인의 음성은 선언조로 울렸다.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쪼프린 얼굴조차 굳어져버렸다.

서상록은 상대의 심리가 극한에 이르렀다는것을 감수하면서도 한걸음 더 내짚을 궁리를 하였다. 이것은 그의 성격이기도 했다. 모든 실험은 극한점이라고 해서 주저앉지 말며 계속하여야 한다고 간주하는 서상록은 집요한 인간이였다.

《여보, 나에게 최소한 권리를 부여해줄수도 있지 않소. 이건 애의 앞날을 위해서도…》

더이상 남자를 바라볼념을 하지 않으며 녀인은 돌아서서 걸음을 내짚었다. 한손을 쳐들어올렸다가 내리그으며 력점을 찍어 말했다.

《아무런 의무도 진적 없는 당신이기에 권리 또한 부여할수 없어요. 당신의 그 무슨 권리행사는 성밖에 물려받은것 없는 딸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에 대해 난 너무도 잘 알고있어요. 가겠어요. 와주어 고마워요.》

녀인의 인사를 받으며 서상록은 높지는 않아도 뿌리가 든든한 코마루를 내리쓸며 침울한 웃음을 지었다.

구배가 심하지 않은 령길을 따라 각양각색의 승용차들이 딱정벌레무리처럼 기여오르고있다. 철란간을 두른 도로에는 속도를 제한하라는 표식이 눈에 뜨인다. 그러거나말거나 질주패들은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선행하여 내달린다. 마주 내려오는 차들의 주인들이 그런 차들을 만나면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주먹을 내흔든다.

저런, 저건 또 무슨 재주를 부리는가. 물매미같은 감색승용차 한대가 꼬리를 휘저어대며 술주정뱅이걸음을 해댄다. 위험천만하게 란간대를 들이받을듯이 달리다가는 주로를 벗어나 마주 오는 차들이 급정거를 하면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한다.

정말 볼만 한 자동차교예를 하지 않는가. 저러다가 허공으로 날아오를지도 모른다.

저것 보지, 이젠 앞발을 쳐들고 두바퀴로만 달릴 잡도리를 하지 않는가. 볼만 한 광경에 눈들을 팔고있는데 뒤차축의 오른쪽바퀴가 빠져달아나는것이 보이자 사고의 원인을 알게 된 목격자들이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감색승용차는 균형을 완전히 잃고 오른쪽으로 기울어들며 란간대를 들이받았다. 이어 차문이 열리더니 운전사라고 해야 할 처녀가 튀여나오며 산비탈로 굴러떨어져 내려가는것이 언뜻 보였다.

달리던 차들이 멎어서고 경적소리가 사방에서 아우성치듯 울리기 시작했다. 경황이 없는 속에서도 제일먼저 차에서 뛰여내려 란간대를 날아넘듯 하는 사람은 나이가 있어보이는 녀성이였다. 보기 드문 헌신성을 발휘하는것이다. 우르르 밀려온 사람들이 산비탈아래를 내려다보며 제나름대로 소리를 치는가 하면 휘파람을 불어댔다.

이윽하여 구원자인 녀성이 부상당하여 의식을 잃은 처녀를 등에 업고 안깐힘을 쓰며 올라오다가 마침내 손을 내밀었다.

《좀 도와주세요!》

남자들이 손을 내밀어 녀성의 두팔을 잡아당기면서 등에 업힌 처녀를 란간너머로 조심히 옮겨왔다. 어디서 출혈하는지 의식을 잃은 처녀의 몸은 선혈로 얼룩졌다.

《조심히, 조심히 눕혀요. … 됐어요. 병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가요?》

다급해난 녀성이 누구에게라 없이 묻자 차를 돌려세워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나왔다. 부상자를 태운 승용차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서 화재사고현장으로 달리는 소방차처럼 경적을 다급하게 울리며 거침없이 질주를 했다.

뮨헨비행장에서는 반시간도 못되는 사이에 두대의 대형려객기가 리륙하고 석대가 착륙하였다. 이 세상 어느 대륙에도 임의의 시각에 날아갈수 있는 장소가 여기다. 항공역사는 려행하는 사람들로 뒤붐빈다.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차량들이 넘쳐나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지경이다. 차머리를 마주 댄 운전사들이 저마다 길을 비키라고 경적을 울려댄다. 혼잡속에서 사람들도 차들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헤덤비며 아우성이다. 그속에

서도 다행히 차들이 빠져나가면 기다린듯 수자를 보충하며 새로운 차들이 덮쳐드는것이다.

주차장옆에는 각종 음료매대들과 함께 차들을 청소해주는 작은 세척장도 있었다.

자연이 아닌 인간이라는 생명유기체들이 내뿜는 열파로 하여 쫓기운 어떤 손님들은 활엽수가 만들어주는 그늘밑으로 찾아들어 땀을 들이고있다.

역사의 출구쪽에 시선을 준채 한 남자가 점잖은 풍채를 자랑하며 서있다. 연청색줄무늬가 간 넥타이를 맨 사나이의 얼굴에서 특징적인것은 맵시있게 다듬은 재빛코수염이다. 이 사람이 국제인도주의단체에서 일하는 바클리다. 그는 상급의 호출을 받고 이 장소에 나온것이다.

어딘가 시선을 집중하고있던 바클리는 재빛수염을 쓸며 짧게 휘파람을 내불었다.

저게 누군가. 그의 눈이 역사를 나서는 한사람을 포착하고는 이상한 놀람과 흥미로 반들거렸다.

다국적기업체인 에쎈의 거두가 어떻게 되여 저 사람과 동행하는것인가. 어디서 오는 길일가.

이런 의혹을 앞세운 그는 모를 세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에쎈회사의 총사장 지그프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사람은 명현이라는 동양사람이였다.

민족별 조선사람, 뮨헨대학 졸업생, 경제학자이다.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은 저 인물이 유럽지역에서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속에 영향력을 지니고있는것이다.

지그프리트는 명현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게 분명했다. 명현이 한손을 저으며 부정하면 게르만족늙은이가 턱을 쳐들어올렸다가 내리며 긍정한다. 경제학자의 어떤 론리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바클리는 먹이를 포착한 맹견처럼 두사람을 노려보았다.

명현은 큰 키에 비해 몸은 여위여보이나 강기가 있는 사내라는것이 첫눈에 알렸다. 낯색은 온화하고 친근감을 주며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흐르고있다. 호감을 주는 형의 남자지만 쉽게 범접할수 없는 상대라는감이 든다.

저 사람은 서상록과 가깝고도 먼 사이다.

나는 그것만은 알고있거던. 흥미있어. 명현이 어떻게 되여 여기에 나타났는가.

지그프리트와 동행한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갈마들자 재빛수염쟁이는 킁킁 코소리까지 냈다.

명현은 여러차례나 평양을 방문한 인물이다. 저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당당하게 표명하여왔다.

나는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다. 겨레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는것이 나의 의지이다.

그는 지상을 통해 이렇게 여러번 언명한바도 있다.

명현과 나란히 선 지그프리트는 지금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 재빛코수염을 가진 사나이는 남다른 후각과 기민한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해야 할 인간이였다.

흥미있거던. 이거야말로 관심을 돌려야 할 대상들이란 말이야.

바클리는 자기의 판단에 기초한 행동계획을 어느새 머리속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지그프리트가 평양을 방문했다고 가정할수도 있지 않는가.

놀라운 일인가? 천만에, 억만장자인 저 령감태기는 대통령들도 주저할 일들을 어렵지 않게 여기는 인물이거던. 먹을알을 찾아내는데서는 귀신같은 령감이 미국의 가혹한 제재대상인 조선을 찾아갔다는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명현과 작별인사를 나눈 지그프리트가 마중나와 대기하고있던 자기의 리무진차에 오르는것을 지켜보던 바클리는 저자는 거들먹대며 살아가는데 내 꼴은 뭔가 하는 시기심이 치밀어올라 발을 굴러댔다.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격인 자기가 가소로와 그는 맥빠진 웃음을 킬킬거리고나서 무슨 생각이 나선지 명현의 모습을 서둘러 찾아보았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새로운 추리들이 가지를 치는것 같지만 시야에서 흐르는 명현으로 하여 점점 몽롱한 의식으로 변해갔다.

려객기가 도착하였지만 자기가 만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바클리는 속으로 화를 냈다.

불러놓고는 제편에서 시간을 어기다니. 아래사람 알기를 헌신짝만큼 여기는게 아니고 뭔가. 반대로 내가 늦었다면 아마 초절임하자고들었을게다. 에이, 고약한 녀석이거던. 보기만 해도 몸서리치게 하는 흡혈귀같은 상통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으련만…

바클리는 상면장소에 더이상 서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느린 걸음으로 주차장구역에 들어섰다. 네가 시간을 어겼으니 난 간다 하는 심사로

움직이는데 등뒤에서 경적소리가 울리더니 웬 차머리가 엉덩이를 밀어대기에 그는 뱔이 꿈틀거려 고개를 홱 돌렸다.

바클리는 그 순간 머리칼이 곤두서고 온몸으로 얼음물이 흐르는것 같아 얼른 옆으로 비켜섰다.

차안에 앉아있는 상전을 알아보았던것이다.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상전이 비행기편으로 오리라고 여겼는데 이미전에 와서 자기의 행동을 주시하고있었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자 두려움부터 앞섰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면이 진행되지 않았다는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것을 암시하는것이였다.

승용차의 차창유리가 소리없이 내려지더니 안에서 낮으나 소름이 돋게 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바클리선생,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서 타십시오.》

어떻게 된 일인가. 자기의 판단이 어방없이 빗나가는 형세를 감득한 바클리는 상전의 전에 없는 호의에 이끌려 차안으로 빨려들어갔다.

2

서상록의 연구소는 호반의 혼성림속에 자리잡은 3층건물이다. 부지면적은 크지 않지만 재능있는 두뇌진을 갖춘것으로 하여 경쟁력을 시위하는 과학연구집단이다. 여기서 에쎈의 첨단제품개발이 준비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서상록은 자기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연구소를 설립한것이라고 주저없이 대답한다. 에쎈은 이 연구소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있지 않지만 과학연구성과들은 공유하고있었다. 이것은 서상록과 지그프리트가 남다른 친분관계를 가지고있기때문이기도 했다.

오늘의 지그프리트는 기업가로서 한때 대학의 후원자로 자처해나선적이 있었는바 그 시절에 서상록은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였다. 바로 그의 두뇌를 높이 사준 사람이 지그프리트였고 성공에로의 첫걸음을 떠밀어주었던것이다.

서상록에 대한 기대가 큰 지그프리트라면 어제날의 은인을 변함없이 존경하는것은 서상록에게는 도리로 되여 그들의 교제는 지금까지 아무런 무

리도 없이 흘렀다.

에쎈이라는 독점체가 서상록의 연구소를 필요로 한다면 서상록 역시 연구경쟁에서 지그프리트의 후원이 요구되였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충분한 자금인것이다.

절제를 생활의 계률로 삼고있는 서상록의 좌우명은 모든것을 의심하는 것이였다. 과학탐구에서 시작된 자신에 대한 이 요구가 오늘에 와서는 인간생활에도 왕왕 적용되는 착오를 범하고있지만 그는 한자도 수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만큼 괴벽하고 고집이 센 인간으로 된것도 성공이 가져다준 교만이였다. 그는 어찌 보면 거만하려고 사는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 자기 특유의 의식에 의한 조종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거만은 그자신이 빚어놓은 개성이나 다름없었다. 서상록이 즐겨 피우는 값비싼 려송연이 그것을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상록은 자신의 과거는 비굴한 운명의 비참한 생활이였다고 락인하였다. 그는 자기가 이루어놓은 오늘의 만족으로 거만해질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자기를 보는 옳바른 눈을 가질수 없게 된 서상록이였다.

연구소의 현관앞에는 폴크스와겐자동차회사의 상표가 붙은 고급승용차가 서있다. 지그프리트가 왔는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에쎈의 큰어른이 왕림했음에도 주인이라고 해야 할 서상록은 황송해하는 기색이란 없었고 특별히 맞이하는 손님들에게만 권하는 솔잎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기업체들의 최근동향에서 주목되는것은 역시 새 제품개발입니다. 개발경쟁은 수중에 인재들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에로 이어지기마련인걸요.》

응접탁 옆자리에 앉은 지그프리트는 벽에 걸린 다 빈치의 명작을 바라보며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지그프리트에게 서상록은 눈길을 돌렸다.

저 사람의 차림새를 보고 누가 대독점체의 거물이라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언제 봐야 수수한 계절옷차림이다. 공식적인 회의나 연회에 참가하는 때를 내놓고는 넥타이를 매는 일이 없는 기업가다. 이 실용주의자는 생활에서도 실용적인것만을 지향하는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는것이 인간의 경제행위라는 론리에 충실한 지그프리트였다. 그것은 이 사람을 이루는 구조이며 움직이는 운동에네르기임을

의심하지 않는 서상록이다.

차탁우에 김이 오르는 차잔이 놓이자 지그프리트는 짐짓 사의를 표시하면서 말했다.

《저 녀자의 웃음은 참으로 매력이 있단 말이요.》

자리에 앉으며 서상록은 명화에는 눈길도 보내지 않은채 응수했다.

《다 빈치의 필치가 아닙니까. 리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보고 또 보며 감상하게 만든다는데 창작가의 의도가 있는거지요.》

지그프리트는 푸른빛이 도는 차물을 한모금 마시고는 향기를 느끼려는 듯 눈을 감았다.

《자네의 이 기교도 괜찮아.》

서상록은 솔잎차를 대접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여서 무심히 들으면서도 심중의 한구석은 무엇에 찔리운것처럼 아파났다. 그의 솜씨는 아버지가 배워준것이다. 그러니 아버지의 한 부분이 자기에게 남아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는 이 순간 미묘한 감성의 파동을 느꼈다.

《유전적인 효과라고 해야 할테지요.》

차잔을 내려놓은 지그프리트가 고개를 돌리였다.

《그런데 말이네. 기업에서도 다 빈치와 같은 효과를 볼수가 없겠는가 하는거네. 남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전략을 세우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걸세.》

서상록은 지그프리트가 어떤 새로운 경영구상을 하고있다는것을 직감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알아낸다는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이 기업계의 거물과 오래동안 친교를 맺고있지만 아는것이 극히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있었다. 튐성이 강한 용수철같은 성격과 기질을 가진 지그프리트의 경영전략은 대담하고 누구도 관심을 돌리지 못하는 방향선택을 과감하게 하는것이였다.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미지의 구상을 이미 하였으며 결심단계에서 이처럼 찾아왔다는 예감이 드는데 아마도 이것은 현실적인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지그프리트는 약간 놀라는 눈빛으로 앞을 주시하다가 한손으로 긴 턱을 움켜쥐며 웃음을 지었다.

《이보라구, 난 자네의 시각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네. 지그프리트라는 인간을 어떤 원소로 보면서 분해하려는건 아닌가? 나로서는 서상록

이라는 인간의 분해방식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돌려왔다는것을 기쁘게 돌이켜보군 한다는걸 잊지 말게.》

서상록은 이 순간 자기가 그토록 돌이키기 싫어하는 과거를 대기업체의 거물이라고 해야 할 사람에게서 감수하게 되는것이 놀랍기만 했다.

게르만족성격의 체현자라고 간주하는 이 사람은 사실상 혼혈종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가 유태인인것으로 하여 너무도 어린 나이에 곡절을 겪은 수난자였다.

악명을 떨친 인종론을 정치리념으로 한 파시즘은 그의 가정을 사정없이 파괴하였다. 유태인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어머니는 막내아들 칼과 함께 오스트랄리아로 추방되였다. 하건만 당시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아버지는 히틀러정권의 강요에 두말없이 복종하여 안해와 결별해나섰고 결국 지그프리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때문에 어머니와 동생과 생리별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참담했던 그 시절을 회고할 때면 지그프리트라는 인간의 눈가에도 이슬이 고이는것을 여러번이나 목격한 서상록이다.

그는 에쎈의 거물이 자기를 찾아온데는 중요한 용건이 있다는것을 다시금 느끼며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다음순간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방안으로 살며시 들어서는 녀자로 하여 저으기 놀란 눈길을 돌렸다. 례의를 모른다고 나무라야 할지, 체신머리가 없다고 탓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지만 지금의 정황은 찾아온 사람만을 질책할수도 없었다.

앞에 선 녀자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모를만큼 경우가 없는 사람도 아니였다.

《아, 싼타나. 오래간만이요.》

반겨주는 지그프리트에게 인사를 보내면서도 녀자는 서상록의 안색을 살피는데 신경을 썼다. 로처녀인 싼타나는 재능이 뛰여난 연구사이며 인재발굴에서 로련하여 지그프리트의 남다른 신임도 받고있는 인물이다.

자리를 권하지만 싼타나는 자기가 지금 찾아오게 된 리유를 선자리에서 설명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그것은 서상록에게 직접 관계되는 비상하다고 해야 할 일이였다.

《싼타나, 덤비지 말고 이야기하오.》

지그프리트는 말머리를 듣자부터 놀라며 싼타나를 진정시키였다. 서상록의 딸이 차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랭철하다고 하는 두 남자를 당황하

게 만들었던것이다.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지만 환자의 상태는 알수 없다고 싼타나는 말했다.

서상록으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였다. 안해를 만나본것이 불과 며칠전이다. 얼마나 단호하게 간섭하지 말것을 선언했던가.

이런 엄청난 사실앞에서 무관심할수는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결심도 없이 그는 싼타나의 이야기만을 들었다.

사고의 경위보다 딸의 지금 상태를 알고싶지만 화제의 방향을 달리하는 녀자의 말을 중단시킬수도 없었다. 싼타나의 설명에서 주목되는것이 있었기때문이다.

딸 서지연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은 다음 그옆에 있는 차수리소에서 차바퀴를 교체하였다고 한다. 그 사실은 싼타나가 현지에서 확인한것이다. 수리공의 손을 거쳐 바꾸어 끼운 차바퀴가 그로부터 한시간도 못되여 차축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는것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로서는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수리공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 인물은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었습니다.》

지그프리트의 눈빛이 날카로와졌다. 흔히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였던것이다. 계획된 범죄라면 그 대상이 한갖 녀대학생인것으로 하여 납득하기 어려웠다. 서지연이 수재라는것을 싼타나를 통하여 이미전부터 알고있었으며 에쎈이 인입하기로 서상록과 밀약을 하였던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추리를 한다면 서지연을 노리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명피해를 노린 사고와 련결시킬 때는 모순되는 점도 없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서상록은 지그프리트의 물음에 황황히 머리를 흔들어댔다.

《살려내야 할텐데… 우리앤 체질이 약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요.》

싼타나의 결심표명에 지그프리트는 저으기 마음을 놓으며 말했다.

《어서 그렇게 하오. 병원측에 전하시오. 에쎈은 모든것을 담보한다고 말이요. 생명을 소생시킬뿐만아니라 원상회복, 내가 요구하는것은 이것이요.》

인사를 한 녀성연구사는 들어올 때처럼 사라졌다.

씨리우스캬바레는 바클리에게 있어서 천당이나 같은 곳이다. 인간의 본성은 향락이라고 간주하는 그여서 저녁이 부르는 소리를 이채로운 선률로 감수하였다. 사람은 저녁을 맞고 즐기기 위해 하루라는 생존경쟁의 파도를 헤치며 마침내는 남은 정력을 소비하기 위해 줄달음쳐가는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 바클리다.

화려한 불빛속에서 나붓기는 치마자락에 휩싸여 마음껏 껴안아볼수 있는 정열에 넘친 허리도 그곳에 있었으며 만족한 약속을 보내는 빨간 입술도 밤을 부르며 무아경을 펼치는 그 장소에 있는것이다. 국회에서 열변을 토한 정객들과 미사려구가 넘쳐나는 문장들을 휘둘러댄 언론계의 신사들이 찾아가는 곳도 다를바없지 않은가.

바클리는 심오한 철학의 세계에 잠긴듯 한 심정을 안고 《씨리우스》라는 별자리의 이름을 가진 캬바레로 가고있다.

래일은 일요일이다. 주말휴식을 할만큼 넉넉한 재정원천도 못 가진 그였기에 지금같은 걸음밖에 할 도리가 없었다. 미국의 서부지역을 개발한 야만적인 사람들의 후손인것으로 하여 바클리에게는 카우보이의 모험적이면서도 탐욕적인 피가 흘렀다. 언제 보나 차림새는 고상하지만 속에 들어찬 궁리란 위험천만한 일감들을 찾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이 허용된다는 자기나름대로의 원리에 충실한 인간이였다.

어둠이 찾아들고 인간세상에 밤이 깃들기 시작하자 환락가의 풍경은 리성을 잃어버린 몸부림으로 차넘치였다.

바클리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으며 캬바레의 2층으로 올라가 당구장을 찾아갔다. 점잖은 차림새의 두사람이 채를 들고 천천히 움직이며 당구알들의 위치를 주시하고있다. 구경군들이 술잔을 들고 시시껄렁한 수작들을 늘어놓다가 바클리가 다가오자 아는체 눈인사를 보냈다.

《자네가 오늘 나와 겨루어볼텐가?》

청바지를 입은 사나이가 자기는 상대가 안된다고 손을 내흔들며 카운터쪽으로 사라져버리자 바클리는 어깨를 으쓱하고나서 승패를 겨루는 두사람가운데 서며 판우에 놓인 당구알들을 보고는 두손을 벌려보이고나서 한숨을 내쉬였다.

《한심하기란, 이런 유치한 놀이도 있는가.》

한껏 비웃어대는 그 소리에 화가 났는지 흰 당구알이 딱소리를 내며 굴러가더니 명중을 못한채 맥을 잃고 멎어버린다. 채를 잡았던 붉은 수

염을 더부룩이 기른 중년사나이가 열적게 웃으며 상대에게 졌다는 인사를 보내고나서 물러났다.

새로운 도전자로 들어선 바클리는 상대를 연거퍼 세번이나 이김으로써 기세가 올랐던 사나이에게 패배의 상심을 안겨주고는 희색이 만면하여 박수까지 쳐댔다.

접대원이 가져온 위스키를 마신 그는 득의양양한 눈길을 휘둘렀다. 적수가 없는 빈 당구대앞에 홀로 서있던 바클리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채를 내밀며 허리를 구부렸다. 상아로 만든 공을 조준한채 타격이 아니라 사색을 집중했다.

상급은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차례지는 일감들이란 하나같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것들이였다. 이번에는 에쎈의 내부를 깊이 료해하라는 지령인데 이야말로 아리숭하기 이를데없는 놀음이다.

에쎈이라는 대기업체의 골격구조를 파헤쳐본다는것이 자기로서는 힘에 부친데다 이런 일이 무엇에 필요한가 하는것이였다. 함축된 지령의 내용에 에쎈의 급소부위를 찾으라는 문구가 있기에 골몰하고있다.

어떤 타격을 하려는것일가. 노리는것은 무엇인가. 설사 에쎈의 급소라는것을 찾는다 해도 어지간한 타격으로써는 넘어뜨리기 어려울것이다.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바클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묘준한 당구알을 향해 채끝을 박았다. 그의 내심처럼 충격을 받고 굴러가던 알이 대각선방향의 홈에도 이르지 못하고 멎어버렸다. 그는 자기의 상전들이 왕왕 이루지 못할 욕심을 앞세우며 애꿎은 아래것들만 몰아대는것이 여간만 불만스럽지 않았다.

당구채를 한손에 쥔채 마시다만 술잔을 집어든 그는 화풀이나 하듯 입안으로 부어넣었다.

그 순간 뇌리에서는 비행장에서 본 명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의혹은 흘러가버린 시간속으로 후진하였다. 지그프리트가 평양행을 한것이 아닐가 했던 의문이 다시 떠오르면서 상급이 준 임무와 함께 어떤 의미를 서서히 새기는듯 했다.

조선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압박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외활동을 벌릴수도 있다. 그들이 에쎈과의 어떤 교류를 위하여 지그프리트를 평양으로 초청했을수도 있지 않는가.

그는 자기의 가설에 현훈 같은것을 느꼈다. 상전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바클리였던것이다. 그가 교묘하게 위장하고 국제인도주의단체에 스며들어 여러차례 조선을 래왕한것은 정보수집을 목적한것이였다.

동방의 사회주의보루로 남아있는 이 나라를 고립압살하려는것은 미국과 서방이 노리는 목적이다. 수십년동안 제재와 봉쇄속에서 살아오는 그 나라는 오늘도 의연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며 국제무대에서 존엄을 떨치고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미국의 전략수뇌부에 들어앉아있다는 얼간이들은 조선을 너무도 모르면서 그 무슨 대조선정책이라는것을 작성하고있는것이다.

바보들이야, 그 자리를 나한테 며칠만 빌려준다면 허황한 개꿈을 꾸지 않고 흥청거려보련만…

바클리의 사색은 이렇게 자기의 본능에 따라 왕왕 헝클어져나가기도 했다.

그는 지금 상전의 지령이 무엇을 노리는가를 어렴풋이 알수 있지만 그 이상 머리를 쓰기가 싫었다. 생활에 대한 남다른 욕망은 항시 돈을 추구했으며 그것에 집념하는것은 어느덧 기질로 되였다.

알아보라니 에쎈에 대해 관심을 해야지, 뭐 어려울거나 있는가.

지그프리트에게 여러번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불만스럽지만 해당한 보수를 받아온 그여서 속으로 이렇게 코방귀를 뀌였다. 이제 뼈심을 들이면 상전이 던져주는 돈도 괜찮을거라고 생각하며 슬금슬금 카운터에 다가갔다. 카운터에 비스듬히 기대여 선 번대머리가 음악에 맞춰 코노래를 불러대고있다.

《저 녀자가 누군가?》

바클리가 묻는데 돌아보지도 않으며 흥흥거려댄다.

《멜라니 샤프킨이네. 잘 질러대거던. 구미가 동하나?》

《아무렴, 찾아주게나. 오늘 밤 내가 잘 길들여주지.》

《흐흐, 저기에 있지 않나.》

번대머리가 음향설비의 소리통을 가리키자 바클리는 마치 옛 지기를 만나기라도 한듯 목을 그러안으며 살집이 넉넉한 그의 볼주머니에 대고 입까지 맞추었다.

《비게덩어리같은게, 너같이 건달을 부리고도 살아갈수 있으니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하구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바클리의 사나운 목소리에 번대머리가 살진 턱을 돌리는데 기가 죽은게 알렸다. 머리털과 함께 눈섭까지 빠져나간 상통이 섬찍한 인상을 주었다.

바클리는 품안에서 사진을 한장 꺼내여 내주고는 탁우에 놓인 술잔에 발그스레한 액체를 소리내여 붓고나서 재빛수염을 쓸어올리며 마시였다.

《이 사람은?… 아는가?》

《압지요, 국회의원나립지요.》

《그놈이 주둥일 다물게 해줘야겠네.》

번대머리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다.

《아주 봉합해버리란 말씀입니까?》

《그놈이 재잘거리는게 싫다누만. 사흘내로 해제껴야 해. 그리구 일한 뒤는 네 머리처럼 깨끗해야 한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너희들이 요즘 일감이 없어 궁색하다기에 도와주자는게다.》

《흐흐흐, 아닌게 아니라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우리야 피를 먹어야 사는 초인간들이 아니나요. 히히…》

지옥의 사자같은 상통을 돌리던 바클리는 마주 오는 젊은 녀자를 발견하고나서 기다리고나 있은것처럼 이름을 불렀다. 류다른 저녁상봉의 열기를 내뿜으며 두사람이 한덩어리로 녹아붙는 광경을 바라보는 번대머리의 눈에서 살기가 번쩍거렸다.

쌍드는 법률상담소에서 일하는 국제법전문가이다. 처녀시절에 발레무용수로 빠리의 극장들에서 명성을 날렸다는 경력을 가진 이 녀자는 중년기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률동적인 자태와 미모로 하여 사교계의 시선을 모으는 대상이였다.

쌍드는 오늘도 시간을 내여 병원을 찾았다. 자기가 구원해준 환자에게 진정을 기울이는 녀자다. 다행히도 사고현장에서 걱정한것보다 환자의 상태가 엄중하지는 않았다. 뇌타박이 경하였기에 인차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한쪽팔이 골절되였을뿐이다.

처녀는 생명의 은인이나 같은 쌍드가 찾아올 때면 무척 반가와하였고 진심어린 고마움을 표시했다. 나이가 애젊어서인지 환자는 닷새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까지 했다. 그때 쌍드의 기쁨은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정말 용쿠나. 세상에 이런 다행스러운 일도 있을가.》

처녀를 품에 꼭 껴안은 쌍드는 조심스럽게 잔등을 두드려주며 목메여 말했다.

《고마와요, 전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못할거예요.》

《지연인 마음씨도 얼굴처럼 곱구나.》

쌍드는 처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발레무용수였던 자기는 갈색머리로 염색을 하지만 처녀는 자기의 순정을 고이 간직하려는듯 윤택을 가진 흑발이다. 머리카락과 눈동자와 대조를 이루는 희고 갸름한 얼굴과 침착하게 다물려있는 입매는 무척 리지적이였다.

쌍드가 대상하여보니 이 처녀는 명문대학의 졸업학년에 이른 수재였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학년을 뛰여넘어 21살 나이에 졸업론문을 완성하고있다니 쌍드는 더욱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것이다.

《어머니, 선생님이 오셨어요.》

젊음이라는 꽃망울너머에서 고개를 숙여보이는 한 녀인의 정숙한 자태를 맞이한 쌍드는 탄력있는 걸음으로 마주 다가가서 두손을 꼭 잡았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것도 인연인가 봅니다. 쌍드라고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정동녀랍니다.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있어도 단아한 용모를 간직한 녀인과 마주한 쌍드는 시종 미소를 거두지 못했다. 초면이지만 자기로서는 이미전부터 잘 아는 상대를 마주했다는것을 알고있기에 마음은 마냥 설레였다. 인간은 목적을 가진 존재이다. 하기에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숨겨져있는것이 아닌가.

그는 이 자리에서 서상록이라는 사나이의 모습을 떠올리는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지연은 한손만을 가지고도 재빨리 두 녀인의 사이에 차잔을 놓았다. 그리고는 쌍드의 얼굴과 몸가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며 자못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이야기가 오고가자 두사람은 성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선지 구속이 없이 녀성들만이 나눌수 있는 화제를 올리고는 자기들의 견해를 주고받았다. 녀자들이란 어찌 보면 근심을 안고 사는 존재들인지도 모른다. 살림살이걱정, 자식걱정… 이것저것 근심걱정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것이 녀자들인것 같다.

쌍드는 정동녀의 심리에서 고생스럽게 키워온 딸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느낄수 있었다. 지나치게 똑똑한 자식이 속을 더 썩인다는 말속에 스민

의미를 새기자 서지연을 넘겨다보았다. 어머니가 낳은 딸이지만 닮은것보다 자기 개성을 뚜렷하게 가지고있는 지연이였다.

20대에 들어선 이 처녀의 내면세계를 다 읽는다는것은 불가능했다. 얼마나 꿈이 많을텐가. 게다가 명문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수재다. 이쯤한 인물이면 매혹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지연이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거예요. 걱정할건 없어요. 이건 별의별 운명의 곡절을 다 겪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거랍니다.》

쌍드의 그 말에 정동녀는 어머니로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행운을 바라는것은 사람의 심리적현상이다. 이런것이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되여 그림자처럼 일생 따라다니는것이 아닌가.

서지연은 쌍드의 인생사를 흥미있는 소설에 심취되듯 들었다. 성공한 발레무용수의 명성우에는 꽃보라만 날린것이 아니였다. 허영과 탐욕의 세계에는 사랑의 배신자들이 너무도 많았다. 실련으로 이어진 고통의 련속은 몇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게 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한 쌍드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녀자는 한번 길을 헛들면 자기의 인생궤도를 수정하기 힘들다. 하기에 옳은 결심을 내려야 하고 목적을 향해 두렴없이 걸을줄 알아야 한다는거야. 난 지연일 믿는다. 어머니를 걱정시키면 안돼. 다 큰 총명한 처녀가 아니니.》

쌍드의 속눈섭 한귀퉁이에 맺힌 이슬이 진심을 말해주는듯싶었다. 그는 자기의 과거속에서 헤여나오지 못하면서도 곡진하게 타이르고있었던것이다. 그의 말과 행동은 자리를 같이한 어머니와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하였다.

《쌍드, 정말 고마워요.》

정동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하며 허리숙여 감사를 표시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지금처럼 공경의 마음을 지녀본적 없는 녀자였다. 랭철하다고 해야 할 심장에 파렬구가 형성된것이다.

서지연은 어머니의 있어본적 없는 행동에 자못 놀라면서도 그것이 싫지 않은지 조용히 미소를 날리였다.

3

에쎈구락부는 지그프리트가 설립한 사교장이다. 대규모회사의 리사장들, 은행거두들과 대재벌의 두뇌진을 이루는 인물들, 과학적발명의 능수등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드는 장소라고 하지만 정부의 관리들, 장성들과 무기장사군들까지 이따금 자태를 드러내는가 하면 냄새를 잘 맡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에 급급한 기자들도 기회를 보다가 어김없이 나타나 돌아치는 곳이 에쎈구락부다. 소문난 곳에 이야기거리가 많기마련이고 흥성거리는 속에서 밀월이 이루어지며 엄청난것들이 흥정되고 거래되는것이다. 한마디로 정보의 류통장소였다.

어느 한 국가의 예산에 대한 흑막, 무역분쟁이 예견되는 지역과 회사들, 보이지 않는 연구개발팀들의 움직임과 성과, 시장의 이전과 규모, 원료원천지에 대한 쟁탈전과 로동력시장의 추이…

지그프리트는 자기의 사교구락부에서 이와 같은 심대한 문제들이 론의되기를 바라며 그속에서 정보원천을 손쉽게 획득하는데 만족을 느끼고있었다.

하여 에쎈구락부는 사교장으로서 갖춤새를 부단히 개선하며 가치있는 손님들에게 최상의 봉사를 하기 위해 성의를 다하는것이다. 구락부의 내부는 아치형의 무수한 곡선들로 조형적인 미를 갖추고있었으며 무도장이자 큰 연회도 차릴수 있는 홀들이 여러개나 되였고 고객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방들과 음료매대들, 당구장과 각이한 용도에 쓰이는 휴식터와 임의의 시각에 지구상의 어디나 찾을수 있는 통신설비들과 주식시세를 알수 있는 수단들을 흠잡을데 없이 갖추고있다. 방들과 홀, 복도들이 개방되여있지만 용도에 맞게 설계되여있기때문에 불필요한 음향의 지장을 받지 않았다.

딸의 신상에서 생긴 사고로 하여 마음을 써온 서상록은 오늘 에쎈구락부를 찾았다. 그는 여기에 와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는것이 외계와의 유일한 접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서는 폐쇄적인 사람이다.

2층로대에 자리를 잡은 상록은 커피를 청하고는 침울한 사색을 이어나갔다. 싼타나의 말에 의하면 지그프리트가 딸이 입원한 병원에 두차례

나 전화를 했다는것이다. 누구에게나 베푸는 호의가 아님을 상록은 잘 알고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였으니 마음은 놓이지만 불안은 가셔지지 않았다.

딸은 안해의 수중에 있는것이나 다름없다. 아버지이면서도 자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수 없는것이 자기였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가정, 해체된것이나 다름없는 이른바 가정은 안해라는 녀자의 매정으로 하여 언제 무슨 일을 초래할지 모를 지경으로 다가가고있지 않는가. 남편에게 불간섭을 요구하며 10년이 넘도록 뻗쳐오는 녀자와 자유로운 생활을 부여받았음에도 가정의 구속을 받고있는 남자와의 사이에는 깊이를 알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있었다.

서상록이라는 인간의 집요성은 직업적으로 형성된 성격이나 같았다. 그는 언제건 안해와 딸이 자기의 의사대로 움직이게 되리라는것을 믿고있었다. 물질분해처럼 바라는대로 되는 일이 아닌 생활이라는데 대해 그는 리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서상록에게로 상냥한 미소를 지은 접대원이 다가와 커피와 함께 석간신문 한부를 놓아주고는 조용히 물러갔다. 김발이 감도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던 상록은 신문에 눈길을 뚝 멈추었다.

명현의 담담하면서도 예리한 얼굴이 자기를 올려다보고있었던것이다. 도바해협을 건너간 후 영국에서 살고있는데 지금껏 소식을 모르고 산 옛지기였다.

《자넨 물질세계만이 아니라 인간세계에도 마땅히 시선을 돌려야 하네.》

상록은 먼곳에서 들려오는 친우의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명현은 대학시절에 사귄 벗이다.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적극적인것이 명현의 우점이라면 상록은 스스로 인정할만큼 소극적이였다.

서상록이 우울질이라면 명현은 다혈질에 가까왔는데 두사람에게서 공통성은 찾기 어려웠지만 친근하게 지내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명현은 상록의 뛰여난 두뇌를 무척 사랑하였다. 특히 탐구에서 독창성을 발견하고는 너는 네것을 꼭 이루고말거야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고 성격처럼 적극적으로 떠밀어주었다. 외로움에 시달리며 살아온 상록에게는 친우의 고무가 큰 힘으로 되였다.

상록의 대학졸업론문이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것을 알고 명현은 너무 기뻐서 그의 손을 잡고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우린 어디서 살건 조선사람이네. 자넨 이걸 잊지 말아야 해.》

자기의 실력으로 성공이라는 주로에 들어서게 된 상록은 그때 명현이 한 말을 새겨듣지 않았다. 학문을 탐구하는 두사람이지만 인생관에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

과학, 그것은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개인의 공로라고 확신하는 상록과 명현의 리상은 같을수 없었다.

서상록은 신문의 기사를 흥심없이 읽어내려갔다. 명현은 자기의 모교가 자리잡고있는 이 도시에서의 체류일정을 언급하고는 기자들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세계는 많은 고민을 안고있습니다. 파국적인 재난과 도전들이 민족들과 국가들을 위협하고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얼을 잃으면 머저리가 되듯이 나라와 민족도 자기의 넋을 버리면 기필코 망하게 된다는것도 우리는 자기의 눈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현의 발언내용을 내려다보며 서상록은 어떤 불만을 안고 중얼댔다.

《반복되는 소리거던.》

서상록의 자기식사유기관이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나간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고민은 있었으며 재난과 재앙은 존재했다.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도시국가를 함락했는가 하면 그칠새 없는 전쟁으로 나라들의 국경선들이 다시 그어졌다. 민족들이 사멸동화되여갔지만 지구는 오늘도 돌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이 누구의탓인가. 인간은 자기가 빚어놓은 화근으로 오늘까지 고민하고있지만 숙명처럼 감수하는것이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변이 날것처럼 떠들지만 하늘이 무너져내린적은 한번도 없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자연의 법칙만이 진리라는것을 명현이, 자넨 인식해야 하네. 누굴 가르치려고만 할게 아니라 배워야 해.

서상록은 저 멀리 바라보이는 추억의 오솔길에 들어섰다.

…강반에서는 저녁바람이 불어오고 저무는 석양빛은 두사람의 그림자를 풀섶에 길게 드리우고있었다.

그날 저녁에 두사람사이에 주장이랄지 리념이랄지 견해상충돌이 일어났다.

《상록, 난 자네가 자기의 지식을 민족을 위해 바치기를 바라네.》

《그 무엇에 바치는 지식을 나는 원치 않네.》

《자본의 노예가 되려나?》

《경제학전문가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테지. …》

《공학도 과학의 한 부분이라는걸 알게.》

《나에겐 현실적인것이 필요하네. 당면하게는 학계에서의 지위, 훌륭한 실험조건, 더 나아가서는 나의 연구소… 이것이 나의 인생설계네.》

《천재적인 두뇌도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는것을 알게 될걸세.》

명현은 자못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후 그들은 제네바에서 다시 만났다. 국제학술토론회장에서…

서상록은 깊은 상념에 빠져드는듯싶었지만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사교장이라고 해야 할 구락부에 지그프리트가 나타난것이다. 자기가 설립한 건물이지만 이곳에는 좀해서 출입하지 않는 그였다. 그가 바라는 각종 기업정보들을 제공해줄 사람들은 많았던것이다.

에쎈의 거물이 출현한것으로 하여 놀란 눈길들이 모여들고 기자들까지 뒤따르며 연방 질문을 해대는것이 보인다.

서상록은 금시초문인 소리로 해서 귀가 멍멍해났고 형언할수 없는 의혹과 불만이 가슴속에서 머리를 쳐들고있었다.

지그프리트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 명명백백한 사실로 하여 상록은 정신을 수습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기업계의 파문을 일으킬 사변적인 행동인것이 틀림없다.

하여 에쎈구락부가 놀라서 움씰거리고 신문쟁이들은 부산을 피우지 못해 저렇게 서둘러대는것이다.

자기앞으로 모여드는 마이크들앞에서 지그프리트는 태연하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로회한 저 늙은이는 이 모든 정황을 예견하고 나타났을것이다.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라는것을 서상록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지그프리트는 서슴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

《나는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을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계획에 따른것입니다. 나는 정치가는 아니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리익을 주는데서는 린색합니다. 앞을 멀리 내다볼줄 모르면 고배를 마셔야 한다는것쯤은 알고있습니다. 에쎈에 대해 걱정해주는 친절한 마음들에 안심할것을 권고하는바입니다.》

짤막하지만 명백한 대답을 준 지그프리트는 한손을 내젓고나서 들어서던 걸음보다 더 침착하게 자취를 감추었다.

많은 질문을 들이대려던 기자들이 맥없이 돌아서는 모양을 눈에 담은채 상록은 생각했다.

자기의 연구소를 찾았던 지그프리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새로운 경영방향을 모색하고 의논하러 왔지만 자기 딸의 신상에서 생긴 뜻밖의 일로 하여 화제에 올리지 못했음을 알수 있었다. 하건만 마음은 허무감에 빠져들어갔다.

지그프리트가 평양에 가든 에쎈이 어떤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우든 무슨 상관인가 하는 방심을 가지려고 했지만 심리는 이상할만큼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어디에 기인된 불안인지 자기도 알수 없었다.

지그프리트가 사라지자 사교장은 자기의 모습을 되찾았다. 음악이 울려나오고 선률에 맞춘 률동의 물결이 조용히 흘렀다.

높이 들린 술잔들, 만족스러운 웃음소리, 자기들대로 목적한 대화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자못 은밀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어느덧 술잔을 든 사나이들이 헤염쳐다니는것이 보인다. 물질적인 만족이 넘쳐나는것이다. 도취의 흥분, 폭발전야에 이른 무분별한 열정, 자극적인 교태와 무엇인가를 부르는듯 한 웃음소리…

떠밀리운듯 자리에서 황황히 일어난 서상록은 걸음을 옮기다가 자기를 찾는 어떤 녀성의 목소리를 듣고서 고개를 기웃이 돌리였다.

차잔 한개만을 놓고 홀로 앉아있던 녀자가 반갑다고 손을 쳐들어보이며 살래살래 흔든다. 쌍드였다.

상록은 녀자쪽으로 무심히 걸음을 옮겼다.

《오랜만이예요, 선생님.》

쌍드가 권하는 자리에 앉은 상록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방금 발언을 들었겠는데 어떤 빛발치는 글을 쓰려고 하는지요?》

쌍드는 법률상담소에 몸을 담고있지만 자유기고자로서도 인기를 모으는 녀자였다.

《천재의 시선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흥미있어요. 저 늙으신 에쎈의 주인령감이 말이예요. 탐방길에 오르시다니. 절제의 본보기인 도이췰란드인이 모험을 하는것 같아요. 하지만 흥미가 있고 대변자가 되고싶은 마음을 진정할길 없군요.》

쌍드에게서는 자유분방함이 넘쳐났다. 한물진 나이이기는 하지만 련애편력기를 쓸만 한 경력을 갖춘 녀자의 지금의 자세와 감정은 계선을 넘어서고있다는것이 알렸다.

《에쎈의 대변인이라도 되고싶은가요?》

시무룩이 묻는 상록을 넘겨다보며 녀자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오늘 이 순간부터예요. 그렇다고 에쎈의 돈주머니를 넘겨다볼만큼 가난하지 않다는것만은 알아주세요.》

이 녀자는 한마디로 말할 멋이 있고 사귈만 한 상대라고 여기는 서상록이다. 처녀시절 발레무용수로 빠리를 진감시키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내들이 울며 버림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랑설인지 정설인지 모를 풍문을 헤치며 쌍드라는 녀성은 자기의 세계에서 사는것이다. 한마디로 지성적인 매력을 소유한 녀자인것으로 하여 남자들의 시선을 오늘도 모으고있었다.

《언론의 시정배가 아니라는것만은 알고있지요.》

쌍드는 상록의 그 말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고마와요. 나의 한쪼각이나마 리해해주시니 말이예요.》

녀자의 입김은 봄바람같았고 신선한감을 자아내는 목소리에는 애정의 물결이 흘렀다.

《내가 한발 늦었군. 나를 무척 기다렸을텐데.》

두사람에게로 청하지 않은 사나이가 다가오며 비위살좋은 인사말을 하여 눈길을 돌리게 하였다. 잘 다듬은 재빛수염을 가진 능청스러운 남자의 출현으로 분위기는 달라졌다.

서상록은 이 사람을 잘 안다. 자기와 교제가 있는 정보제공자이며 국제인도주의단체의 한 성원으로 활약하는 바클리였다.

바클리는 손짓으로 접대원을 불러 위스키를 청하고서야 자리를 잡았다.

《아프리카의 적도이남지역에서는 기아로 수십만명이 죽음의 계선에 이르렀는데 여기선 하느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도 꺼리낌없이 자행하고 있군요. 최후의 심판조차 두렵지들 않으니 이보다 더한 패덕행위는 없을 겁니다.》

바클리는 나름대로의 론리에 충실한 언변을 자랑하며 생각나는대로 아무 말이나 주어섬겨댔다.

두손바닥을 마주 붙인 쌍드는 자리에 끼여든 불청객을 흥미있게 바라보았고 상록은 이 사람이 자기를 만나자고 나타났을것이라는 예측을 하

였다.

《멋있어요! 바클리씨, 목사가 설교를 하는것만 같아요.》

《당신의 비유를 환영합니다. 나와 같은 목사들은 너무도 많거든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쓴 글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인권을 옹호하라고 신문을 통하여 기염을 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비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배가죽밑에 붙어있는 비게덩이를 가난구제에 돌리려고 할가요? 억만장자는 기업파산으로 자살의 길을 택하면서도 황금만은 무덤속으로 가져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물어보십시오. 저 에쎈의 로구에게 말입니다. 이젠 망령든짓도 가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배부른자들의 세상이거든요. 위스키가 나왔습니다. 박애와 평등, 우애를 위해 듭시다.》

정신을 못 차리게 멀미를 몰아온 바클리가 국가연회장에 나타난 대통령마냥 숙연한 표정을 지으며 잔을 쳐들었다가 상대들이 반응이 없자 상우에 놓인 잔들에 찧고나서 흡족한 기분으로 마시였다. 이 어리광대같은 사나이는 부산을 피워대면서도 상록의쪽에 몸을 기울이며 쌍드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재빨리 하면서 무엇인가를 암시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있다. 어둠속에서도 잠들지 못하는 도시의 밤풍경을 마주한 명현은 자기의 기분상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메마르고 건조한가 하면 지중해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 들어서면 높아진 습도가 지속되면서 끈적끈적한것이 참기 어려운 도시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가 안겨주는 저기압이 마치 진공지대같이 느끼게 했다. 그는 이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였다. 리기적인 목적밑에 랭정한 타산만이 존재하는 학계도 명현에게는 산소부족증을 가져다주군 하였다.

흐느적거리며 내리는 비줄기속의 장식등불빛을 바라보며 명현은 조용히 휘파람을 불었다. 그것은 시각적인 자극과는 다른 심리의 반응이였다. 마음은 그지없이 평온하고 지어는 즐겁기까지 했다. 그의 심중은 지금 먼곳에 가있었다.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논벌, 모내는기계들의 동음이 노래가락처럼 울리고 처녀들의 머리에서 꽃수건이 휘날렸다. 파아란 하늘에선 새들이 청맑은 소리로 지저귀였으며 풀빛짙은 동뚝에서는 염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있었다.

지금도 뭉클 가슴을 치는 내 겨레의 땅, 조국의 대지였다.

명현은 이번 조국방문길에 농촌에도 나가보았다. 어딜 가나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로 하여 마음은 한피줄이라는것이 바로 이런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다.

그는 지금도 모춤을 함께 나르던 녀성관리위원장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는 자그마한 가식도 없이 자기 농장의 실태와 살림살이형편을 들려주었다.

《저기 할머니 한분이 보이시지요? 년세가 칠십을 넘겼는데도 이렇게 바쁜 농사철엔 벌에 나와서 우리들의 일손을 도와주신답니다. 한뉘 이 농장을 위해 일하신 할머니예요.》

관리위원장이 알려준 할머니의 이름은 유복남이였다. 해방후에 남편, 자식과 생리별을 하고 혈육을 기다리며 청춘과 한생을 이 땅에 묻은 녀인이였다.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이 농장에 배치받아온것은 복남어머니의 곁에서 딸자식구실을 하고싶어서였어요. 하건만 자식구실은 고사하고 지금도 저렇게 일하면서 우릴 도와주신답니다. 성미가 얼마나 올곧은지 이 관리위원장도 일본새가 그르면 가차없지요. 온 농장이 존경하는분이랍니다. 제 나이또래의 사람들은 다 저 어머니의 자식이나 같거든요.》

남다른 인생을 살았기에 고생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녀성, 하건만 다난했던 운명의 곡절을 주저를 모르고 이겨냈으며 그 인생이 배워준것인지 강직하였고 대바르게 살아왔다. 가슴속에 피눈물을 채우고도 그늘진 얼굴을 내보이는것을 싫어했으며 옳은 일에는 언제나 앞장에 섰다. 협동조합에서 잠업을 시작하였을 때는 처녀들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 가둑누에를 쳤다.

잠업은 조합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해주었고 집집의 분배몫도 늘어나게 하였다. 모범농민으로 중앙의 회의들에 참가했고 토론까지 하여 이름났던 할머니다. 전쟁시기 미군의 폭격에 딸마저 잃은 홀몸이여서 집에 있기가 고적하여 늘 누에와 살다싶이 했다. 그때는 잠업반장이였다.

관리위원장은 자기가 처녀대학생시절에 할머니를 알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지금은 옛말처럼 되였지만 모내는기계를 도입하던 첫 시기에는 실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다. 농사로 한생을 살아 하늘만 쳐다보고도 제고장 날씨를 알아맞히는 실농군아바이들이 논두렁에 서서 두팔을 벌리고 모내

는기계가 들어서는것을 막아나섰다.

농사를 망치려고드느냐, 좋은 세상을 만나 하도 편안하니 허리를 구부리고 모를 내는 일까지 하기 싫어 써레를 친 논에 기젠지 뭔지 하는 쇠붙이를 끌어들이느냐고 야단을 쳐댔다. 벼모내는 일을 기계화하기 위한 사업은 당시만 해도 농기계공장들에서 만들어보낸 기계들의 성능이 그리 높지 못한것으로 하여 농촌의 경험주의자들과 고집센 사람들의 도전에 부딪쳤다.

농촌지원을 나온 대학생들은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기어이 모내는기계를 완성할 결심을 했다. 그래서 깊은 밤에 결함을 퇴치한 모내는기계의 시운전을 몰래 하는것으로 계획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장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당부하였다.

《원, 별일 다 보겠다. 무슨 못할 일을 한다구 사람들 눈을 피해 하겠나.》

《야, 어머닌 잘 모르시네. 우물집아바이는 가래장을 휘두르며 논판에 기젠지 한걸 끌어들이는것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단했어요. 어머니, 제발 모르시는척만 해주세요.》

《허허, 눈에 보이는것만 같구나. 왜가리목을 하고 발을 굴러대는게.》

식사를 마치자 대학생들은 밤중에도 누에칸에 나가봐야 한다는 어머니와 집대문앞에서 헤여졌다.

밤이 퍽 깊어서 기계를 날라간 그들은 발동이 안 걸려 애를 먹다가 겨우 움직여 벼모를 꽂아보았는데 또 실패였다. 제대로 꽂아지지 않아 모들이 물에 떠다니고 뿌리가 아니라 허리가 꽂힌것들도 있었다.

일이 이쯤되였을 때 논판으로 달려온 우물집아바이로 하여 야밤에 소동이 일어났다. 써레친 논을 발로 굴러대여 흙물이 대학생들의 얼굴에 사정없이 휘뿌려졌다. 성미가 여간만 괴벽하지 않은 실농군은 금시 풍이라도 만나 논판에 쓰러지기라도 할듯이 덜덜 떨어대며 고함을 질렀다.

《썩 나가라! 말귀도 가려듣지 못하는것들아. 너희들은 이제 도회루 가면 되지만 우린 어쩌라는거냐? 농사라는게 허리 구부리고 하는 일인줄 몰랐니. 이 뼈심 아까운것만 아는것들아. …》

참으로 억울하기 이를데없는 욕을 먹어야 하는것이다. 효자노릇도 받아줘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생겨났는지 모른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일을 헐하게 하게 하려고 애쓰건만 봉변을 당했다. 시운전이 실패한 상처우

에 뿌려주는 소금이나 같았다.

그때 나타나준것이 어머니였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달려왔던것이다.

《엊저녁에 선밥이라두 자셨수. 곱지 못한 소리를 지르니 말이예요. 고된 농사법을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 속이 시원하겠냐 말이예요. 낡아빠진 경험주의보따리는 제 집안 농안에나 건사하시라구요. 밤잠 못 자며 애쓰는 젊은이들이 보이질 않수?!》

《누에번데기나 살필게지 남의 논에는 왜 나타나 역성을 드는거요? 여긴 우리 분조 논이야!》

어머니는 논판에 들어서서 우물집아바이앞에 마주섰다.

《모내기를 기계화하는건 우리 당정책이요. 그래 동무네 분조논은 나라밖의 땅이요? 숱한 지원로력들이 제일들을 못하고 농사를 짓게 만드는게 부끄럽지도 않으시우. 정 소리를 지르고싶으면 래일 리당에서 만나자구요! 그때 내 동무 체면을 봐줘서 지금껏 하지 못한 말을 다해줄테니 말이예요.》

논판에서 쫓겨나는가 했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줬기에 우물집아바이가 후줄근하여 사라졌다. 그날 밤 모내는기계의 결함을 찾아냈다.

다음날로 관리위원장은 모내는기계의 결함을 퇴치하기 위해 읍에 있는 농기계작업소에 갔다. 그곳 기술자들과 토론하여 부속품을 새로 제작하여가지고 해질무렵이 되여서야 길을 떠났다고 한다.

농장까지는 30리길인데 오가는 차들이 없어 혼자 걸을수밖에 없었다. 장고개라고 부르는 령길밑에 이르니 어둠이 사위를 뒤덮었다. 농기계작업소 일군들이 하루밤 쉬고 가라고 할 때 뿌리친것이 뒤늦게야 후회되였다.

한적하기 이를데없는 고개길을 혼자서 넘자니 겁이 앞섰던것이다. 높지는 않아도 장고개라는 이름처럼 구불구불 뻗은것이 십리 가까운 령길이였다.

우거진 수림에서는 누기진 바람이 소리를 치며 불어왔고 밤새들이 날개를 칠 때면 소름이 끼쳤다. 무섬증이 앞서니 뒤에서 뭔가 어슬렁거리며 따라서는것만 같았고 정신없이 걸음을 다그치느라면 앞에서 팔을 벌린 키큰 나무가 두억시니처럼 맞아주어 비명을 지르기까지 했다.

이제라도 돌아서서 읍으로 갈가 생각했지만 래일은 모내는기계를 논판에 들여세워야만 했다. 사람들이 기계로 모를 내는것을 봐야 확신을 가질것이고 그래야 자기 일로 받아들일것이다.

얼마나 드바쁜 농사철인가. 모내기적기를 놓치면 안된다. 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는 말이 왜 생겼겠는가. 가야 한다. 무섭긴…

용기를 내여 걷는 걸음이지만 령길이 깊어갈수록 온몸은 한줌으로 졸아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숲속에서 캥캥 짖어대는 소리가 나더니 서너걸음앞으로 두눈에 시퍼런 불을 단 짐승 한마리가 길을 가로지르며 지나가자 그는 저도 모르게 울음소리를 내며 폴싹 주저앉고말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더는 걸어낼 자신이 없어지자 정신없이 소리를 쳐댔다.

《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

애원에 뒤따르는것은 수림의 울부짖음이고 환각에 사로잡힌 귀에서는 가려듣기 어려운 음향이 뒤섞여 울리면서 공포만을 더해주었다.

《대학생체네! …어디 있니?》

바람소리를 타고 들려오는 그 소리에 관리위원장은 비명을 질렀다. 사람의 목소리같지 않은데다 자기를 찾는것 같기에 더욱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옳구나, 우리 대학생체네가…》

고개길로 내려오는 다급한 소리에 《누구예요?》 하고 외마디소리를 지른 그는 도망이라도 칠듯이 몸을 돌리다 굳어지고말았다. 마중나온 사람이 어머니임을 확인했던것이다. 농장 잠업반장으로서 유복남이라는 남자이름을 가진 이 녀인은 성미가 올곧고 불같아 뒤에서는 오십대의 나이인데도 범로친네라는 별명까지 붙여서 불렀다.

《어…머…니…》

《읍에서 묵고 온다고들 하길래 난 곧이듣지를 않았다. 내가 너희들의 성미를 몰라서…》

관리위원장은 너무도 다행스럽고 고마와 어머니품에 와락 매달리듯 안겼다.

《원, 이런. 온통 땀으로 적셨구나. 혼자서 오기가 무섭지 않던?》

《무섭긴요. 내가 얼마나 용감하다구…》

제법 허세를 부리는 처녀대학생이 무척 대견했던지 유복남은 허허 웃고나서 이 고개엔 늑대가 나타나군 한다고 말하여 놀래웠다.

《늑대면 승냥이란 소린가요?》

《왜 겁이 나니? 승냥이보다는 이만큼이나 큰 사나운 짐승이야.》

《어마나!…》

그가 기겁한 소리를 내며 팔을 끼자 유복남은 《이 겁쟁이야, 배는 얼마나 고프겠니. 이거라도 먹으면서 걷거라.》 하며 들고 온 보자기에서 겨울난 삶은 고구마를 쥐여주었다.

무섬증이 물러서니 허기증이 달라붙는건가. 껍질도 바로 벗기지 않은채로 먹어대니 목이 멜수밖에 없었다.

유복남이 큰 주먹으로 등을 톡톡 두드려주며 《천천히… 나두 한심하지. 물통을 가지고 온다는걸 잊었구나.》 하자 그는 《괜찮아요. 이렇게 맛있어보긴 처음이예요. 막 꿀처럼 달아요.》 하고 눈물까지 훔치며 말했다.

《등말기에 올라섰구나. 여기 앉아서 좀 쉬고 가자.》

유복남은 관리위원장이 지고있는 짐을 벗겨 내려놓고나서 자리에 앉았다. 령길숲속에서는 보지 못한 보름을 가까이한 달이 머리우에 둥실 솟았다.

관리위원장은 어머니의 팔을 끼며 고개를 어깨에 살며시 기대고나서 《야ㅡ 좋네.》 하고 졸음이 섞인 소리를 했다.

《자면 안돼.》

《걱정말아요. 어머니, 외로울 때가 많지요?》

밤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자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건 개구리들뿐이다.

《기다리며 사는데 외롭긴, 그래서 더 힘껏 일하고싶다. 그럼 잠들기가 한결 헐하거던.》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이 목굽을 지져댔다. 눈물로 밝힌 밤은 얼마랴.

남쪽에 있는 가족을 그리며 기다려온 스무해도 넘는 세월속에 한 녀인의 얼굴에서 젊음은 사라져가고 주름만 늘어가건만 기다리는 남편과 아들을 만날 날은 료원하기만 하지 않는가. 유복남은 민족분렬의 산 체현자였다.

《이러다 내가 너를 업고 간다는 소리가 나오겠다. 일어나. 어서 가자.》

유복남은 어느새 말릴새도 없이 그의 짐을 지고는 앞장서서 걸음을 내짚었다. …

명현은 관리위원장의 목소리를 지금도 듣고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세상천지를 둘러보라. 인생의 마지막날과 달들을 보내는 로인들의 정상이 어떤것인지는 너무도 잘 알려져있다. 낳아준 부모들을 구박하다 못

해 버리기까지 하는 자식들은 얼마나 많은가. 황금만능의 세상에서는 돈만이 늙은이들에게 마지막길도 편안히 가게 할수 있다.

그러니 나의 조국에 펼쳐진 현실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이냐. 하여 그들은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말을 정으로 주고받으며 노래로 부르는것이다.

나는 조국을 찾을 때마다 가슴속에 신선한 산소를 보충받고 돌아오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새기는것이다.

명현은 창가를 떠나 걸음을 옮겨 안락의자에 가앉았다.

이번 길에 서상록이라는 인간을 만나볼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머리는 가졌지만 들어줄 귀가 없는 사람이라는 감정이 앞섰던것이다.

지금도 언제인가 제네바에서 있었던 일이 돌이켜지면 서상록의 오만방자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친다. 조국의 과학자대표단의 일정이 바쁜 속에서도 자기가 노력하여 상면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소경에게 등잔불을 내준 격이 되여버렸다.

《상록아, 네가 이 모양, 이 꼴로까지 되다니, 자기의 피줄조차 찾아볼줄 모르는 너야말로 속물이다. 가련한 인간이 되여버린 네가 후회할 날은 꼭 올거다.》

이렇게 타매한 그때부터 명현은 서상록이라는 이름을 머리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런데 이밤 다시 기억되는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자비가 싹트고 있기때문일가. 왜선지 남같이 여겨지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서상록이였다.

《제발로 찾아오게 해야 해. 뉘우침이 없다면 용서의 손길도 바라지 말아야지.》

명현은 머리를 저으며 이 말을 내뱉았다.

4

정원의 숲속길로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걸었다. 정향나무가지에 내려앉은 작은 새 한마리가 검은색뿔깃을 오똑 쳐든채 바라보더니 시샘이나 부리듯 부리를 쳐들고 울어대고는 포르릉 날아가버린다. 나무잎새들을 가볍게 흔들며 바람결이 스며들 때면 숲의 신선한 향기가 두사람의 옷깃을 살며시 흔들어놓는다.

《아버지, 난 말이예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해보군 해요. 사람의 눈을 두고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는 말이 옳을가 하고 말이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물을 관찰할수 있는 눈을 가지고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옳게 보는가 하는거예요. 이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지요?》

상록은 자기 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지 알수 없었으나 묻는 바 그대로 가볍게 대꾸할수도 없었다. 그러루하게 여길수 있는 말이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너도 알고있지만 이 아버진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시각만을 가졌을 뿐이다.》

대답을 하고나서야 상록은 은근히 후회했다. 지체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빈곤한 자기를 드러낸것 같았던것이다. 아닐세라 딸의 물음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식반영에서 물질이 전부인가요?》

지연은 살짝살짝 맵시있게 걸음을 옮기면서 질문을 중단하지 않았다. 머리는 좋다지만 철부지로만 여겨온 딸의 입에서 철학적인 질문이 제기되자 상록은 내심 놀라면서도 선웃음을 지었다.

이러다 곤경에 빠질라. 조용조용 말하지만 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자고 잡도리를 하는게 아닌지 모른다.

《넌 이번 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언젠가도 내가 일렀지. 차를 타기보다 걸어다니는편이 사색에는 더 유리하다고 말이다.》

화제의 방향이 바뀌여서야 지연은 고개를 쳐들고 아버지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티 한점 끼지 않은 눈동자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불만이 자글거렸다.

상록은 자기가 이 눈빛앞에서도 두려움을 느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가 알리지는 않았을텐데…》

물음이지만 아픈데를 찔러대고있었다. 자식의 말대로 안해는 불상사를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무랄수도, 화를 낼수도 없는 자기의 처지를 상록은 알고있었다.

《그건 중요치 않다. 중요한건 네가 이렇게 서있는것이다.》

《보다 중요한건 나도 자립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는거예요. 나는 자기를 보고 알기 위한 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있거든요. 이게 중요한게 아닐

가요? 아버지, 아버진 자기를 보는 때가 있어요?》

사뭇 조용조용 말하지만 당당하려고 애쓰는것이 알렸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완곡하게 표현하고있기에 상록은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객체만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시각도 가져야 한다는것을 은근히 말하고있지 않는가. 남이 아닌 제 딸의 충고이기에 대답을 해야 하였다.

《너도 어머니를 닮아가는것 같구나. 나에게 자신을 보며 무엇인가를 뉘우치라고 한다면 접수하기 어렵다. 너의 어머니는 이미 나를 거만한 인간으로 규정하였지만 나는 거만해진것을 일종의 자부로 여긴다.》

상록은 어찌 보면 자기가 철없다고 여긴 딸에게 무엇인가를 고백하고있다는 생각을 하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지연은 살레살레 도리머리를 저어댔다.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을 가진다는건 피상적인 안목을 의미하는게 아니라고 봐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리한 방향에서 자기를 볼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르기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 개체를 관찰한다면 분명히 아버지도 어머니도 무엇인가를 찾아낼거예요.》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같이 비난하고있었다.

상록은 지연의 인식에 내재된 공정성을 보았고 그것이 아프도록 충격을 주는것을 감수했다. 파괴된것이나 다름없는 가정의 오늘을 초래하게 한것은 자기였고 안해였음을 부정할수 없었던것이다.

《됐어요. 아버지를 괴롭히고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니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짐이 되는 딸은 되지 않을거예요.》

《원, 애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지연은 살짝 허리를 굽히더니 숲속에 핀 나리꽃을 꺾어들었다. 수집게 웃는듯 한 노란꽃의 꽃술에 대고 향기를 들이키더니 취한 기분으로 속삭였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한테 론문지도교원이 선정되였어요. 아주 엄격한 교수선생님이예요.》

상록은 고개만 주억거렸다. 딸의 말이 계속되기만을 기다리는것이다.

《이름은 싼타나라고 해요. 우리 대학에 여러번 와서 강의도 했거든요. 지성과 인격을 갖춘 녀성이여서 은근히 존경해왔는데 지도교원으로 나서

줄줄이야. 이런걸 두고 행운이라고 해야 할거예요.》

《네가 만족하다니 잘됐구나.》

상록은 속심이 내비칠가봐 조심하면서 긍정했다. 자기의 전도에 대한 희망을 안고 딸이 밝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왜 내 론문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아, 그거야 비밀이 아니냐. 아무리 딸이래도 과학적인 발명은 개인의 명예에 속하는거지. 내가 훔치면 어쩔테냐.》

상록이 자못 신중한 표정을 짓자 지연은 재미있다고 웃기만 했다.

《아무렴 아버지 같으신 대가가 햇병아리를 해치겠어요. 호호.》

《천진하구나. 세상엔 별일이 다 있다.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속에도 도적놈들이 있단다. 뻔뻔스러우면서도 아주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기때문에 샬로크 홈즈가 있다 해도 적발해내기 어려울게다.》

지연은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지의 말이 어딘가 두려움을 자아냈던것이다. 그만큼 순진하기도 한 딸이였다.

《그러나 네 일은 안전하게 잘될테니 걱정하지 말아.》

《어떻게 아세요, 그걸?》

《우리야 과학의 동업자가 아니니. 독특한 륙감을 가진 사람들이거던.》

과학자들에게도 륙감이 형성된다. 실험과정을 통하여 수값을 얻어낼 때 성공을 예감한다는 말을 들어온 지연이였다.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차사고를 쳤을 때 구원해준 사람이 남자였는지 녀자였는지…》

속심을 감추려고 륙감소리를 했다가 실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 상록은 머리를 기웃한채 궁리를 하는척 하다가 대답해치웠다.

《남자다, 남자!》

《틀렸어요. 아버지의 륙감이라는것도 그저 그렇군요. 호호호.》

틀리든말든 딸이 웃으니 마음은 편해나는 상록이다.

《녀자예요. 그것도 아주 멋진… 처녀시절엔 발레무용수였어요. 어때요? 막 흥미가 동하시지요?》

상록은 어깨춤까지 춰대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놀랐다. 쌍드의 이름까지 듣고나서는 머리가 핑 돌 지경이였다. 자기가 잘 안다고 해야 할 녀자가 아닌가. 병원에 여러번 면회까지 왔다면 내가 아버지라는것을 알았을텐데 에쎈구락부에서 만났을 땐 일언반구도 없었다. 자기의 소행을

입에 올리지 않은 쌍드라는 한 녀성의 품성이 안겨오자 마음은 이상야릇한 고마움으로 조용히 설레였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하는 일은 여간만 분주하고 바쁘지 않다. 단조로운것 같으면서도 복잡한데다가 또 많은 열람자들의 편리를 돌본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만 정동녀는 이 일을 10년이 넘도록 해온다.

며칠후엔 지연이가 퇴원을 하게 된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마트면 큰 변을 빚어낼번 했다. 어떻게 키운 딸인가. 8살이 돼서부터 엄마가 힘들어한다고 제손으로 빨래를 했고 밥도 지었다. 공부에 지장을 주는것이 안타깝지만 생활은 랭정했으며 살아가자니 모성애로 대신해줄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남편과 헤여진 해에는 어머니를 찾아갔었다. 의지하면 딸애걱정을 덜것 같았고 자기가 일하면 생활을 꾸려나가리라고 타산했지만 친정집문턱도 넘어서지 못했다. 무던하게만 여겨온 어머닌데 무정하기 이를데없었다.

내곁에 돌아올 생각일랑 말아. 조선녀자들은 한 지아비만 섬긴다. 이건 대대로 전해오는 법도나 같다. 내가 너를 들여놓으면 조상들앞에 죄를 짓는다는걸 알아라. 그러니 네 서방이 있는 시집을 찾아가 그 집문턱을 베고 죽어야 한다.

태줄을 끊어준 어머니건만 조금도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며 돌려세웠다. 그때부터 모녀의 고행은 시작되였다. 의지할건 철도 들지 않은 딸뿐이고 헤쳐나가야 할 생활고는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지연은 속태우는 일없이 자랐고 공부도 잘하여 제힘으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딸이 기숙사생활을 하면서부터 부담은 덜렸으며 지금도 정동녀는 대학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있다.

딸의 퇴원준비를 갖추느라고 나왔던 그는 미술품상점앞을 지나다가 호기심이 앞서 들어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채 졸업하지 못한 대학이지만 그 시절엔 미술에 무척 호기심을 가지기도 했던 정동녀다.

유럽의 현대미술가들이 내놓은 추상파작품들이 매대들을 장식하고있다. 무엇을 그렸는지 알수 없는 선들과 혼탁된 색채들, 명암의 대조를 찾아볼수 없는것으로 해서 직관적인 조형예술이라지만 자기의 형체를 뚜렷이 가려볼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작품들속에도 간혹 눈길이 가는 그림들이 있다.

청동조각 《밭일을 하는 아버지》는 매우 인상적이였다. 밭을 일구는 근면한 농사군의 땀방울을 참으로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는것이다. 생김새는 달라도 자기가 늘 보아왔고 오늘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있는 늙은이를 만난듯 한 감정이 앞섰다.

그분은 시아버지였던 사람이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해주었을뿐아니라 손녀가 태여나서부터는 기저귀까지 빨아 몸둘바를 모르게 한 분이다.

말없이 한숨을 쉬며 쓸쓸한 웃음을 지어보이는것이 전부였다. 그 마음속에 간직된 피맺힌 사연은 얼마나 가슴아픈것이였던가. 소원을 풀어드리지는 못할망정 한을 남긴 자기들이다.

이런 생각을 이어가던 그는 누군가의 손이 어깨를 살며시 건드리기에 놀라서 눈길을 돌리다 탄성을 올렸다.

《쌍드부인! 어떻게 여길?…》

무척 다감한 표정을 갖춘 쌍드는 맞혀봐요 하는 물음을 얼굴에 그려보였다. 정동녀는 자기가 살고있는 도시에 온 귀한 손님이기에 손을 잡아이끌며 차집에 들어갔다.

《정말 놀라게도 하시는군요. 절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마주앉기 바쁘게 호기심이 어린 물음이 닥쳐들자 쌍드는 웃음을 피운 얼굴로 바라보았다. 상냥한 녀성의 리지적인 모습을 볼수 있게 하여 정동녀는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우연이예요. 참으로 우연이란 범주는 영원히 흥미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시던 길에 절 봤겠군요. 시간을 지체시키는게 아닌가요?》

《오긴 어제 와서 일을 다 보았고 만나고싶던김에 말한것처럼 우연이 기회를 마련해줬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우연도 돕는가보지요.》

《그랬군요. 잊지 않으셨다니 무슨 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커피가 나오자 두 녀성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한모금씩 천천히 마시였다. 쌍드가 지연이 어머닌 나이도 자기보다 우이니 이제부터는 언니라고 부르겠다고 하여 정동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쌍드의 언어에는 미사려구나 과신 같은것이 없었으며 그에게는 상대방의 마음에 꼭 드는 말을 골라내는 놀라운 언어구사능력이 있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엇을, 누구를 믿는다는것은 자기 체험에는 실패의 시작이라고 쌍드는 말하였다.

얼마나 랭철하면서도 교훈적인 말인가. 아마도 그것은 수없이 이어진 상심이 안아다준 진실이라는것을 정동녀는 의심치 않았다. 그런것만큼 앞에 앉은 녀자의 말은 무작정 믿게 되였다. 세상풍파를 다 겪은 녀인이 쌍드라고 여겨졌다. 안 가본 나라가 없다니 그것 또한 놀라왔다. 일본 도쬬에서 그 나라 남자들이 요청하여 가부끼춤까지 추어보았다는 말을 하여 두사람은 즐겁게 웃었다. 자기는 일본의 기업계와 학계의 인물들을 잘 안다는것과 그들은 유럽과는 달리 인재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면서 희망한다면 지연이를 소개해줄수 있다고 하였다.

정동녀로서는 딸의 장래를 놓고 걱정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유럽의 학계에서는 웬간히 뛰여난 두뇌를 가지지 않고서는 두각을 나타내기가 힘들다. 게다가 학벌이 어느곳에서나 세력다툼을 한다. 대학을 다녀본 그로서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더구나 딸은 자기와 같은 녀자다. 얼마나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는가. 학계의 천적들이 욱실거리는 속에서 지연의 앞날을 담보하기에는 자기의 힘이 너무도 모자란다는것을 그는 통감하고있었다.

쌍드는 한 3～4년만 일본에 가있다가 돌아오면 지연으로서는 모든 방면에서 성공할수 있다고 담보했다. 게다가 일본명문대학의 학위는 유럽에서도 인정한다. 그러면 이름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할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갖추는것이다.

《꿈같은 일이예요. 하지만 그앤 아직 너무도 어려요. 혼자서 그 먼곳에 가 살게 할수는 없어요. 내가 따라간다면 몰라도…》

쌍드는 그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어머니인데 왜 걱정하지 않겠는가.

《언니도 졸업은 못했지만 수재였다더군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가능하겠는지 알아보겠지만 함께 가게 해볼가요? 언닌 생물공학을 전공했다지요?》

정동녀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흘러가버린 과거, 실패한 인생의 한숨소리가 가슴속에서 흘러나왔다.

《나에게 실험실이 차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황한 생각이지요. 딸의 앞날만이라도 망치지 말아야 할텐데…》

《살아보니 희망을 잃지 않는게 중요해요. 내가 몇번이나 죽으려 했다

고 말하지 않았어요. 언니, 그럼 내 알아볼가?》

쌍드는 정동녀에게 물으며 눈빛으로 마음놓으세요 하는 위안을 보냈다.

《글쎄… 난 쌍드를 믿고싶어.》

보석반지를 낀 쌍드의 하얀 손이 정동녀의 팔목을 꼭 잡았다.

《이제야 언니같은 말을 하는군요. 그래두 언닌 딸이라도 있지. 난 이 바람세찬 세상살이를 혼자서 해야 해요. 우리 둘이서 지연일 멋있게 내세워보자요.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쌍드의 눈가에는 이슬이 스르르 고여났다. 정동녀는 역에까지 따라나와 바래웠다.

《잘 가요, 쌍드.》

《또 만나요, 언니.》

혈육처럼 친밀해진 두 녀자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며 손을 저었다.

이 도시의 밤풍경은 도깨비불처럼 껌뻑거려대는 장식등들과 멋없이 꺽두룩한 가로등의 조도가 매우 낮은 누르끼레한 발광체들이 맥없이 굽어보는것으로 하여 어둑침침하였다.

분주히 오가는 차들마다 각이한 세기의 불을 비치며 내달리기에 길가는 사람들에게 시각장애를 주었다. 이런 속에서 밤의 흥행이 벌어지는것이다.

캬바레와 빠들에서 광란하는 음악이 그칠새 없고 거리의 구석구석들에서는 형형색색의 밀월들이 이루어지고있지만 도시의 밤시간은 무사태평하게 흘러가는것 같이 보였다.

택시에서 내린 바클리는 어둠속에서도 자못 엄숙하게 서있는 성당지붕을 바라보며 걸음을 천천히 옮긴다. 그는 지금 웰헬름거리에 있는 형제음식점을 찾아가고있다.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는 곳 치고는 내건 간판의 이름이 특이한것처럼 경영방식도 여느 식당들과는 달랐다. 주인도 료리사도 접대원도 하나같이 남자들이고 서로 찾을 때조차 료리나 음식감들같이 비프스테이크, 삐짜, 쏘스로 부르는것이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사내들이 옷을 바꿔입고 접대원으로 나서는가 하면 접대하던 사내들이 주방안으로 숨어버리기도 하는 괴상한 곳이였다. 무엇이 어떻든 서로 형제들로 자처하는 이 사람들의 음식점은 유명했다. 고정된 음식도 있지만 주문을 받아 예약한 료리들을 내는데 이상하게도 인기가 대단했다.

바클리는 오늘 이곳에서 고명한 인물인 서상록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이 음식점은 머리가 비상하고 돈이 많은 거만한 그 사나이의 단골집이나 다름없다.

노상 입에 값비싼 려송연을 물고 다니는 사람이 음식점에 들어앉아 찾는 료리가 토장국에 불과하다는것까지 알고있는 바클리였다. 소비의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저명한 인물이 그의 시야에 들고 교제가 이루어진것도 인연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것으로 하여 남다른 두뇌의 단백질을 지불하고 명예와 재부를 차지한 서상록이라는 인간에게도 고뇌가 있다는것을 알았고 그것을 리용하여 흥정을 기도하는것이 바클리의 목적이였다. 잘만 하면 큰돈을 사례로 받을수 있는 아주 랑만적인 절취행위의 대상이 상록임을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하게 되기에 저녁시간을 아끼는 그였지만 이런 걸음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바클리는 서상록이 매우 린색한 사람이라는데 대해서도 알고있다. 타산이 밝고 행동이 신중하여 조심히 상대하여야 할 인물인것이다. 책에 묻혀사는 어수룩한 학자가 아니라는것을 그는 여러 기회를 통하여 내탐하였다.

상전의 지령을 받은 바클리는 에쎈의 구조에 대해서 비교적 품위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로서는 지그프리트를 타격하는데서 급소는 서상록의 연구소라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집단이 에쎈의 경쟁력을 부단히 높여주고 있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서상록이 이끄는 연구집단이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다른 독점체들에 넘겨주도록 한다면 지그프리트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수 없다. 이게 급소가 아니란 말인가. 자기의 상전따위는 감히 생각조차 못할 문제를 제기한것으로 바클리의 마음은 흡족하였다. 급소를 찾아줬으면 타격이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그였다.

그 시각 상록은 형제음식점에서 려송연을 피우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클리가 만나자고 하는 리유를 그는 잘 알고있다. 인도주의단체 성원이라지만 인간적으로는 거간군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어떤 부탁을 한것이 은근히 후회되기도 하지만 쏟친 물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있다. 지금 그의 심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학계에서는 권위를 자랑하지만 생활에서는 오리무중속을 헤매는 자기를 문득 보게 될 때도 있었다. 지그프리트가 평양을 다녀온 후로는 지금껏 자부해온 자기 정신의 한귀퉁이가 허물어져내리는감까지 느끼군 한다.

분명 그가 다녀온 그 땅 어디엔가 생사여부를 알수 없는 모친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사람이 분명하지만 바클리 같은 사람에게 어머니의 신상을 알아봐줄것을 부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신이 어리석게 생각되였다. 이것은 자기가 저지른 바보짓이나 다름없는 실수라는것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전의 일이다. 명예의 월계관을 쓰고 남들을 내려다보게 되였을무렵 그는 제네바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명현의 중재로 조선에서 온 과학자대표단 성원들을 만난바 있었다. 그때 면담 비슷한 상봉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둔 과학연구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술교류를 제의해왔다.

상록으로서는 은근히 놀랐다. 연구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데다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였던것이다. 흥미가 매우 동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교만스럽게 참으로 매정한 대답을 하였다.

나는 연구사업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은 일도 없고 학술교류 같은것을 생각해본적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학적발명의 성과는 개인의 명예에 속하는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

서상록은 그때 아무런 가책이나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며 이런 대답을 꺼리낌없이 하였다. 그는 지금도 자기의 발언을 수정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았다. 과학의 정수를 향해 나가는 그였기에 자기의 견해는 전적으로 옳다는 관점에 복종되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동족앞에 내뱉은 오만방자한 이 말로 하여 그는 스스로 자기 마음속의 상처를 가셔낼수 있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이따금 후회 비슷한것을 느끼군 하였다.

그 일이 있은 직후 명현이가 한 말이 이따금 마음속귀퉁이를 헤치고 스며들어 절규를 뿜어댔던것이다.

《선생님, 위스키라도 한잔 내올가요?》

려송연을 손에 든채 상념에 빠진 상록에게로 구레나룻수염을 되는대로 기른 사람이 다가오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 음식점의 주인이며 이곳 종업원들의 맏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다. 상록은 토장국맛을 잃지 않게 하여주는 이 주인과 이미 잘 아는 사이였다. 이것도 묘한 인연이지만 감상에 빠지기를 좋아하지 않는 상록은 간단하면서도 명백히 거절했다.

《아니, 괜찮소. 난 누굴 기다리는중이요.》

《그렇다면야.》

주인은 씁쓸한 웃음을 남기고 돌아서다가 다시 물었다.

《혹시 다사스러운 바클리가 나타나는건 아닌지요?》

상록은 흠칠 놀라기까지 했다.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눈길을 마주한것이였다.

《그 량반이 나타나는 날에는 영업에서 영낙없이 손해를 보거든요.》라고 말한 주인은 주방안으로 사라졌다.

때를 같이하여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바클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와 함께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낯익은 한 녀성의 자태가 언뜻 나타났다가 사라지는것도 가려낼수 있었다. 그것은 모순된 현상의 해석하기 어려운 일치성이였다.

상록은 얼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서 친절한 웃음을 보내며 다가오는 바클리를 바라보았다.

5

이깔나무수림속에 난 길을 따라 검은빛이 도는 회색바탕에 흰점무늬를 가진 얼룩말이 경쾌한 자세로 달리고있다.

기수는 연갈색승마복을 입은 지그프리트였다. 말을 타고 사색하기를 즐겨하는 그였다.

그의 평양방문과 교류의 시작은 예견한 그대로 각이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앞으로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할수 있으리라는것도 그는 내다보고있었다.

얼마나 다난했던 세기가 얼마나 많은 시름을 걷어안고 마지막해들을 보내고있는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것은 새로운 세기에는 보다 더 치렬한 경쟁이 벌어질것이라는것이다. 기업가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전망하건대 아시아태평양지대를 어떻게 차지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리라고 확신하는 지그프리트다. 거대한 인적자원과 원료원천지에 의거한 이 지역의 나라들은 나날이 세계적인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인식에 기초한 새로운 시장을 구상하게 하고있다. 이와 같은 추이는 그로 하여금 눈길을 돌리게 하였고 다국적기업인 에쎈의 교두보로 될 대상탐색을 서두르게 하고있는것이다. 전략적인 시도가 궤도에 들어서면 지그프리트의 계획은 자기의 속도와 률동을 가지고 질주할수 있다.

그는 풍부한 경험에서 오는 불안정을 감촉하였으며 멀리 앞이 아니라 발밑을 보게 되였던것이다. 지각운동이 무서운 재난을 가져오는 원인은 판괴들이 흔들리는 현상때문이다. 그 흔들림이 세찬 충돌로 이어질 때에 결과는 엄중한것이며 그 후과를 만회할수 없다. 에쎈의 흔들림은 경영두뇌진의 견해상차이도 아니며 독점체들사이에 생겨나는 리해관계의 대립도 아니다. 종속관계를 가지지 않은 한 인물로 하여 그는 마음을 쓰고있으며 오늘은 이렇게 고급승용차가 아니라 말을 타고 찾아간다. 그 인물이 바로 다름아닌 서상록이였다.

자기의 후원을 받은바도 있고 뛰여난 두뇌를 가진데다 의리심도 지녔기에 그를 남달리 총애한것은 사실이였다. 그런 상록이지만 자기의 평양방문이후에 보이고있는 립장은 색갈이 달랐다. 그런데다가 그의 연구소를 노리고 다른 독점체들이 접근을 시도한다는 정보도 입수하였다. 이거야말로 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정황을 암시하는것으로서 지그프리트의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상록은 에쎈의 후원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연구소를 이끌어나갈수 있는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있었다. 오늘까지 이어져온 그들의 관계는 미묘한 공생의 관계라고 할수 있었다.

서상록의 머리에서 나온것을 지그프리트가 제품으로 만들어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에쎈은 언제나 상록의 연구소에 넉넉한 지출을 하였으며 자기 회사의 개발팀으로 간주하는데 습관되였다. 그러나 사람은 고정불변한 존재가 아닌것만큼 상록의 태도가 변할수도 있는것이다.

지그프리트가 말에 박차를 가하자 또다시 질주를 시작한다. 기수는 고삐를 바투 잡고 몸을 일으켜세운채 중심을 유지하며 말과 호흡도 률동도 같이한다.

사라브레드종인 말은 스며드는 해빛에 번들거리는 억센 네굽을 자랑하며 주인이 만족할만큼 기운차게 내달리였다.

련락을 받고 연구소마당에 나와있던 서상록이 지그프리트를 맞이하였다.

《바쁘신 시간을 내셨습니다.》

상록의 인사를 받은 지그프리트는 손에 든 채찍을 호기있게 휘두르고나서 활기에 넘쳐 물었다.

《나하구 정구시합을 해보지 않겠나?》

《제가 져줄수도 있지만 연구소의 질서를 지켜야 하니까요.》

상록은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부인께서 전화로 알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억세여보이는 턱을 힘을 주어 잡았다놓은 지그프리트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 상봉의 중요성이기도 하오.》

상록은 옆자리에 앉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마어마한데요.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그프리트의 푸른 기운이 도는 갈색눈이 상록을 시종 주시하는 속에 얼굴표정이 미소와 정색, 의문과 아량으로 뒤바뀌였다.

《이것 보라구. 자넨 모든것을 의심하라는 자기의 좌우명을 이미 공개했네. 하지만 난 인간적으로 나에게 의혹을 품는것은 바라지 않네.》

상록은 솔직하면서도 심리적압박을 가하는 지그프리트의 돌입적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성격이야. 그리구 수법이기도 하지. 이 사람이 면담의 능수라는것은 알려지고도 남았다. 나라는 물질에 물리적인 부하를 걸어놓은 다음 화제의 주도권을 쥐자는것이다. 나를 수단으로 리용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지. 그것을 떠난 나와 지그프리트의 관계는 상상할수 없는거지. 다행스러운것은 나는 정확한 보상외에는 더 바라는 목적이 없다는거다.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철학의 첫 명제로 자연의 비밀에 대한 인식, 생활지혜의 장악이라고 했던가?! 내가 자연의 비밀을 인식하는데서 자네한테 뒤떨어진다는것을 인정한다면 자넨 지혜에서도 나를 앞선다고 여기지는 말라구. 이건 나이든 웃사람으로서 하는 권고일세.》

《부정할 여지도 없이 공격을 하시는군요. 그런 비교를 어떻게 생각해내셨습니까? 허허.》

대답하고 반문하며 상록은 엉너리치듯 웃었다. 잃을것이란 없는 면담마당이 아닌가. 이러루한 대화가 더이상 지속되는것이 지긋지긋해나기 시작했다. 인식한 놈은 인식한대로, 지혜를 장악한 놈은 그것대로 덕을 보면서 살라지.

지그프리트가 가지고 온 서류 한통을 차탁우에 올려놓았다.

《보게.》

《이건 어떤 통첩입니까?》

《주문이지.》

《예?》

서류를 무심히 펼쳤던 상록은 안경을 찾아끼고 보기 시작했다.

생산업체의 표준형을 만들데 대한 요구가 담겨있었다.

가장 정확히 계산된 합리적인 면적과 생산공간의 형성, 최상의 효률을 가져올수 있는 작업공정들과 부문간의 호상성, 로동력과 에네르기를 최대로 절약할수 있는 구조…

에쎈회사가 새로 창설하려는 공장의 사명과 생산능력도 첨부된 문건으로서 어느 연구기관에나 쉽게 차례질수 없는 특혜나 다름없었다.

지그프리트가 자기의 설명을 하였다.

우리는 21세기 산업의 모델을 만들어내는것이 필요하다.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할것인가. 화석연료는 고갈기에 들어섰으며 산업혁명의 초시기부터 태워버린 연기는 행성을 뒤덮고있을뿐만아니라 인간의 생태환경을 여지없이 파괴하고있다. 에쎈의 축적된 자본은 더이상 이처럼 무지한 산업경쟁에 소비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에네르기에 의거하면서도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기업체, 지속적인 생산장성이 담보되는 기업체가 필요하다. 또록색산업에로 지향해야 하며 여기에서 앞장서야만 새 세기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뒤떨어지면 따라가야 하고 앞선 기술은 지금보다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가격으로도 사들이기 어렵게 될것이다. 누가 멀리 내다보는가…

역시 지그프리트는 지그프리트였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군요.》

서상록은 본래의 심리에서 저도 모르게 벗어나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 긍정하게 되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그프리트는 너는 이런 머리를 쓰며 살라는거다 하고 속으로 웃었다.

내가 기업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허덕인다면 너는 연구개발에서 앞선 자리를 양보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고있거던.

이런 생각을 한 지그프리트가 넌지시 물었다.

《어떤가, 구미가 돌지 않나?》

《부탁하는건가요?》

《에쎈의 명의로 주문하네.》

《실무적인감이 드는군요.》

《엄청난 거래가 아닌가. 수백만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기때문이네.》

상록은 자기 연구소의 현재 능력으로는 새로운 재료개발과 제품발명도 힘에 부치지만 이 주문 역시 놓쳐서는 안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였다.

지그프리트의 주문은 앞으로 연구소가 프로그람봉사도 겸비해야 한다는것을 암시해주었기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자하려 하고있는가. 재정에서 빈틈이 없고 작은 돈일수록 계산을 밝히는 지그프리트다. 큰돈이란 작은 돈이 지켜낸것이라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좋습니다. 접수합니다.》

상록의 대답을 들은 지그프리트는 문건에 수표를 하라는 손짓을 해보이고나서 말했다.

《좋은 일을 매듭지었으니 위스키를 마시는게 어떤가?》

상록은 어차피 자기가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것을 알았지만 다른 도리는 없었다. 상대가 에쎈의 거물이 아닌가.

지그프리트는 한잔의 술로 기분을 돌려세웠는데 어찌된 일인지 침중한 기색으로 화제를 바꾸었다.

오래전에 어린 동생을 데리고 오스트랄리아로 추방되여간 그의 어머니는 낯선 대륙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곳에서 철이 든 동생 칼은 조선전쟁마당에 고용병으로 내몰리여 포로가 된 이후 생사를 모른다. 이것은 상록이 이미전에 들은 말이지만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있다.

《어떤가? 내 모습이 보이나?》

심사가 울적해난 상록은 머리를 저었다. 오늘의 지그프리트를 통하여 수십년전의 모습을 그려본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유감이구만. 에쎈의 이 늙은이에게도 눈물이 있다는것을 리해 못한다니 말이네. 사실 내가 평양을 찾아간데는 동생 칼의 생사를 알고싶은 개인적인 용무도 있었네. 난 이걸 누구한테도 말하고싶지 않아. 하지만 자네한테는 하게 되는구만.》

상록은 지그프리트가 동정을 바라는 동시에 자기의 깊은 상처에 손을 뻗치여 아픔을 주는것을 형언할수 없는 심정으로 맛보았다. 그것은 어디에도 하소할 곳 없는 정신적인 동통이였다. 심장은 비수에 찔리운듯 전률했고 의식은 허물어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사람은 자기의 고통너머에 있는 남의 아픔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지그프리트가 바로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하소하고있는것이다. 제손으로

잡았건 남이 억지로 메워줬건 총을 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전쟁이라는 참화를 들씌우는데 참가했으면 포로가 아니라 죽어도 할 소리가 있는가. 하건만 이 억만장자는 인도주의에 한가닥의 기대를 걸고 평양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자기와 같은 동족이 살건만 이 상록이라는 인간은 더 큰 불행을 안고있으면서도 그럴 생각조차 못하니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물질이건 마음만 먹으면 분해한다는 해체의 명수지만 자기만은 어쩔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었기에 상록의 머리속은 2중3중으로 혼탁되여갔고 사고의 마비계선에 이르러서는 소리없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맥없이 떨구었다.

지그프리트는 상록을 만나려 했던 목적을 만족하게 달성하였다는 안도감을 안고 돌아갔으며 홀로 남은 사람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채 실신한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의식의 황야, 사랑이란 씨앗조차 뿌려지지 않았던 삶의 불모지에서 나지 말았어야 할 불운의 생명이 여윈 다리로 아장거리며 걸어온다. 처음으로 눈에 비낀것은 번개치는 하늘이였고 디디고 선 곳은 남의 집 처마밑이였다. 그것은 남의 집이 분명했다.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도, 아버지도 없는 그 집에서 어머니를 찾는 아이들 틈에서 주는것이면 다 먹는것으로 여기며 살았다. 바로 그 집 처마밑에서 비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던 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불쑥 나타났다. 7살 나던 때였다. 그 나이마저도 아버지가 알려주어서 알았다.

몇해후에는 어떤 리유에선지 배에 실려 어디론가 가게 되였다. 배고동소리가 울릴 때 너무도 무서워 아버지품으로 기여들며 우린 어디로 가는가고 울며 물었다.

그들부자를 맞아준 곳은 무시무시한 열대수림속의 농장이였다. 나무잎으로 지붕을 씌운 말뚝집들, 맹수들의 울부짖음소리, 그칠줄 모르는 열대성폭우… 남의 나라 땅이였다. 벌거벗다싶이 한 청동색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얼룩얼룩 칠감을 입힌 얼굴이 나타날 때면 겁이 나서 도망을 치군 했다.

우리는 왜 이런 곳에 와서 살아야 하는가. 동심이 품은 첫 의문은 세월이 흘러서야 풀리게 되였다. …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나에겐 어머니가 왜 없는가.

어린 가슴은 너무도 일찌기 말라버리기 시작했다. 사람은 어머니가 있

어 자기의 한살때도 알게 되는것이다. 기억할수 없는 그것을 어머니의 속삭임이 전해준다. 하건만 상록은 남의 집 비내리는 처마밑으로 아버지라며 찾아온 아버지로 하여 의문을 품으면서부터 자기를 알기 시작하였다. 이민으로 자기가 나서자란 땅을 떠나야 했던 부자간이였던것이다. 그 땅에서 살수도 있었건만 쫓겨났던것이다.

버림받은 아버지와 아들, 그것을 알았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며 의지가 되여주지만 그는 아버지를 저주하기 시작했으며 아버지의 무거운 한숨소리마저 지긋지긋하게만 여겨졌다. 모든것은 아버지의탓이였다.

서상록의 성격은 이렇게 형성되였으며 성공과 함께 굳어진것이였다. 하건만 그는 오늘 지그프리트를 만난것으로 하여 모순된 심리에 빠져들고있었다. 사람은 자기의 관념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기마련이다.

나는 왜 이렇게도 외로운가? 문득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런 물음을 처음으로 읽으며 상록은 머리를 싸쥐였다. 세상 한복판에 홀로 나선듯 한 감정이 마음을 휩쓸자 저도 모르게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디서 시작된 충격인지는 모르지 않지만 뒤따르는것은 꺼져내리는 한숨이였다. 소심하고 나약한 자기가 보이는것만 같았다. 달리는 될수 없는 인간이 거만이라는 외피를 쓰고 살지 않는가. 아니다. 나는 자기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했다. 나의 성공은 눈물겨운것이다. 나의 명예는 과학연구에 바친 노력과 정열의 대가다. 나는 그것을 자부로 여기며 누리고있을뿐이다. 하여 나는 당당하며 외로울수 없는 존재이다. 얼마나 많은 선망어린 눈길들이 나를 바라보고있는가. 내 손으로 일떠세운 연구소가 있고 오늘은 개발경쟁에서 앞서나가고있지 않는가. 오늘의 이런 고민은 생활에서 볼수 있는 잔물결에 불과하다.

서상록은 이렇게 자신을 되찾으며 용기를 내려고 하지만 몸은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점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굳어진 습관과도 같은 사색의 반복이였다.

나에게 명예와 재부가 있지 않는가. 내가 해놓은것이 아버지에 대한 효도로 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로서는 만족해야 할 집과 남들 못지 않게 먹고 마시는 생활에 대한 담보였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였다. 그것이면 아버지의 한생에 얻은 수확보다 몇십배가 넘는것인데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싶은 사람도 있는가.

서상록은 자신이 어떤 생활에서 소외된 심정으로부터 이렇게 헤여나오고있었다. 그 생활이란 안해가 늘 외우는 민족과 이어진것으로서 먼곳에 있는것이며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고개를 쳐들던 그는 뜻밖에도 명현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였다.

어찌된 일인가. 그 친구가 내 머리속에 자리잡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암시인가, 계시인가.

망연한 자세로 앉은 서상록의 뇌리에서는 자기도 알수 없는 물음이 꼬리를 무는것을 느낄뿐이였다.

낡은 구식안경을 낀 반백의 학장이 의아한 눈길을 쳐들고 바라본다. 앞에는 싼타나가 녀자수도원의 원장과 같은 자세로 서있다.

무표정하면서도 차거운 얼굴빛,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눈동자는 성상을 우러르는 신도의 정중한 신앙심을 내비치는것 같이 느껴졌다. 이 녀자가 찾아온 용건을 듣고난 학장은 대답을 주기 힘들어한다는것이 알렸다.

어느 한 학생의 론문지도교원자격을 릉가한 권리행사나 같은 질문을 하였던것이다. 졸업후 학생의 전도문제는 대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할수 없다는 암시까지 했기때문에 불쾌해하는데도 이 녀자는 그런데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다.

《싼타나선생, 우리 대학은 졸업생들의 장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서지연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대학들과 관록있는 연구기관들에서 이미 그를 요구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싼타나의 표정과 자세에는 변함이 없었다. 녀성으로서 상냥함 같은것은 애초 갖추지 못한것이 아닌지 모른다.

《케임브리지나 하바드, 도꾜일수도 있겠지만 서지연의 전도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학장이 고개를 내젓자 도수높은 안경알이 번쩍이였다.

《우리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지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결심입니다.》

《그 학생에게는 아버지가 없소.》

학장은 조금 언짢아난 어조로 부정했다.

《학장선생님은 서상록선생을 아십니까?》

뭔가 또 부정하려던 학장이 책상우에 놓인 문건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그럴수가 있나. 여기 학생의 개인경력문건에는 올라있지 않소.》 하고 자신없는 소리를 흘렸다. 대학의 겸임교수직을 가진 싼타나가 서상록의 연구소에서 일하고있기에 의문을 가질 필요조차 없었던것이다.

《문건으로 사람을 다 료해할수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에쎈회사가?》

《아마도 그것이면 충분한 판단으로 될것입니다. 저는 론문지도를 하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에 대해선 반대가 없소.》

《감사합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수도원 원장 같은 녀자가 례의있게 인사를 하자 학장은 안경을 벗어들고나서 머리를 끄덕였다.

고색찬연한 뾰족탑들, 옛 사원의 고지크식지붕들이 푸른 하늘을 향해 머리를 쳐들었다. 비둘기떼들이 날아엔다. 저마다 재색, 흰색, 연청색날개를 자랑하며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날아내려서는 꽁지를 달싹거리며 콩당콩당 뛰여다닌다. 가로수와 공원숲은 신록으로 물들고 청신한 바람결은 더위를 가셔준다.

서지연은 연한 하늘색달린옷을 몸매에 맞게 입어 경쾌한감을 자아내는 모습으로 거리에 나섰다. 그의 전후좌우로 오가는 같은 나이또래 청년들의 차림새는 형형색색이다.

어떤 처녀들은 머리를 마구 풀어헤친 장발을 한데다 반바지를 입고 목이 긴 장화를 신었는가 하면 엉덩이가 금시 터져나올것 같은 청바지차림을 자랑하며 활보한다. 벗고싶으면 벗어내치고 입고싶으면 닥치는대로 주어입은듯 한 젊은이들의 군상은 유럽의 미래를 보게 하는것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개성의 《자유》는 이렇듯 유감없이 시위되는것이다.

짧게 입어 드러낸 다리도, 배꼽을 내놓은 허리와 다 들여다보이는 앞가슴도 수집음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피끓는 세대》의 만용을 소리쳐 자랑하고있었다.

이러한 주위의 사람들을 관심에 두지도 않으며 지연은 상쾌한 기분으로 걸음을 내디딘다. 고독스럽던 병원생활을 끝냈다.

얼마나 좋은가. 가슴속에서는 무엇인가 환희로운것이 쉬임없이 뿜어나오

는것이다. 래일은 대학으로 돌아가 졸업론문에 심취되여야 한다. 탐구야말로 인간이 가지고있는 최상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처녀다.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과학의 세계에 자기도 들어섰다고 자부할 때면 가슴은 부풀고 황홀한 미래가 마주 오는것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그는 오늘 아침 쌍드에게 전화를 하였다. 무척 만나보고싶은 녀자였기때문이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장래까지 관심을 돌려준다니 얼마나 고마운분인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지연이가 바란다면 그 어디건 갈테니 기다리라고 하는것이였다.

지연은 국립도서관앞 광장에 자리잡은 공원에 이르러서 쌍드의 모습을 찾으며 소로길에 들어섰다.

청신한 숲속에서는 풀벌레들이 소란을 피우지만 대기는 한결 맑고 숨쉬기조차 즐거워났다. 분수터에는 청동으로 굳어진 말탄 무사가 물보라를 한가로이 맞고있었다.

튤립꽃밭에서 풍겨오는 향기를 맡으며 공원의자에 앉아있는 한 녀인의 모습이 보이자 지연은 선자리에서 발끝을 세우며 두손을 맞잡았다. 쌍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선생님!…》

지연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오자 쌍드는 앉은자리에서 두팔을 벌리였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냉큼 뛰여드는 지연을 품안에 껴안으며 쌍드는 잔등을 다독여주었다.

《나도 방금 왔다. 여긴 조용한게 정말 좋구나.》

《그래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공원이거든요.》

《우리 지연인 책밖에 모르는 처녀인데 그게 얼마나 좋니. 그래서 너를 더 사랑하게 되는가봐.》

쌍드의 말을 들으며 지연은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면서 소르르 눈을 감았다. 지성과 애정이 넘쳐나는 녀성을 알게 된것이 자기에겐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여겨졌던것이다.

《네게 주려고 내가 이런걸 마련했다.》

의자우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지연의 무릎우에 놓아주며 쌍드는 어서 열어보라고 눈짓해보였다.

《콤퓨터가 아니예요?》

《그래, 최신형인데 너에게 꼭 필요할것 같아서 마련했다.》

지연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발까지 콩콩 굴러대며 손벽을 쳐댔다.

《나도 언제부터 이런 콤퓨터를 하나 사려고 했었는데… 정말 이걸 나한테 주는건가요?》

쌍드는 눈을 감았다떠보이는것으로 긍정하였다. 첫 순간의 기쁨이 형언할수 없는 고마움으로 바뀌우자 지연은 고개를 깊이 숙여보였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어린 처녀의 인사를 받자 쌍드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며 말했다.

《날 어떻게 불러야 하지?》

《어떻게?…》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던?》

《했어요.》

《그럼 이모라고 불러야지. 어머니와 난 자매간이 되기로 약속했다.》

지연의 순결한 눈동자에서 이슬꽃이 반짝거렸다.

《어머닌 참말 많은 이야길 했어요. 선생님한테 홀딱 반해버린것 같아요.》

《다시 불러봐.》

《처음 입에 올리는 말이 돼서… 이모!》

《그래그래.》

쌍드는 지연의 어깨를 끌어당겨 옆에 꼭 끼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일본에는 학계는 물론 정계와 재계에도 내 친구들이 많다. 한마디로 너를 후원해줄 믿음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너의 대학에 이미 신청문건을 발송했다. 일본의 이름난 대학의 연구원생으로 받아주겠다고 담보했으니 너만 결심하면 된다. …

《전 아직 졸업론문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아마 한두달은 걸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건 일없다. 졸업을 하면서 론문을 일본에 보내면 된다. 어떻니?》

쌍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지연은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순진한 처녀의 가슴은 꿈을 안고 설레였다.

《난 어려서부터 훨훨 날아서 동쪽나라로 가는 꿈을 꾸군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말을 자주 들려주셨거든요.》

쌍드는 처녀의 비단결같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 꿈을 이루게 될게다. 꿈을 가지고 사는게 얼마나 좋니.》

공원속에 앉은 두사람의 모습을 훔쳐보는 눈이 있다는것을 그들은 알수 없었다.

맞은켠 대통로옆에는 중세기때의 건물이 무겁게 자리잡고있다. 그 집의 로대에 나와선 한사람이 쌍안경으로 두 녀자를 조준하고있었던것이다.

처녀에게 애무에 넘친 눈길을 보내며 정답게 이야기를 하는 쌍드의 모습을 지꿎게 노려보던 사나이가 침을 뱉으며 쌍안경을 내리웠다. 바클리였다.

6

서상록에게 있어서 싼타나는 믿음직한 조수였다. 그는 자기의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실험을 반드시 이 녀자와 함께 진행하여왔다. 명석한 두뇌와 깊이있는 관찰력을 소유하고있으며 정확하고도 신속한 계산능력을 갖춘것으로 하여 싼타나는 연구소에서 상록의 신임을 받고있었다.

지금도 두사람은 실험대앞에 앉아서 선택한 재료의 순도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고있다. 이 물질은 앞으로 새로운 집적회로를 완성하는데서 가치있게 리용할수 있다고 확신하는 상록이였다. 몇시간동안 주의력을 집중하여 실험을 반복진행한 그는 눈등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어 싼타나가 기척없이 조용히 움직인다. 마치도 남자의 그림자같을 정도다.

자기 방에 들어와 피로한 몸을 안락의자에 부리운 상록은 눈을 감은채 실험과정에 나타난 현상들과 수값을 머리속으로 분석하고있다. 다음 단계의 연구방향을 옳게 정하기 위해서였다.

어느새 싼타나가 커피를 끓여가지고 조용히 들어와 차탁우에 놓아주었다.

《고맙소, 앉소.》

싼타나는 조심스럽게 조금 떨어진 안락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이 녀자는 차림새와 행동거지며 인물조차도 독특한데가 있었다. 로처녀여선지 옷차림에는 거의나 신경을 쓰지 않는듯싶었다. 대체로 검은색계통의 옷을 입어 자기 나이보다 더 먹어보이기는 해도 그것으로 세련된감을 주기도 한다. 매우 조심히 움직이지만 건강한 녀성의 육체미를 느낄수 있었다. 파란 눈을 치켜뜰 때면 참으로 매력적이다.

《싼타나의 커피끓이는 솜씨는 대단하오.》

남자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녀자들은 대체로 자기의 솜씨에 만족을 느끼며 자랑하기 좋아하는데 싼타나는 한가닥의 미소를 얼굴에 그리는것이 전부이다. 그래도 오늘은 한마디 했다.

《계속 끓여드리겠어요.》

《싼타나로서는 류다른 호의를 보이는구만.》

이 녀자는 연구소의 어느 사람과도 교제를 깊이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과학연구사업으로 메말라진 인상을 다분히 준다. 그런것으로 하여 연구소안의 남자들은 접근하기를 주저하는것이다.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아마도 모를겁니다.》

서상록은 자기가 공연히 실없는 소리를 한것을 후회하면서 화제를 돌렸다.

《우리애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요?》

《제가…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싼타나는 재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되돌아왔다.

《보십시오. 아마도 만족하시리라고 봅니다.》

상우에 내놓은 문건철은 딸의 대학기간의 학과성적과 졸업론문의 개요였다. 앉으라고 자리를 권한 상록은 필요한 부분만을 재빨리 읽었다. 그의 속독수준은 싼타나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복잡한 계산방법과 산출된 수자들도 한번 보면 정확히 기억할뿐만아니라 틀린 부분은 영낙없이 찾아냈다.

《어떻소? 지도해줄만 한 대상이 되는지…》

무릎우에 두손을 포개놓은 싼타나는 파란 눈동자를 들어 허공을 응시하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중요하게 찾아보는것은 창조력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환상능력을 가질 때만 생기는 기질이거든요. 아직 나이가 젊어서 심리조절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저로서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재로 될수 있는 수재형의 대학생이라는것만은 보증합니다.》

《지나친 평가가 아니요? 아버지라는 사람앞에서…》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수재를 발굴하는것은 우리 본분이 아닙니까.》

싼타나는 서상록에게 눈길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저할것도, 고려할것도 없어야 한다고 여기고있는것이 알렸다. 이것은 자기의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다는것을 담보하려는것이기도 하였다.

《오늘 저녁식사를 같이하지 않겠소?》

싼타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약간 수그려보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다른 일이 있어서 동행할수 없습니다.》

《유감이구만. 그새 수고했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오.》

싼타나가 돌아가자 상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생활은 대부분 연구소에서 흘러간다. 집은 괜찮게 갖추었다지만 가족이 없는 독신자의 거처지에 불과했다. 관리인과 료리사는 빈집에서 배불리 먹으며 할 일이 별로 없어 빈둥거리고있다.

싼타나에게 보이려던 호의가 거절당한것으로 심사가 울적해난 상록은 형제음식점에나 갈가 생각했다가 바클리가 떠올라 집으로 걸음을 돌리였다.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소식을 알아다주는가 했는데 흥정을 당한 기분을 지울수 없다. 아무모로 보나 거간협잡군같은 바클리다. 호기심을 불어넣고는 묘하게 주머니를 털어내는 놀음에 몇번이나 속아넘어갔던것이다.

전번에 만나서는 조만간 평양에 주재하고있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희한한 소식이 날아올테니 단단히 사례할 준비를 하라고 입김을 불어넣는것이였다. 그리고나서는 생뚱같이 WM이라는 독점기업체의 중역이 매우 가치있는 교섭을 하기 위해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내비치였다. 한마디로 상록의 연구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에쎈과는 대비도 안되는 보수지불과 함께 후원을 하겠다는 유혹이였는데 바클리가 아니라면 한번 상면이라도 하고싶을 정도였다.

《상록선생, 에쎈은 반드시 풍파를 겪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리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테지요.》 하는 말로 그루를 박기까지 했다. 마치 예언자의 흉내를 내는것 같기도 하고 일종의 협박같이도 들렸다. 어쨌든 바클리라는 인간은 혐오스럽다.

상록은 집으로 돌아와 대충 저녁을 먹고나서 실내옷차림으로 조용한 기회가 생기면 찾군 하는 방으로 갔다.

문앞에 이른 그는 주밋거려대다가 열쇠를 꺼내더니 조심히 열었다. 이 방은 관리인도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모른다. 더듬거려 초불을 켜니 방안에서 금시 흐느낌소리가 울려나오는것 같았다. 이것은 그만이 가려듣는 특이한 환각적인 음향이였다.

크고작은 립상, 반신상들과 흉상들이 무질서하게 진렬되여있는데 하나같이 녀자들을 형상한 조각품들이다. 초불이 하나둘 켜지자 녀인상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안겨온다.

아기를 안고 고개를 숙인 녀자, 두팔을 벌리고 울며 서있는 녀인… 비애에 잠긴 녀인들의 얼굴이 우중충 서거나 앉아서 주인을 맞이하는것이다.

이것은 상록의 놀라운 취미였다. 시간이 생겨 이 방에 들어오면 그는 오래동안 자기만 아는 세계에 잠겨 어떤 기도를 드리는것이다.

굳어진 녀인들속에 자리를 잡고 앉은 그는 고개를 수그린채 움직일줄을 몰랐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녀인들이다. 학계의 명망있는 인물인 이 사람에게 뛰여난 조형적감각이 있다는것은 놀랄만 한 일이지만 누구도 알지 못한다.

상록의 성격은 어린시절의 고독속에서 형성되였다. 어머니를 모르며 자란 그는 외로움속에서 시달리였고 같은또래의 애들과 섭쓸리기를 싫어했기때문에 늘 외딴 곳에 혼자 앉아서 땅에다 무엇인가를 그리는것이 유일한 놀음이였다. 학교를 다니며 연필을 쥐면서부터는 제법 그림 같은 그림을 그려냈다. 대학에 입학할무렵에는 화구를 갖추고 심심소일로 미술공부를 했다.

《이봐요, 정말 신통해요. 이게 난가요?》

《마음에 들면 기념으로 받아주오.》

《고마와요. 내 눈이 이렇게 생겼던가. …호호, 너무 곱다.》

《검은 눈동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눈동자요.》

《어마나! 로골적인 고백인데요. 정말 내 눈동자를 사랑해요?》

《안된다고 해도 일없어. 마음속으로 간직하는거야 나의 권리지.》

《이걸 어쩌나. 내 눈동자를 훔쳐가지겠다니…》

멀리 저 멀리로 흘러간 생활이 보내는 잔물결소리를 들으며 상록은 앞에 서있는 한 녀인상에 눈길을 보냈다. 수심이 비낀 녀자의 눈빛속에는 원망의 안개가 감도는듯 하다. 약간 비켜선 자세인데 긴 머리카락들로 앞가슴을 가리웠다. 어딘가 도전적인 태도를 엿볼수 있게 하는 녀인의 모습에서 그는 안해를 생각하고있는것이다.

《당신은 자기 아버지를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안해인 나도 알수 없는거예요. 검은 눈동자를 사랑한다구요? 자기를 위선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검은 눈동자는 당신으로 해서 너무도 많고 비싼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우린 살아갈거예요. 당신의 만족한 생활이 조금도 부럽지 않으니 마음껏 누리세요.》

서상록은 안해가 하는 말을 듣고있다. 생활의 모체인 가정은 아버지

의 운명과 함께 해체된것이다. 지금과 같은 별거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길이 없다.

아버지 못지 않게 괴벽스러운 안해가 마음을 돌려먹는다는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딸이 있다. 안해는 성밖에 물려준것이 없는 자식이라고 하지만 지연의 장래를 책임질 사람은 자기라고 확신하는 그였다.

싼타나를 졸업론문지도교원으로 되게 한것도 그의 계획에 따른것이다. 딸은 자기의 연구소에 와서 론문을 완성할것이며 졸업후의 장래도 만족스럽게 해결된다면 안해의 태도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올것이라고 믿는 그였다.

사람이란 물질적인 존재이기마련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안해가 고집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추상적인 사고에 불과한것이다. 유럽의 한 복판에서 살면서 조선사람이면 어떻고 다른 민족이면 어쨌다는건가. 이 세상에 생존하는 종족과 민족이 다 모여살다싶이 하는 이곳에서는 이미 공통성이 지배하고있다. 그것은 생존공간에서 약자가 되지 않는것이다. 매개 인간이 경쟁력을 갖추는것, 이것이 살아나가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누가 이것을 부정할수 있는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딸에게 유전적인 훌륭한 두뇌를 물려주었다.

상록은 자기 가정의 희망은 여기에 있다고 간주했다. 이것은 그가 안해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는것이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상록은 선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창작한 조각상들을 둘러보며 선뜻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지칠줄 모르는 에쎈구락부였다. 사교계의 이 천국에서는 랑비가 매 시각 넘쳐났으며 은밀한 교제로 막대한 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들이 그치지 않았다. 지금도 무도홀에서는 악사들이 저마끔 불어대고 켜대며 두드려댄다.

서상록은 여기에 오면 자리를 잡군 하는 2층로대의 등나무의자에 앉아 려송연을 피우며 무심한 눈길로 도취된 인간들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자기나름대로 삶이라는 연료를 태워버리고있는것이다. 얼마나 아까운 운동에네르기들이 비생산적으로 소모되는것인가. 아마도 이 거대한 소비가 무엇에 필요한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속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이러루한 상념들이 무질서하게 흐르고있었다.

《여기에 계셨군요.》

곁으로 다가서는 녀성의 체취를 느낀 상록은 고개를 들며 쌍드에게 인사를 보내고나서 자리를 가리켰다.

《춤을 추고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분야에는 백치나 같으니까요.》

《유감이군요. 한번만이라도 짝패가 되고싶건만…》

쌍드의 시선은 온화했고 어조에는 정이 흘렀다. 상대만 있다면 이제라도 춤판에 나서도 흠잡을데가 없는 차림을 한 녀자였다. 은빛안개가 감도는듯 한 몸에 꼭 맞게 입은 옷매무시는 나이와도 잘 어울렸다.

《쌍드, 당신을 안지는 오랬지만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오.》

상록의 말에 녀자의 눈길이 살짝 들리우며 의혹과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선생의 의식에 반영된 이 쌍드는 경박한 녀자겠지요?》

《그와는 정 반대요. 깊이가 있는 녀성이였다는것을 몰랐소.》

쌍드는 크지 않으나 심중의 놀라움을 터뜨리는 소리를 내고는 두손을 꼭 마주잡았다. 어깨를 약간 솟군채로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다.

《비웃는게 아닌지.》

《고맙소, 쌍드. 나라는 인간의 인사는 이렇소. 당신은 내 딸의 은인이 아니요. 하지만 나한텐 일언반구 안했소.》

쌍드는 제편에서 미안쩍어하는 낯색을 지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저하게 되더군요. 선생의 가정적고뇌를… 사람은 때로는 본의아니게 몰라야 할것도 알게 되는것인가봐요.》

상록은 한 녀성의 진심을 읽게 된것으로 야릇한 충동을 받아안았다.

사교계에 미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 녀자는 아름답다고 할수 없는 추문들을 뒤에 달고 산다. 시기와 질투, 험담은 언제나 남아돌아간다. 아마 그것이 없다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살 멋이 없을지도 모른다. 물질의 속성을 파헤쳐보기도 어렵지만 사람을 안다는것도 힘든 일임을 그는 쌍드를 통하여 알게 되는듯싶었다.

상록은 《쌍드, 당신은 좋은 녀자요.》 하고 말하려다 단어 하나를 수정하였다.

《쌍드,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녀자의 얼굴에서는 황홀경에 취해버린듯 격정 같은것이 춤췄다. 선이 바르고 탄력을 잃지 않은 입술이 무엇을 웨치려고 가볍게 떨렸다. 열정

에 충만된 가슴과 두팔이 상록이라는 인간을 작은 품에 그러안을 때 녀자의 입술은 말릴 사이도 없이 남자의 얼굴을 스쳐지나갔다. 그것은 번개의 섬광과도 같은 한순간이였다.

《이 쌍드는 처음으로 인간평정을 받았어요!》

상록은 녀자의 행동이 리해되였다. 아마도 달리 처신했더라면 쌍드가 아니였을수도 있지 않은가. 폭발적인 정열이 이 녀자의 고유한 개성일것이라고 그는 단정했다.

즐거운 자리에 불청객이 나타나는것도 생활의 론리인지 모른다. 바클리의 출현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전같지 않게 시들한 몰골을 한채 주춤거리는 이 재빛수염쟁이는 이내 쌍드의 기분을 잡쳐놓았다.

《꼭 비맞은 수닭같군요.》

바클리는 두손을 펼쳐보이며 중얼거렸다.

《너무 괄시하지 마오. 나로 말하면 인도주의자로서 이곳의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불쾌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서 어느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당사자만이 아는것이다.

바클리는 권하지 않았지만 제절로 그들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자 커피를 청하고나서는 일부러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시여 쌍드의 기분을 자극했다. 재빛수염을 손으로 쓸어댄 그는 낯색이 차거워난 녀성에게 능청스런 눈길을 보내며 물었다.

《에쎈과 한배를 탔는가요?》

《그래요. 내 기사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지요.》

서상록은 묵묵히 듣기만 하였다. 이 녀성자유기고자가 에쎈회사를 위협적으로 헐뜯어대는 목소리들을 향하여 비난의 도수를 높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필체가 신랄하고 비유가 해학적이여서 흥미를 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많았을것이다.

《재잘거려보는거겠지요. 녀자들이란 머리카락이 긴것만큼 생각도 깊은건 아니거든요. 에쎈이 불가항력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것을 알아두는것도 필요합니다.》

바클리의 태도에 상록은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때 지그프리트의 정보수집원이나 같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였기때문이다. 하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란 한푼의 리익앞에서 배신쯤은 식은 죽 먹기로 여기기마련이다.

《상록선생은 현재의 기류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클리는 자못 심중한 표정을 지으며 정중하게 물었다.
《나로선 기류변화니 뭐니 하는 말이 생겨나는 원인을 모르겠소. 기업체들의 경영전략은 부단히 변하는것입니다. 사실상 그건 불가피한것이며 하여 다각화라는 교류의 개념도 형성되는게 아니던가요?》
《론리적으로는 모순이 없지만 지그프리트령감이 모험을 한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는가요? 그것도 위험한…》
쌍드가 바클리의 언변에 찬물을 끼얹었다.
《모험도 해볼만 한거예요. 성공할수도 있답니다.》
《예, 그렇단 말이지요. 당신은 모험적인 녀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바클리씨도 렵기적인 남자가 아닌가요.》
바클리는 쌍드의 날카로운 말마디들에는 관심이 없이 무도홀에 눈길을 보내며 중얼거렸다.
《어쨌든 에쎈이 평양과 손을 잡는다면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을거요.》
상록도 그쪽으로 시선을 보낸채 생각했다. 바클리의 정보와 판단이 정확하다면…
한순간에 서상록의 심리는 착잡한 상태에 이르면서 사유가 혼탁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지만 거부반응이 일어났고 대답할 말이 없어 그는 자신을 이겨내려고 일어서며 두사람에게 인사말 같은것을 아리숭하게 남겼다.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난 가봐야 할데가 있어서…》
쌍드의 눈길이 서둘러 붙들려고 했지만 상록은 이미 등을 돌려댄채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이 녀자는 기회를 놓친것이 무척 아쉬웠으며 재빛수염쟁이가 밉살스러워나기까지 했다.
《바클리씨, 당신은 상록선생과 어떤 흥정을 하고있지요?》
모가 선 녀자의 물음에 바클리는 천연스러운 웃음을 그려보였다.
《인간생활자체가 흥정이고 거래라는걸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설명해주겠어요?》
《그럴수가 없겠는데요. 부인도 거래를 하고있을겁니다.》
《통 모를 소리만 하는군요.》
바클리가 킁킁 코소리를 냈다.

《이제 알게 될겁니다. 그리구 내가 흥정하고싶은건 말이요. 당신이요.》

쌍드의 눈길이 한층 꼿꼿이 모가 섰다.

《나하구 흥정을 하고싶단 말이예요?》

《그렇소. 가격이 폭락되긴 했지만 아직은 구미가 동하는 당신의 엉덩이와 앞가슴의 값을 말이요.》

어제날의 발레무용수는 발끝으로 온몸을 솟구치며 일어섰다. 이어 하얀 손이 칼날처럼 번쩍이며 바클리의 귀통을 후려갈겼다.

《이만한 값이면 되겠어요?! 흥정군나리!》

볼만 하게 얻어맞은 바클리는 일그러진 웃음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이것이 흥정의 시작이라면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거요.》

7

강기슭을 따라 뻗어간 유보도를 걷는 명현의 마음은 자못 울렁거렸다. 강바람이 스며드는 정향나무숲의 설레임소리나 그것으로 더한층 진동하게 될 꽃향기에 대한 흥취때문만이 아니였다. 그는 지금 잊지 못하는 한 녀인을 찾아가고있다.

(두견차집, 아리랑마담…)

마음속으로 불러보자 가슴은 울렁이고 눈귀가 젖어올랐다. 유보도에서 조금 벗어나면 펼쳐지는 주택가에 자리잡고있는 자그마한 차집의 나많은 녀주인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움을 자아내고있었던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명현은 이미 결심한것처럼 동방의 경제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여러편의 소론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분석과 필치는 심도가 있고 예리한것으로 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대학들에 초빙되였고 교수직도 차례졌지만 물리쳤다. 생계의 만족을 바라며 자유로운 탐구와 활동에서 구속을 받고싶지 않았다.

그는 막아서는 장벽들을 물리치고 한시도 잊은적 없는 조국방문의 길에도 서슴없이 올랐다. 이 나날 모르고 산 자기의 민족에 대해 알게 되였으며 마침내는 자기의 피줄기를 확인하게 되였다.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것이 오늘의 세계에서 절박한 문제임을 깨달았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목표도 선정할수 있는것이다.

몇해전 첫 조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명현의 심중은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고아의 인생이 의지를 찾았던것이다.

그때 학술연구차로 이 도시를 찾았던 그는 동행한 두명의 동료들과 산책삼아 유보도를 거닐다가 우연히 조용한 어느 한 차집을 찾았었다. 저녁시간이여선지 한적한감까지 주는 차집이였다.

일반적으로 흔한 차집으로 여기며 무심히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첫 순간 이상야릇한 충격을 받았다.

낯설고 생소하지만 별스럽게 안정감이 들었던것이다. 그 까닭이 무엇일가 하여 차집안을 둘러보았다. 별다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눈같이 흰 벽지의 바탕무늬가 도라지꽃같았지만 선뜻 구별해보기가 어려웠다.

높지 않은 천정에서는 연분홍불빛이 은은히 쏟아졌다.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다. 차잔을 기울이며 서양인 몇명이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카운터쪽에서 접대원이 아닌 한 녀인이 나타나더니 그들이 앉은 식탁을 향해 걸어왔다.

조선치마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나이든 그 녀인이 미소를 보내며 먼저 인사를 했다.

명현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설번 하였다. 동포를 만났다는 반가움과 류다른 감회의 격발이였다.

다음순간 들려오는 말에 그 격정과 흥분은 서리를 맞았다. 영어로 무엇을 들겠는가 묻는것이였다. 민족옷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녀성의 언어행위가 불만을 자아냈지만 대답했다.

녀인의 체취에는 접대원다운데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물러갔고 이어 차가 나왔다.

명현은 허전한 마음으로 이따금 녀인이 사라진 곳에 눈길을 돌렸다.

조선치마저고리.

할머니와 어머니, 손녀가 다같이 차려입어도 너무도 잘 어울려 민족의 향취를 돋구어주는 차림새다.

민족옷에 대한 이와 같은 표상도 이번 조국방문에서 가지게 된것이다.

차를 다 마신 동료들이 일어나자 명현도 따라 움직이다가 자기의 차잔을 내려다보았다. 향기로운 음료이지만 절반도 못 마셨던것이다. 일순 무

엇인가 알수 없는것을 남겨두고 가는것만 같은 허전한 심정을 맛보았다.

차집을 나서는데 등뒤에서 걸음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히 가세요.》

놀란 가슴을 안고 황황히 돌아보니 장식불로 새긴 《두견차집》이라는 간판아래 그 녀인이 서있었다. 분명 조선말로 인사했다. 그것도 부드럽고 정확한 억양으로…

이렇게 그는 두견차집 녀인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다.

한해후 모교가 자리잡은 이 도시를 다시 찾은 명현은 일부러 시간을 내여 차집을 찾았다.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해야 할 녀인과 이번엔 통성이라도 할 심산이였다.

차집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았다. 차잔을 놓아주는 사람도 그 녀인이 아니라 서양처녀였다. 마음은 이상하게도 쓸쓸해났다. 다시는 볼수 없구나 하는 실망감이 찾아들었던것이다.

창문쪽에 자리잡은 그는 앞에 차잔을 놓고도 마실념을 안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허전해난 마음을 달래는데 주변에서 박수소리가 울려 놀란 눈길을 돌렸다.

카운터쪽에 나타난 녀인은 한해전에 본 녀주인이 분명했다. 그때처럼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며 노래를 불렀다. 부드럽고 은은하며 절절한 감정을 담은 선률로 하여 손님들의 표정과 마음은 금시 숙연해지는듯싶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

명현은 금시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겨우 참았다. 넓으나넓은 세상천지에서 울리는 넋의 부름소리를 듣고있었다. 남의 땅에서 살아도 자기가 누구임을 알리는 노래가 혈육을 부르고있었던것이다. 가사는 부르는 사람이 지었는지 절수가 많았고 그 내용 또한 뜻이 깊고 잘 째인 운률로 이루어졌다.

운명은 타향의 먼길을 떠났으나 두고 온 고향의 하늘은 멀리 동쪽에 있으며 아침해가 제일먼저 떠오르는 삼천리금수강산이 고국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르고있는것이다.

《자유화》의 광풍이 세계를 휩쓸고있었다. 그속에서 매개 민족들의 력사와 문화는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있으며 자기의것이 빛을 잃어가는것을 보고 느끼면서도 어쩔수 없는 시대사조로 받아들이는것이다. 그런 곳에서 조선의 《아리랑》이 울려나오고있기에 명현은 이국땅에서도 민족의 긍지를 한껏 맛볼수 있었다.

저 녀인이 나의 심혼에 무엇을 심어주고있는가. 너는 조선사람임을 잊지 말라, 그것이리라.

녀인의 노래가 길게 이어지자 차나 마시러 와서 감상을 하는줄 알았던 손님들이 일어나 함께 부르고 춤을 추었다. 사교장도 아닌 장소에서 벌어지는 광경이여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비록 피부색은 다르지만 녀인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명현은 그제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차집의 단골손님들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턱을 고인채 련이어 조선민요를 부르는 녀인을 바라보았다. 집은 작아도 여기에서 조선민족의 음악회가 열리고있다는 자못 큰 의미가 새겨져 가슴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녀인의 모습이 한층 돋보이였다.

즐거운 시간이 흘러 저녁시간이 되여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그러나 명현은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카운터에서 이윽토록 바라보던 녀인이 조용히 다가왔다.

《손님은 우리 차집에 처음 오시는분이군요.》

만족한 물음이였다. 조선말을 건넸던것이다.

《두번째랍니다.》

녀인은 미소를 지으며 앞자리에 앉았다.

《그러니 내가 초면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 초면에 받은 인상이 너무 깊어서 찾았답니다.》

《그렇군요. 무슨 일을 보시는지요?》

《저로 말하면 조선사람이고 이곳에서 대학을 다녔다지만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명현은 되도록 친근감을 주려고 온화하게 대답하며 눈빛으로 인사를

보냈다. 한순간 녀인은 눈을 크게 떠보이더니 이상야릇한 감격을 나직이 터뜨리였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절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방금전까지 노래를 들으며 내가 잘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동포들을 만날 때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녀인은 고개를 숙이며 옷고름으로 눈언저리를 눌렀다. 그리고나서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눈길을 쳐들고 잠시 명현을 바라보는데 어머니다운 자애가 차분히 배여있었다.

《고마와요, 이렇게 만나니… 한피줄을 찾은 심정이예요.》

《제 이름은 현이고 성씨는 명가입니다. 아들처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 지은금이라고 해요. 인차 가야겠지요?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만요.》

《저도 자리를 뜨고싶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싶고 나누고픈 마음입니다.》

지은금은 명현을 자기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안방은 차집건물과 붙은 별채에 있었다.

그는 성의를 다하여 저녁을 차렸다. 식탁우에 놓이는것은 하나같이 조선음식들이였다.

명현은 조국방문시 보고 맛보았던 색갈이 곱고 향취가 짙은 김치가 눈에 뜨이자 감탄을 터뜨렸다.

지은금은 사기잔에 우유빛이 도는 액체를 부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명현선생, 막걸리예요. 우리가 만난것을 축하하여 들어야지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상봉을 축하해서 마시겠습니다.》

지은금은 명현의 잔에 먼저 찧으며 말했다.

《나도 같은 심정이예요.》

밝은 웃음을 지은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시 보며 명현은 그것이 민족을 이어주는 혈맥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감정의 피임을 확인하였다.

지은금은 자기의 조상들이 언제부터 남의 나라 땅에서 살게 되였는가를 이야기를 들어서 알뿐이였다.

망국의 수난속에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넜고 연해주에서 쫓기워 사막의 광풍이 몰아치는 불모의 땅이나 다름없던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하였다.

살아남자고, 살아서 피줄을 이어나가자고 사람들은 황막한 초원의 땅을 갈아 뒤집어엎었고 물을 끌어들여 벼농사를 지었다. 초막이 토굴로, 토굴이 해빛이 흘러드는 집으로 되여갈무렵에 지은금이 세상에 태여났다. 인간의 생명은 쉽게 꺼지는것이 아니였다.

초원을 개척하며 조선사람들의 마을이 생겨나고 학교에서는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은금의 가문도 혈통보존의 완고성이 법도로 되여있어 그의 남편도 조선사람이였다.

평안도 곽산이 본향인 정씨성을 가진 집안의 자식으로서 한마을에서 자랐다. 소원은 하나 부모들이 옛말처럼 들려준 고국을 한번만이라도 찾아보는것이였다. 하여 그들부부는 그 소원을 사랑으로 언약하였건만 남편은 딸자식 하나를 남기고 고국을 만리밖에 둔채 조상들이 간 그 길을 먼저 가버렸다.

초원의 하늘가에서 배회하는 령혼들의 울음소리인양 바람이 불어칠 때면 그는 온밤을 뜬눈으로 지새군 하였다. 락타의 방울소리만 들리고 폭양속에 끝간데 없이 펼쳐진 황토벌이 끊임없이 불러오는 숨막히는 적막감에 못이겨 그는 미련없이 그곳을 떠나버렸다.

인생의 방황은 다시 시작되여 이리저리 떠돌다가 정착한 곳이 지금의 이 땅이고 지금의 이 차집이였다.

《나라는게 이렇게 살아온 녀자라오.》

지은금의 고요한 눈동자에서는 서글픈 추억의 그림자가 너울거렸다.

명현은 앞에 앉은 녀인의 모습을 통하여 모진 수난을 강요당했던 민족의 과거를 아프도록 느낄수 있었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될 지난날이였다.

《막걸리맛이 어때요?》

지은금이 그 어떤 류다른 기대를 안고 묻고있었다.

《우리 민족의 향기가 풍깁니다. 정말 좋군요.》

《난 이 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다오. 맞이하는 사람, 바래우는 사람들에게 우리 노래와 함께 차맛을 보이는것이 내가 사는 보람이랄지…》

《오늘은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놀랐답니다. 작은 차집이 마치 음악당으로 변한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음악회가 열리는… 참으로 인상

이 깊었습니다. <아리랑>을 언제부터 부르셨습니까?》

두사람은 다같이 친밀감에 만족했고 마음속이야기를 무엇부터 꺼낼가 생각하며 두서없이 화제를 이어나갔다.

《글쎄… 언제부터랄가. 사실 그건 나에게 있어서 자장가였다고 해야 할는지. 어머니가 배워주었거든요. 어머니는 할머니한테서 배웠겠지. 내 소리로 부른건 초원의 목화밭머리에서였을거예요. <아리랑>은 노래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말했다오. 혼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무덤이 없다고…》

지은금은 두손을 마주 모아붙이며 턱을 쳐들었다. 자못 신성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모습이였다. 무엇인가를 기원하고있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몸은 이역의 하늘아래 버려지겠지만 넋은 살아서 동쪽으로 훨훨 날아갈거예요.》

얼마나 고결한 마음을 지닌 녀인인가. 모진 세상풍파속에서도 조선사람의 얼을 지켜가는 눈물겨운 모습이였다. …

명현은 차집이 보이자 걸음을 다그쳤다. 저 집에 이국의 하늘아래서 살지만 민족의 혈통을 고이 지켜가는 한 녀인이 있는것이다.

지은금은 반백을 날리며 두팔 벌려 맞아주었다.

《이게 몇해만인가. 명현이 이 사람, 나를 잊지는 않았구만!…》

《어머니!…》

지은금은 명현의 팔을 끼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락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방안은 이전과 다름없이 정갈했다. 계수나무밑에서 토끼가 절구질하는 수정거울이 그 자리에 놓여있었다.

자리를 잡자 명현은 자기가 또다시 조국을 방문하고 온 사연을 이야기하여 지은금의 눈물을 자아냈다.

《임잔 조선사내가 분명하네. 정녕 그리움으로 안고 사는 고국일세.》

《제 걸음곁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계셨지요. 이끌어주고 부축해주며…》

《허허, 못하는 소리가 없네그려. 또 <아리랑>노래소릴 하자구?!》

지은금은 눈물절반 웃음절반을 얼굴에 담으며 손을 내흔들었다.

《이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어머니가 <아리랑>을 이 머리속에 혼으로 심어주었거든요.》

두사람의 해후는 갈래없는 이야기로 흘러갔다. 명현은 이번 조국방문시

농촌마을에서 알게 된 유복남의 인생담도 펼쳐놓았다.

세월은 한 녀성의 가슴에 피눈물나는 상처를 남기며 백발로인으로 만들었지만 못하는 일이 없다는 그 세월도 남편과 자식을 변함없이 기다리는 마음만은 달라지게 하지 못했다.

《그게 내 민족의 녀인들이지, 아무렴!》

지은금은 소리없이 울며 머리를 끄덕댔다.

그렇게들 산다. 조선사람은 가슴속에 한을 품고 산다. 어제날에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망국이라는 굴욕을 당했지만 오늘은 세상이 보란듯이 우뚝 솟아올라 자주의 존엄을 떨치고있다. 그리고 겨레의 통일이라는 자기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산다.

《임자, 여기서 조국의 상품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나?》

명현은 지은금의 물음에 머리를 끄덕여 수긍했다. 그것을 평양에서 알고 떠나왔던것이다. 려로에 동행한 에쎈회사 총사장 지그프리트와 이 문제를 두고 무척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바도 있다. 아무리 체류일정이 바빠도 이 상품전시회에 참가하리라 마음먹고있는 그였다.

지은금도 자기가 속한 동포조직이 전시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위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여 명현을 놀래웠다.

전시회장의 풍경이 금시 눈앞에 펼쳐지는것만 같았던것이다. 사실 자기는 구경이나 하자고 생각했었는데 관람객이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앞에 앉아있는 녀인이 말없이 타일러주는것이였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명현은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하나?》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거울이라는 뜻을 새기고있습니다.》

《허허, 임잔 배운게 많아서 자네가 하는 말을 나 같은 늙은이들은 가려듣기가 어렵네.》

명현은 지은금의 손을 잡고 따뜻이 쓰다듬었다. 두드러진 피줄들이 이랑을 짓고 지나온 고생살이를 드러내보인다.

《어머니, 마음만은 늙지 마십시오.》

《허ㅡ 사람의 시름이란 마음고생일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만나뵌지 오랬는데 혹시…》

지은금은 고개를 쳐들며 눈귀를 훔쳤다.

《이 늙은것들의 제일가는 고생은 자식들때문이라네. 제 낳은 자식들

이 딴 모양이 돼갈가봐 걱정일세. 그것때문에 시름을 겪는다네. 그애들은 이걸 알기나 하는지, 원…》

명현은 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채 아픈 마음으로 지은금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싼타나를 따라서 방에 들어선 지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여기가 어딘가. 그는 아버지의 연구소에 와본 일이 한번도 없었다. 어머니의 요구가 너무나 엄격했던것이다. 한해에 몇번정도 만나본것이 전부인 아버지였다. 생일날조차 어머니는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만 허용했는데 그마저 아버지가 절절히 요구하는것이기에 접수하군 했을따름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서지연은 자기에게 다가든 생활환경에 일종의 압박감과 함께 이상야릇하다고 해야 할 흥미도 맛볼수 있었다. 이 모든것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였다는것을 직감했던것이다.

싼타나라는 녀성의 뒤에 아버지가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로서는 지금의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였다는 걱정으로 마음이 조여들었다. 이와 함께 차례진 환경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것이라는 불안도 지울수 없었다.

《싼타나선생, 앉으시오.》

서상록이 권했지만 싼타나는 지연의 자리를 잡아주고나서야 자기도 앉았다. 지연의 얼굴에는 아버지에 대한 로골적인 불만이 드러나있었다.

《아버지, 날 나포했나요?》

야유에 젖은 딸의 당돌하다고 해야 할 물음에 서상록은 미간주름을 모으며 의미를 알수 없는 웃음을 흘리였다.

싼타나가 가볍게 질책했다.

《투정질같은 그런 질문이나 할 지연이가 아닐텐데요.》

《아니, 묻지 않을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로선 말입니다. 마땅히 어머니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지 않았나요?》

딸의 불만을 상록은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자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안해가 독점하고있는것이다.

《네 심정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내 말을 들어보렴.》

상록은 정수리까지 벗겨진 이마에 손을 얹으며 이야기했다.

너는 우리 가정의 불안정한 구조를 알면서 자랐다. 어머니는 이미전부터 자기의 일에 간섭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아버지이지만 나에게는 딸의 성장에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은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니. 권한을 행사할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의무는 지닐수 있다고 본다. 사실상 이 의무도 싼타나선생이 너의 재능을 발견한 기회가 마련해준 덕분이다. …

여기까지 설명한 그는 좀 멋적은감이 들었던지 말허리를 끊었다. 제 자식앞에서 거짓말을 하고있었기때문이다. 딸이 자기앞에 와서게 된것은 그의 주도세밀한 계획에 따른것이였다.

《싼타나선생, 론문을 완성하자면 많은 실험을 거쳐야 하겠지요?》

상록의 물음을 받은 녀자는 앉은 자세를 바로하며 대답했다.

《지연의 론문은 매우 가치있는것입니다. 정보기술분야에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실험도 중요하지만 준비단계에서 재료와 수단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조건구비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지연은 두사람의 대화를 매우 신중하게 듣고있었다. 자기가 발견한것과 탐구과정에 찾아낸 모든 착상과 수값이 종이우에 씌여진것에 불과하다는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리상과 현실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그것은 사실상 랭혹한것이라는것을 너는 아마도 다는 모를게다. 지출능력이 없으면 연구사업의 시작부터 빚을 지든가 포기해야 하는것이 과학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맞다드는 가장 큰 도전이다. 결과 정신적재부가 착취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거다. 중도에서 쓰러지는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이와 같은 랭혹한 현실을 네 어머니는 알려고도 하지 않거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연은 머리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알겠어요.》

싼타나의 엄숙한 눈빛이 조용히 쳐들렸고 상록의 얼굴에는 가벼운 경련이 흘러갔다. 안해의 손에서 자란 딸이 아버지를 보는 시각이 어머니와 차이점이 없다는것을 알수 있었던것이다.

《싼타나선생은 내가 믿고 존경하는분이다. 네가 아버지를 알았다니 나도 나의 심정을 털어놓으마. 나는 네가 우리 가정의 불안정한 상태를 가시고 회복시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날 리용하려는건가요?》

싼타나가 듣기 괴로운지 기도나 올리듯 두손을 마주 붙이며 그우에 턱을 올려놓았다.

《아니다. 네가 지금부터 당해야 할 일들과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대신하려고 할뿐이다. 여기에 너를 진심으로 도와줄 싼타나선생이 있고 아버지의 연구소는 너를 위해 모든 조건을 보장해줄것이다. 네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론문을 완성하게 하자는것인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어데 있는가 말이다. 너는 아버지의 진심을 리해해야 하며 지금의 환경을 접수하는것이 옳바른 선택으로 된다는걸 알아야 한다.》

지연은 고개를 수그린채 그려놓은듯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을 더이상 부정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어머니는 가만있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머리는 총명해도 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그로서는 결심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웠던것이다.

싼타나가 지연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걱정말아요. 어머니도 지금의 환경을 돌려세우지는 못해요. 모든 운동에 한계가 있듯이 사람의 감정에도 넘지 못하는 계선이 있는거예요.》

싼타나도 녀성인것으로 하여 지연의 마음을 납득이 가게 자극하는것이다.

지연은 이 순간 엄격한 자기의 지도교원으로부터 듣게 되는 충고가 고맙기보다 수치를 느끼게 했다.

내가 왜 이런 동정을 받아야 하는가. 나의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서로가 자기만을 고집하며 척을 지고 언제까지 지금처럼 살자는것인가.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였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리해하는것도 아니였다. 머리속에서는 모순이 부딪치며 섬광 같은것을 일으켰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힘을 모아 말했다.

《아버지, 결심했어요. 선생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단순한것이 아니였다. 아직은 천진하다고 해야 할 처녀의 심중에 자리잡는것은 현실에 대한 항거의 감정이였다. 모르며 산것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오늘의 한순간에 안듯싶었다. 자기에게 차례지는 혜택인듯 한 아버지의 연구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수 있었다.

이 처녀는 자기가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였으며 론문완성과정에 어떤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도전해보리라 마음먹었다. 불을 찾으려면 연기를 피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있다. 그것은 사실상 주입에 의해 이루어진 인식이다. 부모들의 편견을 나까지도 물려받을수는 없다. 어머니가 그토록 타매하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가. 그리고 나에게서 바라는것은 무엇일가.

지연은 아버지로 하여 마련된 새로운 생활환경의 문어구에서 마음이 무거워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8

씨리우스캬바레에 바클리가 기다리는 저녁시간이 왔다. 울긋불긋한 장식등불빛들이 깜빡거리고 친절한 자태를 갖춘 녀자들이 매혹적인 웃음을 뿌리며 사나이들을 맞아준다.

금발머리 젊은 녀자의 허리를 낀 바클리는 안내하는 장소로 걸음을 다그쳤다. 어느 한 방에 들어서던 그는 기겁초풍하여 멎어섰다.

매달려 추파를 던지던 계집은 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에는 샤멜이 서있었던것이다. 상전이였다. 뱀처럼 소리없이 움직이며 창백한 얼굴에 소름이 끼치는 웃음을 떠올리고 맞아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바클리씨.》

바클리는 조종을 받은 인형처럼 깍듯이 인사를 차리고나서 고분고분 가리키는 자리에 가서 공손히 앉았다. 온몸을 채웠던 욕정의 열기는 빠져달아나고 남은것은 불안과 공포뿐이다.

오늘은 상면하는 방법부터가 달랐다. 얼마나 멋들어지게 준비하고 사람을 골려대는것인가. 바클리라는 사내의 저녁놀음이 뭔지 다 알고 이렇게 불러들였던것이다. 그러나 새로운것은 없다. 지금처럼 아래사람들을 놀래우며 자기의 지위를 위엄있게 치장하는것이 샤멜의 수법이라는것을 알고있는 바클리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바클리씨, 에쎈에 대한 공작정형을 말하시오.》

자리에 앉을 생각이 없는듯 상전은 앞에서 오락가락하며 억양에 모를 세우고 요구했다. 아무런 준비도 돼있지 않은 바클리는 놀란 거위처럼 목을 뽑아올리며 가쁜숨을 몰아쉬였다. 적당히 주절거려서 모면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였다. 에쎈의 급소를 알아내라는 지령을 받고 자기의 생각을 보고했는데 이렇게 다과대는것이다.

《저로서는 의도를 알지 못하기에 사실상 어떤 행동도 할수 없었습니다. 서상록이라는 인물에게 암시도 해보고…》

《WM회사와 거래를 해볼데 대해서 권고했소?》

앞에 와서 멎어선 상전의 얼굴엔 혈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건 그저 해본 말 정도였습니다.》

《아주 좋소. 잘했단 말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하는 소린가. 칭찬인가 조소인가. 이 인간의 상통을 보고서는 알수가 없거던 하는 생각을 굴리면서 바클리는 제편에서 머리를 기우뚱거렸다.

《우린 에쎈의 북조선진출을 막아야 하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말이요. 당신은 서상록의 연구소가 지그프리트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오. 내 말뜻을 충분히 리해하리라고 보오.》

젠장,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보통간계로써는 지그프리트와 서상록의 사이에 쐐기를 박을수 없다. 이것들은 머리가 없는 무지한것들이 돼서 그저 내모는것밖에 모른다니까.

바클리는 이런 불평을 부리면서도 얼굴에는 자못 긍정하는 표정을 그려붙이였다.

샤멜이 마주서서 두손을 비벼댄다. 여윈 손가락마디들이 쓸리우는 소리가 섬찍하게 들렸다.

《바클리씨의 수하에 살인업자들까지 있다는건 아주 좋은 일이요.》

바클리로서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에쎈에 폭력을 가하라는 지령으로 해석했던것이다. 이거야말로 죽을 궁지에 몰아넣는것이 아니고 뭔가. 지그프리트 같은 거물에게 위협을 가한다는것이 얼마나 무모한짓인가.

《과연 에쎈을 그렇게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목표는 서상록이요.》

《?!…》

에쎈의 급소나 마찬가지인 서상록의 연구소를 폭파라도 하라는 소린가. 그런 일이 말처럼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것을 바클리는 알고있었다.

《지그프리트는 조심해야 할 인물이지만 서상록은 고립무원한 존재나

같소. 수단을 가리지 말고 길들이란 말이요. 그래도 공손해지지 않으면 제거해버려도 무방하오! 거치장스러운 동양인학자 하나쯤 없어진다고 해서 소란을 피울 사람들도 없을테니까. 알겠소?》

《학계와 언론의…》

바클리는 기계적으로 사고하며 무의식적으로 말하고있었다.

《그런건 문제로도 되지 않소. <정의로운> 우리의 세상에서 청산해버려야 할 당신의 그 살인업자 한두녀석을 경찰의 수중에 넘겨주면 되는거요.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은 당신이 아는게구.》

이쯤되면 지령은 하달된것이나 다름없다. 명색상으로나마 인도주의단체에서 종사해오는 자기가 이제는 살인업자들의 우두머리로 되여야 하는것이다. 살자니 이날까지 무슨짓인들 안해왔는가.

바클리는 달리는 될수 없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그럼 시작해보랍니까?》

상전은 여윈 손으로 문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시작하오, 바클리.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오.》

바클리는 방안으로 들어서는 금발머리계집을 바라보며 기가 막힌 웃음을 내뿜었다.

서상록은 자기가 골프장에 나선것이 몇해만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걸음을 옮겼다. 기분은 상쾌했다. 뭐니뭐니해도 딸문제를 자기의 의사에 복종시켰다는 안도감이 심리에 평온을 주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우줄우줄 따라서는 자기의 상대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살면서 허다한 도전자들과 맞섰다. 파렴치한 표절군들과 교활한 절취자들이 그의 주위에서 맴돌았다. 그가운데는 대학동창생도 있었고 배워준 스승이라고 해야 할 인간들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면전탈취범죄자들이였지만 저항할 힘이 없는 그로서는 개인적소유인 자기의 두뇌를 혹사하며 살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불우한 인생의 숙명이나 다름없는것이나 다행스럽게도 지적인 능력이 그의 운명을 개척해주었다. 그의 재능을 찾아준 사람인 지그프리트는 그가 성공의 첫 대문을 열도록 도와주었다.

에쎈이 지그프리트의 성공작이라면 오늘의 연구소는 서상록이 만들어낸 립신양명의 조각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는 나노기술분야에서 적수가

없을만큼 자기를 과신하는데 습관되였다. 명예의 상승과 재부의 축적은 만족을 넘어선 교만에로 부추기고있지만 그는 그조차 자기가 향유해야 할 당당한 권리로 자부하는것이다. 위축되여 무권리하던 자기가 아니였는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란 너무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제가 나서자란 땅에서 쫓겨난 신세로 남아메리카의 열대림속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되였던 인생, 그곳에서 다시 흘러와 여기 알프스산기슭에 닻을 내린 버림받은 운명…

그것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한숨과 이어진 파란많은 생활이였다. 열대림속에서 통돼지구이로 살아간 아버지는 음식만드는 솜씨가 괜찮았다. 그가 아들을 유럽이라는 생소한 대륙에 날라다 새로운 불모지에 뿌려놓았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된다는 생활의 신조를 가지게 되였다. 몽매한 사고를 가진 선친이 한숨을 섞어가며 동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한껏 고조된 불만이 가슴을 채우군 했다.

제 조상의 땅을 찾아가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안겨오지만 쫓겨난 땅으로 돌아가는것이 소원이라니 도저히 리해할수가 없었다.

서상록은 성공과 함께 거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것이나 다름없었다. 비굴할수밖에 없었던 과거로 하여 오늘은 모든 상대들을 내려다보는 성격을 갖추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는 지금도 한손에는 려송연을 들고있었다. 지금처럼 골프장에 나서면 그와 같은 심리가 더욱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돌아보니 세명의 경쟁자들이 골프채를 어깨에 멘채 허여멀끔한 얼굴들에 웃음을 띠우고 서있다.

키가 늘씬한 은발머리는 어느 고관의 아들인데 아래우도 몰라보며 무례하기 짝이 없이 달려드는 백인종의 후예다. 그옆에 선 사나이는 처음 본다. 미출한 체격에 온화한 웃음을 짓고있지만 눈빛은 자못 날카롭다.

저 사람이 상대가 될만 한데 하는 생각을 하던 상록은 초면인 사람의 얼굴에 다시한번 시선을 박았다. 어딘가 두려움이 앞서게 하는 사람이였다. 얼굴전체에 아무런 특징도 없었던것이다.

저도 모르게 눈길을 피하게 되자 이번엔 눈앞에 다가드는 모습이 볼만했다. 저녀석은 배가죽을 앞치마같이 드리우고 히물거리고있지 않는가. 크지는 않아도 집적회로공장을 창설한 기업가다. 억만장자가 돼보려는 꿈을 꾸는 사람이니 자신만만할수밖에 없지.

상록은 푸른 잔디밭우에 놓인 골프공을 바라보며 골프채를 쳐들어올

렸다.

기상조건이라는 변수까지 계산하고 공의 자리길과 운동각도와 속도에 필요한 힘의 세기를 골프채에 전달하는 그였다. 정지상태에 있던 하얀 공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것이 보였다. 첫 구역에서 목표로 설정된 구멍에 정확히 탄착되는 공을 보고나서 등뒤에 선 사람들이 놀란 소리를 내며 박수까지 쳐댔다. 밀차에 골프채들과 공, 음료들을 실어나르는 처녀가 재빨리 그의 앞에 새 공을 놓아주면서 말했다.

《선생님의 솜씨는 여전합니다.》

네알중 세알을 명중한 상록은 뒤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밀차쪽으로 갔다. 그곳에 싼타나가 서있었다. 함께 오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여긴 어떻게 나타났소?》

《골프선순줄은 몰랐어요.》

싼타나는 음료통을 터치여 내주며 말했다.

《고맙소. 오래간만에 여길 와보는군.》

《정신적인 여유가 생겼다는걸 말하지요.》

싼타나는 골프공이라는 작은 비행체의 운동을 일별하며 한숨을 내그었다.

《무슨 일이요?》

여전히 한곳에 시선을 보낸채 녀자는 복음서를 읽는듯 한 어조로 말했다.

《지연에게는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은 의미를 새겨들으려 하였다.

《왜냐하면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지연의 차사고를 아직도 원인이 모호한 사건이라고 간주하는 싼타나였다. 만일 그의 가설을 인정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불안이 감돌고있다고 판단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딸을 집에 보내야만 한다. 다문 하루라도… 안해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던것이다. 그것마저 숨겨두어서는 안되기때문이다.

안해가 어떻게 나오겠는가는 불보듯 했지만 싼타나의 예언대로 현실을 돌려세우지는 못할것이다. 이것은 상록이 계획한바 그대로인것이다.

《좋소. 일체 외출을 시키지 말며 항시적으로 싼타나의 시야에 두어야 하오. 이건 지시가 아니라 나의 부탁이라는걸 알아주기를 바라오.》

《그러지요.》

두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록으로서는 초면이나 같은 사람이 다가왔다.

《선생의 상대가 못된다는걸 알았습니다. WM회사의 리사 다울링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여 반갑습니다.》

신사답게 인사를 하는 사나이를 바라보며 상록은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WM회사에 대해서는 바클리가 이미 암시한바 있었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한 상면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자기의 행선지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수 있겠는가. 아무런 특징도 가지고있지 않는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상록은 화답했다.

《서상록이라고 합니다.》

《알지요. 선생을 몰라봐서야 됩니까.》

웃음뒤에 무엇인가를 감춘듯 한 얼굴을 하고 다가드는품이 교제의 능수라는게 알렸다. 수염에 발린 누르끼레한 액체를 향수내가 풍기는 수건으로 훔친 사나이는 친절한 웃음을 지우지 않은채 화제를 펼쳐놓았다.

《상록선생은 오늘날 기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감이지만 난 학자에 불과합니다. 연구사업이 업이거든요.》

《오늘의 세계는 선생 같은분들에 의하여 개조되고 발전하는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경쟁에서 패자들이란 사실상 개발에서 뒤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세계는 새로운 산업시대에 들어서리라고 보는데요.》

어지간히 준비된 인간이 자기앞에 서있다는것을 상록은 감득했다.

싼타나는 례절바른 태도로 서있을뿐이다. 이쯤한 론의에는 자기의 지론을 당당히 펼칠수도 있는 녀성이지만 관조자와 같은 자세였다.

《당신의 분석적인 안목에 감탄하게 됩니다.》

상록의 어조에는 가벼운 비웃음이 담겨있지만 상대는 그쯤은 아랑곳도 하지 않았다.

《두뇌가 비상한 사람들의 호경기가 시작됩니다. 선생은 언제나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수 있지요. 내 말을 리해하십니까?》

서상록은 앞에 선 사나이와 눈길을 마주하는것을 피하려 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나타났다. 바클리가 이미 암시한 인물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면목적은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바클리씨를 아십니까?》

상록의 기습적인 질문에 마주선 사나이는 약간 놀라는 기색을 지어보이고나서 인차 표정을 수습하였다.

《알지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요?》

《했지요. WM의 중역이 나와 상면하고싶어한다고 알려주던데요.》

은근히 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는 상록이였다.

《그 사람이야말로 뛰여난 거간군이랍니다. 아마 나의 웃사람을 만났을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사태를 수습하는데서도 상대는 수가 높은 사람이였다. 의심할 수 없게 대답하는 설법을 갖추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상록의 안색을 주시하며 자기의 의도를 설명했다. WM은 에쎈과는 대비가 안되는 다국적독점기업체로서 많은 연구개발팀들을 가지고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히 자기네는 투자의 많은 몫을 과학연구집단에 돌리고있다면서 재정적규모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상록의 연구소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나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과학적발명을 중시하지만 자기의 좌우명과 생활신조도 가지고있소.》

《그걸 표명할수 있겠습니까?》

《<모든것을 의심하라!>,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라면 배반을 당할지언정 배신하지는 않는다는것이 생활신조요.》

사나이는 만족한 얼굴로 박수까지 쳐댔다. 일변하는 모습앞에서 상록은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것을 맛보지만 싼타나의 시선은 경망스러워진 남자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있었다.

《상록선생, 기업체들간의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는 지난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나타난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암둔하면 실패를 면치 못하지요. 이것이 중요한데 복잡다단한 오늘의 세계에서는 더욱 의미가 깊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압적인 말투에 도전해나선것은 싼타나였다.

《당신은 WM의 리사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하는 말을 들으면 기업이 아니라 정치문제에 관심이 깊다는감을 주는군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실수 있어요?》

예견치 않았던 방향에서 화살이 날아오자 말솜씨를 갖추었다는 사나이

도 약간 당황해하며 싼타나를 바라보았다.

《싼타나, 그런 질문은 례의에 어긋나오. 알 필요가 뭐요? 우린 WM의 리사로 믿으면 그만이요.》

상록은 은근한 비난을 상대에게 들씌우고나서 밀차를 따라 새로운 구획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자기가 목적한 대화가 일방적으로 끝나버린것으로 하여 사나이는 분기를 누르며 수염을 매만지였다.

《서상록선생, 당신은 모르는게 정말 많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그에 대한 대답을 싼타나가 하였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지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한 말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오.》

인상좋은 웃음을 한껏 떠올린 사나이가 비양조로 내뱉는 말이였다.

올리브나무그늘밑으로 바클리가 걸어가고있었다. 점잖은 옷차림이다. 줄무늬가 간 연회색샤쯔에 넥타이까지 맸으니 말이다.

그는 이미 지령을 받았다. 서상록 하나쯤은 식은 죽 먹기나 같다. 점잖은 권고를 했음에도 마다하면 버릇을 가르치는건데 어려울게 하나도 없다. 주문살인업자들이 득실거리는 판에 망나니 한두놈 채용하는데 돈이 몇푼 들겠는가.

하지만 바클리는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타산할줄 알았다. 요긴한 흥정을 해야 할 대상인데 아직은 그렇게 다루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여보시오, 상록선생. 나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고 마음을 넉넉하게 먹어보구려. 당신이 에쎈때문에 화를 당하는건 내탓이 아니요. 흐흐…

속으로 이런 수작질을 하면서 바클리는 손전화기의 수자를 꾹꾹 눌러댔다.

호출신호음이 삐삐 울리기에 기다리던 그가 《여보시오, 바클립니다.》 하고 틀을 차려 말하자 왕청같은 소리가 대답했다.

《바클리선생, 뒤를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십시오. …》

녀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반복하여 울리자 바클리는 와뜰 놀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자기의 뒤에서 무심히 걷고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복면을 하고 자기를 미행하는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것은 이 재빛수염쟁이를 놀래운 한순간의 공포였다.

번호판을 다시 누를 때마다 꼭같은 녀자의 목소리가 반복되자 그는 손

전화기를 둘러메칠듯 높이 쳐들었다가 기막힌 웃음을 지으며 바지주머니 속에 밀어넣었다.

상록에게 놀리웠다는것을 깨달은 바클리는 그 량반의 머리통이 체적만 큰게 아니라 확실히 비상하거던 하고 생각하며 식당에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되여오지 않는가. 하느님은 나의 배에도 하루 세끼를 끊지 않게 채워넣으라고 가르쳐주셨단 말이야. 세상에 나처럼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만 있다면 참회라는 의식은 애초에 없었을거란 말이지.

바클리는 유쾌한 기분을 다시 찾은 다음 식탁에 마주앉았다. 그것은 섭생에 앞서 그가 어김없이 지키는 생활습관이다. 위속으로 들어가는 살지고 기름진 고기덩어리들도 먹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소화된다는 법칙을 일찌기 터득한 그였기에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이 음식점의 훈제한 게사니고기가 별맛이다.

바클리는 애주가답게 흰포도술을 한잔 마시고나서 포크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은 다음 맛을 보며 천천히 씹었다. 그는 방금전에 손전화기때문에 당한 일을 생각하며 턱을 들고 웃어댔다.

재미있어. 통화중이였거나 받지 못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도록 장치를 해놓았을게거던. 뒤를 돌아보라?!

바클리는 식당의 대형유리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가로수와 길, 사람들이 보인다. 저게 쌍드가 아닌가. 어깨에 멘 작은 가방을 한들거리며 맵시있게 걸어간다.

바클리는 고기를 꿴 포크를 든채 한손으로 얻어맞은바 있는 볼을 만지며 쌍드를 노려보았다.

저게 사실은 먹음직하단 말이야. 궁둥이폭은 좀 좁아보이지만 잘룩한 허리와 미츨한 다리는 정말 그립게 하거던. 네년이 내 귀통을 친 값을 치르게 될게다. 이 바클리의 더운 찜질을 당하고나면 그 맛을 잊지 못할거야, 흐흐…

재빛수염쟁이는 제 흥에 떠 욕심을 부려대면서 쌍드라는 녀자명물을 어떻게 함정으로 몰아넣을가 하고 궁리했다.

바클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쌍드는 길을 걸으면서 손전화기로 정동녀를 찾아 지연이가 아버지의 연구소에서 론문지도를 받게 된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예견한것처럼 정동녀는 놀라움을 터뜨리였다.

《쌍드, 그게 사실이예요?》

《놀라긴, 언니도 참.》

《그 사람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 이미전에 난 오늘같은 일이 있을것 같아 경고를 했어. 지연의 일에 간섭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이야. 이런 란폭한 행위를 하려고 자기 속심을 숨겼거던. 참을수 없어!》

《진정해요, 언니. 이렇게 된 이상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요.》

쌍드는 정동녀를 안심시키고나서 통화를 끝냈다.

9

40평방이 되나마나한 이 집에서 모녀가 10년이 넘도록 살아왔다. 그나마 다달이 집세를 물어야 하는 생활의 터전이였다. 정동녀는 딸 하나에 기대를 걸고 고생살이를 달게 여기며 살아오는것이다.

집에 들어오면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나가는것이 지연에게 있어서 어느덧 생활습관으로 되였다.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울수 있는것이란 그것뿐이였기때문이다.

딸은 부엌에서 남새를 씻어서 썰면서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식탁을 마주하고 미나리를 다듬으며 시름겨운 얼굴로 듣기만 한다.

론문지도교원이 참으로 엄하단다. 하루일과에서 1초도 어기지 않으며 실험과정에 나타나는 결함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변명할 말조차 없게 한다면서 지연은 말했다.

《아마 독실한 신도일거예요. 눈을 이렇게 감구 고개를 쳐든채 한동안 서있군 하는데 얼마나 경건한 자세인지 몰라요. 나이는 서른살을 훨씬 넘긴것 같은데 독신이더군요. 애초 누구를 사랑해본 일이 없는지도 몰라요. 감성적인 언어가 매우 빈곤하다는걸 느끼게 하거든요. 엄마, 듣나?》

정동녀는 수굿한 자세로 곱슬곱슬한 미나리의 작은 잎을 만지며 시들한 어조로 대답했다.

《계속하렴.》

지연은 어머니쪽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벽에 가리워 식탁쪽이 절반만 보이는데 어머니는 약간 등을 돌려대고있었다. 어딘가 불만스러워한다는게 알렸다. 그게 어디서 오는 감정인가를 모르지 않지만 더 말을 하게 되지 않았다.

《싼타나선생의 말에 의하면 내 론문을 완성하는데 한달이상 걸려야 한대요. 오늘 하루만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자주 오지 못해도 걱정마세요. 조건은 괜찮아요.》

《그렇겠지.》

어머니가 시름에 젖은 소리로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으로 들어가자 지연은 하던 일을 멈춘채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는 금시 잦아드는 무거운 정적에 숨이 막혀나기까지 했다. 그것은 지연이 느끼는 일종의 압박감이였다. 방안에서 정동녀의 한숨소리와 함께 분기가 섞인 말이 울렸다.

《너까지 속에 없는 소리를 하면 난 산다는게 고통일뿐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나요?》

《자기한테 물어야지.》

《정말 모르겠군요.》

《너를 모르고 산 엄마다.》

지연은 마침내 발끈 성을 냈다.

《내가 어쨌다고 그래요. 내가 뭘 속이고있다는거예요?》

지연은 자기가 아버지의 연구소에서 론문완성을 하게 되였다는 사실만은 말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이야기했댔자 좋은 일은 없을것이며 지금 형편에서 다른 방도는 찾을수 없기때문이였다.

싼타나의 지도를 받으며 며칠간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것을 알았던것이다. 이 고비를 넘기면 어머니의 부담을 덜수 있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그는 현실에 순응할수밖에 없었다.

《너 오래전부터 그런 약속을 했지?》

어머니의 엄해진 물음에 지연은 속이 덜컹 내려앉는것을 간신히 지탱하며 반발했다.

《도대체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떤 약속을 누구와 했다는거예요?》

《누구긴, 아버지라고 할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지연은 자기가 입밖에 내지 않으려던 말을 어머니가 다 알고있다는 사실앞에서 당혹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대학에 알아보기라도 했단 말인가. 지금까지 그런 일은 있어본적이 없다. 한것은 딸을 믿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버지가 알렸을가. 불간섭을 어머니와 약속한분이 아닌

가. 오늘 집에 갔다오라면서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은 아버지다. 그저 어머니에게 알리며 잘 리해시키라고 했을뿐이다. 도대체 누가 나보다 먼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가.

지연은 머리속이 혼란되여 뭐가 뭔지 분별하기 어려워났다.

《왜 아무 말이 없지? 대답을 해보렴.》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의혹이 이름할수 없는 혐오감으로 번져지기 시작하였다.

세상에 제 어머니를 속이고싶은 자식이 어데 있겠는가. 딸 하나를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은 어머니를 돕자고 한 일인데 생각했던것보다 더한 노여움을 터뜨리기에 기가 막혔던것이다. 모질다모질다한들 어머니 같은 녀자도 있을가 하는 감정이 북받쳐올랐다. 아버지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니고 가정의 부담을 덜려고 하는것만은 사실이다. 모르는척 하고 흘려보내도 될 일인데 굳이 파헤쳐서는 뭘 한다는건가.

지연은 지금껏 살면서 가지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지울 길이 없었다. 아버지에게만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녀자가 어머니인것이다. 그 원인이란 자기가 알건대 얼마든지 리해할수 있는것이였다. 비타협적인 그 태도는 사실상 하나의 괴벽성에 불과하다. 다 자란 딸을 사이에 놓고 승벽을 부려대는 부모들의 행태는 어리석다면 어리석고 무지스럽다면 무지스러운것이다.

《엄만 자기 생각은 다 옳다고 여기나요?》

지연은 이렇게 묻고나서 겁이 났는지 한손으로 입을 가리였다. 난생처음인 무례한 말버릇이였던것이다.

《그게 이 엄마에게 해대는 말본새냐?》

지연의 눈귀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슬이 맺히더니 주르르 굴러내렸다.

《난 정말 몰랐어요. 싼타나선생과 간 곳이 아버지의 연구소였어요. 이게 잘못인가요? 엄마 부담을 덜자구… 지금껏 얼마나 고생시켰나요. 막상 졸업론문을 완성하자니 거기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다는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예요? 엄만 너무 독선적이야! 반목, 질시… 리해는 언제 가면 하게 되는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딸의 하소연과 원망이 그치자 정동녀가 방안에서 나오는데 그 기상은 얼음장같았다.

《다 자래워놓으니 이제는 제 말을 할 때가 됐다는거냐. 네 아버지라는 사람은 물질을 분해하듯이 이 엄마를 파괴한 인간이다. 난 리상과 포부를 잃었다. 이것이 나와 아버지의 관계다. 네가 말하는 리해와 양보란 우리들사이에는 이미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네가 이걸 모르며 살았단 말이니. 그건 오늘의 리기앞에서 자기를 속이는것에 불과해!》

지연은 어머니의 론조가 가혹하게만 들렸다. 부정을 전제로 하는데 무엇인들 납득하겠는가. 하지만 과거를 놓고 오늘을 평가하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생활에서는 미래가 보다 중요한것으로 되여야 하기때문이다.

《그럼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결심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론문을 완성하자면 실험조건이 필요해요. 이제라도 다른 곳을 찾으라면 대학에 제기하겠어요.》

《이건 날 위협하는거냐?》

《어쩌면 이리도 답답하게 구나요. 아버지가 싫어서 그러길래 연구조건을 바꾸겠다는데 말뜻을 모르겠어요. 엄마 요구를 따르겠다는거예요.》

정동녀의 얼굴에는 차거운 서글픔이 어리였다.

《이 엄마가 현실을 인정할줄도 모르는 편벽한 인간으로만 보이니? 내가 노여운건 네가 모르는게 있어서 그런다.》

딸의 눈물어린 눈길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게 뭐나요?》

《아버지를 닮아가서는 안된다는거다.》

《그럼 어머니처럼 살라는건가요?》

매정스러운 물음이 계속되자 정동녀는 두손을 마주잡고 힘껏 비틀어대며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뿌리없는 나무가 되지 말라는거야!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모두에게서 얼을 빼앗았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해. 너는 네 넋을 찾아 살아야 한다. 이걸 잊으면 안된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지연은 어머니가 부르짖듯 하는 말을 들으며 새겨보려고 하지만 그 뜻을 알기는 어려웠다. 그는 무엇인가에 항거하고싶은 심정에 빠져들었다.

생활은 왜 이다지도 복잡한것인가. 자기로서는 가장 단순하게 여겨온 아버지와 어머니를 리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울수 있는가. 순수한 과학만을 추구해온 처녀로서 지연은 자기 가정이 안고있는 복잡한 문제를 풀이할 해법을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착잡한 감정에 시달리던 지연은 깊은 생각없이 물었다.

《내가 아버지의 연구소에서 론문을 완성하고있다는걸 누가 알려줬어요?》

《쌍드다, 왜?》

어머니가 하는 대수롭지 않은 대답에 지연은 놀라움을 터뜨렸다.

《예?!…》

성당앞거리에는 중세기의 건물들이 밀집되여있어 고풍이 창연하다. 하나의 군을 이룬 건축물들은 성곽을 방불케 하였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현대적인 조형건축미와는 동떨어진 보수적인 색채까지 엿볼수 있게 했다. 세월의 비바람속에서 거무틱틱해진 모습들이지만 자못 기상이 엄숙하다. 좁은 골목길들이 합쳐지는 곳에 소광장이 있었다. 지금은 그곳에서 환희에 넘친 음악이 울려나오고있었다.

한여름의 해빛아래서 집씨녀자들이 자기들의 고유한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률동의 작은 바다를 펼쳐놓은것이다. 알락달락한 옷을 차려입은 녀자들이 밝은 색갈의 수건을 어깨너머로 드리운채 공작새깃처럼 두팔을 은은히 쳐들고 가벼우면서도 물결치는 걸음으로 반원형을 이루며 아름다운 미소를 보낸다. 얼굴색이 청동빛에 가까운 청년이 몸에 꼭 맞게 지어 입은 흰옷차림으로 기타를 안고 나서더니 가려듣기 힘들 정도의 낮은 음으로 줄을 튕기자 그에 맞춰 녀자들이 일제히 어깨를 떨고 가슴을 흔들어댔다. 그 고요한 꽃물결이 서서히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기타와 손풍금, 그들만이 가지고있는 간편한 타악기들의 선률에 따라 점차 박력있게 고조되기 시작한다.

집씨녀자들이 윤기도는 입술을 벌리며 경탄 비슷한 소리를 일제히 쏟을때 상아빛이발들이 드러나며 해빛에 반짝거렸다. 발구름소리가 타악기와 소리맞춤을 하면서부터 녀자들의 춤가락은 더욱 격렬해졌다. 량옆에 갈라서서 반주를 하던 젊은이들이 일제히 먹임소리를 내며 춤판에 몸을 날리고는 열정에 넘쳐 률동을 펼친다. 영원히 정착을 모르는 사람들의 자유로움이 폭발하는것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간직해온 자기들의 노래와 춤을 자랑하고있다. 그 세계에는 자기들의 땅도 나라도 없지만 이들만이 지켜올수 있었던 삶이 태동하고있는것이다. 구경군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

인파속으로 들어선 지은금은 자못 흥미있는 눈길로 집씨녀자들의 춤가

락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정월보름달이 떠올랐고 귀전에서는 놋양푼에 뒤집어놓은 바가지를 두드려대는 구성진 음향이 들려왔다. 타향만리에 흘러온 조선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사는 부락들마다에서는 정월대보름달을 마중하는것이 례식이나 같았고 그밤에는 흥에 겨워 민족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민족의 피줄을 타고 오래도록 전해지는것이 노래이고 춤인것 같았다.

밤이 깊도록 부르고 추고나면 고국이 더욱 그리워났고 서로서로 손을 잡고 동쪽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울면서도 조선사람임을 잊지 말며 살자고 굳은 약속을 나누었다.

《원, 어머니가 이런 곳엘 다 나와계시다니요.》

웬 남자가 곁에 다가서며 하는 소리에 지은금은 흠칠 놀라며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키가 어찌 큰지 고개를 쳐들어야 누군지 알아볼수 있었다.

이 사람아, 그 수염만은 좀 다듬질을 하라구 하고 타이르군 한 사내이기에 그는 허허 웃음을 앞세우고나서 말을 받았다.

《볼일이 좀 있어서 나왔다가 구경거리가 생겨 걸음을 멈췄다네. 그런데 날 어떻게 알아봤나?》

수염을 되는대로 기른 사나이는 《형제》라는 재미나는 이름을 단 음식점의 주인이였다. 지금도 웃어보이는것이 분명한데 긴 얼굴이 성난듯이 일그러진다.

《나라는 사람이 눈이 밝고 귀가 넓다는걸 알면서도 그러시는군요.》

《그래, 일은 잘되나?》

《우리야 배나 곯지 않으면 되지 무슨 벌이를 하나요.》

《임자같이 태평무사한 사람도 쉽지 않아.》

《돈벌이를 하려들면 마음이 더럽혀지거든요.》

나어린 집씨소녀가 손풍금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부드러운 중음인데 어른들의 노래를 조금도 손색없이 형상해내는것이다. 어린 가수의 뒤에서는 녀인들이 아름답고 사색적인 률동으로 받쳐준다.

《하긴 그래, 저 사람들처럼 구경군들이 돈을 줘도 안 줘도 그만이라는 배심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인생들도 있는거지.》

사람들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지은금을 따라서며 형제음식점 주인은 거치른 수염을 한손으로 쓸어댔다.

《우리한텐 저런 노래두 없수다.》

지은금이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얼굴이나 살펴서는 속내를 가늠할수 없는 사람인것이다.

《다 제나름으로 사는게지.》

《아무렴요. 더럽혀지지 않은 맘으로 옳바르게 살면 되는게 아닌가요.》

《임자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나.》

주인이 쭈빗이 내려다본다. 머리가 희여가는 이 자그마한 늙은이가 어머니처럼 느껴지는것이였다.

《허허, 또 나를 추어주는군요. 어머니가 나라는 놈을 잘 길들여주시우.》

《오늘은 별스럽게 군다. 이런데서 날 찾아낸걸 보면 무슨 할 소리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것 같기도 하구 아닌것 같기도 하구…》

《이것 보지. 임자답지 않은 말을 하지 않나.》

《저기 가서 좀 앉을가요?》

주인이 지은금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전나무가 그늘을 던지고있는 나무의자로 데리고 갔다.

《덥지요?》

《일없네. 어서 말하게.》

주인은 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은금은 그가 하는 말을 무던히도 밭아서 듣군 한다.

외손녀인 지연이가 이곳에 와서 대학졸업론문을 완성하게 된다는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딸에게서 들은 소리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동닿지 않는 말이다.

에쎈이라는 독점회사가 조선과 경제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군들이 많단다.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는가 하는 의문은 들었지만 참고 듣기만 했다.

사위라는 사람이 차려놓은 연구소가 에쎈회사와 거래가 깊어 피해를 볼수 있다는 은근한 암시 비슷한 소리가 나와서야 그는 귀를 강구며 정신을 모았다.

세상에는 남의 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방해군, 훼방군들이 너무도 많다. 이야기가 가지를 치는대로 따라가보니 서상록과 외손녀를 노리고 어떤 사

람들이 무슨 불순한 일을 벌려놓을수도 있다는게 아닌가.

그는 펄쩍 놀랐다.

《사위라는 사람은 어른이구 이름이 나서 그럴테지만 코흘리개나 같은 내 손녀를 노린다는건 무슨 소린가?》

《그 외손녀의 머리가 비상하다는군요.》

《헌데, 그게 어째서?》

《그걸 제일 값이 나가는 돈덩이로 여기는 무리들이 많거든요.》

《허허ㅡ 사람머리속도 훔쳐내는 세상이 된다는건가?》

《그런짓은 벌써 벌려놓은지가 오랜걸요.》

《임잔 그걸 어떻게 알아냈나?》

주인은 구부정히 앉아서 덤덤한 얼굴만 보인다. 자기는 할 말을 다했으니 이젠 지은금이 알아서 하라는 투였다. 그러잖아도 한번 만나 속으로 걱정하던바를 알려주고싶었는데 오늘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으니 이젠 마음이 편해지는듯 한 표정이였다. 그만큼 두사람은 자별한 사이였다.

지은금도 이 사람을 자식만큼이나 여겨오는터였다. 알고지낸지도 10여년이 지난 사이다. 음식점주인이나 차집주인이나 살아가는 모양이 비슷한지라 사귀게 되였는데 이 사나이도 불행한 인간이였다.

낳아준 부모조차 모르며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 사람이 진국인데다 지은금이 속한 동포단체의 일이라면 사심없이 도와나서서 고맙기가 이를데없다.

《나야 귀가 밝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내 외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임자가 나서주게.》

《예?》

《놀라긴. 임자야 옳은 일에 몸을 아끼지 않지 않나. 내가 누굴 믿겠나.》

주인은 자못 난처한 안색을 지었다. 딸을 타일러 사위네 연구소에서 지연이가 론문을 완성하도록 해주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가뜩이나 편안치 못한 집안의 일에 좋지 못한 소리라도 될가봐 근심이 앞섰던것이다.

《허허, 내 공연한 걱정을 끼쳐드리는가보군요. 일이 잘될테니 근심하지 마시우. 우리애들이 여간 날래다구요. 왼심을 쓸테니 마음을 놓으라구요.》

선선한 대답을 들으며 지은금은 사내의 얼굴에 눈빗질을 해댔다. 생기기가 우직스럽게 보이지만 궁냥이 깊고 마음을 먹으면 두말할줄 모르는 대장부라는것을 알기에 마음이 놓였다.

외손녀가 보고싶었다. 대견하게 번져가는 혈붙이였던것이다.

한편 마음속에 고인 시름이 한숨으로 흘러나오는것도 막을수 없었다. 사위라는 사람이 명성을 등대고 멋없이 눈이 높아 장모의 말 같은건 무시하는 판에 딸이라는건 속이 돌아앉아서 서방인 사내를 아예 사람취급을 안하며 마주서려고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앙숙이다. 다 자란 딸자식앞에서 부끄러운것도 모르는 부부간의 행실머리에 실망을 금하지 못하는 지은금이였던것이다.

주인이 그의 심란한 마음을 가셔주기라도 할듯 물었다.

《좋은 차잎이 들어왔는데 넘겨받지 않으시려나요?》

《전번에 가져온게 아직 남아있다네.》

《내가 알선하는건 등탈없어요. 값도 얼마든지 흥정해드리지요.》

《그야 어련할려구.》

지은금이 그만 뜨려는 기색을 보이자 주인은 그를 부축하여 일으켜주었다.

10

쌍드는 싼타나가 인도하는대로 걸음을 옮겼다. 사교계에 얼굴 한번 내민적 없는 싼타나지만 이미전부터 알고있었으며 만나기를 희망해온 녀자다.

두사람의 차림새는 대조적이였다. 발레무용수였던 녀자는 자기의 육체미를 시위하려는듯 감빛색 짧은 치마에 눈같이 흰 양복을 입었지만 한걸음 앞서서 걷는 싼타나의 옷차림은 수녀를 방불하게 했다. 땅에 끌리울것만 같은 검은색치마에 소매가 긴 같은 색의 웃옷을 입은탓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성당안에 들어선 쌍드는 신비한 벽화들에 위압된듯 놀란 눈길로 이것저것 살피면서 제 생각을 하였다.

인류의 과학적인 사유가 우주개척의 길에 들어선지도 오랬건만 신앙심이라는 관념은 사람들의 의식속에 의연히 존재하는것이다.

그러고보면 싼타나라는 녀성은 얼마나 모순적인가. 과학과 비과학을 다

같이 추구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실은 불빛이 어두워 한층 압박감을 불러왔다. 쌍드는 싼타나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으며 둘러보았다. 그림자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있는것이 보였다. 이들은 하느님의 계시를 마음속으로 들으며 자기들의 령혼을 찾고있는것이다.

《쌍드부인,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녀자예요.》

억양이 모호한 싼타나의 말을 들으며 쌍드는 흠칫 몸을 떨었다. 장소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평가였던것이다.

집광을 받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그리스도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앞으로 다가들자 쌍드는 저도 모르게 두손을 맞잡았다.

녀자의 미란 죄악의 뿌리라는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자기 역시 아름다움을 유혹의 무기로 삼은 녀자가 분명했다.

그는 마음이 이상할만큼 떨려나는것을 감수할수 있었다.

하느님이 내 인생을 알고있을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의 래세는 지옥인가.

이런 생각이 머리속을 휩쓸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저도 모르게 나오는 쓴웃음을 삼키였다.

주여, 그대의 사도들을 보시라. 성당의 어두운 곳에서 간통을 서슴지 않는 요물들도 없지 않거늘 이것을 어찌 하느님의 섭리를 전파하는 신성한 사람들의 품성이라 하오리까.

《발레무용수의 기교를 오늘까지 간직하고있는가요?》

기도를 올리는줄로만 알았던 싼타나가 묻는 말에 쌍드는 눈을 감았다. 무엇인가를 넘겨짚는가 하면 암시하기도 하는것이다.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발레무용은 생명이 짧은 예술이랍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세요.》

《싼타나선생은 이곳에 자주 와서 참회하는가보지요?》

《서상록박사를 유혹하려는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랍니다.》

쌍드는 입술을 약간 내밀어보이며 낮으나 재빨리 대답해치웠다.

《외로운 마음은 의지를 바라지요.》

《부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랑이예요.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닌가요?》

《부탁해요. 헛된 꿈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자기의 주위를 관찰하

는 눈을 가지는게 필요하다는걸 권고하는바예요.》

자기가 할 말을 마친 싼타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사라졌다.

쌍드는 자기가 정말 어떤 꿈을 꾸지 않았는가 하여 눈을 비비며 기도실안을 서둘러 둘러보았다.

서상록의 기분상태는 매우 저조했다. 전에없이 연구사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방향에서 두서없는 생각이 밀려들어 사색을 집중할수가 없었다.

골프장에서 만났던 WM의 리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이따금 상기되는가 하면 바클리의 얼굴이 떠올라 불쾌한 생각이 치밀어오르기도 했다.

자기를 놓고 어떤 흥정을 하려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존심을 자극하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로서는 지금과 같은 심리상태를 맛보기는 처음이였다. 자부가 습관처럼 되여버린 서상록에게 있어서 어떤 흥정물이 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것이다.

그는 오늘신문을 통해 하나의 놀라운 사실에 접하였다. 에쎈이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하고있었던것이다. 은행들이 대부를 동결할 결심을 표명했는가 하면 이 대독점체의 일부 산하기업체들에서는 《파업》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파업》이라는게 참 이상야릇했다.

대개 파업이라고 하면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는것이므로 그들의 불우한 처지를 동정하는 서상록자신도 충분히 리해를 가지고 공감하군 하였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서는 지난 시기와는 달리 임금인상이나 로동조건의 보장, 개선과 같은 명확하고 정당한 요구조건도 없이 덮어놓고 회사측 지도부의 무조건적인 사퇴를 주장하고나선것이 괴이했다. 그조차도 수천수만의 로동자들이 서로 련대, 호응하여 일어난것이 아니라 고작해서 수십여명정도밖에 안되는 로동자들의 소집단 몇몇이 개별적인 《로조간부》(그자들은 로조간부라기보다 주먹패들의 두령에 가까운 인물들이라는 말도 있었다.)들의 사촉하에 산발적으로 들고일어난것이였다. 차라리 《파업》이라기보다 란동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때아니게 나타나는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들은 결코 우발적이 아니라는것이 서상록에게도 확연했다.

그는 에쎈의 조선에로의 진출을 불허하기 위한 세력들이 마침내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그프리트는 이와 같은 도전을 예견하였을것이며 각오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도전을 이겨낸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대해 상록은 우려감을 지울수 없었다.

바클리의 권고가 한갖 흥정이 아니라는것도 알수 있었다. WM의 접근에 대해 랭대한것이 옳은 처사였는가고 자신에게 묻게도 되였다. 아무리 코가 세다는 상록이지만 연구소의 운명과 관련되는 일앞에서는 정신적으로 동요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에게서 명예는 재부보다 더 귀중한것이였다. 연구소를 명예의 상징으로 여긴다. 연구소는 곧 서상록이며 서상록이자 연구소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었다. 따라서 연구소를 지키는것은 곧 자기를 지키는것이라고 여기는 그였다.

상우에 놓아둔 손전화기에서 호출음이 울리자 상록은 피로한 눈을 비비며 집어들었다.

전화번호를 본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였다. 안해였다. 필경 불러대리라는 예견은 하였지만 막상 목소리를 듣자니 속에 걸리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안해를 속였다는 죄책감이였다.

《저예요. 당신은 절 만나야 하지 않나요?》

우려한바 그대로 안해의 목소리를 통하여 오연한 태도를 보는것만 같았다.

《물론 만나고싶소. 하지만 내가 먼저 요구할수야 없지 않소.》

《당신다운 말이군요. 그럼 만나요.》

《알겠소. 언제 어디로 오라오? 만나군 하는 그곳이요?》

《래일, 너도밤나무가 많은 그 계곡으로 오세요.》

《어디라구?》

《잊었는가요? 우리가 살았던 그 골짜기말이예요.》

얼떠름해서 물었던 상록은 한방망이 얻어맞은 사람처럼 후줄근하여 고개만 궁싯댔다. 그들은 10여년세월 안해가 정한 이른바 중간지대에서 만나군 하였다. 서로가 떨어져 살고있는 거리를 2등분 한 지점이였는데 안해가 이번에는 장소를 바꾼것이다.

서상록으로서는 안해가 만나자는 곳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났다. 그 계곡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목조건물이 아직도 있다. 안해와의 신혼생활이라고 해야 할 나날들이 흘러갔으며 딸이 8살을 먹도록 자란 집

이였다. 파괴된 한가정의 잔해라고 해야 할 옛집이 있는 곳에서 만나자는 안해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는 모르지 않았다.

《가정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은 아마 배부른 사람들이 모여서 만족한 생활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할거예요. 아니예요. 절대로 그렇게만 되여서는 안되는 보금자리가 가정이라는것을 알수 없는 당신일줄은 몰랐어요. 우린 시작을 잘못했어요. 서로가 너무도 몰랐단 말이예요. 당신은 자기밖의 어느 누구도 알려고 안하는 사람이지요.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기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조차 리해하지 못하는거예요. 아버님은 우리 가정의 넋이였어요. 아버님은 우리 가정의 전통이였단 말이예요. 당신이 그처럼 팔시해온 아버지지만 나에겐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린 뿌리를 잃은 나무가 되여버렸어요. 이 말의 뜻을 영원히 리해할수 없다는데 당신의 비극이 존재한다는것을 알아야 해요.》

상록은 이러루한 안해의 지탄을 들으리라는 생각을 앞세우며 피할수 없이 당해야 하는 일로 속이 부글거려댔다. 넋이니 전통이니 하는 말에 지금껏 시달려온 자기였던것이다.

안해가 말하는 그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있는가. 민족이나 전통보다는 생존경쟁이라는 가혹한 현실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해야 할것이다.

굳이 넋을 론한다면 과학에 대한 신념은 무엇인가. 남에게 짓눌리우지 않고 자기의 재능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능력은 넋이 주는 힘이 아니란 말인가. 사고에서 비현실적인것을 추구하는것은 공상을 넘어선 망상이나 다름없다. 사람은 구체적이며 랭혹한 생활속에 존재한다.

그는 지금도 아버지의 《망령》에 추종하며 놀랄만 한 《미신》에 빠져버린 안해를 두고 동정을 하고있다. 언제 깨여날지 모를 몽상이라고 간주하는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생각으로 딸과 싼타나가 고심하고있을 실험실을 찾아갔다.

책임성이 높은 녀교수는 간단명료한 학술용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있었다. 지연이 실험과정에 얻어낸 수값들을 놓고 질문을 하면 《아직은 우리가 개연성단계에 머물러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어요.》 하고 싼타나는 답변을 주었다.

조심스럽게 들어서느라고 했지만 예민한 감각을 가진 싼타나가 먼저 실험대앞에서 일어서며 례의를 표시했다.

《좀 쉬는게 어떻소? 내 계산이 틀리지 않는다면 실험작업을 두시간이상이나 계속하고있소.》

《그러지요. 지연, 휴식합시다.》

그제야 지연은 아버지가 왔다는것을 알고 뜨아해하는 낯색을 지었다. 지금같이 찾아오는 일이 거의나 없었던 아버지였기때문이다. 싼타나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상록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커피를 가져오렵니다.》

《앉소, 내가 차를 끓일테니 맛을 보오.》

상록은 두 녀자가 실험대에서 물러나 자리를 잡고 앉게 한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손으로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지연은 아버지가 불까지 조절하며 차를 끓이는 모습에서 무엇인가 찾아낼듯 눈시울을 좁히며 주시했다.

커피를 끓이는것보다 시간과 품을 더 들여서야 싼타나와 지연의 앞에 차잔이 놓이였다.

《이건 록차군요.》

싼타나의 얼굴에 례의를 차린 미소 같은것이 흘러갔다.

《선생님, 솔잎차라고 한답니다.》

지연의 말에 상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왜 모를가. 엄만 이 차를 아주 잘 끓여요.》

《그건 다 할아버지가 배워준거다.》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흘린 상록은 실언을 한것으로 해서 어줍게 웃었다.

아버지가 끓여주군 하던 솔잎차가 틀림없었다. 선친이 남겨준 생활의 한 부분이 자기에게 남아있었다는것을 그는 새삼스럽게 느낄수 있었다.

참으로 고집스러운 아버지였다. 자식으로서 효도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생활은 누릴수 있게 해주었으련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칠새없이 들리던 한숨소리, 년세가 많아질수록 자기 사람들곁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만 지겹도록 반복했었다.

지연은 차의 향기를 맡아가며 조심스럽게 마시는 싼타나에게 귀속말처럼 속삭여댔다.

《우리 할아버진 날 무척 사랑했답니다. 할아버지등에서 자란 저랍니다. 우리 집 주변엔 갖가지 꽃들이 피군 했는데 할아버진 그 꽃들을 꺾

어서 고운 꽃모자를 만들어 씌워주군 했어요. 너무너무 내가 고와서…》

상록은 딸의 말을 들으며 한층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정을 찾으려고 왔었지만 심중은 걷잡을수 없이 무거워났던것이다.

이튿날 상록은 안해의 요구대로 약속된 곳으로 찾아갔다.

골짜기를 뒤덮은 넓은잎나무들이 여름바람에 솨솨 소리치며 설레인다. 높지 않은 산정의 바위벼랑에 시원을 둔 한줄기의 벽계수가 숲가를 감돌아 조잘거리며 흐르는 모양이 한층 신선한감을 자아냈다.

여기는 도시의 교외에 자리잡은 한적한 곳이다. 비탈면을 따라 농가를 방불케 하는 나무로 지은 집들이 듬성듬성 자리를 잡은것이 보인다.

두사람은 물가에 서있었다. 두손을 마주잡은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선 정동녀는 어떤 추억에 잠긴듯싶었고 상록은 뒤짐을 진 자세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나 하듯 이따금 서성댔다.

《왜 만나자고 한것 같아요?》

《말하오.》

정동녀는 한숨을 내그으며 눈길을 들어 먼곳을 응시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어요.》

예상외의 말에 상록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하며 쓴입을 다시였다.

이쯤 말을 떼고는 몰아댈 잡도리를 하겠지. 내가 당신을 몰라서…

그는 내심 이런 궁리를 하면서도 천연스럽게 대답했다.

《리해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게 옳지.》

《차곡차곡 준비해온줄은 몰랐군요. 물론 의심은 했지만 지금같이 일을 번져놓을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거만이 들어찬 두뇌에 흉측한 술수까지 겸비했을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남자지.》

정동녀의 눈길이 홱 돌려졌다. 마주보려고 하지 않으며 낮으나 날카롭게 물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였던가요?》

피동적인 방어에 타성이 생긴 상록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불간섭은 두사람사이에 이루어진 불문법이나 다름없었다.

위반행위는 자기가 하지 않았는가. 그것조차 계획적으로… 하지만 자기로서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결심을 실행했던것이다. 나야 아직까지 합법적인 남편이며 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다.

상록은 안해가 무엇이라고 하든 견뎌낼 배심이 든든했다.

《대답해주세요. 도대체 어쩌자는거예요?》

《그걸 당신이 모른단 말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약속을 어기는 리유를 말이예요.》

《최소한의 의무를 지니기 위해서요. 이건 전번에도 말한게 아니요.》

《난 명백히 표명했어요. 권리없는 의무를 가지지 말라고 말이예요. 리해 못했는가요? 아니면 로골적인 간섭을 그때부터 시도했는가요?》

《옳소. 난 자기의 계획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소. 지연의 앞날은 오늘에 달려있는것이나 다름없소. 이것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요.》

정동녀의 검은 눈동자가 해빛을 받아 작열했다. 그 눈빛은 원망을 넘어선 저주를 보내고있었다.

상록은 내가 저 눈동자를 사랑했다, 여전히 아름답구나 하는 왕청같은 생각을 서슴없이 해댔다. 한것은 절대로 잃을수 없는 진주알같이 귀중한것이였기때문이였다.

《언제까지 날 동정하려는가요? 절대로 당신의 처마밑으로는 돌아가지 않을거예요. 내 딸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걸 알아두세요. 그 리유를 명백히 다시 확언해요. 아버지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당신은 얼이 빠져버린 사람이기때문이예요. 아무리 명예와 재부를 가졌대도 무비의 거만을 떨친대도 넋이 죽어버린 사람이 당신인거예요. 우린 얼이 없는 인간으로 살고싶지 않단 말이예요. 사람에게 정신이 왜 있어야 하는가를 당신은 모르고있어요.》

생각했던것보다 무자비한 세례를 당하는 상록이였다. 안해의 생활신조에는 변함이 없었고 비타협적이다.

그는 지금껏 지켜온 자신심이 허물어지는듯 한감을 맛보았다. 위축되는가 하면 벼랑끝에 선 심리를 부정하기 어려웠다.

정동녀는 한손을 들어 너도밤나무가 우중충 서있는 아래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집이 보이는가요?》

《?…》

상록은 안해가 가리키는 수림속의 목조건물을 찾아보았다. 오래동안 버려둔 저 집에서 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였고 막을 내렸다. 자기의 무덤처럼 여기는 그였기에 무덤으로 만들지 않으리라 마음먹고있었다.

《보이는가 말이예요?》

상록은 얼결에 대답했다.

《우리 집이 아니였소.》

《그래요. 바로 저 집에서 희망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렸지만 꽃을 피여보지 못하고 시들어버렸어요. 쉽게 만날수 없는 남자였기에 한생의 의지로 삼으려 했건만… 그만하자요. 모든건 그렇게 흘러가버렸던거예요. 당신은 그 무엇에 기대를 가지거나 되찾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정동녀의 음성은 발밑으로 흐르는 벽계수소리처럼 고요히 울렸다. 크나큰 상실을 안은 녀자만이 할수 있는 말이였다.

그가 오늘 서상록을 이곳에서 만나기로 결심한것은 자기와 딸에 대한 미련을 더이상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이 벽계수의 물결을 따라 시아버님의 령혼이 흘러가버렸다. 그와 함께 방금전에 보여준 옛집도 한가정의 보금자리로서 자기의 사명을 마치였던것이다. 그는 자기가 하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곳을 찾았던것이다.

《변하지 않는 물질이란 없소. 당신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나무를 꺾어버려서는 안되오.》

상록은 기질적으로 검질긴데가 있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처럼 자부하는 오늘을 어떻게 가져왔겠는가.

머리를 설레설레 저어댄 정동녀가 고개를 비켜세우며 바라보는데 랭기가 얼굴을 덮고있었다. 그는 서상록이 원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있다. 10년이 넘도록 위선적인 용서를 바라고있다고 그는 간주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있는 언어들중에서 용서라는 말을 제일 람용하고있는듯싶다.

나는 당신을 너무도 많이 용서해왔어요. 그것은 지난날의 나의 운명이였지만 오늘은 오직 나만이 딸의 장래를 위해 옳은 결심을 할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정동녀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난 이미 결심을 했어요. 그애가 론문을 완성하기만을 기다려요. 그 다음은 실천하겠어요. 그러니 애의 문제에 더이상 간섭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어떤 비상한 결심을 내렸소?》

《알고싶은가요?》

《그저 궁금해서…》

정동녀가 단호한 태도로 돌아서며 말했다.

《우린 이 도시를 떠나겠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줄거예요. 그래요.》

서상록은 안해의 결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앞에 선 녀인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대학시절에도 한번 결심하면 변경시키는 일이 없었던 정동녀다. 단호하다고 해야 할 그 기질이 매력적이였다고 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두사람은 마음먹은대로 행동하는 나이는 지난것이다.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거요?》

서상록은 검질기다고 할만큼 달라붙으며 물었다.

정동녀의 눈길은 벽계수가 자취를 감춘 골안으로 향하고있었다. 그는 쌍드와 약속한바가 있는 일본이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지만 삼켜버렸다. 그로서는 아직 충분한 파악이 없는 나라였던것이다. 게다가 사람의 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운것이 아닌가.

《알고싶은가요?》

자못 심중한 표정을 지은 상록의 얼굴에는 초조감까지 떠돌았다. 그로서는 오래동안 품어온 기대가 허물어져내릴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있었던것이다.

《그렇소. 지연이의 론문은 인차 완성될거요.》

《시간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난 이미 준비를 하고있어요.》

《말하오.》

《정 원하신다면 알려주지요. 그곳은 도꾜일수도 있어요.》

정동녀의 대답에 서상록은 흠칫 몸을 떨었다.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안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그리도 자신심에 넘친 육체를 떠받들었던 두다리가 지반을 잃은 기둥처럼 또다시 흔들거렸다. 해석과 추리와 판단에 적응된 두뇌도 이 순간에는 안해의 대답을 풀이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듯 가동을 멈추고있었다. 머리속은 온통 혼탁되여 무질서한 사유만이 흘렀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발밑에서 흐르는 벽계수가 무슨 말인가 하는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도 나는 한마디도 들을수 없으며 리해조차 못하고있다. 이것이 무슨 현상인가. 내가 본질을 파악할수 없는 물질현상도 존재한단 말인가. …지금 나는 나라는 하나의 생명유기체가 어디론가 흘러가고있다는것을 감수할뿐이다. 아니, 끌려가고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제 2 장

11

숲속에 난 경마주로를 따라 두필의 말이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다. 연갈색승마복을 입은 기수는 지그프리트이고 흰 줄이 간 검은색승마복을 입은 기수는 상록이였다. 경마주로의 앞쪽에 나지막한 등성이가 나타나자 두 기수가 동시에 박차를 가하면서 휘파람소리 같은것을 울리며 안정된 자세로 말갈기를 안다싶이 하자 말의 보폭은 최대로 커진다.

번들거리는 말의 배때기가 땅에 닿을듯 네굽을 안고 질주할 때 기수들은 공기의 저항을 줄이려고 키를 낮춘채 말의 속도와 률동을 일치시키며 결승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렸다.

너도밤나무와 이깔나무가 혼성림을 이룬 수림의 평지길에 주로의 마감표식이 보인다. 두필의 말은 거의나 동시에 결승선을 넘어섰다.

허리를 편 기수들이 말고삐를 당기자 고개를 높이 쳐든 말들은 그 어떤 불만이라도 있는듯 호곡을 한다. 기다리고있던 관리원에게 고삐를 넘겨준 상록과 지그프리트는 숲속길에 들어섰다.

《사장님을 따라서기가 정말 힘들군요.》

지그프리트는 손에 든 채찍을 소리가 나게 휘두르며 저으기 흡족한 웃음을 지었다.

《한번 달리고나면 정복의 감정을 맛보게 된단 말일세. 내 오늘 에쎈의 새 전략을 설명해주지.》

《지그프리트계획이겠지요?》

《왜, 여전히 거부감을 느끼는건가?》

《도전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달려야지. 질풍같이 말이네.》

지그프리트는 또 한번 채찍을 내휘둘렀다.

숲속공지에 이르니 음료를 마실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여있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지그프리트는 단물이 든 통을 소리가 나게 따들고는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리고나서 자기의 경영전략을 설명했다.

에쎈이 동북아시아지역에 진출하려는것은 풍부한 자원과 로동력, 대규모시장으로 전변시킬수 있는 유리성을 전망한것이다. 특히 조선과의 1차적인 교류와 협조의 주력은 비단천을 생산하기 위한 방직공업에 돌리게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무역교류, 기술교류의 기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의 특혜와 신용을 획득하여 마그네샤, 희토류광물에 대한 채취 및 독점적인 반출허가를 받는것이다. 우에서 전제한 광물들에서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물질을 얻어낼수 있다. 만약 우리의 의도가 실현된다면 전자제품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다른 회사들을 앞설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에쎈은 반드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시대를 앞장에서 개척해나가야 한다.

서상록은 지그프리트의 구상을 주의깊게 들었다. 이미 알고있는것이 구체화되였을뿐이다. 앞에서 언급된 듣기 좋은 말속에는 자본의 본성적착취성이 내포되여있었다. 목적은 경제지리적으로 유리한 지대의 장악, 기술을 이전하고 자원을 획득하는 방식, 풍부한 로동력에 대한 야욕으로서 오늘날 다국적인 회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남들보다 먼저 활용하여 막대한 리윤을 추구하자는것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상록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그프리트의 대담성과 용단에 은근히 경탄하게도 되였다. 위험한 곳일수록 안전하고 성공이 가능하다는 론리는 새로운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것이다.

《왜 침묵을 지키는건가?》

상록은 려송연을 피워물고는 불고기냄새가 풍겨오는쪽에 눈길을 보냈다.

《점심도 여기서 할 계획인가요?》

《바르바라가 준비한거네.》

《오셨습니까. 그것부터 알려주실게지.》

상록이 일어서려 하자 지그프리트가 눌러앉혔다.

《그 사람은 은행들과의 교섭에 나섰네.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하거던.》

지그프리트의 부인인 바르바라는 국제금융학을 전공한 권위있는 전문가다. 나이가 있지만 지금도 대학들에 초빙되여 강의를 하는가 하면 정부

의 재정정책작성에 관여하기도 한다.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금융분야에서 일하고있다.

에쎈이 처한 환경에서 어려운 도전들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 산하기업체들에서 발생한 일부 《파업》들에 대해서 지그프리트는 단호한 립장을 표시했는데 그 기업체들을 아예 매각해버리겠다는것이였다.

상록은 그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했다.

《아무리 밥 잘 짓는 아낙네도 쌀이 없는데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건만이 개연성을 확연성으로 전환시킬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잘 따져보면 불리한 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수 있지요. 생각이 좁은 저로서도 에쎈의 조선에로의 진출을 막기 위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조선은 미국의 제재와 봉쇄속에 있는 나라거든요. 반대세력이 가진 추동력이 어떤 성격을 띠는가를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사장님사이에 알륵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집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행동방향을 세우는것과 함께 집중되는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WM이 여전히 관심을 돌리나?》

고개를 끄덕여보인 상록은 자기 말을 계속했다.

《나는 사장님의 결심을 완전히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의 립장이 사장님을 돌려세울수 없는데도 반대세력들은 이미 나를 그 어떤 흥정물로 여기면서 조롱하고있으며 일종의 협박을 가해오고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참을수 없게 합니다. 또한 나는 사장님과 견해의 일치를 이룰수 없다 해도 배반해서는 안된다는 인간관계에 놓여있습니다. <모든것을 의심하라.>가 나의 좌우명이라면 <배반당할지언정 배신하지 말라.>는 내가 지켜온 도덕적계률이거든요. 리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록이지만 마음은 착잡하였다. 도고한 인간의 자존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앞날에 대한 자신심도 희박해지고있다는것을 그는 어렴풋이 자각하고있었던것이다.

《난 만족하네.》

지그프리트는 속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사람에게서 솔직성을 보았다.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가진 인간이 가장 쓸모가 있다. 일을 맡아서 책임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성과 가치는 사람인것으로 하여 변할수도 있는것이다. 바로 달라질수 있다는것이 경계할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계기에서 큰일을 망쳐놓

을수도 있다는것을 예견해야 하기때문이다.

랭철한 인간인 지그프리트는 상록이 그런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단호해야 한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공생의 원리는 이렇듯 랭혹한것이다.

《일부 산하기업체들의 <파업>은 몇몇 개별적인 <로조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촉을 받고 벌려놓은것입니다. 알아본데 의하면 그자들은 하나같이 <로조간부>의 탈을 쓴 시정배들입니다. 그에 대한 개인자료들이 구비됐으니 언론을 통해 때리면서 끌어당기는것도 수법이 될듯 한데요.》

지그프리트는 상록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였다. 자기의 결심대로 업체들을 매각해버린다면 소동이 더 커질수 있었던것이다. 그 시정배따위들을 만나야 한다는것이 그로서는 저으기 불쾌했지만 방도는 거기에서 찾는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리였다.

그자들의 입을 적당히 틀어막으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는가. 언론을 통해 저들의 추한 몰골이 더이상 폭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굽어들것이다.

《그것들을 발가벗길 글을 써낼만 한 대상은 누군가?》

《사장님은 알고계실텐데요.》

지그프리트는 시무룩한 웃음을 지어보이는 상록을 바라보며 고개를 쳐들고 기분좋은 소리를 냈다.

《자넨 역시 뛰여난 감각을 가지고있네.》

차창밖으로는 유럽의 현대문명을 자랑하며 빠리의 황홀경이 흘러가고 있다.

유리장식을 한 고층건물들, 경쟁열에 들뜬 상품광고판들에 자리잡은 녀자들, 라체무용수들을 방불케 하는 사람들의 물결, 한낮에도 비칠걸음을 걷는 비만증에 걸린 사나이들, 대도로의 길가에 맥없이 앉아 절망에 쌓여있는 실업자들의 모습… 이것은 병든 유럽사회의 어느 나라, 어느곳에서나 볼수 있는 풍경이다.

명현은 빠리의 여러 대학들에서 초빙강의를 마치고 지금 뮨헨으로 가는 길이였다.

대학들의 청강생들로부터 무수한 질문을 받았고 대답을 주기에 목이 쉴 정도가 되였던 그였다. 경제학자로서, 선대로서 그는 후대들의 물음에 옳은 대답을 주어야 했다. 하지만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자기의 빈곤

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오늘의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안고 몸부림치는 실업문제였다. 일자리가 없어 빈궁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수천만을 헤아린다. 그중에서 청년실업자,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수는 날을 따라 늘어만 간다.

청강생들의 질문은 비발쳤다.

대학들이 실업자들을 양성하는 곳인가, 무엇을 가르쳤기에 우리는 힘들게 배우고 직업이 없는 무위도식자가 되여야 하는가, 두뇌산업의 시대라는데 뉴톤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두뇌를 못 가진 사람들은 한갖 로동도구의 처지에 빠져야 하는가, 산업경쟁이 두뇌경쟁의 시대로 이어진다면 인류가 가닿게 되는 마지막지점은 어디인가, 이 모든것이 생존경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빚어놓은 후과가 아니란 말인가.

이와 같은 청강생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명현의 마음은 무거웠다. 후대들과 래일을 책임질줄 모르는 이 비정한 현실에 분격이 치밀었다.

그는 이 시각 멀리에 있는 조국을 그려보았다. 자기 겨레가 사는 그곳은 여기보다 화려하지는 못해도 무엇이나 석연하게 리해되고 감동하게 되는 진실한 생활이 물결쳤다.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후대들을 사랑하라는 글발들을 보았다. 구호이지만 구호에 그친것이 아니라 정치와 교육을 비롯해서 모든 현실에 구현되고있음을 절감했다. 미국과 서방은 조국을 봉쇄, 압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교정에서는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가 한시도 멈춘적이 없이 울리였다. 무료교육의 국가적시책은 시종일관하였으며 설사 허리띠를 조이며 굶을지언정 후대교육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절대화된 신조였고 의지였다. 아이들이 깨끗하게 자라고 청년들은 세계적수준의 첨단과학기술을 개척하며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인간사회는 바로 이런 모습을 지녀야 한다. 남에게 위세를 보이려고 썩어가는 몸뚱이를 화려한 면사포로 가리우고 나선대도 정신이 병든 악취는 막을수 없는것이다.

명현은 승용차의 등받이에 기대며 심호흡을 하였다. 머리속으로 지은금의 모습이 찾아들었다. 어머니로 불러오는 그 녀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서상록이라는 인간을 사위로 맞았을줄은 꿈에나 생각했던가. 정동녀는 그가 대학시절에 얼굴이나 알고지낸 녀자다. 처녀땐 무척 아름다왔다. 생

물공학을 전공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만나서 긴 이야기를 나눈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인상에 남아있는것이 있다면 곱게 생기고 똑똑한 녀대학생이였다는것뿐이다.

서상록…

명현은 오래전의 친구였던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제네바에서 만났을 때는 거만한 태도에 구토감을 금할수 없었다.

물질세계에 빠져들어 살더니 인간자체도 더러운 물건짝이 되여버린것이 아닌가. 물질분해명수의 솜씨로 자기 가정까지 해체해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오만방자한자의 인생관에 유감없이 도전한 정동녀다. 지금 생각하니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긴 녀대학생의 기질에 어쩐지 공감되기까지 했다. 하건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은금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내 딸년이 못 돼먹었네.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란 없는 법이네. 부부간도 같지. 제 자식과 남편 하나를 품어안을 뜻도 없는 녀자라면 애초 가정을 이루지 말았어야지.》

명현은 지은금의 말을 확대하여 풀이했다. 친구라면 마땅히 친구구실을 해야 한다. 못된 친구라고 하여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건져주지 않고 돌아선다면 그놈이 그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해외에 널려 사는 동포들의 사회도 사람들은 천태만상이다. 작은것은 밀어놓고 큰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서 큰것이란 하나다. 그것은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 온 겨레가 굳게 단합되는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제다.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이 떼야 하는 큰걸음은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이어온 명현은 자못 그 의미를 깊이 새기였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고있는가.

아,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을 가셔주지는 못할망정 보태는 자식이 되지는 말라.

그는 은연중 상록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너는 언제 가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겠느냐. 아버지에게 불효한 네 죄를 어머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프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해. 이루어놓았던 가정마저도 지켜내지 못하는 네가 명성을 가져서는 뭘하고 재부가 있다면 어디에 소용되는가 말이다.

명현은 어느 기회에 상록을 만나서 조국방문시에 만났던 유복남녀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꼭 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 시각 지그프리트가 탄 승용차는 빙하호기슭에서 멎어섰다. 호반은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물우에서는 호화로운 려객선들이 흐르고 호수가기슭에 자리잡은 풍을 친 각종 매대들에는 손님들이 붐비였다. 흥겨운 음악선률도 들려왔다.

지그프리트는 그늘진 곳의 나무의자를 찾아가 앉았다. 이내 그의 곁으로 녀자의 향기가 다가왔다. 접대원이 아니라 쌍드였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니.》

《앉으시오, 반갑소.》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하고 자신심을 안고있으면서도 공손한 자세로 마주앉으며 쌍드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런 곳에도 오십니까. 놀랐어요.》

《미인을 조용히 만나기엔 오히려 편리하오.》

쌍드는 황홀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고맙다는 뜻을 보내고나서 지그프리트를 바라보았다. 기업계의 거물한테서 무슨 말이든 듣고싶고 도움을 청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는듯 미소를 보냈다.

《이 늙은이를 말없이 도와주고있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오.》

《정의에 감사를 드려야지요.》

《그렇다면 더욱 감사하오.》

쌍드는 접대원이 내온 차잔을 손에 들고는 마시지 않으며 조용하면서도 은근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언론의 거마리들이 여전히 에쎈의 피맛을 보려고 하고있다. 그들에게는 옳고그른것도 진실과 거짓도 안중에 없다. 주인의 지령을 받으면 대상을 향해 돌입하는 사냥개들이나 한가지라면서 자기가 새롭게 준비하는 글감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것들은 지그프리트가 이미 알고있는것이였다.

《이건 믿음직한 소식통에서 수집한 정보랍니다. 다가오는 에쎈의 주주총회에서 두사람이 반대의사를 표시할겁니다. 그 사람들은 조선과의 교류협조는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수 있다는 리유로 사장님과 엇서나가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시위하려는것입니다. 이에 대처할 준비를 하

셔야겠지요?》

지그프리트는 시종 고맙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의 심리는 사실상 착잡하였다.

리사회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통과시켰지만 주주들의 모임은 그와는 성격이 달랐다. 에쎈의 실권자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때문이다. 주권은 곧 돈이며 다국적기업체의 골격구조였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만스러워하는 인물들과의 사전교섭을 진행하고있다. 쌍드가 말하는 주주들중의 두사람이란 주식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으로 하여 매우 중시해야 할 인물들인것이다.

《쌍드선생은 그들을 만나본게 아니요?》

쌍드는 입귀를 찡그려보이며 손을 가볍게 저었다.

《돈많은 심술쟁이들이랍니다. 여름철이라 어느 피서지에 숨어버렸는지 누구도 모르거든요. 아마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하겠지요. 이런데서는 우리 직업이 불리한가봐요.》

《난 그렇게 보지 않소. 오히려 유리하겠는데…》

인조속눈섭속의 기민한 눈동자가 살짝 웃었다.

《제가 말인가요. 어떻게요?》

지그프리트가 그럴수밖에 없다는 기색을 드러내는데 그속에는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엄한것이 어려있었다.

《당신은 국제법전문가이기도 하지 않소. 게다가 자유기고자여서 어느 언론매체에 매인 몸도 아니기때문이요.》

쌍드는 두손을 맞잡으며 놀라운 환희를 드러냈다.

《그렇군요, 호호.》

《게다가 얼마나 아름답소. 그거야말로 남자들이 요격할수 없는 무기란 말이요.》

이번에는 쌍드가 소리를 내지 않으며 박수를 쳐댔다.

《사장님의 지혜로운 언변에 취해버릴 지경이예요. 그러니 저더러 미싸일이 돼보라는거군요.》

《지원사격을 해주면 내가 모른다고 하겠소. 지금까지 진 신세도 이만저만한게 아닌데… 늙은이들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오. 당신이 말한 나의 두 적수들인 하이든과 마몬드는 함께 있소. 몬떼까를로에… 그들은 다같이 도박의 명수들이니까. 허허허.》

두사람은 환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그프리트가 세상에서 제일 큰 도박은 경마라면서 경기용말과 선수들을 놓고 진행되는 시장의 규모에 대해 설명하여 쌍드의 호감을 자아낸다면 녀자켠에서는 최근 상품모델로 선정된 녀성들과 그들의 숨겨진 비밀을 재미있게 속살거려댔다.

가볍게 울리는 경탄, 친절한 표현들과 넘쳐나는 유모아적기지, 언어의 공을 서로 넘기고 넘겨받는 속에서 쌍드는 바클리라는 양념을 살짝 치는것도 잊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넘어간 화제에서 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는것이다.

지그프리트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은 그와 상록과의 관계였다.

쌍드는 바클리와 상록의 사이에는 어떤 은밀한 거래가 진행되거나 반드시 있을것이라고 확신했다. 만일 상록이 어떤 기대를 걸지 않는다면 바클리와 같은 인간에게 결코 상면을 제기했을수 없는것이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격파탄이기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륜곽적으로 그려지고있다.

전혀 있어본적이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상록에게서 생겨나고있는것이다. 자기의 모국을 거의나 질시해온 사람이 아닌가. 바클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것이 있을수 있다. 아마도 이것은 상록이라는 인간의 운명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풀이를 해야 할것이였다. 바클리는 무엇인가 상당한것을 알고있으며 그 어떤 일에 상록을 끌어들이려고 이미전부터 계획하였을수도 있는것이다.

지그프리트가 완곡한 방법으로 바클리의 정체에 대해서 묻지만 쌍드는 그 사람은 상습적인 거간군이 아니면 협잡배라고 락인할뿐이였다.

《쌍드선생은 이런 인물들의 자료들도 흥미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소?》

지그프리트가 상록이 넘겨준 산하기업체들에서 《로조간부》로 자처하는 몇몇 시정배들의 경력과 비행자료를 내놓자 쌍드는 재빨리 당겨다 읽기 시작했다.

12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품전시회가 오늘 개막되는데 가볼 의향이 없는가고 물어오는 지그프리트의 전화를 받은 서상록은 시간을 내보지요 하는것으로 얼버무려버렸다.

에쎈회사가 평양에서 체결한 계약의 첫 단계 사업이라는것을 아는 그였지만 자기 전문분야와는 거리가 멀어서인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던 그는 30분도 못되여 결심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클리가 무슨 리유에선지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는것이였다.

전시회가 열리는 도시에 이른 상록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개막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그속에는 조선의 민족의상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무슨 의식이라도 하려는지 화려하게 떨쳐입었다는것이 알렸다.

북이나 장고를 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새납과 징 같은것도 들고있다.

분명 조선사람들이였다. 그러니 저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구경하자고 모여들었단 말인가.

서상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광경이였다. 개막행사에는 정부의 관리들과 관계부문 인사들, 여러 나라들에서 온 무역관계자들, 기업체들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전시회장에 전시된 조선의 이름난 도자기들, 인삼을 비롯한 각종 천연약재로 제조한 고려약제품들과 가정용품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필필이 드리운 양단, 모본단, 다색단, 약산단, 구룡단, 공단 등만이 아니라 항라, 갑사, 진주사, 은초사 같은 눈부신 비단천들이 칠색령롱한 빛을 뿌리는 전시장은 말그대로 아름다움의 황홀경이였다.

만져보고 쓸어보며 마음에 드는 천을 골라 사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진도 찍었다. 소박하면서도 매혹적인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처녀봉사원들이 성의를 다하여 친절히 안내를 해주었다.

흥분된 사람들의 물결속에서 상록은 노대를 잃은 쪽배처럼 이리저리 밀리며 흘러갔다. 무엇에 위압되기라도 한듯 숨이 차서 이속에서 빨리 빠

져나가고싶지만 겹겹이 막아나서는 사람들로 하여 걸음조차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다. 성황리에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지금의 성황을 리해할수 없어 쫓기듯 걷다가 종시 멎어서지 않을수 없었다.

앞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지그프리트와 명현의 모습이 보였던것이다. 돌아설수도 옆으로 빠져나갈수도 없게 된 정황이였다.

《명선생, 선생과 함께 전시회를 돌아보게 될줄은 생각도 못했소.》

지그프리트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어보이지만 명현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전에 상품전시회를 준비한 조국의 일군들과도 만났으며 경제학자인 자기가 한몫 담당하겠다고 약속까지 한바 있었던것이다.

《사장님, 저는 에쎈의 조선진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이미전에 소신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참, 기억나오. 경제학박사인 명선생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으니 나의 리해의 폭을 넓혀주길 바랍니다.》

명현은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으며 인파속에 잠겨 자기 몸을 숨기다싶이 하고있는 서상록에게 들으라는듯이 대답했다.

《사장님은 왜 서상록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조선사람이며 이 훌륭한 상품전시회를 참관할 시간쯤은 낼수 있는 인재가 아닙니까.》

서상록은 명현의 말을 똑똑히 듣고있었다. 자그마한 악의도 없지만 심장을 비틀어대는 비난같았다. 가슴 한복판에서는 불만이 솟구치지만 지금의 처지에서는 나설수도 없었다.

《상록선생은 대단히 분망한 사람입니다.》

친구에게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줄듯 지그프리트는 아량을 보여 말했다. 그는 상품전시회에 대한 서상록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오히려 그편이 리롭다고 여기고있는것이였다.

처녀안내원이 지그프리트에게 조선의 비단생산력사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조선의 비단은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아득히 오래전부터 남달리 슬기롭고 문명한 조선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있는 땅과 기후조건의 유리성을 리용하여 일찍부터 고치농사를 시작하였으며 자연섬유를 가지고 천짜는 기술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왔다. 세나라시기에 이르러서는 5색비단을 만드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주변나라들과의 교역을 통하여 이름을 떨치였다. 그로부터 조선비단은 다른 나라 왕실들에서 진

귀한 보물처럼 여기게 되였고 왕족들과 고관대작부인들이 지체를 자랑하기 위해 앞을 다투어 옷을 지어 입었다. 바다길을 헤치고 온 외국의 상인들은 조선의 비단을 제일먼저 찾았고 아무리 높이 부르는 값이라도 흥정없이 사갔다. 조선비단은 개성의 고려인삼과 나란히 유명한 무역상품의 품종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오래동안 자기의 지위를 고수하여왔다. …

상록은 인파속에 몸을 웅크려 잠근채 어차피 설명을 들을수밖에 없었다.

명현의 통역을 주의깊게 들으며 지그프리트는 연방 감탄을 터뜨리였다. 그는 조선의 견방직기술과 장비수준, 생산공정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였으며 필요한 대목은 다시 설명해줄것을 요구했다.

설명이 끝나자 그는 비단천으로 지은 조선옷견본품을 가리키며 말했다.

《조선녀성들이 입는 치마저고리는 참으로 우아합니다. 대체로 매개 나라들의 민족옷은 오늘 무대의상으로 혹은 명절날에나 입는것으로 보존되여오는데 이 치마저고리들은 어느 나라 녀성이 입어도 잘 어울리고 품격을 높여줄것입니다.》

전시회안내를 맡은 중년녀성이 지그프리트에게 그중 마음에 드는 비단천을 고르게 한 다음 기념으로 주자 그는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르바라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명현이 기지있게 화답했다.

《부인님에 대한 사장선생의 사랑이 이 조선의 비단처럼 아름답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가 봅니다. 명선생, 조선의 비단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듣고싶습니다. 직물생산에서 비단천의 지위를 어떻게 봅니까? 경제학자의 안목을 가지고 설명해주시오.》

명현은 이제야말로 자기 차례라고 여긴듯 주저없이 말했다.

올해 세계시장의 경기와 추이를 주시해볼 때 원유가격의 파동이 제일 심했다. 그뒤를 따라선것이 철강재와 유색금속가격이였으며 시종 상승추이를 보이는것은 전자제품으로서 콤퓨터의 부단한 기술갱신이 가장 치렬한 경쟁으로 되고있다고 본다. 물론 일련의 차이점은 가지고있지만 섬유시장에서의 가격변동은 심하지 않았다. 옷은 누구나 입어야 하고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류행의 첫째가는 요구로 되기때문일것이다. 화학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직물생산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있다. 화학섬유의 지위를 누가 무시하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파괴하였으며 현재

도 하고있는 환경의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있으며 오늘날 록색이라는 말이 울려나오면서 모든 생산체계들을 여기에 맞게 개조해야 할 문제들이 론의되고있다. 아마 지구상의 모든 굴뚝들을 없애버리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섬유생산도 방향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연과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직물생산방법은 어차피 자연섬유를 얻어내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기호가 고정불변한것은 아니지만 인류의 옷문화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쉽게 부정하지는 못할것이다.

명현은 미소를 짓고 말했다.

《아마도 우리 조선비단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더 높아지리라고 확신하고싶습니다.》

지능적으로 상대방을 내려다보는데 습관된 상록은 대학시절 청강실에 앉아있던 모습을 하고있었다. 자기를 명현의 자리에 세워놓으면 입도 열지 못했을것은 뻔했다. 저 사람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불쑥 머리를 쳐들었다.

이 순간 상록의 의식은 걷잡을수 없이 기우뚱거렸고 추억의 한토막이 떠올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조선과학자대표단 성원들을 만났었다. 그조차 명현이가 나서주어 이루어진 일이였다. 그로서는 돌이키고싶지 않은 추억이나 같았다. 사람이 애써 잊으려고 할 때는 만회할수 없는 자기의 실책이며 그로부터 오는 혐오감때문이라는것을 그는 지금에 와서야 어렴풋이 느끼고있는것이였다.

그때 명현은 가슴을 치며 저주를 보냈다.

너는 운명의 기회를 잃었다. 오늘로 하여 반드시 뼈아프게 후회할것이다!

그러나 당시 서상록은 명예의 절정에 올라 자기라는 존재는 인식하여도 그밖의것에 대해서는 알려고조차 안했던 때였다. 사람은 이렇게 거만을 넘어선 오만한 존재로 되기도 하는것이다.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는것 같아서 그는 례절을 차릴새도 없이 사람들을 비집고 도망이나 치듯이 전시장을 나왔다.

전시장밖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장단에 맞춰 난생처음 보는 춤바다가 흥겹게 일렁이고있었다.

전시장안에서는 조선의 비단천필이 아름다운 폭포를 이루었다면 여기에선 그 천으로 아름다운 민족의상을 지어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

률동을 자랑하는것이다.

얼마나 섬세하면서도 우아하고 기백이 넘치는 춤가락인가. 마이크를 든 가수가 조선의 경쾌한 민요가락을 구성지게 뽑아올리고 건드러진 멋을 살리며 옮겨짚는 발걸음, 시원스럽게 휘두르는 팔젓기와 멋들어진 굴신, 장고장단이 흥취를 돋구자 새납이 고유한 맑은 소리를 쟁쟁히 울리고 한층 빨라진 춤가락들이 흥겹게 땅을 차고 솟구치는가 하면 하늘로 날아오르는것만 같다.

원을 이룬 무용대형을 헤치며 상모를 날리는 남자들이 한바탕 기교를 펼친다. 《좋다ㅡ아, 좋지ㅡ》 하며 씩씩하게 먹여대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어깨들이 들썩거려댄다.

상록은 안에서 쫓기우고 나와서 또 한번 떠밀리운 기분을 안고 소광장의 그늘진 곳에 놓인 긴의자를 찾아가서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춤판에 눈길이 끌린채 멍청히 바라보았다.

뒤늦게 전시회장에서 나온 명현이 서슴없이 춤판에까지 뛰여드는것이 먼발치에서도 보이였다. 성미 그대로였다. 동포들과 마주섰는데 률동의 조화에는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명현과 짝을 무은 녀인은 머리가 희여가는 늙은이인데도 그와 교감을 이루며 춤을 잘도 췄다.

멍청이가 돼버린듯 그 모습을 바라보던 상록은 눈길을 뚝 멈추었다. 명현과 같이 춤추는 녀인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장모였던것이다. 자그마한 차집을 경영하며 외롭게 살아오지만 사리에 밝고 례의를 갖춘 쉽지 않은 늙은이다. 어느덧 반백이 된 로파의 모습을 눈에 담은 그의 귀전에 가슴치는 옛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람아, 임자도 사내일진대 아무리 못 돼먹었어도 제 녀편네 하나 줌안에 걷어쥐지 못한단 말인가.》

딸의 손목을 쥐고 친정집을 찾아온 안해를 문앞에서 돌려세운 장모다.

어미라고 부르며 이 집에 들어설 궁릴랑 가지지도 말거라.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 서방을 두고 누굴 찾아왔느냐. 인륜을 거역할려거든 내 죽은 다음 무덤앞에도 나서지 못한다는걸 알아라.

딸에게는 이렇게 엄했건만 사위만은 무던히도 귀해한 장모다. 마주할 낯이 없어 찾아도 못 가는데 이런 자리에서 보게 된 상록은 죄스러운 마음을 주체할길이 없었다.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늙는다는것을 느끼는 내가 아닌가. 저 늙은이가 살면 몇년이겠는가. 바라는 작은 소원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자신이 지금처럼 못나보이기는 처음이였다.

번뇌에 깊이 잠겼던 그는 자기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는것을 감촉하고 고개를 돌리다 아연해지고말았다. 비위살이 넉넉한 바클리였던것이다.

《상록선생이 알고싶어하는 사람의 신상자료는 가까운 시일안에 도착합니다. 나로서는 어지간히 정력을 바쳤다는데 대해서 알아주길 바랍니다.》

바클리다운 말솜씨가 시작되는것이다. 세상에 사람을 찾는 일보다 어려운노릇은 없다는걸 알았다면서 섬겨대는데 이젠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

《문제는 다음 단계입니다. 생존여부가 확인된다면 선생은 어떤 행동계획을 세울텐데 참고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조선은 특수한 사회정치구조를 갖춘 나라라는것을 아셔야 하거든요. 우려되는것은 당신이 그 나라에 있어서 환영할만 한 인물이 되는가 하는겁니다.》

상록은 자기라는 존재가 간상배를 방불케 하는 사람의 손에서 되는대로 주물림을 당하는듯 한 모욕감을 받아안았다.

사람이 이렇게 값이 없어질수도 있는가. 내가 누군데 감히 놀려대려드는가.

그는 화가 치밀어올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클리씨, 당신이 요구하는것을 수일내로 알려주시오.》

《아, 상록선생…》

한손을 쳐든 바클리는 등을 돌려대고 걸어가는 상록을 바라보며 의아한 낯색을 지으면서도 회심의 웃음을 흘리고있었다.

바람은 무던히도 세차게 불어댔다. 서상록은 어찌되여 자기가 옛집에 찾아왔는지 알수 없었다. 불과 며칠전에 안해와 이곳에서 만났다. 집이 아니라 계곡을 따라 흐르는 벽계수기슭에서…

목조건물은 주인의 손길이 오래동안 가지 않은탓에 출입문이 금시 날아나버릴것처럼 덜컹거렸고 틈새많은 곳으로 새여들어가는 바람소리가 날카로운 음향을 날릴 때면 집안에서 짐승들의 괴상한 울음소리까지 들려나왔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 산짐승들이 웅거한것이다.

바람을 등진 상록은 문을 열었다가는 닫아낼것 같지 못해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사람보다 먼저 돌입한 바람이 방안을 휘저어대자 이구석, 저구석에서 네발가진것들이 자기들의 령지를 지켜내기라도 할듯 사납게 찍찍거려댄다.

집안에서는 곰팡이냄새가 코를 메울것처럼 풍겨나왔다. 어둠에 익숙하려고 잠시 서서 들여다보던 상록은 마침내 들어섰다.

출입문짝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기고 소란스럽게 굴던 짐승들도 어느 구석에 숨어버렸는지 바스락거리기만 할뿐이다. 이제야 주인이 왔다는것을 알아챈 모양이다.

한손으로 거미줄들을 걷어낸 상록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마루바닥에는 먼지가 발목이 잠기도록 깔렸다. 응접실로 리용되였던 넓은 방안의 가구들은 짐승들의 날카로운 이발에 물어뜯기웠는지 바로 놓인것들이 하나도 없다.

좁은 복도를 따라 몇걸음 옮기니 부엌으로 리용되였던 곳에 아직도 가마가 걸린채로다. 옆간은 온돌방이였다. 시렁우에 놓인 반짇고리가 그대로 있다.

상록은 먼지를 털고 선반에 걸터앉았다.

이곳에는 상록의 원망과 수치가 잠들어있었으며 초불의 잔광과도 같았던 행복이였다고 해야 할 숨진 생활이 깃들어있었고 죽음과 리별이 환영처럼 너울거리는 악몽 같은것이 존재한다고만 여겨왔다.

유럽으로 옮겨온 후 중학교를 졸업할무렵이였다. 아버지는 혼신을 모아 작은 음식점을 차려놓고 일했다. 아마도 아버지의 음식솜씨가 없었더라면 아들에겐 배불러본 날이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일찍부터 외로움에 시달리며 고독하게 생활해온 상록은 애들과 사귀기를 무척 두려워했으며 친한 동무도 없었다. 매일과 같이 학교로 오가는 길에서도 그에게 벗이 있다면 그림자뿐이였다. 어린 마음은 자기를 보는 눈길들을 피하게 되였고 작은 몸을 어디엔가 숨기고싶었다. 이처럼 소심하고 위축된 심리는 엄마라는 말을 배우지 못하며 자란데 기인되는것일 수도 있었다.

유일한 의지인 아버지는 먹여주고 입혀줄뿐 자랑으로 되여주지는 못했다. 아이들은 부모자랑으로 우쭐거리며 자란다지만 상록은 해진 바지를 입고 나선것처럼 제 몸의 허물을 가리려고만 하는 아이였다. 그는 아버지가 음식점에서 일한다는것을 말하기를 제일 부끄러워했다.

상록이 매일 학교로 오가는 길옆에는 경찰이 보초를 서는 건물이 있

었는데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남조선령사관이라고 했다. 그것을 안 뒤부터 그는 한번도 그앞을 지나지 않고 멀어도 에돌아 다녔다. 멀어진 등교길로 해서 주먹을 쥐고 급하게 달릴 때 마음속에서 차오르는것은 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릴 내쫓았어, 저 집에서 사는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하는 철부지의 증오였다.

하건만 아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찾아갈줄은 몰랐다.

서상록은 지금도 그날 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한다. 허름한 두루마기… 아버지는 외출을 할 때면 노상 그 옷만 입었다. 색이 날고 때가 오른… 이른봄 마른 풀같은 아버지의 수염은 보기만 해도 서글퍼났다.

그런 차림으로 무슨 청원이라는것을 하겠다고 그 집앞에 서있는것을 보고 상록은 어린 마음의 울분을 터치였다.

여기가 어딘지나 알아요? 아버지와 나를 제땅에서 살지 못하게 내쫓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예요!…

아들의 눈물어린 웨침을 들은 다음 실신한 사람처럼 서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상록은 지금도 보고있었다. 무력하고 암둔했던 아버지…

난 미처 몰랐구나. 조선사람들이 일을 보는데라구 해서 왔댔다.

가슴 꺼져내리는 아버지의 그 목소리마저 진저리를 치게 했다. 부끄러운 아버지였다. 어린 아들의 손목을 잡고 지구를 한바퀴 돌다싶이 하고도 모자라 어디로 데려가려는가. 안 갈테다. 우리에겐 제 나라라는 말이 이미 없어졌다. 있다면 우릴 무정하게 버린 사람들이 사는 저주로운 땅만이 존재하고있을뿐이다.

그날 상록은 가슴속에 이런 말을 새겨넣었다.

상록은 지금 무덤속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숨결을 듣고있었다. 오늘도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있다.

과연 무엇이 모자랐는가. 아들은 자기의 포부를 실현했으며 가정이라는 생활터전은 물질적으로 담보되여있었다. 당당하게 국적을 소유하였으며 아버지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구걸하며 살지 않아도 되였다. 그것이 만족이 아니였단 말인가.

그후 서상록은 대학시절에 알고지내던 처녀와 결혼했다. 그들은 언어와 피부색의 공통성으로 하여, 다같이 가지고있는 남다른 실력과 탐구자적인 열정, 미래에 대한 지향의 일치성으로 하여 사랑하였다.

상록은 고개를 돌려 출입문옆의 문설주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거기

에 못을 박고 메주를 매달아 띄우군 하였다. 장모될 녀인이 딸을 앞세우고 이 집으로 처음 찾아온 날이 삼삼히 떠올랐다.

이날까지 초라한 음식점을 차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는 손님, 가는 손님에게 허리를 굽혀온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어 상록은 은근히 걱정했다. 아닐세라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본 장모될 녀인이 뭐가 마깝지 않은지 혀를 끌끌 차대여 마음을 놓을수 없게 하였다.

온돌방에서 녀인과 반나절 가깝게 이야기를 나눈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밖을 나서더니 언덕을 따라 올라가는것이였다.

상록의 집은 높은 산의 동쪽 비탈면릉선에 위치하고있었는데 골짜기로 올라가면 계곡에서 시작되는 벽계수가 흘렀다.

아버지는 시간이 생기면 그 물가에 앉아서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는 념불같은 소리를 듣기 싫을만큼 하였다. 그러니 녀인을 데리고 가서 그 말을 하자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고개를 쳐들어 상록은 눈을 감아버렸다. 부끄럽기 짝이 없이 생각되였던것이다.

벽계수가에서도 두사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계속되였고 정오가 되여올 무렵에야 내려왔는데 녀인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만족한 웃음이 흘렀던것이다.

집안을 돌아보면서는 생각이 많았는데 사돈이 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는통에 상록은 눈이 뗴꾼해지고말았다.

《한피줄을 만나 짝을 뭇게 된것도 하늘이 주는 복이 아니겠나요. 난 이애의 앞날을 두고 속을 무던히 썩였답니다. 이젠 시름이 다 풀립니다.》

아버지는 한뉘 해오는 음식솜씨를 보이려는지 마당에 자리를 깐 다음 조선밥상을 내다놓고 차림을 하였는데 어머니와 딸은 너무 놀라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상우에 민족음식들이 하나씩 오를 때면 혀를 차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세상 어디 가도 내 민족의 음식이 제일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두사람의 사랑은 성취되고 가정이라는것을 이루었다.

아버지의 한숨소리마저 잦아들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은 아들로서도 놀라운것이였다.

드디여 상록의 집 처마밑에도 행복이 찾아드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생

활은 바라는대로 흘러가는것이 아닌듯싶었다.

아버지가 하염없이 주장하던 사람은 제 피줄을 찾아 살아야 한다는 념불이 마침내 안해라는 녀자에게 전염병처럼 옮겨갔으며 집안에서는 민족과 조국이라는 한층 심화되고 높아진 곡조가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생물공학을 배운탓인지 안해는 아버지의 《몽매한 념불》(상록은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군 하였다.)을 하나의 학설로 정립하기라도 할듯 지겹도록 남편을 설복하기 시작했다. 딸이 태여나고 8살을 먹도록 한가정의 의견상이는 그치지 않았다.

지나간 사연에 짓눌린 서상록은 내버린것이나 같은 집을 착잡한 눈길로 둘러보았다. 허물어져내릴것 같은 천정으로 하여 금시 숨이 막혀났고 뒤이어 죄의식 같은것이 덮쳐들었다.

딸이 8살 잡히던 해에 그는 성공의 문어구에 들어섰다. 가치있는 발명권을 소유하게 된 상록은 학계와 대기업들이 관심을 돌리는 신진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던것이다.

명예와 함께 물질적만족이 찾아들자 그는 무엇보다 자기 가정의 환경을 바꾸는것이 필요하다는 결심을 내리고 도시중심부의 위치가 좋은 곳에 살림집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정원까지 갖춘 독립가옥을 마련한 그는 성공의 만족에 완전히 도취해버렸다. 끝끝내 불우한 인생살이의 낡은 터전을 들어내고 자기의 새 집을 세웠던것이다. 천하가 바둑판처럼 내려다보였다. 두려운것도, 못해낼 일도 있을상싶지 않았다.

이제는 한껏 허리를 펴고 살아볼테다. 고개를 높이 쳐들고 말이다.

이렇게 기분이 잔뜩 들떠서 집에 들어와 안해가 차려주는 밥상을 마주하고는 한잔 마시고 온지라 자기나름의 생활설계를 펼치며 열변을 토했다.

안해는 말없이 듣기만 하였다. 제 흥에 겨워 떠들어대는 남편의 기염앞에서 낯색조차 달리하지 않았다. 이윽고 일언반구없던 녀자가 입을 여는데 그것은 남편의 흥분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말들이였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였는가, 사랑하였다. 그러나 나를 더 감동시킨것은 훌륭한 시아버님을 모시게 된것이다. 당신이 무지하다고 여기는 아버님은 나에게 민족과 피줄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분이다. 나에겐 그것이 없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마저 우리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은 일깨워주었지만 아버님과 같이 민족의 체취는 물려주지 못했다. 한것은 그 어머니마저 고

국을 떠나 이역에서 태여났기때문이다.

민족의 피줄기에서 분리된 사람은 자기를 알수 없고 종당에는 존재자체를 잃고만다는것을 아버님을 통해서 나는 깨달았다. 동화되여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그 원인은 몰랐다.

나는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자기 민족을 떠난것처럼 큰 불행은 없다는것을 깨달았기에 당신의 안해가 된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나에겐 조선사람으로 사는 긍지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다.

서상록은 자기가 안고 온 화려한 장미빛무지개가 서리를 맞고 한순간에 사라지는것을 보며 참을수 없었다.

마침내 들떴던 방금전의 열변과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당신은 오늘의 내가 아버지가 물려주는 귀틀집이나 다름없는 이 거처지에서 평생을 살라는것인가. 지지리도 버림받으며 굴욕스럽던 생활을 나는 더이상 연장할수는 없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것을 마땅히 누릴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렇게 고함을 지른 상록은 밥상을 두드리며 서슬지게 말했다.

《당신은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따라서면 되오!》

《알겠어요. 나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어떤것인지를 말이예요.》

《인식은 당신이 해야 하오. 안해라는…》

《당신의 그런 안해는 되기 힘들거예요.》

《뭐라구?!…》

그때 온돌방에서 거처하는 아버지가 좀해 들어서지 않는 부부의 방문을 열고 나타났다. 평시에 너무도 많이 들어온 한숨소리가 울려나왔다. 주름발을 이룬 눈가에는 물기 같은것이 번들거렸다. 머리를 푹 수그린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뜨이자 채머리를 흔들어댔다.

《새 집을 마련했다니 내 걱정은 말구 이사를 가거라. 너희들이 좋다면 난 일없다. 그저 지연이가 보구싶을 때 데리고 와주면 된다.》

아버지와는 상론조차 하지 않았는데 떠드는 소리를 듣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였다. 그러니 이 집에 남겠다는 소리인것이다.

서상록은 불만이 치미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고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지자 안해는 고개를 들지 않은채 서글픈 하소를 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아ㅡ 불효막심한 일을 저지르는가봐.》

상록은 그때도 안해의 말 같은것은 들으려고도 안했다.

그로부터 며칠후 아버지는 자리에 누웠다. 상록은 아버지의 로환을 돌볼 생각은 못하고 새 집을 꾸리는 일에만 동분서주했다. 그렇게 나돌아치다 집에 들어오니 맞아주는 안해의 낯색은 상심한 정도가 아니였다.

《여보, 이 집에서 아버지를 시중들 맞춤한 나이의 녀자를 물색했소.》

안해는 이상할 정도로 남편을 여겨보았다.

《그게 자식된 도리인가요?》

상록은 일전에 큰소리를 친게 마음에 걸린지라 타협조로 말했다.

《늙은이가 고집을 부리는걸 어쩌겠소. 아버지 좋고 우리도 좋고…》

상록의 말은 안해의 웨침으로 하여 중도에서 동강나버렸다.

《아버님이 몸져누우신걸 알고나 있어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요! 자기를 좀 보란 말이예요. 누구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안해의 기상은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 못한것으로 두려움까지 자아냈다. …

방안에 정적이 깃들자 집안의 구석구석에서 짐승들이 날치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상록은 거미줄을 헤치며 밖으로 나왔다. 바람은 잦은듯 하지만 땅거미가 깃드는 수림속은 어수선한 불안을 실어왔다.

이 계절이 오면 강수량이 늘어나는것으로 하여 벽계수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저 작은 강줄기에 유해를 뿌리였다. 동쪽으로 흐르기때문이다.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한것인가. 강물이 흘러 바다를 만나자면 곬을 몇번이나 바꾸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은 아버지였다.

그는 오늘 이곳에 와서 사라져버린 생활의 숨결과 목소리들을 들었다. 그것은 의심할바 없는것이다.

서상록은 고개를 돌리고 옛집을 바라보았다.

자기로서는 무덤처럼 여겨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어떤 생명체처럼 숨쉬고있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되여 이 집을 찾아왔는가.

그는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는것 같은감을 느끼였다. 이상할만큼 가슴은 텅 비여났고 의식은 지탱력을 잃어가고있는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수 없었다.

13

한시간전에 싼타나는 신분을 밝히기를 거절하는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상록박사가 오늘 저녁 20시이후 가극극장앞거리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어느 한 방에서 WM의 인물과 만나기로 약속되여있는데 신변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수 있으므로 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짤막한 내용이였다.

그는 한동안 예고하는 정황을 놓고 생각을 거듭하였다. WM이 서상록에게 접근을 시도한다는것은 이미 알고있었다. 생활에서 있을수 있는 상면을 저지시키라는것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상록을 에쎈과 분리시키려는 세력의 기도를 포착하고있는 싼타나로서는 보내온 정보에 신경을 도사릴수밖에 없었다.

20시이후라면 시내의 교통이 가장 복잡한 시간이다. 가극극장앞거리는 갈림길이 많은데다 차들의 혼잡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였다.

지연의 론문지도를 끝낸 싼타나는 자기의 행동계획을 세우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일이 있어서 그러니 자체로 정보처리계통을 연구해보세요. 승인없이 외출할 생각은 하지 말며 필요없는 사람들과 전화를 하는것도 삼가하세요. 우리 연구소는 보안체계가 엄격한 기관이예요.》

하루일과를 빈틈없이 집행하는 녀성의 요구를 들으며 지연은 머리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자기를 배워주는 녀교수의 류다른 개성에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처녀였다.

침착성이 지나친것으로 하여 두려움도 자아내는 녀자인데 오늘은 웬 일인가. 정중한 몸가짐마저 헝클어진것처럼 보이기에 지연은 내심 의혹을 금치 못했다.

싼타나가 알아본데 의하면 서상록은 흰색도요다승용차를 타고 갔다. 자기가 차를 모는 일이 거의나 없는 남자다. 그 리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조심성이 많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야간에 흰색은 선명한 목표로 될수 있는것으로 하여 한층 우려하는 싼타나였다.

그는 흰색도요다승용차를 어렵지 않게 임대할수 있었다.

서상록은 오늘 바젤에 있는 종합대학의 초빙으로 학술강의를 위해 스위스에 갔다. 그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은 연구소에 자기밖에 없다. 이 하나만 놓고보아도 서상록을 노리는 세력의 활동범위가 매우 큰 폭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고속도로 분기점에 이른 싼타나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나서 시간을 보았다. 20시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긴장되여있었다.

고속도로로 각양각색의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내달리고있다. 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물이 나타나면 즉시 뒤따를 준비를 한채 싼타나는 도로상을 주시했다.

학자형인 이 녀자는 사물현상을 분석하는데서도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있었다.

서상록은 에쎈을 타격하기 위한 한 고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적수들의 기도는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그를 제거하는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려는것일가. 그럴수도 있다. 서상록의 연구소는 에쎈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공유해왔다. 이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사태가 변하는것도 리해관계가 달라지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에쎈의 조선에로의 진출시도를 매우 불만스러워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알수 없는것이다.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면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는 론리를 가진 무리들이다.

싼타나는 연구소의 일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도 지령을 받고있다. 그의 상급은 상록인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그프리트라고 해야 할것이다. 바로 그러한것으로 해서 지연에게 남다른 관심을 돌리고있다.

에쎈의 거두는 지연의 장래까지도 설계하고있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스탠포드대학에 보내여 대학원을 나오게 한 다음 에쎈의 영원한 두뇌자산으로 만들자는 야심을 품고있는 지그프리트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서상록에게 호의로 간주되게 되는것이다. 재능을 가진 두뇌에 대해선 양보를 모르는 지그프리트였다.

차를 조심히 움직여 본선도로에 들어설수 있는 어구에 이르자 싼타나는 한층 긴장되여 앞을 바라보았다.

그의 예민한 시각은 정확히 대상물을 찾아냈다. 흰색도요다승용차, 차번호까지 확인한 녀자는 조향륜을 돌리는것과 함께 가속답판을 밟았다.

용수철처럼 튕겨나면서 본선도로에 들어선 승용차는 맹렬한 속도로 앞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고속도로상에서 같은 색갈의 승용차 두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달리고있다. 해는 어느덧 저물고 어둠이 깃드는 로상에는 전조등불빛들이 부딪치고 엇갈린다.

가극극장앞거리는 예상보다 교통이 복잡하지 않았다. 싼타나는 손전화로 상록을 찾았다. 그는 침착한 어조로 알려줄것이 있으니 차를 세워줄것을 부탁했다.

《나를 뒤따른게 아니요?》

《그래요.》

《모를 일이군.》

《알수 없는 일은 너무도 많아요.》

싼타나는 로상에서 서상록을 자기의 차에 옮겨타게 할수 있었다. 이쯤하면 보이지 않는 위기를 극복한셈이라고 여기며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나서 자기의 행동경위를 설명했다.

상록은 싼타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지우지 못했다. 그는 오늘 저녁 WM의 관리와 만나기로 약속되여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싼타나의 말을 빌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것은 매우 불쾌하면서도 께름직한 일이였다.

《무례하게 여기실테지만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싼타나는 서상록에게 WM의 관리와 만나지 말것을 권고하고있었다.

《사실 그쪽에서 너무 지꿎게 매달려서 그러지 난 만날 의향이 없었소.》

서상록은 변명하고있었다. 오늘 저녁의 행동계획은 지그프리트가 모르고있다. 그러나 한시간후에는 알게 될것이다.

아니, 싼타나가 이미 알리고 움직였을수도 있는것이다. 그로서는 에쎈과 동상이몽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 속으로는 미안쩍은감까지 느꼈다.

《전번날 식사에 초대한것을 거절하여 죄송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저녁시간이구만.》

례의를 차려 말하는 싼타나에게 대답한 상록은 그가 안내하는대로 어느 한 식당에 가리라고 마음먹는데 승용차는 어느 사이에 형제음식점앞에 멎었다.

그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싼타나라는 녀자는 자기가 이 음식점출입을 한다는것도 알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주인이 문가에 나와서 맞아주었다. 이것 또한 의혹을 키질하는 일치였다. 싼타나는 초면인듯 관심조차 돌리지 않았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나 있은듯 하구만요.》

《그럴수밖에요. 선생님은 단골손님이 아닙니까.》

상록은 그 말을 싼타나앞에서 들으니 좀 멋적은감도 없지 않았다. 자기의 지체에 비하면 이 음식점이 어딘가 초라하다고 여겨졌던것이다.

《싼타나, 이곳을 알고있었소?》

《박사선생님이 이따금 찾는 곳이라는것밖에는…》

《그렇구만. 관심해주어 고맙소.》

두사람은 자리를 잡자 료리를 청하고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싼타나는 자기가 입수한 정보에 대하여 다시금 설명했다.

WM의 관리인 다울링의 실체는 알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상면목적도 불투명한것이다. 이 말은 그 어떤 폭력이 사용될수도 있다는것을 조용히 암시한것이기도 했다. 기막힌 일이다. 이 서상록이 폭력배들의 대상이 되였단 말인가.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와는 아랑곳없이 접대원이 된 음식점주인이 흰 포도술과 료리접시 몇개를 상우에 놓아주고는 친근한 어조로 말을 했다.

《실상 이 음식점은 선생님과도 인연이 있답니다.》

《인연이라니?》

《인연이지요. 나로 말하면 선생님의 부친을 잘 알지요.》

지금까지 이 음식점출입을 해오지만 처음으로 듣는 소리여서 상록은 자못 의아한 표정을 한채 주인을 바라보았다.

포도술을 잔에 부어준 주인이 고개를 숙여보이며 말했다.

《드십시오. 언젠가는 알게 되실겁니다.》

목소리가 류다른 친근감을 불러오기에 상록은 이상야릇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이윽토록 식전기도를 하는 신도마냥 두손을 펴서 마주 붙인채 눈을 감고있던 싼타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집이 트로이목마일지도 모른답니다.》

이곳 출입을 삼가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록은 흠칠 고개를 돌렸다. 주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쌍드는 에쎈구락부의 무도홀에서 활극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긴 사나이와 함께 춤을 추고있었다.

경쾌한 왈쯔곡에 맞추어 신사숙녀들이 유유히 물결친다.

가벼운 쓸림, 미소를 지은 입술들, 가볍게 옮겨짚는 발과 발들, 락화처럼 흩날리는 치마자락과 함께 소곤거려대는 귀속말들이 오간다.

《우린 부인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있답니다.》

쌍드는 남자의 얼굴을 살짝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활극영화의 괴한같아요.》

《이래뵈두 당당한 외교관인걸요.》

《그건 거의나 불가능한 일이예요. 당신들자체가 자초하지 않았나요.》

하관이 긴 남자의 입술이 쌍드의 귀가로 다가들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쌍드는 머리를 살래살래 저으며 랭담한 표정을 떠올렸다.

《그 사람의 상처만은 아물게 하지 못할거예요. 당신네들을 무척 증오한답니다. 왜 그러지 않겠어요. 제땅에서 쫓겨난 인생이니까요. 누구나 그와 같은 불우한 과거를 가졌다면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지요.》

《설사 용서하지는 못한다 해도 자기의 모국을 한번만이라도 찾아볼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린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맞이할것입니다. 이건 우리 <정부>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부인에게도 만족할 보상을 할것이구요.》

악사들이 새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쌍드는 남자의 손을 놓으며 《어쩐지 피곤하군요.》 하고는 물러서려고 했다. 그러자 짝패는 정중한 자세로 말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노력해보지요. 하지만 기대는 걸지 마세요.》

춤추는 사람들속에서 빠져나온 쌍드는 상기된 얼굴을 쳐든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늘 이곳에서는 국제상품전람회를 조직한 주최자측에서 차리는 간단한 소연회가 진행되고있었다.

그러니 필경 지그프리트가 나타날것이라고 짐작하고 이렇게 걸음을 한 쌍드였다.

그가 기고한 기사들이 이 신문, 저 신문에 실려 파문을 일으키고있었다.

에쎈의 산하기업체들에서 로동자들을 《파업》에로 사촉한 시정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신문지상에 폭로된것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며칠후에 에쎈의 본거지로 그자들이 나타날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있다. 그 회담이 어떻게 막을 내리겠는가는 불보듯 뻔했다.

소연회장인 2층의 크지 않은 방에 들어선 쌍드는 지그프리트와 명현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었다. 오늘은 저 남자와도 접촉을 해보리라 마음먹고있는 그였다.

연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기업계의 실무진에 속하는 인물들이였다. 참가자들은 술잔을 든채 자유롭게 거닐며 만나고싶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나눈다. 오가는 화제의 대부분은 전람회에 대한 좋은 반향들이였다.

명현과 함께 참대로 엮은 나무의자에 나란히 앉아 담소하고있던 지그프리트가 쌍드의 인사를 받고나서 서로 소개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옳은지 모르겠군요.》

쌍드의 인사말에 명현은 미소를 담고 맞아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쌍드부인, 초면이지만 선생을 알고있었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여 반갑습니다.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중이랍니다.》

놀란 눈으로 쌍드가 지그프리트를 바라보는데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아, 그건 사실이요. 쌍드선생이 소방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기때문에 화제에 오른거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도 남는 쌍드지만 살풋한 웃음이 비낀 얼굴의 의문만은 지우지 않았다.

지그프리트는 손수 잔에 위스키를 붓고나서 두사람앞에 놓아주기까지 했다.

《고맙습니다.》

잔을 가볍게 들어올린 쌍드는 명현에게 다감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녀자가 소방대원이 되였다니 우습지 않아요. 이런 칭찬을 받아보기는 처음인가봐요.》

《친구를 돕는것은 자기를 돕는것이나 같다는 말이 있지요.》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이예요.》

세사람은 한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은 다음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별

한 주제가 없는 대화였다.

쌍드는 방금전에 추고난 춤에 대한 자기의 분석을 하였고 지그프리트는 사교계와 녀성들의 관계를 유모아적으로 표현하여 두사람을 즐겁게 해주었다.

명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서상록이 나타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지은금과 여러번 만나는 기회에 그에게 큰 고충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서상록이 지은금의 사위라는것도 이번에 안것이였다. 딸과 사위는 말이 부부일뿐 별거생활을 한지도 10여년이 넘는다니 늙은이의 속이 얼마나 탈텐가.

오늘을 기회로 여긴 명현은 상록을 만나 단단히 꾸짖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쌍드가 남의 속을 들여다보기나 하는듯 화제를 돌리는데 지그프리트에게 서상록선생은 왜 오지 않았는가고 묻는것이였다.

《그 사람은 오늘 바젤에 갔으니 늦어서 돌아올거요. 이런 자리에는 좀해서 나타나지 않는 성미요. 한마디로 개성이 독특한 인간이지.》

《정말 그런가봐요. 이따금 여기 나타나지만 외진 자리에 앉아서 려송연만 피우다 돌아가군 하더군요.》

명현은 두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상록의 모습을 떠올렸다. 건방진 녀석…

《그게 천재적인 인간들의 생활방식일지도 모르지 않소.》

지그프리트가 쌍드에게 롱담조로 말하지만 녀자켠에서는 한숨섞인 말을 하였다.

《천재란 수난자와 동의어일수 있거든요.》

바클리는 쌍드가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는 이 연회장에 나타날수 없는것으로 하여 감질이 날 지경이지만 참을수밖에 없었다. 명분이 없는데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수 있는 위험을 느꼈던것이다.

구락부의 여기저기를 돌아친 그는 밤늦게야 자기의 침소로 돌아왔다. 기분은 썩 좋지 못했다. 그런데다 한밤중에 걸어온 상전의 전화로 하여 천둥소리에 놀란것처럼 자리에서 뛰쳐일어났다.

서상록을 협박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였다는것이다. 상전은 비밀이 새여나간것으로 화가 치밀었다. 마주서지 않았으니망정이지 지금의 상전의 모

습은 상상하기조차 소름이 끼쳤다. 다행스러운것은 자기가 실패한 계획을 모르고있다는것이다.

자선단체에 소속된 인물들은 샤멜과 종적으로만 련결되여있다. 자기의 동업자들의 얼굴조차 모르고 차례지는 지령만을 집행하는 바클리였다. 결국 항시적으로 감시를 당하지만 누구의 시선인지 알수 없는것이다. 이런 무리들속에 살면 자연히 생존능력을 갖추게 된다. 2중첩자들은 너무도 많아 씨글거리는 판이다. 살자면 배신쯤은 각오해야 하는것이다. 바클리라는 인간의 성격도 그렇게 형성된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엄격하고 완벽하다는 첩보망도 역리용당하는 리유가 배신에 있다는것을 누가 모르는가. 오늘처럼 수많은 정보자료들이 루출되는 시대에는 공유하는 현상이 늘어날수밖에 없으며 첩자라고 하는 인간생명체들의 종말은 부나비신세나 다름없다.

《바클리, 래일 지정하는 장소에 나오라.》

《알겠습니다.》

지옥의 사자가 부른다. 바클리는 잠옷을 대충 걸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보같은 놈. 일을 그르친건 누군데 누굴 닥달질 못해 몸살이야. 개자식이거던. 온몸에 살기가 들어찬 야수나 다름없는 놈이야. …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기를 누르며 창가로 더듬더듬 걸어가던 그는 걸음을 뚝 멈췄다. 서상록에 대한 협박계획을 나는 알고있었다. 실패하기를 바라며 모르고있은척 했을뿐이다. 샤멜이 알아낸것이 아닐가.

바클리는 두다리가 떨리여 간신히 서있었다.

14

한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 왔다. 가로수잎새들이 열파에 후줄근해졌는가 하면 그아래서 걷는 사람들의 모양들도 하나같이 헐떡걸음이다. 한달가까이 지속되는 고온현상은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들에게 위험신호를 보내는것만 같았다.

정동녀는 시간을 내여 어머니를 찾아가고있다. 지연의 문제를 놓고 내린 결심을 알려야만 했던것이다. 쌍드와는 이미 합의를 본것이나 다름없다.

딸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어데 가든 마다할 그가 아니였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를 돋구는 상록의 처사를 방임해서는 안되였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것이 지금처럼 부담스럽게 여겨진적은 없었다. 자식을 다 키워놓으니 이제 와서 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하려고드는 속심이 고약하게 생각됐다.

사람이래서 다 사람인가, 사람다와야 사람이지.

정동녀는 서상록을 너무도 모른 자기가 돌이켜질 때면 가슴을 두드리며 분을 삭인다.

《너의 시아버님처럼 무던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게다. 잘 모셔야 한다. 이 어미가 바라는건 그 하나다.》

어머니의 크지도 않은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한 인간이 서상록인것이다.

얼마나 마음씨고운 시아버님이였던가. 고이 모셔야 할 어른이지만 모시기는커녕 운명하기 전까지 며느리시중을 들리운것이나 다름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했다.

이 세상에 손녀의 기저귀를 빨고 며느리가 해야 할 집안일을 도맡아 한 시아버지도 있다던가.

어머니한테서도 못 배운 민족음식 만드는 솜씨를 시아버지한테서 배운 정동녀였다.

《우리 며느리가 담근 김치가 제일이다. 허허, 손이 고우니 손맛이 있을수밖에.》 하며 텁텁하게 웃군 하던 모습이 꿈에도 보인다. 젖을 뗀 다음부터 지연이는 할아버지의 등에 업혀 자랐다. 인생의 락이라면 며느리가 웃고 손녀가 좋아하는것이 전부나 같았던 늙은이였다.

대학시절 서상록은 소심하고 주대가 없는 남자에 불과했다.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쉬운것이 사람이라는 말이 그르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두각을 나타내면서부터 상록은 이상할만큼 달라졌다. 아버지에게 공손하지 못한 아들이라는것은 살면서 느꼈지만 그 이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알고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오만방자해지는것이였다. 자기가 하는 말은 어느덧 다 옳은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안해의 말쯤은 지나가는 바람소리만큼도 여기지 않았다.

어디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서는 날에는 역스럽게 굴어대는데 젊은 나이에 벗겨지기 시작한 번들이마에 새겨지군 하던 상대를 로골적으로 무시하는 표정은 혐오스럽기 그지없는것이였다.

아버지의 말은 망녕된 소리로 듣지부터 않았으며 안해가 조심스럽게 하는 권고조차 시끄러워했다.

정동녀는 자기뒤에 있는 어머니가 두려워 차례진 생활이 괴롭지만 받아들여야 하였다.

서상록은 날을 따라 변해갔으며 값비싼 려송연까지 피워물었다.

남편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던 정동녀가 참지 못하고 《당신은 누구를 닮아가려는가요?》 하고 야유하였더니 《내가 거만해져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지 않소. 없지 않은가 말이요. 비굴하게 살아야 했던 나였기에 남을 내려다보고싶은 욕망이 생겼단 말이요.》라고 대답하는데 조금도 서슴지 않는 고백이나 같았다. 이것이 성공의 만족에 도취된 남편이였다.

생활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의 궤도를 가지고있다. 그 자리길을 바꾸면 되돌려세우기가 어렵다.

정동녀는 자기에게 바라지 않는 일이 다가오고있다는것을 예감하고있었다.

기호와 취미마저 달라져가는 남편의 모습은 언제 봐야 불안했다. 명예와 함께 재부가 늘어나자 허영심은 기름을 들부은 불길마냥 타래쳐올랐다. 려송연이 전부가 아니였고 어느새 호화주택이 머리속에서 움트고있었던것이다.

우리도 흔들거리며 살아보잔 말이요, 뭐가 모자라는가, 승용차면 승용차, 별장이면 별장… 어벌이 큰 욕망은 드디여 질주를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남편의 입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자는 말이 울려나오자 시아버지의 무거운 한숨소리는 듣기 괴로울만큼 늘어만 갔다. 그런데 주저할 상록이 아니였다.

내가 이 판자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살라는건가요? 아버지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살지는 못하겠어요.

아들은 내놓고 아버지의 의사 같은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동녀는 그때마다 얼마나 간곡히 말했는지 모른다.

립신양명했다고 코가 높아진 서상록은 안해의 권고 같은것은 아예 무시해버리며 대답했다.

당신은 아버지말에 춤추지 말구 고분고분 하라는대로 하기나 하오. 나한테 생각이 다 있소. 우리 집안은 환경부터 일신해야 하오.

정동녀는 그때 아연하였다. 자기 같은것은 남편에게 속한 하나의 부속물

로 취급하는것이다. 안해가 아니라 노복이 되라는 강요로 들렸다.

내가 미쳐서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면서 이 사람에게 순정을 바쳤구나 하는 억울함이 온 가슴을 휩쓸었다.

그후 상록은 지금 사는 집에 아버지를 남겨둘 결심을 하고 시중들 녀자를 물색하여 마침내 찾아내기까지 하였다.

정동녀는 그 처사에 경악했다. 아들, 며느리가 편편해있으면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를 남의 손에 맡긴다니 인륜을 어기는 죄악이 아니란 말인가.

시아버님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일없으니 좋은 집에 가서 살라고, 지연이 보고싶을 때 데리고 와주면 된다고 말할 때 정동녀는 이것이 어진 분의 마지막말이 될가봐 은근히 걱정했다.

아닐세라 며칠후부터 식음을 전폐한 시아버지는 몸져 자리에 누웠다. 그때라도 남편이 제정신을 차렸더라면 형편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새 집에 미쳐버린 상록은 아버지의 림종의 순간에야 나타났다.

그밤의 정적을 정동녀는 평생 잊을것 같지 못했다. 타향살이에 허덕이는 수난자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벌이 차례지는 순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낳아준 어머니도 자기도 이역에서 자기의 민족을 찾기 위해 애쓰는 늙은이를 만난것을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것은 외로운 인생들의 다함없는 의지였다.

같은 피줄을 만나 대를 이을수 있으며 언젠가는 그리움으로 피를 태운 고국을 찾아가리라는 희망을 안겨준 가정이였다.

정동녀는 시아버지를 그 가정의 돛대로 여기였던것이다.

얼마나 험한 인생의 가시밭을 헤쳐온 늙은이인가. 하건만 민족의 얼을 고이 간직하고 자식들에게만은 자기의 땅에서 살게 하고싶은것이 유일한 소원이였다. 그 마음은 참으로 고결한것이여서 진심을 바쳐 받들어야 할 한집안의 넋이였던것이다.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이요?》

곁에 와서 앉은 남편의 묻는 말에 정동녀는 억이 막혀 대답도 못했다.

일은 누가 저질러놓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마음속에서 뻔뻔스럽다는 욕이 부글부글 끓어댔다.

맥을 놓고 눈을 감은채 닥쳐올 림종의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던 시아버지가 무슨 기척을 느꼈던지 눈시울을 떨었다. 이윽고 빛을 잃어가는 눈동

자를 드러냈다. 아들을 알아본것이다. 무슨 말인가를 하고있지만 상록은 고개를 숙인채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다.

《죄많은 내가…》

시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으며 정동녀는 북받쳐오르는 설음으로 하여 온몸을 떨었다.

눈물과 한숨속에서 살아온 늙은이다. 누구한테 싫은소리 한마디 못하며 오로지 자신만을 꾸짖은 일생이나 다름없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한생의 마감까지 죄스러워한단 말인가. 불행을 들씌우고 강요한자들은 누군데 그 희생물이나 같은 사람이 자식들앞에서 속죄를 한다니 말이 되는가.

시아버지는 머리맡에 앉은 철부지손녀의 손을 찾아서 꼭 쥐고는 늘 들려주던 말을 되풀이했다.

《지연아, 이 할아버지 해주던 이야기 생각나지?…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서 알을 깨운다구 했지. 그렇게 난 뻐꾸기지만 날개가 자라면… 꼭 제 무리를 찾아간다. …》

그것이 불쌍한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말이였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이 한 말은 정동녀에게 경악이 아니라 분노를 자아냈다.

《하필이면 우리도 남들을 내려다보며 잘살아야 한다는 말은 왜 못해주는가요?!》

인간세상에 불효라는 말이 있다는것은 알았지만 가까운 사람한테서 찾아보기는 처음인 정동녀였다. 그로서는 자기도 남편이라고 해야 할 사람과 다를바없는 인간이라고 타매하게 되였으며 울분을 안고 부르짖었다.

《당신은 영원히 아버지를 리해 못하는 자식으로 남게 됐어요. 당신은 나마저도 불효막심한 녀자로 만들었단 말이예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며칠뒤였다. 허영에 환장이 된 남편은 정동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일이 이렇게 된거야 어찌겠소. 새 집으로 가기요.》

그 입에서 그 알량한 타령밖에 더 나오겠는가. 이미 결심을 한지라 정동녀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가자요.》

《고맙소. 당신이 마음을 돌려먹었으니…》

《우린 시작을 잘못한 사람들이예요. 이제라도 서로 제 가고싶은 길로

가자요. 당신은 지금의 만족한 생활을 추구하세요. 난 당신의 명예와 재부의 그늘밑에서 살고픈 생각은 없어요. 이건 그 무엇으로도 돌려세울수 없는 나의 결심이예요.》

이렇게 그들의 가정은 해체되였다. 파괴당한 다른 모든 가정들과의 차이점은 두사람이 오늘까지도 명목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그 리유를 당사자들도 알지 못했다.

허영의 탑을 쌓을것 같던 남자는 오늘도 독신생활을 하고있으며 가정을 주동적으로 해체한 녀자는 딸의 문제 하나때문에 중간지대를 선정하고 남편이였던 사람을 임의의 시각에도 호출하는것이다. 이 특이한 별거자들이 가야 할 종착점이 어데인지 알길이 없다.

정동녀는 두견차집이 보이자 걸음을 멈추었다. 저 집에 자기를 낳아주었지만 용납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는것이다. 대를 두고 타향살이를 하는 녀자지만 조선녀성의 도덕과 륜리를 금석지조로 삼고 산다. 오늘도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앞세우고 조심히 집으로 들어서니 어머니가 맞아준다.

《네가 어떻게 기별도 없이 찾아드느냐?》

지은금의 안색은 전에없이 밝았다. 정동녀는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것을 느끼며 인사말을 했다.

《그새 어떻게 지내세요, 어디 아픈데는 없어요?》

《난 잘 있다. 요즘은 사는것 같다.》

듣기 쉽지 않은 말이여서 정동녀는 저으기 의아했다. 차집은 손님들을 치지 않는 시간이여서 조용하였다.

방안에 들어선 정동녀는 이것저것 공연히 둘러보며 물었다.

《그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혼자 사는것이나 다름없는 늙은 어머니에게 묻는 말이 씨알 박히지 않은 소리였지만 정동녀로서는 너무도 왕청같은 대답을 들었다.

조상들에게서 말로만 들어온 조국을 보았다. 내 겨레의 마음인양 아름다운 비단천이 폭포를 이룬 신비경앞에서 초면구면의 많은 동포들이 너나없이 모여들어 소리높이 조선노래를 불렀고 민족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것이다. 듣고보니 조선상품전시회가 열린 소식이였다.

정동녀로서는 어머니의 기쁨이 리해되였다. 젊었다는 자기는 알지조차 못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리고 기원한 조국인가. 사람은 믿음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살아가려고 한다.

어머니는 동포들끼리 무은 단체가 이번 전시회에 적으나마 기여한데 대해 자부를 가지고 말했다.

《우리 어머닌 참으로 용하셔. 공부까지 했다는 이 딸을 무색하게 만드시니 말이예요.》

《참, 명현선생이 하는 말이 조국에서 우리 동포단체에 속한 동포들의 조국방문을 열렬히 기대한다는구나. 아, 언제면 조국땅에 한번 가보랴 하던 소원이 풀리게 되는가부다.》

정동녀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함께 아픔도 맛보았다. 어머니가 시름놓고 웃는 모습을 보니 그리도 조국의 하늘아래를 일일천추로 찾던 시아버지가 생각났던것이다. 오죽했으면 죽은 다음 유해를 동쪽으로 흐르는 강에 뿌려달라고 했으랴.

하지만 한피줄을 이었다는 아들은 망녕된 소리로만 여겼으니 이 또한 통탄할 일이다.

마음속이 끓어번지기 시작하자 정동녀는 꺼내기를 주저하던 지연의 장래문제를 터놓았다.

지은금은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기는 하지만 낯색이 서서히 변하는게 알렸다. 처음에는 놀라고 다음은 의혹을 품더니 마침내 노여움을 드러내놓는것이다.

《네가 속통머리만 못 돼먹었는가 했더니 정신도 바로 차리지 못하고 살고있구나.》

어성은 높지 않아도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한다. 정동녀는 어머니의 속내를 알수 없어 다급하게 설명했다.

《지연이 생명을 구원해준 녀자라지 않아요. 지금 누가 남을 돕겠다고 해요?! 한걸음을 걸어도 돈인데 그 녀잔 정말 마음씨가 고와요. 고생도 많이 했구요. 일본엔 잘 아는 힘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야 행운이 차례지는게 아니고 뭐나요. 그래서 애를 따라 나도 가려는거예요.》

지은금은 채머리를 흔들며 억이 막혀 딸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되여 딸의 모양이 이 꼴로 변해가는것인가.

《왜 나까지 데리고 갈 생각을 못했느냐?》

《예?…》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밀 내버릴셈이니?》

《미처 그 생각은… 혼자 사는데 습관이 되다나니…》

지은금은 차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마침내 소리를 높였다.

《차라리 만리이역에서 죽을지언정 네가 말하는 왜나라에는 못 간다!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왜놈의 땅이다. 우리 조상들의 백골이 남의 나라 땅에 뿌려지게 한게 어느 놈들이냐?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천추의 한을 남긴 그 마귀의 땅을 찾아 제발로 가겠다는 수작을 살아있는 이 어미앞에서 어떻게 한단 말이냐?!》

정동녀는 입은 있어도 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얼마나 준절한 꾸짖음인가. 배운것 없는 어머니지만 지조는 대쪽같았던것이다. 사람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이처럼 정신적으로 차이가 나는것이였다.

자기가 딸의 일에 간섭하는 남편의 처사에 반감을 가지고 어머니의 말대로 제정신없는 생각을 해온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쌍드의 진정을 외면한다는것은 참으로 낯이 없는 일이다. 지연이도 이미 주입을 받아서 자기대로 희망을 가지고있을것이다.

두사람사이에 침묵이 지루할 정도로 흘렀다. 누구도 먼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것이다. 정동녀가 암담한 생각에 시달린다면 지은금은 딸의 행실머리를 놓고 든든히 벼르고있었다.

《내 아무래도 집안건사를 바로 못하는 너를 보다 죽는가부다. 술주정뱅이에 난봉군하구 한뉘 사는 녀자들은 머저리들인가 하느냐? 녀자가 머리를 얹고 한 지아비를 섬기는것은 하늘이 내린 법도이기에 그러는거다. 속에 재가 앉고 머리가 파뿌리같이 되면서도 순리를 거역 못하는건 자식들에게 피줄을 이어주기 위해서다. 마음에 내키면 마주앉아 웃고 틀리면 척을 지고 돌아서는 녀자가 무슨 녀편네고 에미란 말이냐?!》

《어머니, 욕을 해도 좀 곱게 하세요. 10년이 넘도록 꾸짖어오지만 달라진것이 없지 않은가요. 우리 지연인 그 사람만은 닮지 말아야 해요.》

지은금은 가슴을 치며 통탄을 쏟았다.

《남의 나라 땅에 흘러와서 사는것만도 절통한노릇인데 동족끼리 질시하는 꼴은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하겠구나!…》

지연은 싼타나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을 리용하여 쌍드와 전화련계를 가졌다.

《이모, 나예요. 지연.》

《알지, 목소리만 들려도 우리 지연이구나 하고 반갑단다. 널 본지도 오랬구나. 약속하고 어디서 만날가?》

지연은 몰래 전화를 거는것이 재미있는지 주위를 할깃대며 웃음을 지우지 못했다.

《지도교원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리구 아버지네 연구소는 질서가 바늘 들어갈 틈도 없거든요.》

《그런데 전화는 어떻게 하지?》

《기회를 엿본거예요. 이모가 보고싶기도 하구… 우리 엄마 만나봤나요?》

《그럼, 넌 아무 걱정도 말구 내가 말한대로 론문을 빨리 끝내렴. 그 다음 일은 엄마와 이모가 있지 않니.》

쌍드의 음성은 사랑에 푹 젖어있었다.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음음하는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생각을 재빨리 굴려댔다. 총명한 이 처녀는 실없이 전화를 건것이 아니였다. 남다른 관찰력을 가진 그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제눈으로 보려고 하는 기질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이모, 난 말이예요. 음ㅡ 일본이 마음에 안 들어. 거긴 여기보다 못할거야. 동방이 아니나요.》

《마음이 변한건 아니니?》

쌍드의 목소리가 성급하게 울리자 지연은 귀여운 눈을 살짝 감았다.

《이모도 참, 나도 지조라는것이 뭔지 아는 처녀예요.》

《그렇지 않구, 우리 지연이가 누구라구.》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기마련이지요, 이모?》

《그럼, 네게 유리한 방향을 언니와 내가 선택한거야.》

《아마 그럴거예요. 안녕!》

제 먼저 전화로 찾고 먼저 꺼버린 처녀는 눈을 감고 자기의 상념에 잠겨들었다.

쌍드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연구소에서 론문을 완성한다는것을 알았을가.

어머니한테서 역습을 받던 일을 그는 잊지 않고있었다. 사물의 모든 현상은 론리적인 내적련관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처녀였다. 의문부호를 제시하면 반드시 대답을 찾은 다음 감탄부호를 새겨넣어야 만

족해하는 성격은 부모들이 물려준 유전이기도 했다.

한편 자기 방에서 상록은 싼타나에게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깊은 상념에 잠겨있었다. 무엇인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자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밀려오기때문이였다. 그것은 자기가 연구하는 물질세계가 아니라 어떤 인간들이 빚어내는 음모인것으로 하여 내심 긴장하지 않을수 없었다.

에쎈이라는 대기업체의 움직임을 막아보려고 자기를 흥정물로 여긴다고 생각한것은 한갖 감성적인 사고에 불과했다.

위협하는 대상들은 행선지와 함께 승용차가 움직이는 시간까지 알고있었던것이다. 결국 사전에 계획된 도발인셈이다.

자기가 바젤에 갔다가 당일로 돌아온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연구소에 싼타나밖에 없다.

상록은 자기 분야가 아닌 생소한 추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그전날 나의 움직임을 생각해보자. 그렇지,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옷을 갈아입자고 집으로 갔으며 차를 준비시켰다. 내가 집사에게 바젤에 간다고 말했던가. 아리숭하다. 그런 말은 했을리 없다. 가만있자. 둥덩산꼴을 한 그 사람은 바클리가 소개한 녀석이다. 집사와 바클리가 한선에 련결되자 상록은 정신이 들었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매우 빈곤한 상록은 에쎈구락부에서 바클리와 사귀게 되였다. 류창한 언변을 가진 재빛수염쟁이가 호감을 자아냈다. 능란한 교제술을 가진 바클리와 만나면서 그가 인도주의단체에서 일한다는 그의 말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 자선사업에 나선 사람들은 선량할것이라고 여겼던것이다. 바클리가 조선에도 다녀온바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호기심을 가지고 두루 알아보니 사실이였다. 이렇게 되여 부탁이라는것을 하게 되였으며 그가 소개하는 사람을 집사로 채용하는것도 승인했다. 생활에 무관심한 인간으로 되여버린 상록은 그조차 감감 잊고있다가 이제와서야 생각해냈던것이다.

의심이 가는 대상은 역시 재빛수염쟁이였다. 정보거간군들이란 흑막속의 인물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은 서상록이다. 국제인도주의단체에서 일한다는 바클리가 유령인물이라면 소속된 단체도 유령단체일것이다.

여기까지 추리를 몰아온 상록은 안해보던 사색이여서 골이 아파나기 시작했다. 물질세계를 의심해온 머리를 가지고 인간세상의 장막을 헤쳐본다

는것이 어렵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문득 바젤로 떠나려던 시간에 쌍드가 손전화기로 시간이 있으면 낮에 만나고싶다는 의향을 전해오던 생각이 났다.

자기의 행선지를 아는 다른 인물이 나타났지만 의심하고싶지 않은 녀자였다. 쌍드는 그가 호의를 품고 사는 녀성이다. 딸의 신상을 지켜준 하나만을 가지고도 감사해야 할 쌍드의 이름을 불미스러운 일에 올리게 된것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상록은 바클리의 실체부터 알아내리라 마음먹으며 이리저리 사색을 이어나갔다.

어떤 방도가 있겠는가. 내 집에서 살고있는 집사가 바클리와 나쁜 작당을 하는 인물이 아닌가를 밝혀내야 한다. 그들 두사람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화제를 펼쳐가면서 타진해볼수 있지 않을가. 가능성이 있을것 같았다.

이전에도 바클리를 만나기 싫어 집사를 시켜 그에게 심부름을 보낸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전번 전시회장에서 한 약속을 지켜 요구하는것을 보내면서 두사람이 만날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 내가 우연인듯 나타날수도 있지 않는가.

상록은 매우 위험한 행동을 구상하고있었지만 그로서는 알지 못했다. 자기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는데 습관되였던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기운차게 일어섰다. 이 서상록이 일개 흥정물이나 얻어맞아야만 하는 목표가 될수 있는가. 아니다!

15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오락장이다.》

《왼쪽도로를 따라오라.》

《알겠다.》

손전화기를 든 바클리는 눈과 귀가 지령을 주는대로 움직이고있다. 속으로는 상전에게 온갖 욕을 퍼부어대면서 말이다. 목숨은 제것이지만 남의 손에 든지 오랜 그였다.

《옛 사원이 나타났는가?》

《그렇다.》

바클리는 음침한 사원의 키높은 원형기둥들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곳에 어떤 사람이 서있다. 아마도 자기를 호출한 샤멜일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오른쪽층계로 올라오라.》

《알았다.》

바클리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여 풍화되여가는 옛 사원의 계단에 첫발을 짚었다. 흘러가버린 시절의 가랑잎들이 날리는것 같은 소리가 귀전으로 들려왔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자였으며 종당에는 진술 몇병과 목숨을 서슴없이 바꾸었다. 어머니는 독실한 청교도였는데 끝이 있을상싶지 않은 주정뱅이남편의 시달림에서 벗어나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새 남자의 품을 찾아가면서 아들을 버리였다.

고아가 된 바클리는 후견인이라고 해야 할 사람의 손에서 자랐는데 착실하게 《교육》을 받았다. 도적무리의 두목이였던것이다. 털어내고 털어먹는 생활속에서 어린 바클리는 범죄의 온갖 재주를 유감없이 갖추었으며 방탕한 인간의 성격을 소유하게 되였다.

마지막층계를 올라서자 그의 머리속에 향수를 불러오던 추억은 공포를 자아내는 바람결에 날려가버렸다. 대칭을 이룬 사원의 두리기둥들사이에는 해빛조차 들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의 접이식의자에 앉은 사람의 형체가 음영처럼 보였다.

바클리는 거역할수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속에 들어앉은 기질적인 횡포성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저 흡혈귀의 피맛을 볼테다. 네 손에 지금처럼 기를 펴지 못하며 산다는건 고통이다. 저승의 지옥도 이보다는 나을게다. 개자식!

이런 앙심이 비낀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다가간 바클리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보이는것으로 도착했음을 알렸다.

《당신의 일솜씨가 매우 불만스럽단 말이요.》

상전의 말뜻을 알고도 남는 바클리다. 에쎈과의 공작에 대해 비난하는것이다. 품을 안 들인것은 아니였으나 실패는 당연한것이기도 했다. 공작비로 받은 돈의 얼마간을 삼킨것도 있지만 그 《로조간부》들이라고 자처

하는 시정배들의 탐욕도 여간이 아니였던것이다.

《죄송합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찾겠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하오!》

상전의 악청이 드디여 터져나왔다.

《시작은 비교적 잘 뗐는데 뜻밖의 정황이 발생했고 <로조간부>들이라는 작자들이 중도에서 몸을 사리는통에…》

상전의 상통이 창백해지다 못해 푸릿한 기운이 떠돌자 바클리는 오늘이 마지막날이 되지만 말아라 하고 속으로 빌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유령 샤멜이 천천히 다가서더니 여위고 마른 손가락을 내밀자 바클리는 주춤하며 뒤걸음쳤다.

《원인, 원인을 말하라.》

바클리는 두뇌회전이 비교적 빠른 축이였다. 아마 그 덕으로 위험천만한 일을 하면서도 목숨을 부지했는지 모른다. 그는 이 순간에 쌍드를 생각해냈던것이다.

《언론공세로 하여… <로조간부>들이라는 추물들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자 에쎈이 요구하는 회담에 끌려들어갔습니다. 이건 예견 못했던 정황이나 같았습니다.》

《에쎈의 움직임을 막지 못하면 붕괴시킬 각오까지 해야 한다. 목적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내 말의 뜻을 알겠는가?》

에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작의 범위가 넓다는데 대해 잘 알고있는 바클리다. 자기가 맡은 일은 한 부분일뿐이다.

서상록에게 큰 위협을 가하려던 시도마저 실패했으니 상전의 염통속에서는 불이 일것이다. 아마 자기 같은 유령들이 목숨을 지불했을수도 있다. 성공과 죽음사이에서 사는 자기들이나 다름없었다. 다행스러운것은 자기의 속생각을 상전이 아직 알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바클리, 당신은 쌍드라는 녀자를 알고있는가?》

웬 일인지 가슴을 섬찍하게 하는 질문이였다. 퀴퀴한 자기의 밤생활까지 알고있는 상전이였기때문이다. 어느 모퉁이에서 무슨 몽둥이가 날아들지 모르는 판이다.

《예, 얼굴이나 아는 정도인데…》

《발레무용수였다는 그 녀자가 불편한 인물이다. 에쎈의 대변인처럼 계속 놀아대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그 녀자가 마음나는대로 입방아를 찧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바클리의 흉심은 쾌재를 올렸다. 얼마나 욕심을 부려온 녀잔가. 오만하면서도 눈길을 끌고 서상록의 주위에서 맴돌아치는것이 귀찮으면서도 안아보고싶은 쌍드였던것이다.

《제가 그 녀자를 길들여놓겠습니다.》

상전의 굳어진 동공이 찌를듯이 노려보았다.

《걸레짝으로 만들어놓아도 좋다.》

바클리는 상전이 자기가 감행할 행위의 결과까지 내다보는것이 신통하여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열적은 웃음만 떠올렸다.

《서상록과 쌍드,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물이 너의 목표로 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라. 상록의 연구소를 에쎈과 분리시킬 가능성이 없다면 재더미로 만들 계획도 세워야 한다.》

상전에게서 지령을 받고 풀려난 바클리는 자기의 차후 행동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보거간군으로 돈벌이까지 하는 그의 수중에는 비상한 두뇌를 가진 해커들도 있었다. 기업체들의 콤퓨터망에 숨어들어가는 기술을 터득한자들이였다. 지불이라는 담보가 있으면 그런 두뇌들은 얼마든지 가동시킬수 있다. 사람의 음성도 가공처리하는 재간을 가진 사람들을 리용하여 쌍드를 맵시있게 유인하여야 한다. 발레무용수의 그 탐스러운 다리처럼 맵시있게…

여기까지 생각한 바클리는 쾌감을 맛보며 걸음을 옮기였다.

그는 며칠을 두고 쌍드를 유인할 계획을 주도세밀하게 세웠으며 실천에 옮길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저녁부터 구질구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거리와 골목들에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칠 때마다 허공중천에 드리운 물줄기들이 불빛속에서 흐느적거린다.

굵은비 내리는 저녁의 고요속으로 쌍드는 얇은 방수천으로 지은 비옷을 입고 재빨리 걸음을 옮기고있다.

하필이면 이런 날에 만나자고 할건 뭔가. 내키지 않는 걸음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여서 그는 시간을 지키려고 탄력있는 다리를 부지런히 놀리였다.

골목길에 들어선 쌍드는 앞쪽에 불빛이 희미하게 내비치는 건물을 향해

다가갔다. 아치형출입문우에는 《웰헬름거리—121번지》라는 표식판이 걸려있다. 현관벽등은 푸르스름한 빛을 맥없이 흘리고있었다.

층계를 세바퀴 돌아오르고나서 오른쪽복도를 따라간 쌍드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가지고 온 열쇠로 열고 들어섰다.

방안에서는 모짜르트의 플류트협주곡이 고요히 흘러나왔다. 만나야 할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린 쌍드는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었다.

《이와나미상!》

반가운 사람이 마주 나올 대신 이상한 정적이 압박하자 그는 재빨리 방안을 둘러보았다. 낡기는 했어도 음향의 질이 좋은 전축에서 아름다운 선률이 흐를뿐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

비물이 흐르는 비옷을 벗지도 못한채 쌍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돌아서다 비명을 질렀다.

자기가 들어온 문가에 웃옷을 벗어던진 사나이가 서있는것이다. 바클리였다. 털부숭이가슴을 드러낸채 만족한 웃음을 짓고 한걸음 다가서자 쌍드는 뒤걸음을 치며 한손으로 입을 가리였다.

그는 한순간에 자기가 꼬임에 빠졌다는것을 알아챘다. 저 징그러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수 있는가.

쌍드의 앞으로 바싹 다가든 바클리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비옷을 벗겨주었다.

《어쩌자는거예요? 당신은…》

바클리의 손이 이번에는 비물에 젖은 쌍드의 앞머리를 쓸어넘겨주기까지 했다. 상반신을 젖힌 녀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만 등은 이미 벽에 닿아있었다.

바지주머니에서 사진을 한장 꺼내든 바클리가 쌍드의 눈앞에 쳐들었다.

《이 사람을 대신한 나라고 여겨주면 되오.》

아연해진 쌍드는 사진속의 남자에게 구원이나 청할듯 숨가쁘게 말했다.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어요. 이럴수 없어요. 난…》

사나이의 억센 손이 녀자의 가는 허리를 껴안으며 자기앞으로 힘껏 끌어당겼다. 바클리의 눈에서는 금시 정욕의 불길이 타번지기 시작했다.

《서막을 알리는셈 치고 이전처럼 내 귀쌈을 때려주지, 응?!》

《그건 내가 사죄해요.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요. …》

《아무렴, 그래야지. 오늘은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만난 아담과 이브요. 당신은 아름다운 육체로 나에게 만족을 주면 되오. 그것이면 사죄와 보상으로 된단 말이요.》

바클리가 한층 더 힘을 주어 끌어안으며 만족한 웃음을 내뿜을 때 쌍드는 머리를 흔들어대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러지 말아요, 바클리. 당신이야 내 나이의 절반도 안되는 녀자들을 끼고 밤마다 즐기지 않는가요. 보다싶이 난 물이 진 녀자예요. 아무런 감흥도 없을거란 말이예요.》

더는 피할 길 없는 함정에 빠진 녀자는 도고하던 지체를 깡그리 버린채 비굴한 사정을 해댔다.

《괜찮소. 젊은것들은 하나같이 마비된것들이고 아무런 기교도 발휘하지 못하는 돈벌레들이요. 난 당신의 이게 더 좋소.》

쌍드의 얼굴을 두손으로 살뜰하게 어루쓸며 바클리는 더운 숨결이 뿜어나오는 입술로 애무를 시작했다. 몸부림치던 녀자의 몸이 노곤해나자 안아든 바클리는 침대쪽으로 날라갔다. 모든것을 포기한 쌍드의 모습은 눈물에 잠겨있었다.

《쌍드, 난 당신을 알아야겠소. 누구의 지령을 받는가?》

《세상에 이런 고문과 심문도 있는가요?》

《바로 이게 바클리식이라는거요. 흐흐.》

《바클리씨가 이런 사람인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서상록과 그의 딸에게 관심하는 리유가 뭐요?》

쌍드는 침대우에 앉은채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바클리가 그처럼 그리워한 희고 미츨한 다리는 맥없이 드리운 상태였다.

《시샘하는건가요?》

《대답하오. 왜 그러오?》

《나도 녀자가 아닌가요. 정을 주고싶은 남자가 있을수 있다는거야 알고도 남을텐데요.》

《하긴 당신만큼 솜씨있는 남자사냥군은 없다는걸 내가 왜 생각 못했을가. 하지만 서상록에게서 노리는게 있겠는데…》

《난 바클리씨처럼 돈이 그리운 녀자가 아니예요.》

바클리의 얼굴이 쌍드의 앞으로 다가들었다. 자기의 로획물을 만족한 기분으로 바라보는것이다.

《에쎈의 늙은 령감한테 봉사하고 사례는 톡톡히 받겠지?》

쌍드의 지친 얼굴이 쳐들린다. 바클리가 녀자의 입술을 손으로 매만지며 소근거려댔다.

《신문을 통해 입방아를 계속 찧어대면 오늘같은 즐거움이 아니라 목숨을 지불하게 된다는걸 알아야지.》

《당신은 자선단체에 속한 사람이 옳은가요?》

《그런건 묻지 말구 내 말을 새겨들어. 에쎈을 비호하여 글을 더이상 써내면 안된다는걸 잊지 말아야 해.》

바클리의 손이 볼과 목을 거쳐 가슴으로 흘러내리자 쌍드는 황황히 고개를 끄덕댔다.

《부탁이 있어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예요. 물이야 먹여줄수 있지 않아요, 예? 그 다음은 하자는대로 다하겠어요.》

《그야 어려울게 있소. 시원하게 마신 다음 시작해보자구.》

바클리는 쌍드의 볼에 입을 맞춰주고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다.

그 순간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 녀자의 동작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침대옆의 탁자우에 있는 자그마한 꽃병을 집어든 쌍드는 발끝을 수직으로 세운 걸음으로 바클리의 등뒤에 소리없이 다가섰다.

《쌍드, 향기로운 록차를 대접할테니…》

바클리는 오늘 밤은 마음껏 즐기리라고 방심한탓으로 뒤통수에 불의의 타격을 받고 맥없이 꼬꾸라졌다.

16

앓는다는 법을 모르던 늙은이가 자리에 누웠다는 소식에 접한 서상록은 체면이 없지만 두견차집을 찾아갈 용단을 내렸다. 만나본지도 몇해가 잘된다. 사위라고 해야 할 사람을 단 한번도 나무란적이 없는 지은금이였다.

사리에 밝은 늙은이는 이날까지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들의 가정일로 무던히도 속을 태워오는것이다.

《이 사람아, 임자야 사내가 아닌가. 잘못은 못난 내 딸한테 있다지만 집안건사야 남자가 해야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려나.》

지은금이 바라는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아는 상록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안해만 마음을 돌려세우면 되겠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알수 없는것이다.

그는 지금도 가정이 해체된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고있었다. 자기를 보는 눈은 가진적 없는 상록이였다. 만약 회복된다면 가정의 만족한 생활을 담보할수 있다는 자신심만이 머리속에 들어차있었다. 그가 알고있는 모든 가정들의 불화는 물질생활의 결핍에 있었다. 남들처럼 살수 없고 남들처럼 자식을 키울수 없는것으로 부부간의 싸움이 시작되고 마침내는 가정을 포기해버리는것이 아니란 말인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지속이 안해였던 녀성을 리해할수 없는 길로 이어져온것이다. 두사람은 생활에 대한 견해의 출발점이 달랐다. 그것이 모순임에도 서로가 양보도 타협도 모르며 인생의 시간을 랑비하고있는것이다.

지은금의 방에 들어서던 상록은 몸져누운 늙은이의 머리맡에 앉아있는 정동녀의 모습을 보고는 문가에서 주춤댔다. 안해의 눈길이 피끗 돌려지는것 같더니 랭담한 얼굴로 변해버린다.

상록은 침대머리쪽에 놓인 상두대우에 저절로 눈길이 갔다. 주사약들과 여러가지 색갈의 교갑약들이 놓여있었다. 아마 안해가 가져온 모양이다.

《누가 온게 아니냐?》

지은금이 눈을 뜨며 묻다가 상록을 띄여보고는 《임자가 어떻게 알구…》 하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정동녀가 만류했다.

《가만 누워계셔요.》

딸이 왔는데도 눈을 감고만 있던 어머니가 알량한 사람이 나타나니 인사까지 차리려드는것이 정동녀는 속이 언짢아난것이다.

《앉게나. 바쁜 시간을 냈구만.》

상록은 들고 온 과일구럭을 놓고나서 나무걸상에 조심히 몸을 부리웠다.

《어머니, 이 약들은 누가 가져왔나요?》

제편에서 주눅이 드는것을 바라지 않는 정동녀가 먼저 물었다.

《명현선생이 내가 앓는것을 알고는 일부러 찾아와 놓고 가더라.》

이 자리에서 친구였던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자 상록은 마음이 찔리였다. 명현이 이 도시에 체류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 그였다. 례의상 찾아가서 회포라도 나눠야 하겠지만 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다. 이전같지 않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명현이였다. 마주섰댔자 양보할 친구가 아니라는것

을 잘 알았던것이다.

《그 선생이 참 고맙군요.》

《네가 명현선생의 절반만큼만 되여도 난 죽어두 한이 없겠다.》 하며 지은금은 누운채로 머리를 흔들어댔다.

어머니와 딸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상록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덮고있던 얇은 담요를 거두고 일어나 앉은 지은금이 헝클어진 머리를 손질하고나서 속에 고였던 한숨을 내쉬였다. 정동녀는 처음처럼 어머니의 거동을 만류하지 않았다.

《나도 이렇게 자리에 누워있고보니 사돈님생각이 나네.》

지은금의 입에서 의외의 소리가 울려나오자 상록의 턱이 움씰 떨렸다.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줄은 몰랐던것이다. 고개를 숙인 정동녀가 머리를 저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공연한…》

상록은 안해가 모진 말을 피하느라고 애쓴다는것을 느꼈다. 하긴 시아버지를 공경한 대신 남편이라고 해야 할 사람은 하대한 녀자다. 더할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상록은 생각했다.

《정말 좋은분이셨지. 그분이 땅속에서 자네들이 사는 모양을 보면 가슴을 칠걸세. 그리도 귀해한 손녀의 앞길을 망쳐놓으려드는 부부간의 행실머리를 알면 땅을 차고 일어나실거야.》

《어머니!…》

정동녀가 다급히 말허리를 동강내지만 지은금은 마음먹고 심중을 터뜨렸다.

세상천지 어디에 있어도 우린 조선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가 일본놈들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제일 몹쓸놈이다. 그런데도 지연이를 일본에 보내여 큰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꿈을 꾸고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지은금의 통탄을 들으며 상록은 눈을 번쩍 떴다. 뇌리에서 백광이 휩쓸고 지나갔던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장모가 앓아누운 까닭이 여기에 있었는가. 일본이라는 말은 옛집의 벽계수가에서 안해가 이미 한바 있다. 그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오늘은 현실로 다가들었던것이다.

《어머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발 좀 진정하세요.

그 말은 더하지 말아요. 나를 꾸짖으면 되지 않나요. 예?》

《왜 말 못하게 하는거요! 왜, 왜?》

서상록은 화등잔같이 된 눈으로 정동녀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뭐라구?! 지연이가 내 딸이 아니란 말이요?》

《렴치없이 놀지 말아요. 이미 약속하지 않았어요. 지연이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이예요. 당신이 훼방을 놀지만 않았어도 내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진 않았을거란 말이예요.》

《누구의 꼬임을 받았소? 당신의 생각이 저절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갈 수는 없소. 누구요? 어느 놈과 작당했소?》

상록의 기상이 점점 사나와지자 정동녀는 울분을 이기지 못하며 소리쳤다.

《알 필요가 없어요! 끼여들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앙숙같이 되여버린 딸과 사위를 지켜보던 지은금이 가슴을 두드렸다.

《싸움중에서 제일 지독한 싸움이 집안싸움이라더니 옛말 그른데 없구나. 너희들 틈에서 지연이의 앞날이 막막하다. 이런 기막힌 일을 어쩌면 좋겠니. …》

리성적인 인간들이라고 해야 할 부부간의 비리성적인 충돌이 지은금의 탄식으로 하여 일시 완화되였다.

지그프리트는 지금 높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있었다. 방금 그는 국제상품전람회 폐막식에서 만난 조선대표단 성원으로부터 그처럼 갈망해온 동생 칼의 소식을 전해듣게 되였던것이다.

그것은 지그프리트가 평양방문시 면담을 진행하던 도중에 여담을 나누다가 상대측에 개인적으로 청탁한것이였는데 고맙게도 이번 전람회에 오는 인편으로 그 소식을 알려온것이였다. 그에 의하면 조선전쟁에 미국의 고용병으로 참가한 칼은 1950년 겨울에 포로되였다가 정전직후에 송환되였는데 지금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 영주하면서 국제반전평화옹호단체의 저명한 인사로 활동하고있다는것이였다.

지그프리트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동시에 받아안았다. 그는 동생의 생사여부를 알기는 거의나 불가능할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포로병들의 운명 같은것에 관심할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칼은 전쟁포로이기는 하지만 그에겐 사실상 제 나라가 없었으며 송환된 후 갈 곳도 없었을것이다. 그는 자기와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를 찾고싶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니 어머니마저 오스트랄리아에서 사망한 후 그가 갈 곳이 과연 어디였겠는가?

지그프리트는 동생의 불우한 운명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그는 고마운 은인이나 다름없는 대표단성원에게 진정을 담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나는 자신이 실용주의자라는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국과 당신들의 호의에 대한 나의 감동이 나를 변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신의가 두텁고 훌륭한 미덕의 소유자들과는 호혜적인 협조가 잘되여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서방의 억만장자라고 해야 할 사람이 자기의 심중을 터치는 말이였다.

치렬한 기업경쟁에 나선 사나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리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돌진해온 사람이 진정한 인도주의세계에 무한히 감복되여 도저히 걷잡을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것이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지그프리트의 사무실책상우에는 표지가 해진 한권의 책이 놓여있었다. 책의 제목은 《고용병의 수기》였다. 그 책으로 말하면 동남아시아지역에 주재하고있는 에쎈의 무역지사에서 구해서 보내온것이였다. 물론 그것을 요구한 사람은 지그프리트자신이였다.

책장을 펼치며 에쎈의 주인은 매우 심중한 표정을 지었다.

저자의 초상사진이 반측면으로 나타나자 그는 미간의 주름을 모으며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헤여질 때 동생의 나이는 9살이였다. 어린시절의 모색도 삭막한데 사진속의 사나이는 장정이니 동생이 옳은지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책장을 번져가던 지그프리트는 다른 한장의 사진에 눈길을 멈추었다. 나이가 있어보이는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였다.

지그프리트의 두눈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한것이다.

그는 책을 얼굴에 가져다대며 치밀어오르는 울음을 참았다.

얼마나 불행한 자기의 가정인가. 파시즘이 파괴해버린 한집안의 운명이 그의 가슴을 갈가리 찢는듯 했다.

온 유럽을 휩쓴 전쟁판에서 요행 살아남은것은 지그프리트와 아버지의

행운이라고 할수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재산도 그럭저럭 보존되여 전후에 인차 기업을 활성화시킬수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지그프리트는 젊은 나이에 기업을 넘겨받았고 그때부터 성공이냐 파산이냐 하는 생존경쟁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야 했다. 요행 큼직한 식료업체를 경영하던 기업가의 딸인 바르바라와 결혼하고 그가 가지고 온 막대한 지참금까지 투자하여 크게 성공한 후 오늘까지 전성기를 누려온것이였다. …

인생의 한토막을 추억하고난 그는 무량한 감회에 잠긴채 책의 다음 페지를 번졌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란히 걸어본것도 아득한 옛일처럼 생각되였다.

대학교정의 푸른 잎새들이 흔들리던 나무밑에 난 오솔길, 두사람이 함께 찾군 하였던 도서관의 층계들, 쉼없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노래를 불러준 강반의 모래불… 이름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산정에 올라 화판앞에 마주서던 그 시절은 얼마나 좋았던가.

《언제 미술공부를 다 했어요?》

《나도 모르오. 땅에다 금을 그으며 세상에 나서 보지 못한 어머니의 얼굴을 애처롭게 그려본 그때부터였는지. 나에게도 어머니가 계셨을게 아니요. 바라는건 그 품에 한번만이라도 안겨보는거요.》

《전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 집에도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차있었어요. 사람은 그리운것이 있기마련인가봐요.》

《그렇구만. 그럼 내 이제 그림을 그려주지.》

《날 모델로 세우겠어요?》

《그 검은 눈동자는 참으로 아름답구만.》

《정말? 이걸 어쩌나…》

두사람은 다같이 개성적인 성격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향은 자존심과 련결된것으로서 거부당하면 참지 못하는것이였다. 일방적인 요구 같은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로 결합된 후에는 남자켠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일이 우심하게 나타난것이다. 모든 운동에는 극한점이 있기마련이다. 이겨내기 어려운 고비에 이르면 사람은 지쳐버리고만다. 정신적인 극한을 그들은 이겨내지 못했으며 오늘을 불러왔던것이다.

지금도 그들은 함께 걸으면서 상대가 먼저 입을 열기만을 완강하게 기다리였다.

네가 말이 없으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는 심리작용은 두견차집을 나서서부터 시작된것이다.

그들은 결국 지은금에게 병문안을 한것이 아니라 그늘을 던져주고 돌아섰다. 한걸음도 양보할 의사가 없는 두사람이다.

상록은 안해가 어떻게 되여 딸을 일본에 보낼 생각을 했는지 억이 막히기만 했다. 그것은 자기의 계획을 통채로 뒤집어엎는것이며 자식의 앞날도 기약할수 없게 하기때문이였다.

그는 지은금만 한 생각을 할수는 없었지만 20살을 겨우 넘긴 딸을 지구의 반대쪽에 보낸다는것이 비정상적인 사고라고 간주했다. 정신이 빠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수 있는가.

또다시 분기가 터져오른 그는 거친 숨결을 누르며 물었다.

《말 좀 해주오. 당신의 놀랄만 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말이요.》

침묵속에 헤여질 마음을 먹었던 정동녀는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리며 먼 곳을 바라보다 시들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야 이미전에 통지했는걸요.》

《실무적인 말투를 버리오. 우린 회담장에 마주선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들의 관계가 그 이상인가요?》

상록의 걸음이 뚝 멎었다.

《결심을 했다는거겠소?》

정동녀의 눈길이 흔들리며 남편의 시선을 피했다. 단호한 대답을 줄수 없는 자기였던것이다. 옳지 못했다는것을 인정하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았다.

《더 묻지 말아요. 어머니의 욕을 먹는걸 보지 못했는가요.》

별거생활 10년이 넘도록 안해의 심리파동을 목격해보지 못한 상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완벽한 대답은 아닐지라도 수정할 태도를 보이고있었기때문이였다.

《난 당신의 두뇌만은 어쩔수 없다고 여겨왔소. 누군가가 단수높은 방법으로 회유했다는건 알게 됐소.》

《정말 밉살스럽게 들여다보는군요.》

《누구요? 일본남자라도 사귀였소?》

정동녀의 낯색은 금시 변했다. 새파랗게 된 얼굴은 모욕을 참느라고 경련까지 일으켰다.

《그래요! 옳아요!》

일그러진 녀자의 안면에 한줄기 차거운 웃음이 가로질러갔다.

《다행이요. 그러나 후회하게 될거요.》

정동녀는 참지 못해 발을 굴러댔다.

《천만에, 속이 편치않은가요? 당신도 잘 아는 사람이예요. 쌍드!》

상록은 벼락이라도 맞은듯 굳어졌다. 안해의 입에서 쌍드의 이름이 튀여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것이다. 거짓말을 모르는 녀자인 정동녀인것으로 하여 그는 얼나간 사람처럼 서있었다.

《이젠 됐어요? 나도 녀자라는걸 잊지 마세요. 쌍드는 당신을 미친듯이 숭배하더군요.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지 않아요. 그만한 녀자에게서 사랑을 받는 당신이 돋보이기도 했어요. 이젠 만족해요?》

순식간에 머리가 혼란된 상록은 미처 수습도 못한채 중얼거렸다.

《이건 해석수학의 방법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요. 매우 복잡한 인간방정식이란 말이요. …》

17

이 건물에도 사람들이 살고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 연구소였는데 점심시간이 되니 새로운 풍경을 보게 한다. 보리수나무 숲속길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가 하면 운동복차림으로 천천히 달리기를 하는 모습들도 눈에 뜨인다.

구획이 뚜렷하게 표시된 정구장둘레에 놓인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구경을 한다. 이들은 연구사업의 피로를 풀고있는것이다.

이채로운것은 몸집이 우람찬 남자에게 도전해나선 싼타나의 운동률동이였다. 번개치듯 내닫고 높이 조약하며 길고짧게 날아오는 공을 재치있게 받아넘기고는 전술적으로 째인 공격과 반공격을 하여 득점할 때면 연구사들이 경탄을 터뜨리며 박수를 치고 소리까지 쳐댄다.

상록의 옆자리에 앉은 지연은 두손을 맞잡은채 《싼타나선생님, 한점만 올리세요!》 하고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싼타나가 처넣기공을 대각으로 멀리 날려보내자 상대방인 남자는 둔중한 몸을 날려 공을 가볍게 받아쳤다. 짧게 보낼것을 예견했던지 잽싸게 달려나간 녀자가 날렵한 동작으로 솜씨있게 살짝공을 먹인다.

싼타나의 득점으로 경기는 끝났다. 남자연구사가 패배의 쓴웃음을 지을 때 싼타나는 정구채를 높이 쳐들어올리며 경기장밖으로 나왔다. 익살스러운 한 남자가 그의 앞으로 다가와 주먹을 쥔 손을 내밀며 방송원 흉내를 피웠다.

《싼타나, 남자상대를 타승한 기분이 어떻소?》

싼타나의 표정은 여전히 랭담하였다.

《도전은 계속될것이며 오늘과 같이 이길거예요.》

싼타나에게 자리를 권한 지연은 큰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멋있게 승리했어요.》

싼타나는 지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이번에는 아주 젊고 날파람있게 생긴 남자연구사가 서상록의 앞에 와서 멈춰서더니 정중히 인사를 했다. 겨루어보자는 의사를 표시하는것이다.

지연은 아버지의 태도에 놀라와하며 눈을 치켜떴다. 서상록이 상대를 올려다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던것이다.

《우리 아버진 질거야.》

지연이 혼자말처럼 흘리지만 싼타나는 자신심을 가지고 말했다.

《걱정말아, 박사선생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

《그럴가요?》

그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사람에게 시선을 모은채 지연이 긴장된 마음을 진정 못하는데 싼타나가 물었다.

《지연, 그 녀자와 전화를 하니?》

생각밖의 모호한 질문을 받은 지연은 고운 눈을 크게 떠보이며 싼타나를 바라보았다. 그 녀자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싼타나는 턱을 약간 쳐들어올린채 날아오르는 정구공을 주시하며 지나가는 말처럼 하였다.

《놀라긴… 그 녀자, 쌍드말이야.》

지연은 한층 놀라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워하는 감정이 력력히 어리였다.

싼타나가 어떻게 쌍드를 아는가. 혹시 내 전화를 도청이라도 했단 말

인가. 스승이나 같다고 해야 할 이 녀자의 눈길을 피해가며 쌍드와 통화를 하군 하였던것이다. 이쯤되면 솔직해야 한다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 지연이였다.

《예. 하면… 안됩니까?》

풀이 죽은 지연은 아버지가 경기에 나갔다는것은 잊은채 어떤 말이 나올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안되긴. 생명의 은인이나 같은 사람인데야.》

싼타나의 억양없는 말을 듣고는 의미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것을 이미 상대해오면서 알고있는 지연이다. 하지만 지금은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람이 아니니.》 하고 표현해야 할것 같은데 《…데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꼬리를 낮추는것까지 음미하게 됐던것이다.

《가장 큰 실패가 어떤거라고 생각하니?》

새로운 질문은 더욱 대답하기 어려운것이였다. 어떤 실패인가 하는 문제인데 자기로서는 아직 당해본 일이 별로 없었던것이다.

대학 전 과정에 실력면에서는 져본 일이 없지만 아직은 풋내기처녀여서 사랑이라는 흥미진진하다는 세계를 체험해보지도 못했던것이다.

《대답하기가 어려운 모양이구나. 그건 말이야. 인간교제에서의 실패라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닐거야. 그렇지 않아?》

결론을 하면서도 다시 물으니 지연은 어떤 조임을 당하는 기분이였다.

싼타나가 매우 넓은 반경안에 자기를 몰아넣고 무엇인가를 암시하고있다는것을 총명한 처녀는 어렴풋이 느끼고있었다.

《전 아직 생활이 너무도 단순하다보니…》

《그렇긴 해도 지연인 령리한 처녀가 아니니. 이따금 자기가 차사고를 당했던 일을 상기해보군 하겠지?》

싼타나가 지금 벌려놓은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는 못해도 지연은 사유가 계발되는감을 받아안았다. 만약 그 차사고가 없었더라면 쌍드를 알지 못했을것이다. 생활에는 그와 같은 우연이 너무도 많은것이다.

《예. 쌍드부인이 고마워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전화도…》

조심스럽게 살펴보지만 싼타나의 얼굴표정은 평시나 다름없다. 턱은 쳐들어올렸고 눈길은 아래로 떨군 상태이다.

《지연은 그날 10시, 정확히는 10시 15분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

에 넣었다. 그 다음 차바퀴를 갈아끼우는데 20분 걸렸다. 령길에서 그 바퀴가 빠져나가고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시간은 11시 30분이였어. 그러니 55분밖에 주행하지 못한 차바퀴가 차축으로부터 리탈된셈이지. 그렇지 않아?》

싼타나의 말은 지연을 한층 놀라게 하였다. 어떻게 자기의 행동과 시간을 이렇게 정확히 말할수 있는가. 그 장소에 있기라도 했단 말인가. 설사 그렇다한들 당시에는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관심을 돌렸다는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금시 머리가 텅 비여버리는감을 느끼며 얼없이 고개만 끄덕여보인 지연은 다음 말을 기다리기만 했다.

《생활에서 우연을 파악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러나 우발적이라고 해야 할 모든 현상에도 원인이 있을것이고 련관성이 존재한다는데 대해서는 알고있어야 하지. 그래야 대처할수 있는 방도를 찾을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니?》

지연은 자기가 싼타나의 세계에 완전히 빨려들어가고있다는것을 느끼면서 고개만 끄덕댔다.

승부를 다투는 두 선수의 경기는 그들의 대화속에서도 맹렬하게 진행됐다.

상록의 준비된 타격은 속도가 매우 빨랐고 세기가 강하여 젊은 연구사를 곤경에 몰아넣기 시작했다. 경기률동이 파괴되니 전술적으로 피동에 빠져드는것이다.

《지연인 내 말을 명심해야 하며 질서에 복종해야 해.》

싼타나는 조용한 말로 요구했지만 지연은 한바탕 훈시를 받은지라 공손히 접수했다.

《선생님이 하라는대로만 하겠습니다.》

《난 맹목적인것은 반대해요. 랭철한 판단, 새로운 추리의 도출. 사유에서 과학적이라면 행동에서도 적극적이기를 바라는거야. 알겠어?》

지연은 싼타나의 말을 다는 리해하지 못하지만 자기로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잠재의식의 지시를 깨닫고있었다. 그것이 어데서 출발한것인지는 알수 없어도 자기의 인식이였던것이다.

상록에게 패한 젊은 연구사는 정구장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를 숙인다.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엄격한 상급이 승리한것을 축하하여 박

수를 치고 경탄을 올렸다. 싼타나가 주위환경에 맞춰 손벽을 가볍게 치자 지연은 그의 동작을 따라하지 않을수 없었다.

바클리의 참패는 무참한것이였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둘러감고 자기 방에 드러누워있다. 기막힌 몰골이였다. 발레무용수의 다리처럼 맵시있는 함정을 파놓았건만 그 고운 다리에 채워 전상자가 된것이나 다름없다. 다 먹어놓은 고기덩이였는데 목에 걸려 삼키지 못했으니 그의 심사는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지경에서 헤매고있다.

얼마나 면밀히 준비하고 쌍드라는 녀자를 유인했던가. 이 녀자가 아직도 밀회를 하는 남자대상이 있다는것을 알아낸 바클리는 재간있는 도적을 시켜 남자의 손전화기를 훔치게 했다. 예견한 그대로 주소록에는 쌍드의 손전화번호가 기입되여있었다. 일이 이쯤되니 다음 행동은 문제도 아니였다.

밀회장소를 알아내고 일본사람인 남자의 사진까지 손에 넣은 바클리는 쾌재를 올렸다.

코가 높고 입심이 사나운 미인은 그의 수중에 든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얼마나 억이 막히게 참패를 당했는가.

《망할 년!》

바클리는 용수철처럼 튕기듯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허공을 물어뜯을듯 노려보았다. 눈앞에서는 아직도 쌍드가 얼른거렸다.

절망에 잠겨 눈물을 흘리던 녀자의 눈동자… 한초밖에 남지 않았던 그 시각에 꿈은 하늘로 날아나버렸다.

사내랍시고 거들먹댔지만 벌거숭이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바클리였던것이다. 계집년에게 얻어맞아 골통이 깨진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수놈이라고 생겨먹은것들은 자기들이 사는 마당에서 차던져버릴것이다.

한심한 꼴이 된 바클리가 쌍드로 하여 분통을 이기지 못해하는데 손전화기까지 호출음을 시끄럽게 내보내고있었다. 침대머리맡으로 벌렁벌렁 기여간 그는 호출자의 번호를 보고나서 가슴이 써늘해났다. 샤멜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손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바클린가?》

바클리는 자기 몰골을 상전이 보는것 같아 용기를 내여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당장 어느 장소에 오라는 지령이 내려질가봐 가슴을 조였다. 지금의 자기 꼬락서니를 본다면 샤멜이 잡아먹자고들것은 뻔했다.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술을 마시고 뒤로 자빠졌다고 거짓말을 하는수밖에 별도리가 있을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다고 곧이들을 상전이 아니다.

《그 녀자말이요, 쌍드.》

바클리는 칼에라도 찔리운듯 몸을 흠칠 떨어댔다.

《그년이 다시 신문에 얼굴을 내밀고 에쎈을 비호하는 날엔 바클리, 당신은 남자구실도 다한다는걸 알아야 하오.》

바클리는 바클리였다. 불안이 가셔지자 철면피성이 되살아나며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잘 길들여놨는걸요. 흐흐.》

《그럼 다음 일감을 주지. 상록을 유인할 방도를 연구하라. 그놈을 그냥 둬서는 안되겠단 말이야. 새로운걸 개발해서 에쎈의 늙다리가 여간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들어왔소.》

《아예 없애치우잡니까?》

《봐가면서 소리없이, 귀신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상전과의 통화가 끝나자 바클리는 긴장이 풀려 잠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벌렁 드러누웠다. 상록에게서 이미전부터 자기가 요구했던 사례를 얼마전에 받은 그였다. 그동안 질질 끌어오기에 이번에도 집행유예인가부다 했는데 집사를 시켜서 보내왔다.

이전에도 그런 방법으로 상록은 바클리라는 인간을 하대하였던것이다.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그만한 보수도 주려는 상대가 없었다. 원체 거만한 녀석이니 제손으로 돈을 쥐여주기는 싫다는것이다.

쌍드가 상록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든다는것을 알았고 계집년의 입에서 그것을 확인한 지금 바클리는 질투심과 함께 복수의 피가 끓어오르는것을 누를길 없었다.

《너희 년놈들이 좋아라고 그냥 두지 않을테다.》

지그프리트는 상록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 재료들과 실험실적방법으로 완성한 제품들을 돌아보고있다. 상록과 싼타나, 개발팀을 책임진 연구사들이 그와 자리를 같이하였다.

지능화가 높은 수준에 이른 로보트앞에서 금발머리연구사가 설명했다.

새로 만들어낸 로보트는 앞으로 인체의 장기수술도 진행할수 있다는것과 제작비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이야기하자 지그프리트는 만족을 표시했다.

극소형전자소편앞에 이른 그에게 싼타나가 설명했다.

《극소형화된 이 전자소편은 음성수감과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 텔레비죤과 콤퓨터들, 손전화기의 체계들에 활용하게 됩니다. 음성정보를 해석한데 기초하여 필요한 영상자료도 봉사해줄수 있습니다.》

이 전자소편은 새로운 재료로 서상록이 개발한것이다. 그는 이미 그것을 생활에 활용했던것이다.

그의 집사는 자기의 옷에 음성수감장치가 내장된 넥타이핀을 꽂고 바클리와 상면하였다. 그 덕분에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상록은 다 들을수 있었다. 자기가 생각했던것처럼 집사는 바클리의 하수인이였다.

이쯤되면 그 건달군은 실업을 당한것이나 다름없었다. 기회를 봐가면서 내쫓아버릴 생각을 하고있는 상록이였다.

만족을 표시하는 지그프리트에게 이번에는 새로 개발한 집적회로를 가리키며 상록이 말했다.

《지금까지는 값이 비싼 희유금속을 리용하여왔지만 이 집적회로를 구성하는 주재료는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것인데 값눅은것입니다. 원가를 현저히 절약하면서도 회로구성을 집약화하여 능력을 현저히 높일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체적을 리상적으로 구상할수 있게 합니다.》

팔짱을 낀 지그프리트는 흡족하여 머리를 끄덕였다.

《역시 이 연구소는 권위를 시위한단 말이요. 새 재료, 새 제품개발경쟁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소. 한마디로 두뇌전이 경영활동에서 기본전법이 되였다는거요. 당신들의 성과에 나는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오.》

지그프리트는 서상록의 방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자 방주인이 권하는 솔잎차를 맛보기도 전에 가방에서 책을 한권 꺼내였다. 동생이 집필한 저서였다.

지그프리트는 반세기전에 헤여진 후 생사를 모르던 동생을 찾았다.

상록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을 허비는 아픔을 느끼였다.

그것은 자기의 조국이 베풀어준 선의였다. 하지만 자기는 낳아준 어머

니가 생존해있을수도 있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마음속으로 그려보고만 있다. 세상에는 이런 불공평도 있는것이다. 어찌 보면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불러들인 불행이기도 하여 더욱 괴로웠다.

지그프리트는 자기의 감정에 빠져 말했다.

《난 동생의 글을 읽으며 참으로 감동이 컸소. 이 세상에 그처럼 선량한 사람들도 있을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과 한피줄인 자네가 부럽기도 하더군.》

상록은 지그프리트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허무만이 흘렀던것이다.

지그프리트가 읽어보라면서 두고 간 책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앉은 상록의 머리속에서는 하염없는 생각만이 떠돌고있었다.

그는 오늘 3년가까이 고심해온 연구성과를 놓고 혼자서라도 축배를 들 결심이였다. 이번에 발명한 극소형음성수감장치와 집적회로가 일대 파문을 일으킬것이라는데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것이다. 그와 같은 명예와 재부의 축적은 어느덧 고정된 생활방식으로 되여버린지도 오랬다. 하건만 만족감이 찾아드는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외로운 자기라는 존재를 발견한 심정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고싶었지만 한순간에 기운을 깡그리 잃어버린 사람처럼 움직일수가 없었다. 아직은 정력이 넘치는 그였지만 누군가의 부축임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심정이였다.

응접탁우에는 지그프리트가 남겨놓은 책이 놓여있었다.

《고용병의 수기》라는 영문글자가 보이자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무고한 다른 민족에게 참화를 들씌운 고용병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졌건만 어찌하여 자기를 가엾게 여겨주는 사람은 없는가.

분명 불우한 인생이였으며 굴욕을 당하며 살아온 운명이였건만 동정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 서상록이라는 개탄이 터져나왔다.

그는 살면서 이와 같은 좌절감에 빠져들기는 처음이였다. 명예와 재부의 절정에 올라 거만을 성격으로 갖춘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겨온 그였던것이다.

결국 나라는 사람은 이렇듯 취약한 존재였단 말인가. 자기의 생명 그자체가 락엽 같은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의 마음은 처량해졌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섰다. 모든 물질에 중력중심이 존재한다는 법칙을 일찌기 배운 그였지만 온몸이 흔들리는것을 걷잡을수 없었다. 상록은 기울어지려는 육체를 간신히 유지했다. 그것도 서류장에 의지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몸만 아니라 정신도 흔들리는것을 감각했다. 흐려나는 눈앞에 한사람의 모습이 다가드는것을 본 그는 흠칠 놀랐다.

이 사람은 누군가?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무슨 까닭에 적의를 품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가.

그가 한걸음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비칠거리며 뒤걸음쳐졌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겠는가? 서상록!》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리자 온몸으로 전률이 흘러갔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게 되니 급급히 자리를 피하고만싶어났다. 하지만 도망치자니 체면이 놓아주지 않는다.

《눈을 바로 뜨고 보라! 내가 어느분을 모셔왔는가를…》

누구인가 부축하고 선 사람은 증오를 뿜어댄다. 곁에 선 사람은 분명 아버지였다. 측은해하는 감정이 배인 눈으로 아들을 쓸어보며 꺼지게 한숨을 내쉰다.

《너는 자기 만족으로 더 잃을것이 없는 인간이 되였다. 너는 종시 명예와 재부의 무덤속에 묻혀버리게 될것이다.》

상록은 정신없이 두손을 내뻗치며 흔들어댔다. 목안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여나오고있지만 그것을 내뱉을 힘도 없었다. 무엇인가를 부정하지만 그것조차 무기력한 인정임을 느끼게 되는 순간 안해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아왔다.

《당신은 얼이 빠진 사람이예요!》

환각이 불러온 환영은 눈앞에 서서 물러갈줄 모른다.

서상록은 간신히 선채 인간이 지녀야 할 넋이 어떤것인가를 자신에게 처음으로 묻고있었다. 고뇌는 포승줄처럼 의식을 휘여감고 힘껏 조여대는 것이다.

18

말할줄 모르는 녀인들이 초불빛을 맞이하자 각이한 자세와 표정으로 자기의 주인을 맞아주었다. 선채로 굳어진 녀인이 깊이 고개를 숙여보이는가 하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시름에 젖은 눈길을 들고 바라본다. 조각상들은 정해준 위치에서 자기들의 감정을 변함없이 표현하고 있는것이다.

상록은 새로 완성한 나무조각상의 위치를 어디에 정할가 하고 둘러보았다. 유토로 빚은 흉상옆 공간을 차지하고있는 당반이 보이자 그우에 올려놓았다.

이미전에 형상한 녀인들과는 다른 늙은 녀인이 토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시름에 잠겨 먼곳을 바라보고있다. 애수의 색조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를 잡군 하는 등받이없는 나무걸상에 앉은 상록은 방금 올려놓은 녀인상을 쳐다보며 마음속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디에 계시옵니까. 낳아서 젖을 먹여길렀을 이 아들이 의지가지없는 세상에서 살고있는줄을 아시옵니까. 살아생전의 소원이 있다면 품에 안겨 단 한번만이라도 어머니라는 말을 부르고싶은것입니다. 이 나이를 먹고야 제가 불효자식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르는것이 없다고 자처해왔지만 알고 산것이란 저 하나뿐이였습니다. 배는 부르고 쓰고사는데 걱정은 없다지만 머리속은 텅 비고 정신은 절망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어머니, 부디 용서하시고 이 못난 자식을 구원해주시오이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죽으면 한이 없을 이 아들입니다. …

상록은 자기의 마음속기도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 방에 들어와 앉으면 어떤 다른 녀인에게는 원망을 보내군 하였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거요, 나는 언제나 용서할것이며 너그럽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알아주오 하는 식으로 안해라고 형상한 그 녀인에게 이야기를 하군 하는 그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상상력으로 세상에 나서 아직 보지 못한 어머니

를 형상해낸 지금 상록의 심중은 처음으로 속죄에 잠겨들었다. 자기밖의 모든것을 내려다보던 시각이 너무도 뒤늦게야 방향을 돌린것이다. 이것은 매우 굼뜬 변화여서 그자신도 알지 못하는 심리였다.

서상록은 거부감을 가지였던 책이지만 손에서 놓지 못하고 단숨에 읽었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고용병의 수기는 그의 머리속에 복잡한 회전운동을 일으켰으며 원심력의 작용을 피할수 없게 하였다. 자기라는 존재가 그 무엇에 끌려들어가는 착각까지 생겨나게 했다.

수기는 조선전쟁시기 여러 신문들에 실린 기사들, 동료들의 회상자료, 본인의 체험담으로 구성되여있었다. 이 책자는 실제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랭정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한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었다.

…1950년 10월 17일 상륙함은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날도 밝지 않은 항구에는 탐조등이 어둠을 누비고 군견들이 짖어대는 속에서 장교들의 구령소리가 살벌하게 들리였다. 남의 나라에 밤도적처럼 기여드는 고용병의 무리들이였다. 방독면, 보병삽, 군용물통 등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장구류조차 바로 건사하기 힘든 나의 어깨를 보병총이 내리눌렀고 목에 걸린 철갑모끈이 숨막히게 조여댔다. 허리에 두른 탄갑들의 무게로 골반의 뼈가 부서지는것만 같은 아픔을 불러왔다.

《빨리 움직이라!》

등뒤에서 고함소리가 울리자 나의 육체는 메워준 총과 함께 바다쪽으로 쏟아지는것이였다. 마치 짐승마냥 목숨을 내대는 싸움마당에 내쫓기우는 우리들의 신세였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운명의 시작에 불과했다. …

…조선반도라는 이름조차 처음으로 들어보는 생소한 땅에 부리워진 우리는 지도상에서 화살표를 그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만 내몰리웠다. 38°선 이북지역으로 진출한지 얼마 안되여 추위가 엄습해오는 어느 초겨울날의 음산한 밤에 우리는 첫 전투라는것을 하였다. 그조차 상대측의 기습을 받았던것이다.

도처에서 총성이 소란스럽게 울리고 수류탄이 터지며 화광이 솟구치자 목표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나는 보총의 격발기를 당기였다.

밤하늘을 뒤흔들며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웨침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나왔다.

총을 쥐기는 했지만 나는 온몸이 떨려 몸을 가눌수가 없었다. 그때

의 심리상태를 알수 없었으나 너무도 당황하고 공포에 질렸기때문이였던 것 같다.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때문에 이 싸움마당에 끌려나왔으며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죽을것이다. 아니, 죽어야만 하는것이다. 아무런 리념도 없이, 자기에게 그 어떤 피해도 준적이 없는 타민족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전쟁에 뛰여든 까닭에서이다. 인간의 죽음에는 의미가 없단 말인가. 맹목적으로 죽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우리 고용병들의 숙명이였다.

…

우리가 참혹할 정도로 고달픈 강행군에 시달린것은 인민군의 재진격을 38°선이북지역에서 무조건 막으라는 《유엔군사령부》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조선반도중부의 산악은 험준하였다. 폭설이 쏟아져내리고 강풍이 몰아치는 11월 어느날 나는 전투에서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총탄이 왼쪽아래다리의 뼈를 꺾어놓았던것이다. 그 아픔은 형언할수 없는 것이였다.

결국 나는 불구가 되고말았다.

그로부터 한달후 오합지졸이나 같은 우리는 조선의 중부산악지대의 협곡에서 퇴로를 차단당하고 수백명이 포로되는 운명에 처하였다. 무장을 해제당한 대렬은 패전군의 몰골을 만천하에 시위하며 호송되여 포로수용소에 도착하였다. …

17살 나이에 병신이 되여버린 나의 운명을 생각하면 미쳐버릴것만 같았다. 깊은 밤 가슴을 쥐여뜯으며 일어나 앉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고 소리치며 울어도 보았지만 동정은 고사하고 들어주는 귀조차 없었다. 동료들이라고 해야 할 무리들은 삶을 포기한듯 코를 골아대며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몸에 군복을 걸칠 때부터 야수의 기질을 갖춘 무리들이여서 걸핏하면 싸움질인데 하나같이 인간이기를 그만둔 몰골들이였다. 전장에서 포로병이 된 주제에 《무훈담》이라고 지껄여대는 수작들이란 하나같이 인간살륙에서 찾은 쾌락이여서 피비린내를 풍겼다.

민간인들을 대량학살하던 사실을 자랑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민가에 뛰여들어 녀인들을 릉욕한 쾌감을 흥이 나서 지껄이는 놈도 있었다.

폭격기비행사였다는 와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장교는 적십자기발이 내걸

린 민간인병원을 공습하고 기총탄과 폭탄으로 피신하는 평화적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것을 군공으로 여기며 떠들어대군 하였다. 그러면서도 가끔 자기를 파리보다 못한 신세로 만들어버린 조선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을 드러내군 하였다.

《조선사람 무섭다.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독종들이다. 폭탄을 떨구고 기총을 쏘아대는데도 논판에서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악에 받쳐 기수를 낮추다가 나무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고말았다. 눈을 뜨니 이 와이트가 붙들렸겠지. 으하하하, 논판에서 일하던 처녀들이 나를 호송했다. 차라리 잘됐지. 하늘을 날다가 재가 될바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잠이나 실컷 자겠다. 하하하!》

와이트는 미친놈같이 지껄였고 정신병자처럼 웃어댔다.

나는 그 몰골을 보며 생각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분명하지만 인간이기를 거역한 이 무리들속에서 나자신도 존재하고있지 않는가.

그때 나의 의식속에 비껴드는것은 전쟁이라는 두 글자였다. 이 참혹한 전쟁이 빚어내고있는 모든 비극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어느날 수용소가 자리잡은 산골짜기의 하늘에 검은 날개를 펼친 독수리 한마리가 나타났다. 눈이 내리고있었다.

갑자기 와이트가 발작을 일으켰다. 하늘과 인연이 깊은 이 미치광이는 얼굴에 둘러감았던 붕대까지 풀어헤치고 두손을 쳐든채 고함을 질렀다.

《우리 비행기다! 우리 독수리다. … 나를 알아냈다. 이 와이트에게 자유를 주자고 하늘의 사도가 왕림한다. 흐흐흐!》

와이트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 비행기의 동음이 울렸다. 포로병들속에서 괴이한 심리적반응이 일어났다.

《주여, 우리를 보살펴주소서.》

복음의 구절까지 외우며 줄레줄레 모여든 무리들이 하늘에 대고 십자를 그었다.

날개를 기우뚱거리며 머리우에서 선회하던 비행기가 꽁무니를 돌려대더니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날아온 상공으로 사라져버렸다.

와이트가 일으킨 정신착란증세가 싱겁게 끝나는가싶었다. 허무한 기대에 미쳐버렸던 무리들이 눈발을 피해 호동으로 흩어져가고있지만 와이트는 그 자리에 서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눈깔이 멀었어?! 나다, 와이트다. 나의 위치를 보고 어서 착륙하라,

착륙하라! 개자식아, 네놈들도 내 신세가 된다는걸 알라.》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며 불맞은 짐승처럼 포효하던 와이트는 마침내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그런데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하늘의 괴물들이 밀려들며 요란한 동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와이트가 기적을 불러오는가, 어떤 구출작전이 개시되는지도 모른다. 꺼져가던 희망을 되찾은 포로병무리들이 하늘의 시야에 들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미구에 기수를 낮춘 독수리들이 머리우를 스쳐날자 폭음이 울리고 기총사격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한순간에 빚어진 일이였다.

하건만 그 광경은 평생을 두고 잊지 않도록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여기저기서 폭탄들이 터지는 섬광, 산산이 찢겨져 허공에 뿌려지는 육신들… 실로 참혹한 광경들이였다.

이 무참한 살륙을 불러온 장본인이라고도 해야 할 와이트가 기총탄을 맞고 나딩굴었다.

흰눈이 쌓인 골안에는 속죄조차 못한 죄많은 주검들이 뒤덮이였다.

나는 자기가 어떻게 수용소의 경계선을 뛰여넘었는지 알지 못했다. 무작정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다리병신이라는것도 잊고 처절한 몸부림에 넋을 맡긴것이였다.

수용소가까이에 있는 농촌마을의 민가들도 폭격을 당하고있었다. 폭격에 무너진 집들과 불기둥이 치솟는 낟가리들이 보이는데 사민들이 이리저리 뛰여다니는것이 보이였다.

어디선가 악을 쓰며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20여메터 떨어진 곳에 있는 불타는 농가의 토방아래서 두어서너살 나보이는 아이가 죽은 어머니인듯 한 녀인곁에서 태를 치고있는 모습이 보이였다. 이때 갑자기 머리우에서 앙칼진 소리가 나기에 올려다보니 미군비행기 한대가 내리꽂히고있었다. 분명 비행사는 그 아이를 조준한것 같았다. 와이트처럼…

순간 땅우에서 솟아난듯 한 인민군 녀성군관이 아이에게로 달려가는것이 보였다. 그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는듯 아이를 제몸으로 와락 덮어버렸다. 잇달아 련발로 쏘아대는 기총탄이 마치 재봉침으로 누비듯 그 군관우를 휩쓸고 지나갔다.

잠시후 폭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달려오는데도 그 군관은 한모양새로

마치 잠든듯이 엎디여있었다. 모여든 사람들속에서 녀인들이 먼저 통곡을 터뜨렸다. 남정네들이 군관의 시신을 맞들고 움직일 때까지도 나는 얼이 나간듯 바라보기만 했다.

아,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있는가! 저 녀성군관이야말로 성모마리아도 무색케 할 인도주의와 박애의 사도가 아닐가.

그런 성인들은 그 녀성군관 한사람만이 아니였다. 하얀 위생복을 걸친 인민군 남녀군인들이 부락을 바삐 누비며 부상당한 주민들을 치료해주고 있었는데 어떤 녀군의는 자기의 피를 뽑아 허약한 부상자에게 수혈해주는 모습도 보이였다. 화염속에 뛰여들어 집을 휩쓴 불길을 끄느라 온통 숯검댕이가 된 병사들도 있었다.

제발로 스스로 수용소로 걸음을 옮기며 나는 생각했다.

이런 천사들을 살륙하기 위해 총을 든 나를 과연 야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선과 악의 이 싸움에서 진정한 승자는 너무도 명백하지 않은가. …

수기에는 미군이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야수적인 만행들을 폭로하는 사진들이 첨부되여있었다. 호전적인 망발을 지껄이는 침략군의 장성들, 무고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살륙만행을 저지르며 너털웃음을 짓는 장교들과 병사들, 폐허로 변한 조선의 거리와 마을들, 원쑤들을 절규하는 로인들과 녀인들…

칼은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전대미문의 야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령토가 작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청소한 한 민주국가를 교살하기 위해 <유엔군>을 조작하였으며 세계가 휘말려든 전쟁을 강요하였지만 패전의 수치만을 당했다. 미국은 인류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조선은 강했다. 정의롭고 선량하며 존엄높은 조선은 이겼다. 자기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인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조국수호전에 나선 인민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을 알아야 하며 조선처럼 싸워야 한다.

전쟁의 포성은 어제도 울렸지만 오늘도 울리고있다. 대국들과 렬강들의 각축전은 계속되고있으며 그 마지막수단은 철혈로 이어지고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가정들이 풍지박

산되고 조상의 땅을 버리고 류랑의 길에 오르고있는가. 그 전쟁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놈들이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을 해야 살이 찌는 호전광들이 <정객>으로 자처하는 악의 소굴과 불장난을 즐기는 그의 하수인들을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한다.

전쟁이 없는 하늘아래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인류의 정의로운 량심들이여, 전쟁을 반대하여 싸우자. …》

이것은 조선전쟁에 끌려갔던 한 고용병의 수기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상록은 자신이 그지없이 측은해났다. 자기는 어찌되여 제 민족, 제땅을 모르고 살아왔는가.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리속에 각인된것은 불쌍한 아버지와 아들을 내쫓아버린 무정하고 험악한 땅일뿐이였다. 그 이상은 알 필요도 없었으며 민족과 피줄기라는 말은 스스로 증발시켜버렸다. 몰리해와 편견이 빚어낸 이와 같은 사고는 기형적인 인간을 만들어냈다. 하여 명예와 재부를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한껏 거만해졌던것이다.

…상록은 연구소의 자기 방에 망두석모양으로 서있다. 그는 지금 모르고 산 과거에 대하여, 아버지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옛말 같은 이야기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도저히 되돌려세울수 없는 흘러간 생활이였다. 자기로서는 굴욕이라고 여긴 과거의 나날들이 하많은 사연과 교훈을 안고있음을 너무도 몰랐던것이다. 과거가 없는 오늘이 없듯이 오늘이 없다면 래일을 어떻게 맞이하랴.

그는 안해가 수없이 해온 말을 기억하고있었다.

당신은 불쾌할지 몰라도 우리 가정의 가장은 당신이 아니라 아버님이예요. 아버님은 자기 민족을 알게 하는 전통의 전달자란 말이예요. 우리에게 그것마저 없으면 산다는 의미를 잃게 돼요. 하건만 당신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한갖 부담이며 나아가서 수치일뿐이예요. 이것으로 해서 당신은 불효자식으로 될수밖에 없어요. …

과학적인 인식의 소유자라고 자처해온 그는 새로운 시점에서 자기를 보아야 한다는 사유를 하게 되였다.

상록은 문득 딸이 생각나 자기 방을 나섰다. …

《아직 자지 않고있었구나. 공부하는걸 방해하지 않느냐?》

잠옷차림으로 누워서 책을 보던 지연은 아버지의 출현에 자못 놀라와

하며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저었다.

《머리를 쉬우면서 생활의 지혜를 갖추어보려고 노력하던 참이예요.》

상록은 딸의 성장한 모습과 기지있는 말을 들으며 새삼스러운 감회를 맛보았다. 지그프리트가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생활지혜의 장악이라는 철학적인 명제를 내놓았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무슨 책을 보느냐?》

지연이가 내보이는 책의 표제를 보고 상록은 은근히 놀랐다. 조선의 한시들을 수록한 도서였던것이다.

자기로서는 민족의 시가에 대해서 안중에 둔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며칠동안 그의 머리속에서는 자기 땅, 자기 민족이라는 말이 떠난적 없었다.

기특하게도 자기의 피줄을 물려받은 딸은 아버지보다 먼저 민족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록은 형용할수 없는 아픔을 맛보았다. 아버지구실을 하겠다고 나선 자신이 어리석게 생각되였던것이다.

지연은 아버지의 무거운 심중을 돌려세우기나 하려는듯 말했다.

《우리 조선사람은 정말 지혜로와요. 내가 시 한수를 읊어드릴게요. <그 누가 나에게 자루없는 도끼를 주려오/ 내 하늘을 떠받들 큰 기둥을 깎으려오> 어때요? 얼마나 큰뜻을 담았나요. 원효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사찰에서 불도를 수도한 승려였어요. 마침 임금이 이 시구를 듣고는 궁중의 공주를 안해로 보내주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유명한 학자 설총이라는거예요. 재미있지요?》

상록은 자기가 이 딸의 아버지가 옳은가 하는 물음이 떠오르자 허무감을 금할수 없었다. 딸애는 과학적인 안목과 두뇌만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있었다. 이것을 두고 탓한다면 그 이상의 편벽한 무지는 없을것이다.

《재미만 있는게 아니라 좋은 공부를 하는구나.》

상록이 책을 놓고 일어서 나가려 하자 지연은 뾰로통해진 얼굴로 말했다.

《난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시길래 론문과 관련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실줄 알았는데…》

상록은 문가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이자 그 시를 다시한번 외워보렴.》

침대에서 내려선 지연은 류창한 목소리로 원효의 5언절구를 읊었다.

《수허몰가부 아작지천주》

19

상록은 에쎈구락부에 오면 늘 자리잡는 곳에 앉아있었다. 그의 심리상태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매우 어려웠다. 지금까지 지켜낸 평형을 잃은 내면세계는 고통스럽지만 자기를 여지없이 부정하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지지점을 잃어버린듯싶었다. 명예와 재부만으로는 인생을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인식하기 시작한것이다. 인간은 목적없는 삶을 이어나갈수 없다. 정신적인 타락을 어떻게 사람의 생활이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상록으로서는 무엇을 지향할 의지가 없었다. 손에 들린 려송연은 불이 죽어있다.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도 모르며 갈래없는 사색을 이어가고있는것이다.

《제가 외로움을 덜어드릴가요?》

쌍드가 기품있는 자태를 드러내며 맞은켠 자리에 와서 앉자 상록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번에도 지그프리트와 에쎈을 도와 공적을 세웠다고 해야 할 녀자였다. 그는 거물급이라고 해야 할 두명의 주주들을 찾아 몬떼까를로에까지 찾아갔으며 지그프리트의 주장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가 신문에 낸 기사에는 이런 론거가 실렸다.

《에쎈이 꺼꾸러지기를 바라는것은 잘못된 사고이다. 실업계에서 공생의 원리를 안다면 그 리치는 아주 단순한것이다. 거목이 넘어지면 작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는것은 물론 다른 거목들도 위태롭기때문이다.》

상록은 이 녀자는 바클리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한사람은 음흉한 음모군이라면 앞에 앉아있는 녀자는 알것 같으면서도 알수 없는 미지의 인물인것이다.

자기와 같이 녀자를 잘 알지 못하여 실패한 사람일수록 경계해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했다.

《선생의 침묵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를 가진다는걸 아시는가요?》

쌍드는 깊이 패인 옷기슭에 드러난 가슴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이듯

물었다.

《그건 나의 성격일뿐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을 둘이서 누리면 곱으로 늘어나고 고뇌도 함께 나누면 곱으로 줄어든다. 어때요?》

접대원이 위스키가 담긴 잔을 가져다 놓아주었다.

《마침 고배를 차려왔구만.》

상록이 잔을 가리키며 웃어보이자 쌍드는 미묘한 실눈을 그렸다.

《선생의 심장을 보기는 정말 힘들겠어요.》

《나도 모르는 내 심장을 말이요?》

《호호, 정말 재미있어요. 들자요.》

두사람이 잔에 입술을 댔다가 내려놓자 술에 잔뜩 취한 바클리가 어떤 텁석부리의 목을 그러안고 나타났다.

순간 쌍드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듯 떨렸다. 자기를 뒤따라 나타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들었지만 장소가 장소인지라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오늘… 분위기는… 저조하단 말이요. 아주…》

바클리의 말에 텁석부리가 무도홀에서 울려오는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며 주절거려댔다.

《벗어라. 흔들어라. 흐흐흐…》

쌍드가 흥취를 깨는데 화가 났는지 턱을 쳐들며 사나이를 향해 손을 홱 내저었다.

《물러가요! 추태를 부리지 말구.》

그제야 헤식어보이는 텁석부리가 상록의 손에 들린 려송연을 내려다보다 소리내여 크게 웃으면서 또다시 엉덩이를 흔들어대며 지껄였다.

《이보우, 존귀하신 선생. 그 려송연은 말이요. 영국산 명물인 쳐칠이 노상 물고 다녔던거요. 그 량반이 왜 즐겨했는지 아오? 흐흐. 인디안녀자들은 려송연을 이렇게… 그 보기만 해도 구미가 도는… 이 허벅다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만든다는거요. 알겠소? 쳐칠씨가 무엇을 향수하려고 려송연을 즐겨했는지 말이요. 히히ㅡ 제발 흉내를 피우지 마오.》

야유와 야비가 겸비된 텁석부리의 수작질에 상록의 낯색이 금시 어두워졌다. 참을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있었던것이다. 쌍드가 그 감정을 받아안고 모를 세운 소리로 말했다.

《쳐칠은 너의 할아버지다. 그는 젊은 나이에 대신이 되여 철갑모를 쓰고 불붙는 건물에 뛰여들어 불을 껐어. 하지만 너는 불을 끄기는 고사하고 불을 지르며 다닐 망나니나 한가지구나.》

녀자의 맵기가 이를데없는 욕사발을 들쓴 텁석부리는 친구인 바클리를 남겨두고 줄행랑을 놓듯이 사라졌다.

쌍드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흔들거려대는 바클리를 노려보았다.

《바클리씨, 헛된 욕망은 버리세요. 짐승도 한옹노에 두번 걸려들지는 않는답니다.》

바클리의 낯가죽은 언제나 두껍고 넉넉했다.

《쌍드야말로 빼앗기고싶지 않은 녀자가 아니요. 흐흐…》

《상록선생, 우리 이 자리를 뜨자요. 막 숨이 막혀나는군요.》

불쾌감을 안고있던 상록은 쌍드의 말에 공감하며 일어났다. 그는 이 녀자가 고맙다는 이상야릇한 감정을 다시금 맛보고있었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자기가 오늘 저녁에 당한 모욕은 잊을것 같지 못했다.

쌍드가 어느 조용한 자리에 가서 기분을 전환시키자는 의견을 제기하기에 상록은 동의했다.

…이 료정은 크지 않지만 아늑한감을 주었다. 맞아주는 주인은 키가 늘씬한 동양녀인이다. 휘장을 헤치고 들어서니 벽에는 눅거리라체사진이 걸려있고 두사람이 앉을 식탁이 놓여있었다.

상록은 쌍드가 권하는 자리에 앉고는 흥미없이 둘러보았다.

《이런 곳엔 처음이겠지요?》

녀자의 다정한 물음에 상록은 머리만 끄덕였다. 이어 식탁우에 차려놓은 음식접시들에는 놀라움을 표시했다. 어느 동양인이 경영하는 료정인가 했는데 너무도 낯익고 맛보고싶은 음식들이 나타났기때문이였다.

청자기에 담은 김치,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토장국냄새가 풍겨왔던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저도 모르게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감회인지, 회오인지 알수 없는 감정을 뒤섞어 맛보며 쌍드에게 말했다.

《이건 혹시 준비하고 나를 데려온게 아니요?》

《나야 선생의 가까운 벗이 아닌가요. 감정과 정서에서 우린 공통점이 많은가봐요.》

쌍드의 미소는 사뭇 마음을 설레게 하는것이다. 희고 고운 손으로 수저를 바로 놓아주며 술을 부었다.

《마시자요. 잊을것은 잊고 찾을것은 찾자요.》

《의미가 깊은 말이요. 고맙소.》

마음을 풀어놓으니 술맛이 좋았고 앞에 앉은 어제날 발레무용수였던 녀자의 감미로운 애교로 하여 상록은 기분이 떠서 주는대로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지켜오던 생활의 절제를 허물고있다는것도 알지 못했다.

《이 료정은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운영한다는가봐요. …》

쌍드는 등뒤의 벽에 걸린 라체사진을 어깨너머로 가리키며 《<세계화>에 뒤질세라 종종걸음을 치는 모양인데 모방치고는 좀 유치해보이는군요.》라고 말하고는 가소롭다는듯 눈을 할기죽거리며 웃어댔다.

상록은 취기가 올라 제풀에 으르렁댔다.

《난 부러운것도 올려다보이는것도 없단 말이요. …》

《선생의 지위를 누가 모른답니까.》

남자의 기분에 맞춰 쌍드는 더 취하기를 바라는듯 술을 부었고 춰주는 바람에 어리석은 사내는 그것을 물마시듯 했다.

《설사 바띠까노의 교황이 나를 만나고싶다 해도 난 거절하겠소. 왜냐하면 난 그 어떤 신앙의 지배도 받기 싫기때문이요.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건…》

상록은 취기와 흥분으로 목이 메이며 《하나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나하나뿐이라는데 이 서상록의 비극이 있는거요. …》 하고는 제김에 울먹거렸다.

《안되겠어요. 너무 마신가봐요.》

쌍드가 걱정해주자 객기가 살아난 사나이는 이그러진 얼굴을 쳐들며 물었다.

《누구요? 당신은…》

천재와 천치의 차이도 손바닥 뒤집기라는것을 잘 아는 쌍드는 사내의 얼굴을 두손으로 감싸들고 속삭였다.

《가요, 집으로… 어서요.》

료정으로 들어설 때와는 달리 두사람은 다정히 팔을 끼고 나섰다. …

상록이 한밤중에 극심한 목마름과 숨가쁨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여났을 때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료정에서 본 라체사진과 다를바없는 쌍드였다.

그 녀자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열기는 남자의 갈증과는 달랐다. 상록

은 힘겹게 부르짖었다.

《물… 물을 마시고싶소. …》

쌍드는 공손히 물을 받쳐올렸다. 상록은 벗지도 않고 드러누웠던 옷자락에 물을 마구 흘리며 정신없이 마시였다. 술기운이 가셔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자 그는 녀자의 육체를 가려볼수 있었다.

《여기가 어디요?… 내가 어떻게 낯모를 집에 들어왔소? 당신이 날…》

상록이 그제야 자기의 처신이 돌이켜져 휘청거리며 몸을 일으키자 쌍드가 다급히 끌어안아 안락의자에 앉혀주었다.

《난 혼자 있겠소. 여기가 당신의 처소요?》

《그래요.》

돌덩이처럼 굳어져있던 상록은 신음같은 탄식을 쏟으며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웠다. 쌍드는 허리를 굽히며 남자의 머리에 턱을 살며시 묻더니 어깨너머로 두팔을 드리웠다.

《당신의 명예에는 자그마한 손상도 없을테니 마음놓으세요. 몹시 취했댔어요. 나도 정신없이 마셨구요. 다 내탓이예요.》

《정말 면목이 없소. 사실 난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던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즘 와서는 나자신이 마구 흔들리는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요. 만족스럽다고 여긴 생활이 파괴되는듯 한…》

《사람이 사느라면 그런 때도 있는거예요. 중요한건 선택이지요.》

《선택? 나는 이미 모든 선택을 한 사람이요.》

쌍드의 손길이 사내의 가슴을 조용히 쓰다듬어주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에드몽 당떼스가 파리아신부의 계시를 받듯이 리성을 가지고 들어야 해요.》

신비한 지성을 갖춘 녀성의 설교가 시작되였다.

저 멀리 동양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어렸을 때 당신에게 비록 치욕을 안긴 곳이라 해도 오늘의 당신의 처지로써는 당당히 서울행을 할수 있다. 그곳 사람들은 서상록이 지닌 학계에서의 지위를 존경하고있으며 자기들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고대한다. 지난날을 생각하며 오늘에 와서 거절할 리유는 없다고 본다. 일종의 자기 시위로도 되며 래일에 살 후대들의 존경도 마다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나도 여러번 서울에 다녀온 사람이다. …

상록은 자기 등뒤에 붙어선 녀성을 의식하기가 싫은듯 눈을 감고 신경을 곤두세운채 듣고있었다.

안개속에서 자태를 드러내는 쌍드를 보는것만 같았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녀자가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며 다가드는 목적의 한 부분은 알게 되는셈이였다. 바클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보다 교묘하고 어벌이 큰 놀음을 벌리려고 하는것이라고 여기였다. 서울은 그에게 있어서 혐오의 대명사나 같은 곳이였다.

《흥미있어요?》

《그렇소.》

《제 의견을 수락하는가요?》

《난 피곤하구만. 자꾸 눕고싶은 생각만 드오.》

《그럴거예요. 일어나세요. 제가 부축해드릴테니 잠자리로 가자요.》

《아니, 난 내 집으로 가겠소. 마음놓고 자야겠단 말이요.》

쌍드가 고집스러운 사내를 꼭 붙든채 놓으려고 안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아세요.》

상록은 금시 성난듯 팔을 휘두르며 말했다. 그는 취한듯 한 자세를 보이면서 이 녀자의 곁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을 앞세웠다.

《그리스도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고 했소.》

《그리스도교 교인이였던가요?》

뿌리침을 당한 쌍드가 애욕이 불타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허황하다는 복음에도 들어둘 소리는 있다는걸 알아야 하오.》

이윽고 랑패감을 지우지 못한 쌍드는 상록을 따라 현관까지 나오며 종시 그 녀자답게 심술궂은 말을 하고야말았다.

《선생은 언젠가는 지그프리트때문에 곤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는걸 알아두세요.》

뭐 새롭고 놀라게 되는 소리도 아니다. 이 녀자도 바클리와 동업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어보던 상록은 머리를 활활 저어대고나서 한손을 쳐들어 되는대로 흔들었다.

《바래주어서 고맙소.》

쌍드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정답게 울렸다.

《다시 만나요. 아침이 오면 더 현명해진다지 않아요.》

20

흐릿한 하늘에서 맥이 진한 태양이 숨이 져가는 빛을 드리우며 자취를 감추고있었다. 바람조차 불지 않아 대기는 한낮의 열기를 그대로 내뿜는다.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친 걸음이다. 줄지어 달리는 차들도 기운이 진했는지 가끔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배기가스를 내보내여 보행자들을 한층 괴롭히였다.

서상록은 인파속에서 걷고있다. 거리에 나서면 그 무엇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으며 자기 생각에만 잠기군 한다. 주위환경에 대한 그와 같은 무관심이 생활습관으로 되였던것이다.

그의 심중은 자못 무거웠다. 인간세상이 거대한 가장무도회처럼 여겨지기 시작한것이다. 믿어왔던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쌍드가 바로 그런 녀성이였다. 지체도 용모도 마음이 끌리게 하는것은 틀림없다. 자기도 남자가 아닌가. 명예와 재부를 자랑하며 살지만 어쨌든 사내라는것도 인정해야 한다. 자기가 동경해온 녀자는 모든것을 허용했으나 그는 받아들일수 없었다.

그 원인은 단순했다. 아름다운것속에 숨은 거짓을 보았던것이다. 그것은 잘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기만적행동임을 그는 느낄수 있었다.

상록의 뇌수는 위험하다는 경보를 울리고있는것이다. 언제부터 자기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는지 알수 없다. 항상 굽어보려고만 하였던 사람들이 무서워난다는것은 경계의식이 형성된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상록은 자기가 복잡한 인간들의 장막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위에 무관심하였다.

황혼이 깃들고 인파가 설피여가는 속에서 그의 뒤로 두명의 사나이가 따르고있었다.

저녁이 오면 외로움을 느끼는 그였다. 이와 같은 고적감을 덜려고 때로는 에쎈구락부의 한구석에 찾아가 앉았고 지금은 형제음식점으로 행보

를 정한것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토장국맛이 그리워 간것은 틀림없었다.

되는대로 수염을 길러 거치른감은 주지만 그곳 주인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들었다. 공짜로 봉사받는것도 아니고 큰 환대를 받는 곳도 아니건만 가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찾게 되는 리유가 무엇인지는 자기도 알지 못했다.

어떻게 되여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잘 안다고 했는지 몹시 궁금해났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불쾌한것이였는데 지금의 마음은 이전같지 않았다. 심중의 밑바닥에서 죄스러움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던것이다.

어쨌든 자기의 오늘을 마련해주었다고 해야 할 아버지가 아닌가. 설사 굴욕스럽게 살았다고 여기는 생활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준 아버지인것만은 부정해서도 안되였다.

건늠길을 건느니 어스름속의 공원어구가 음침한 기운을 안고 눈앞으로 다가섰다. 한적한 곳의 정적을 감득하며 몇걸음 옮기던 그는 짤막한 외마디신음소리를 내며 옆으로 쓰러졌다.

의식의 한복판으로 드디여 왔구나 하는 판단이 살처럼 날아든것은 1초도 안되는 순간이였다. …

랍치전문가들이 마취제를 효과적으로 쓴 덕으로 상록은 어느 한 집안에서 인차 정신을 차리였다. 목이 마를것을 예견했는지 젊은 녀자가 물을 먹여주기까지 했다.

《상록선생, 이렇게밖에 모셔올수 없은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마디마디를 씹어대는 목소리를 들으며 상록은 눈정기를 모으고 바라보았다. 어딘가 섬찍한 인상을 주는 갱핏한 사나이가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얼굴을 약간 숙여보이며 다가와 섰다.

이녀석은 생겨먹은것부터가 사람을 물건처럼 덮치는 일 같은걸 해먹겠는걸. 괜찮은 특징을 가지고있어. 얼굴의 선들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미간은 좁고 매부리같은 코마루가 웃입술을 가리운걸 보면 잔혹한 기질을 천성으로 갖춘 작자거던. 무엇을 마시든 입술을 적시지는 않겠군.

앞에 선 사람의 얼굴표정을 조각칼을 들었을 때처럼 파헤쳐보던 상록은 의식속으로 돌입하는 사색을 붙들었다.

이 모든것은 면밀히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한 랍치행위다. 이런 일

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 대비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긴장했어야 할 때 해이됐거던. 모든것을 의심하라는 좌우명에 충실한 나도 이런 덫에 걸려드니 참으로 기막힌노릇이다.

상록은 불끈불끈 치밀어오르는 화를 누를길이 없었다. 사람축에도 못 드는것들에게 붙들려와 고통을 당할 생각을 하니 짓밟힌 자존심으로 하여 저도 모르게 입술을 지그시 물어뜯었다.

《우리 서로 허심한 대화를 나눕시다. 어떻습니까?》

기막힌 수작질이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점잔을 피우려드니 가소롭기 짝이 없어 상록은 눈을 감아버렸다.

《당신들의 목적이 뭐요? 시간이 지체되면 불리한게 누군가를 생각하게 될거요. 이거야 잘 알텐데…》

상록의 목소리에는 거칠어진 숨결이 따라섰다.

《선생의 위협적인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우리 역시 오래 지체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물음에 만족한 대답을 주길 바랍니다.》

알겠다. 네놈들도 자기들이 불리해질수 있다는것을 우려하고있다. 그러니 날 마음대로는 다루지 못한다.

상록은 처음에 가졌던 불안을 가시고나서 같은 자세로 머리만 끄덕거렸다.

《말하오, 어서.》

빈정거리는 소리지만 대리석을 다듬어놓은듯 한 괴한의 얼굴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선생의 연구소가 당면하게 해결하려는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입니다. 이를테면 중점과제말입니다.》

상록은 이것이 자기의 심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우회전술이라고 판단했다. 연구과제나 알자는것들이라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필요가 있는가. 이런 행위는 막다른 골목에서 벌리는 놀음이다.

《그걸 한마디로 설명한다는것은 불가능하오. 그리고 당신들의 머리로는 해석하기조차 어려울거란 말이요. 안 그렇소?》

심문자라고 해야 할 상대를 비하하는 말인데도 창백한 표정으로 턱을 쳐든 사람은 불쾌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더 들어올리며 낮아진 소리로 말했다.

《연구소의 계획을 내놓지 않겠다면 좋소. 최근 에쎈과 계약한 연구과

제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상록은 쓰거운 웃음을 흘리였다. 빙빙 에둘러대는데 네가 알고싶은것을 언제 말하는가 어디 보자.

《흥미있겠는지 모르겠소. 그건 이미 공개된거요. 다음 세기 산업의 모델로 될수 있는 공장설계, 최신형로보트제작, 집적회로의 개발과 극소형음성수감부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 휴대용전화기의 다기능화, 새로운 콤퓨터망을 형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계속하라오?》

상록은 자기앞에 선 괴한이 아무 말도 리해하지 못한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이 분명했다. 이것들도 하수인에 불과하니까. 인간이기를 그만둔 족속들이기에 지금같은 일을 해서 살아가는것이다.

《선생은 에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경영전략면에서 말입니다.》

《나는 일개 과학자이고 한개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것을 알고있겠는데…》

《우린 선생을 아주 깊이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시절 남아메리카에서의 생활, 고독하다고 해야 할 독신주의자, 무정견, 무신앙의 소유자… 성공한 천재적인간에게 비껴있는 음영에 대해서는 이만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자기의 모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있습니까?》

론리를 갖추고 지껄이는것 같지만 알고도 남는 사실을 산만하게 렬거한다고 생각한 상록은 쓴입을 다시였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이것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데 신경을 썼고 그 방향에서 앞에 선 놈의 입을 빌릴 궁리를 하였다.

《그 질문은 취소하시오. 내가 제일 불쾌하게 생각하는것을 묻기때문이요. 알겠소?!》

《좋습니다. 서울에서 선생을 초청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록은 속으로 알겠다 하는 판단을 내리며 고개를 저어보였다.

쌍드, 그렇다. 이것들은 그 녀자와 한선상에 놓여있다. 쌍드는 서울의 학계와 개별적인 련계를 가지고있는듯 한 인상을 조성하려 했지만 네놈이 그것을 로출시키고있다. 알만 하다. 무엇을 바라는지…

《당신들이 말하는 그 땅에 대해서는 말이요. 난 이미 머리속에서 지워버린지 오랬소. 그에 대해선 당신의 상상에 맡기오.》

석상같은 사나이의 눈길이 약간 쳐들리는게 살기가 풍겼다.

《지그프리트말입니다. 에쎈의 그 늙은이에 대한 약간한 자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경제거래에서의 비렬한 방식이라든가, 탈세혐의로 될수도 있는 어떤 근거 내지 추문행위… 이러루한것들도 무방합니다.》

이제야 본론에 들어가는것 같구나. 역시 에쎈을 곤경에 몰아넣자는것이 목적이며 내 입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그프리트와의 관계를 악화시켜보자는것이다.

상록은 피한들의 속내가 보이기 시작하자 한층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잘 모르고있소. 나는 에쎈의 재정관리자도 아니며 경영활동을 담당한 인물은 더욱 아니요. 그리고… 당신도 남자지만 난 누구의 뒤생활이나 들여다보는데서 흥미를 느끼는 몰취미한 인간으로 되여본적은 없소. 나한텐 연구시간이 필요할뿐이요. 이거면 납득이 가리라고 보는데 어떻소?》

시간이 어지간히 흘렀음에도 사나이의 몸가짐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표정에서 변화가 없는것으로 보아 지독한 인물이라는것을 느끼면서 상록은 상대측의 기도를 좀더 들여다보고싶은 충동까지 느꼈다.

《선생이 대답을 회피하는 수준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화를 한걸음 전진시켜볼가요? 지그프리트는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수천헥타르에 달하는 목장, 개인의 소유로 등록되여있는 호텔들과 봉사업체들, 별장들, 수영장들, 호화려객선만 해도 몇척입니까. <지그프리트>호라고 배이름을 달았던가요? 한마디로 탈세의 근거지라고 해도 될것입니다. 그 많은 유흥지와 환락가들에서는 국적불명의 젊은 녀자들이 언제나 손님들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록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한갖 폭력배인 주제에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라도 할듯 얼마나 후안무치한 수작을 꺼리낌없이 해대고있는것인가.

세상은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가고있다. 이놈아, 그게 무슨 놀라운 일이냐. 오늘날 억만장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생활을 영위하는가를 몰라서 그런걸 나한테 묻는가 말이다. 지그프리트도 그들속에 속하는 하나의 비대해진 인간일따름이야.

이런 욕을 해대지만 들어둘 귀가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며 상록은 말

을 비틀어꼬았다.

《분명히 해두었지만 난 그런데는 흥미가 없는 사람이요. 알아내고싶으면 당신들이나 품을 들여보오. 아 참, 내가 재능있는 탐방기자를 한명 소개해달라오? 구미가 돌겠는데…》

상록은 쌍드를 떠올리며 이자들이 좋다고 해야 할텐데, 그래야 나도 바클리처럼 흥정하며 소개비를 요구해볼수도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랭혈동물같은 놈이 앞에 앉은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보고있는듯 제김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억양에 날을 세우고 씹어뱉듯 말했다.

《서상록선생, 우리가 서로 면식을 가진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당신은 알아둘것이 있소. 선생이 학계에서 세운 권위 같은것은 사상루각이나 다름없다는것이요.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존재가 바로 당신 같은 인간들이라는걸 똑바로 인식하는게 좋소. 때문에 나는 요구하오. 지금의 명성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에쎈과 결별하시오. 만약 이 요구를 거절하면 선생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오. 오늘 이렇게 돌려보내는것을 호의로 여겨야 하며 당신에겐 마지막기회로 된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서상록은 치욕으로 몸을 떨었다. 살면서 지금처럼 굴욕스러워본적은 없었다. 제노라 자부해온 인격이 뿌리채 뽑혀나가는것 같았다.

나에게 자기를 지켜낼 힘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산속의 작은 강줄기를 따라 바람이 내리불었다. 기슭은 잡관목들로 우거졌고 제절로 죽어버린 나무들의 삭정이가 물가에 떠돈다. 해볕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곳에서는 각종 벌레들이 욱실거리고 물비린내와 곰팡이냄새가 코를 찌른다. 인기척을 알아차린 숲속의 날짐승들이 날개를 칠 때마다 나무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적막한 산중의 강줄기를 따라 한사람이 정신없이 거슬러올라가고있다.

첨벙첨벙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는 기운이 진했는지 여린 나무줄기를 잡아당겨댄다. 헐떡헐떡 더운 숨을 몰아쉬며 이따금 한손으로 물을 퍼서 얼굴에 끼얹었다. 차림새는 물참봉이고 나무검불이며 풀이끼를 뒤집어써서 주제가 말이 아니지만 그냥 한본새로 물줄기를 따라 기여올라간다. 놀란 뱀이 꼬리를 비틀며 숨어버리고 배때기가 노란 개구리들이 껑충껑충 뛰여오르지만 이 사람은 상관도 하지 않았다.

누기진 숲속의 여기저기에서 풀벌레들이 무리지어 씨르륵씨르륵 울어대고 저들의 령지에 찾아든 불청객에게 항거나 하듯 짐승들은 캥캥, 컹컹 짖어대지만 대가리는 내밀지 못한다.

앞쪽의 높지 않은 벼랑에서 폭포라고 해야 할 물줄기가 쏟아져내리는것이 올려다보였다. 주변은 너도밤나무들이 키돋움을 하고 섰다.

산턱을 따라 올라가도 되련만 이 사람은 그냥 물속에서 헤맨다. 그러자니 한길밖에 안된다지만 폭포수를 돌파하지 못해 무진 애를 먹는다. 물이끼로 번들거리는 바위에 기여오르다 굴러떨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자기의 주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산이 제아무리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라더니 종시 게바라오른 사람은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려대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기운이 진해가는것을 알았는지 한층 좁아진 강기슭에서 지팽이가 될만 한 나무 한개를 찾아들고 그에 의지해서 걸어올라간다.

드디여 무성한 수림이라고 해야 할 숲속을 헤쳐나오니 기복이 완만한 경사면이 나졌고 해빛이 찾아들었다. 수면에 쏟아져내리는 금빛알갱이가 반사하는 빛에 눈이 부셔난 사람은 한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서상록이다.

무슨 일로 미친 사람처럼 숲속의 강줄기에 들어서서 여기까지 왔는가. 얼굴에 게발린 풀과 검불, 이끼로 하여 볼썽없는 몰골을 하고 얼없이 서서 나무잎새들로 하여 해빛이 얼룩진 벽계수의 흐름을 굽어본다.

벽계수는 마치도 어떤 생명을 가진듯 뒤척이고 꿈틀대며 쉼없이 흐른다.

상록은 자기라는 존재도 이 물처럼 흘러서 어디론가 가고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있었다. 오래동안 자기를 조종해온 의식이 자리를 내놓기라도 한듯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여 체면을 중시하는 이 사람이 이 몰골로 여기에 나타났겠는가.

폭력배들에게 랍치당하여 수치스러운 문초까지 당하고난 후 상록의 심리는 좌절감으로 하여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렀던것이다.

서상록, 너와 같은 인간들을 파괴하기는 너무도 쉽다. 이것은 랍치범죄자가 서슴없이 지껄인 말이다. 그리도 자고자대해왔건만 자존심마저 여지없이 짓밟힌 그였다. 얼마나 무맥한 존재가 이 서상록인가.

그의 눈길은 천천히 들리우다 한곳에 멎었다. 물가의 둔덕진 곳에 서있는 떡갈나무가 보인다. 굵은 줄기에 무성한 잎새들을 떠이고 자랑스럽

게 서있지만 이미 중심을 잃고 한옆으로 기울어들었다. 골안에서 흐르는 물이 꾸준히 기슭을 허물어내여 나무의 뿌리가 다 드러났고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으려고 하는것이다.

상록은 눈길을 모으며 미간에 주름을 만들었다. 아직은 늙었다고 할 수 없는 떡갈나무지만 애초 뿌리내릴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것이 알린다.

물가에서 자란탓에 뿌리의 활동도 잘 진행되지 못했다. 굵고 억센 뿌리줄기로 땅속깊이 헤치고 들어가야겠으나 넉넉히 보장되는 수분으로 해서 잔뿌리만 자래운것이다. 그마저 류실된 토양으로 해서 다 드러났다. 아무리 물가라고 해도 뿌리는 깊이가 없는것으로 하여 말라서 마침내 존재를 마칠것이다.

생존과 종말은 바로 이런것이다.

상록은 깊은 사색에 잠긴 눈길을 돌리였다.

멀지 않은 산아래쪽에는 고삭은감을 주는 목조건물이 보인다. 자기의 옛집을 지친 눈으로 감상하는것이다. 이전까지는 무덤으로 생각한 그 집에서 얼마전에는 죽어버렸다고 여긴 자기의 과거생활이 숨쉬는 소리를 듣지 않았던가.

서상록은 나무지팽이에 의지한채로 발밑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이 기슭에서 안해를 만났다. 바로 이 물에 실어 아버지의 유해를 흘러보냈다. 그것이 아버지의 넋이였던가?!…

망념으로만 여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자기의 리성으로 부정해온 지나간 모든것들이 안해의 모습과 함께 서서히 물리칠수 없는 힘으로 다가들었다. 그것이 자기가 올라서야 할 실험대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자 상록은 손에 쥔 나무를 놓고 물가에 주저앉았다.

제 3 장

21

망망대해에서 어떤 사람이 거침없이 활보하고있다. 물우에서 걷고있지만 가라앉을 위험은 조금도 없다.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히죽히죽 싱겁기짝이 없는 웃음까지 지어내며 다가드는데 누군지는 가려볼수 없게 하는 얼굴이다.

값나가는 구두를 자랑이나 하듯 발을 높이 들기도 하고 옷차림까지 바꾼다. 연미복, 평상복, 나비넥타이, 보석단추…

마치도 물우에서 교예를 하는것 같다. 멋을 부려 흔들대던 사람이 금시 자취를 감추었다. 새로운 재주를 보여주려나 하고 몽롱한 생각을 하는새 급작스러운 정황이 펼쳐진다. 바다가 끓기 시작하는것이다. 싸이클론(인디아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태풍)이 뢰성을 대동하고 대양을 갈라놓는다.

번개불이 번쩍거릴 때마다 우뢰가 비수처럼 내려꽂힌다. 하늘땅과 바다가 무시무시한 3화음연주를 시작하는것이다. 대자연의 광란속에서 바다우를 걸어대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른다. 이건 불시조난인가.

두팔을 내뻗치고 허우적거리더니 배에 들어찬 물을 내뿜으며 소리친다.

《여보, 살려주ㅡ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오ㅡ》

정동녀는 소스라쳐 놀라며 눈을 떴다. 창너머 열람실에서는 수십명의 독자들이 앉아있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깜빡 졸면서 꿈을 꾸었던것이다.

몹시 머리가 무거워난 그는 앞에 놓인 부피두터운 책을 베개삼아 턱을 고이고 눈시울을 닫았다.

바다와 번개의 섬광이 재생되여 눈앞에서 얼른거려댔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오는것이다. 이상한 꿈이다.

선잠에서 깨여난듯 한 기분에 잠긴 정동녀는 마파람에 실린 생각을 이리저리로 떠내려보내기 시작했다. 맥락없는 상념은 딸에 대한 근심으로 기울어졌다가는 다시 아득히 흘러간 생활의 기슭으로 기울어들기도 한다.

뒤돌아보기 싫어서 억지로 삿대질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가고야만다.

역겨운 사람, 상실의 아픔만을 남겨준 상록의 모습이 떠올라 화가 치미는것이다. 어쩌다 그런 인간을 만나서 오늘까지도 마음고생을 하는지 알수가 없다.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서는 바라지 않는 추억의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진정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은 보기가 괴로왔다.

《이봐요, 전 어머니와 살면서 몰랐던것을 알면서 살아요. 그건 아버님이 계시기때문인걸요. 상상으로 그리워한 우리 선조들의 땅을 아버님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이예요.》

《또 그 소리요?! 이젠 듣기만 해도 신물이 나오. 그건 이루지 못할 망상이고 망념이란 말이요.》

그때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웠던가. 이런 사람을 두고 배운게 우환이라는 말이 생겨난게 아닐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당신의 말대로 망념이라고 하자요. 하지만 우리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 민족, 제 피줄을 잊지 않자고 하는 그 마음이야 갸륵한게 아닌가요. 아버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요?》

《누구긴, 사람이지.》

《조선사람이예요! 정말 환멸을 느끼게 하는군요.》

이러루한 부부간의 다툼질은 그칠새 없었고 애정이 깊어지는게 아니라 반목의 울타리만 높아졌다. 한쪽에서는 허영과 거만을 자랑하려들고 반대켠에서는 질시와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던것이다. 그것이 이른 종착점이 오늘이다.

정동녀의 상념은 마침내 동강났다. 점심시간이 된데다가 낯모를 사람이 만나자고 앞에 나타났던것이다.

《부인님, 국제인도주의단체에서 일하는 바클리라고 합니다.》

정동녀는 재빛수염을 가진 남자의 능청스러운 눈동자와 붙임성이 좋은 웃음을 일별하고 만나러 온 사람이기에 도서관의 휴식홀로 안내했다. 고풍이 짙은 나무걸상에 자리를 권한 정동녀는 담담한 눈길로 물었다.

《말씀하세요? 무슨 용건인지…》

정동녀는 어떤 자료를 요구하려는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상대의 말이 놀라게 했다.

《저로 말하면 서상록선생과 친분관계를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러

니 부인에게도 마땅히 호의를 가지는거지요. 첫 대면인데도 마음이 즐거워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정동녀는 순간 남편이 지연의 문제를 놓고 어떤 작간을 하려들지 않는가 하는 위구심으로 긴장되였다.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자 어머니앞에서까지 천둥같이 화를 낸 상록이다. 쌍드의 이름을 듣고는 뭐라고 했던가. 해석수학의 방법으로도 풀지 못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니 새로운 놀음을 생각해낸것이리라.

《말씀하세요. 찾아오신 용건을…》

정동녀의 어조와 안색이 변하지만 바클리는 그런데는 개의치 않으며 자기의 언변을 자랑이나 하듯 말솜씨를 부렸다.

《녀성들은 교제에서 절제가 있어야 하지요. 아무렴요. 우리는 현실에서 생활이 파괴된 녀자들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사실상 이 자유분방함은 고상하지 못한 행위를 추구하기때문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답니다. 도덕의 페허우에서 사는 현대인들이니까요.》

정동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처음 만나는 상대가 너무 수다스러운데다 천박한 유식을 드러내기때문이였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남자도 있는가. 경박한 녀자들을 꼬여내기 잘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지금의 대화가 빨리 끝나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랐다.

《서상록선생의 말을 듣고 집의 따님이 수재급대학졸업생이라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클리의 언변은 점점 자기의 목적에로 접근하고있었다.

정동녀는 신경을 세우고 들으면서 고개를 랭담하게 쳐들어올렸다. 예감이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한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떤 놀음을 벌리려는지 알아보자.

마음을 도사려먹은 그는 온몸이 귀가 되여 들으려 하였다.

《지연의 나이가 21살이라지요?》

《그래요.》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나이에 학계의 주목을 끈다는게 말입니다.》

《…》

《졸업후 전망문제도 생각하고계시겠지요?》

이것이라고 판단한 정동녀는 단마디로 대답해치웠다.

《그래요.》

바클리가 한층 다가들며 물었다.

《알고있답니다. 쌍드부인이 나서서 일본으로 보내려고 한다는걸 말이지요.》

가슴이 후두둑 떨려난 정동녀는 얼결에 바클리와 눈길을 맞추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쌍드까지 아는가. 남편이 알려줬다고 하기에는 이상하다고 여겨졌던것이다.

서상록은 이 사람처럼 말이 많고 입이 빠른 남자는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다. 생각하는것을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묻어두는 성미여서 화를 내게 했다. 바클리라는 생면부지의 이 사람이 이상할만큼 의심을 자아냈다.

별의별 재간으로 못된짓을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알것은 다 알면서도 무엇을 노리는것인가.

정동녀로서는 바클리 같은 사람은 처음으로 상대하므로 속내를 알수 없었다. 하여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흘려버렸다.

《쌍드는 좋은 녀자예요. 내 딸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거든요.》

바클리의 누런 동공이 커지며 입에서 놀란 소리가 튀여나왔다.

《그건 처음 듣는 말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지요? 그 녀자가 발레무용극을 만들어낸 모양이군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말뜻을 알아채지 못한 정동녀는 이렇게 물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쌍드는 신비한 녀성이니까요.》

바클리는 자기의 말을 서둘러 부정하면서도 회심이 비낀 웃음을 거두지 못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추리가 화살처럼 날고있었던것이다.

그년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있다. 아주 담이 크고 여우처럼 간사한 년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바클리의 함정에서 빠져나갈수 있는가. 내 네년을 그냥두지 않을테다.

《난 찾아온 리유를 전혀 알수 없군요.》

정동녀는 거의나 도전적으로 바클리를 바라보며 의문을 표시했다.

《리유란 아주 단순하지요. 어느 한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쌍드말인가요?》

바클리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럴수도 있지요.》

자리에서 일어난 정동녀는 속히운것 같은 불쾌감을 안고 물었다.

《당신은 경찰인가요?》

바클리는 올려다보며 히죽이 웃었다.

《상록선생의 벗입니다. 부인과 딸의 일은 앞으로 아주 잘될것입니다. 이건 담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상면은 유익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

《자기의 정확한 신분을 감추고 한 대화인데두요?》

《이미 말씀드렸는걸요. 국제인도주의단체의 한 성원이라고 말입니다. 이래뵈두 조선을 몇차례 방문한 사람입니다.》

정동녀는 그 말에 한층 더 놀라면서도 랭담한 어조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믿음은 안 갑니다.》

쌍드는 속옷만 입은채 타원형경대를 마주하고 앉아서 제 모습을 들여다보고있다. 바로 이 방에서 바클리한테 변을 당할번 하였다. 재빛수염을 가진 변태적인 인간을 상대로 밤을 새우며 봉사하지 않은건 천만다행이였다.

《이와나미상, 우리를 간파한 시선이 있다는걸 잊지 말아요.》

창문쪽 안락의자에 앉은 쌍드와 다를바없는 차림을 한 남자가 가슴을 한손으로 쓸어내리며 대답한다.

《내가 실책을 범했소. 손전화기를 잃어버린걸 당신한테 알려야 하는건데 그만 방심했단 말이요.》

《바클리는 위험천만한 인물이예요.》

《알겠소. 당신의 신상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지.》

희멀끔하게 생긴 일본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쌍드의 매혹적인 자태를 바라보며 방금전까지 누린 쾌감으로 하여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울창한 수림속으로 난 포장길을 따라 폴크스와겐이라는 마크가 붙은 승용차 한대가 천천히 달리고있다. 차바퀴가 마찰면을 스치는 소리만 없다면 흘러간다고 할만큼 유유히 움직인다.

승용차의 뒤좌석에는 지그프리트와 싼타나가 앉아있었다. 에쎈의 거두

는 매우 심중한 표정을 짓고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녀자의 말을 듣는다. 서상록에게서 변화를 엿볼수 있게 하는 자료였던것이다.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서상록박사는 WM과 접촉을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담화내용은 비밀로 되고있는것으로 해서 아직은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전부터 제기해온 문제로서 협조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그프리트로서는 관심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였다. 서상록에게서 태도변화가 일어날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에쎈의 조선에로의 진출을 막기 위한 세력들의 압박이 로골화되고있다. 협박과 위협은 상록의 신변에까지 미치고있었던것이다. 한편에서는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편에서는 당근을 내미는 전술로 회유를 시도하고있는것이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기마련이다. 여기엔 서상록이 말한것처럼 배반당할지언정 배반하지 않는다는 신조가 무효하다고 간주하는 지그프리트였다. 사람도 기업도 대세에 따라 변하기마련인것이다.

그는 이런 날이 오리라는것을 예감한바도 있었다. 경마승부를 겨룬 날 야외식사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했던것이 떠올랐다. 그날 서상록은 자기에게 에쎈의 조선에로의 진출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명백한 립장표명을 했었다.

지그프리트는 차창밖으로 수림속의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구새먹은 거목주위를 에워싼 애어린 나무들이 눈에 뜨이자 그는 의미를 새겨보았다.

자연계에서 그루바꿈현상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로서는 상록이 마음을 달리하면 보상하기 어려운 상실을 당하는것이다. 하지만 막을수 없는 현실이라도 필요한 대책은 세워야 했다.

《최근 그 사람의 주위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생긴건 없었소?》

약간 턱을 쳐든채 경건한 자세로 앉은 싼타나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물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했던것이다.

상록은 요즘 연구소에서 살다싶이 하고있다. WM이라는 이름을 단 기업체가 음모를 꾸미고있는데 대해서 알려준것만큼 매우 조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전에 우연히 지나가는 소리로 《토장국을 먹구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요.》 하는 반롱담 같은 말을 하였다. 그때 싼타나는 《내가 그 국을 만들줄 모르는게 유감이예요.》 하고 대답했었다.

그로부터 이틀후에 상록이 어디에 갔다가 왔는지 차림새가 말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서 몹시 놀랐다. 옷이 온통 젖어있었던것이다.

《왜 나를 그렇게 보는거요. 등산을 하고 오는 길이요.》

상록은 별일이 없었다는것을 알리는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그길로 샤와실에 들어갔다. 그의 신상에서 의심스러운것이 있었다면 그때뿐이다.

싼타나는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그프리트는 묵묵히 듣기만 하였다. 종잡기 어려운 사람인데 등산을 했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WM의 모모한 인물을 그런 차림으로 만나고 올수는 없었다. 개인의 취미나 사생활은 관심할 필요가 없지만 지그프리트는 이름할수 없는 불안을 느끼였다.

《나에게 있어서 서상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싼타나는 알아야 하오. 곁에 있으면서 좀더 관심을 돌리기를 바라오.》

지그프리트가 엄숙하게 말하자 싼타나는 고개를 숙여보였다. 이것은 조용히 하는 부탁같지만 명백한 지시라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연구사업도 하면서 서상록의 동향을 놓치지 말고 알아내여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바로 이런 중임으로 하여 지그프리트로부터 남다른 총애를 받고있는 싼타나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상록에게서 변화가 생기는것이 정확하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오? 싼타나.》

싼타나는 이번엔 고개를 들어올리며 눈을 감았다. 믿음을 가지고 묻는 말이지만 대답하기는 어려웠던것이다. 그로서도 입수된 정보를 놓고 생각이 많았다.

상록은 WM의 어떤 인물과 단독으로 상면할 기회는 없었다고 보는것이 정확할것이다. 그것은 날자와 시간별로 엄밀하게 따져본 결과치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나눌수 있다는데 대해 배제할수는 없었다.

《사장님, 에쎈에 더는 리로운 존재가 못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리익을 주는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그프리트는 싼타나가 랭철한 녀성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기업경쟁에서 음모와 폭력이 동반되는것은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에쎈을 둘러싼 세력들이 그와 같은 위협을 현실적으로 가해오고있지 않는가.

하지만 그는 서상록에게만은 그런 모략과 물리적힘을 가하고싶지 않았

다.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자기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허용되여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지그프리트였다.

《방법은 뭐요?》

싼타나는 점점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과학탐구에 있어서나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나 상록을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녀자였다.

비상한 두뇌가 시샘이 날 정도라면 남자로서 도덕적신조를 가지고 녀성들을 대하는 품성은 매혹을 불러일으키는것이기도 했다. 린색은 해도 절제가 있으며 의리를 지킬줄도 아는 남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돈과 향락을 위해 방탕해지는 녀자들이 있다면 어떤 남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빚어내고있다. 인간세상이 만들어낸 소택지에는 별의별 추물들이 다 서식하고있지 않는가.

그러나 에쎈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깊이 모색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기며 싼타나는 대답했다.

《깊이 생각해볼 여유를 주십시오.》

지그프리트는 싼타나의 심중성이 마음에 들었다.

《입수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다시 확인해보는것이 필요하오. 역정보일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몰락시키기 위해 무슨 모략인들 안 꾸미겠소. 이와 함께 서상록의 신변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오. 그는 에쎈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인간이요.》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수림속 길을 벗어나자 승용차가 멎었다. 차에서 내린 싼타나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고나서 걸음을 옮기였다.

22

이 방에서는 당면한 연구사업방향과 중점대상에 대한 심중한 론의가 진행되고있었다. 참가한 사람들은 개발팀들의 중진들이였다. 뛰여난 두뇌를 가진 인간들의 모임인것으로 하여 론의되는 문제들이 예리할수밖에 없었다.

연구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여서 개발속도를 높이면서도 수입원천을 늘이는 방향에서 모색되기마련이다. 그것은 가장 긴밀히 협조하고있

는 에쎈의 요구이기도 한것이다.

은발머리를 길게 기른 남자가 장발을 흔들어대며 자기의 주장을 피력한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연구결과로 차례지는 보수이고 혜택이다. 우리야말로 뇌수의 고단백을 지출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확고하면서도 많은 리익을 가져다줄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자면 치렬한 경쟁이 벌어지는 첨단분야에도 눈길을 돌려야 하지만 구매력이 가장 높은 콤퓨터와 손전화기의 성능을 높이는것과 함께 체계를 부단히 갱신하는것도 중요하다.

제노라 하는 사람들이라 남의 말을 듣는 잡도리부터가 각이했다. 언권이 차례지지 않아 초조해하는가 하면 하품을 해대고 모로 비켜앉아 다른 궁리를 하는 모습들도 있었다.

콤퓨터와 손전화기의 성능과 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가 론의에 오르는가 하면 새 재료개발에서 뒤떨어지면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한다는 위협적인 발언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두손을 마주 모아붙인채로 눈길을 쳐들고 앉은 싼타나가 살며시 상록의 안색을 살핀다.

연구소의 주인은 눈을 감은채 주위를 감각하지 못하는듯 움직이지 않았다.

저 사람은 저 모양을 하고있지만 지금까지의 발언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재현해내는 머리를 가지고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것일가. 어떤 결심이든 내려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엇갈린 주장들과 견해들도 지친듯 잦아들자 방안에는 정적 같은것이 깃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상록에게 쏠렸다.

《모델공장설계는 어떻게 진척되고있소?》

상록은 여전히 눈을 감은채로 물었다.

화제에 올라보지도 못한 문제였는데 마침내 자기 차례가 왔다고 여겼던지 젊고 패기있는 연구사가 일어서자 상록은 앉아서 말하라고 손짓을 해보인다.

정구시합에서 진바 있는 연구사는 상록의 거동에 위압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생산면적을 가장 합리적으로 정하면서 부문간 호상성이 잘 보장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있는 설계추진정형과 새

로운 에네르기에 의한 경영활동보장과 관련한 방도들을 제기했다.

《그만하면 연구방향을 옳게 잡은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상록의 입에서 칭찬이 울려나오자 좌중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젊은 연구사는 자기를 높이 평가해주는 상급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보인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관건적인 문제들을 론의합니다. 명심할것은 연구개발에서 가장 앞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겁니다. 우리는 새로운것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이요. 일본처럼 남의것을 본따기를 잘하는건 발견이나 발명인것이 아니라 모방이요. 물론 모방도 기술이라면 기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상록은 자기가 어떻게 되여 일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누구도 둘러보지 않으며 같은 자세로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선후차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한 다음 결정합시다. 그러나 모델공장설계는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싼타나의 눈섭이 가늘게 떨렸다. 모델공장설계를 지그프리트가 상록에게 직접 주문했다는것을 잘 아는 그였다. 이것은 연구소의 주인이 에쎈을 중시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했던것이다. 그렇다면 WM과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것은 거짓정보였는가.

싼타나는 이것을 시급히 알아야만 했다.

《앞선 발언에서도 제기됐지만 우린 실리도 추구해야 합니다. 사실 프로그람봉사와 같이 머리만 써서 몇백만을 벌어들인다면 양보할수 없지 않은가 말입니다. 실험생산비용이 들지 않는 이 방향도 적극 활용합시다.》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상록은 협의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렸다.

싼타나는 제일 뒤로 나가고있었다. 녀자로서 례절을 지키는것 같았다.

《싼타나선생은 좀 남소.》

이 순간 지혜를 갖춘 녀성은 자기에게 차례지는 기회라고 여기며 상록을 향해 돌아섰다.

《싼타나선생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것이 유감이요.》

모임에서 창발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상록의 말을 들으면서 싼타나는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색을 할수밖에 없었다. 연구방향이 아니라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행동방향을 알아내야

했던것이다.

《박사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나니 그만… 죄송합니다.》

싼타나의 대답은 예상외로서 상록에게 의혹을 품게 했다. 랭철한 녀자의 입에서 감성적인 말이 흘러나오기에 리해하기가 어려웠던것이다.

《모르겠구만, 말뜻을…》

《생활률동이 파괴되고있다는데 대해 생각해보십니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싼타나는 상록과 정면으로 부딪쳐볼 결심을 한것이다. 다른 방도는 없었다.

《내가 말이요? 난 다른걸 느끼지 못하는데…》

상록은 약간 당황해하였다. 이것은 그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반응이였다. 싼타나는 그것을 예민하게 포착하고는 한걸음 다가섰다.

《휴식일도 아닌 날에 등산을 다닌다는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합니까? 저로서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싼타나는 남자들과 마주서서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하는 경우가 거의나 없었다. 그런 녀자의 시선이 곧추 자기를 향했기에 상록은 마주하기가 피곤했다.

번민과 고뇌속에서 허덕이며 사는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하소할데도 없다. 흔한 폭력배들에게 유괴되였던 수치를 남이 알기를 바라지 않는 그였던것이다. 자기라는 존재를 신성불가침으로 여겼지만 자존심은 여지없이 상처를 입었다. 무슨 정신으로 숲속의 강줄기를 따라 헤맸던지 알수 없다.

《나도 인간인데 왜 고민거리가 없겠소. 이쯤이야 리해할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싼타나.》

상록은 이렇게 대답을 줄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자기를 관심해주는 녀성인가. 그것이 지그프리트의 호의라는것도 알고있었다. 처음에는 불쾌하기도 했지만 이젠 습관이 되였다.

《감사합니다. 그만큼이라도 저를 믿어주시니…》

싼타나는 정중한 자세로 고개를 숙여보였다.

《당신의 눈에 비낀 나에 대해 말해줄수는 없겠소?》

급기야 상록은 끈덕진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한 녀자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자기에게서 무엇인가를 알고싶어한다는것을 간파했던것이다. 회피하는 법도 배워두는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는

능란하지 못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기에 싼타나는 지금의 대화가 실없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마음먹었다.

《일부에서는 선생님이 다른 기업체들과의 협조를 모색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있습니다.》

상록은 공연히 이 녀자를 돌려세워 시름을 당하는것이 어처구니없기도 했다. 지그프리트의 눈과 귀나 같은 싼타나다. 지금 하고있는 말을 들어봐서는 자기의 행동이 에쎈을 자극했다는것은 의심할바 없었다.

그로서는 부득이하게 WM의 리사에게 모호한 표현으로 상면날자를 알릴수밖에 없었다. 이쯤만 해놓아도 폭력배들의 무례한 행동은 막을수 있다고 여겼던것이다. 그런데 바라는 곳이 아닌 싼타나에게서 먼저 신호가 오기에 은근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게 무슨 놀라운 일이요. 우리 연구소의 약점은 거래대상이 단순하며 교제방식을 개선하지 못하는거요. 만나봐야 안다는 말이 있지 않소.》

싼타나는 상록의 말이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모순점도 찾을수 있었다. 자기의 상급은 언제나 정확한 대답만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문장구성이 어설프고 명료하지 못했다. 무엇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결구가 없었던것이다.

《외교술이 방편으로 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싼타나는 이 말을 하면서 조용한 눈으로 상록의 표정변화에 주의를 돌렸다. 벗겨진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걸상등받이에 기댄 상록의 얼굴에는 말없는 긍정이 가느다란 웃음으로 새겨졌다.

정동녀는 쌍드의 수박무늬가 간 양산이 막아주는 그늘밑에서 걸음을 옮기고있다. 공원의 여기저기에서 더위를 피해온 사람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온통 뒤죽박죽이야. 뭐가 뭔지 난 알수가 없구나.》

쌍드의 눈길이 곁에 선 녀자를 자못 주시한다. 시름에 잠긴 정동녀는 걸음마다 한숨을 내쉬는것이다.

《언닌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아. 마음을 놓으라는데…》

《어디 그러게 놔두니.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 나서서 훼방을 하니 어머니까지 기가 펄펄해서 나만 몰아댄다. 전번에 전화로 알렸지만 일본

으로는 애를 못 보낸다는거야. 왜놈, 왜놈 하면서 어머닌 치를 떤다.》

쌍드는 눈빛이 차가와지는것과는 반대로 온화한 어조를 갖추며 말했다.

《그건 언니가 리해해야 해. 늙은이들은 완고하지 않아. 이 일의 결정권은 지연이한테 있고 언니한테 있는거나 같아. 그렇지 않아?》

대수롭지 않은듯이 하는 말이지만 쌍드는 자기의 의도에 모를 박아댔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남편이라는 사람이나 다 늙은 어머니가 삐친다고 걱정할건 없다는것을 심어주는가 하면 일본으로 가는것은 지연이가 이미 결심을 내린것이라는 암시를 하려고 했다.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잘못한것 같아. 엊그젠 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분을 잡쳐놓더구나.》

쌍드의 눈빛이 긴장해났다.

《어떤 사람인데?》

《흠ㅡ 너를 알더구나. 무슨 인도주의단체에서 일한다는데 그조차 의심이 가더라. 이름은 바클리라던지…》

쌍드는 《아ㅡ》 하는 놀란 소리를 내고나서 자기를 재빨리 수습하며 《바클리,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을 협잡군이야.》 하고는 웃기까지 했다.

바클리가 정동녀를 찾아왔다는 사실은 무심할수 없는 일임을 그는 너무도 잘 알았다. 무엇을 노리는가.

쌍드는 재빛수염쟁이가 자기의 뒤를 밟고있다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새 함정을 파려고 할것이다. 지금도 가슴을 뜯으며 이를 갈고있을 바클리다. 다 먹었다고 여긴 떡을 게워놓지 않았던가.

《그래, 어떤걸 알고싶어했어?》

정동녀는 바클리라는 사람의 낯짝이 보이는것만 같아 고개를 저었다. 쌍드가 지연의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이라고 하니 한껏 비웃어대던 상통이 떠오르자 이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좋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기 싫었던것이다.

《그저 이것저것 횡설수설하더구나. 지연의 아버지와 친분을 가지고 지낸다는둥 애의 전망문제는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둥… 엄마가 하도 맥이 없으니 싱거운 사람까지 나타나 화를 돋구는거지 뭐.》

바클리가 지연의 전망문제를 물었다는 소리에 쌍드는 정신이 퍼쩍 들었다.

이거야말로 간과할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것이다. 바클리라는 작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모르지 않았다. 과녁은 서상록이다. 에쎈과 분리시키기 위한 일이 잘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사람인데 지연에게 관심을 가진다는건 연구를 해봐야 했다.

《언니, 상록선생을 한번 만나보렴.》

정동녀의 걸음이 멎었다.

《건 왜?》

《지연이 문제를 락착지어야지.》

《일본소리가 다시 나오면 잡아먹자고들거야. 지금까지 그런 기상을 보인적은 없었다. 안돼!》

쌍드는 정동녀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다.

《타협과 절충이라는것도 있지 않아. 일본이 싫으면 미국에 보내지 뭐. 하바드나 예일대학 박사원에… 난 그것도 자신있어.》

유혹이란 끈질긴것이다. 더구나 사람에 대한 환상은 쉽게 지울수 있는것이 아니기에 정동녀는 이 순간에도 동요하고있었다. 마음은 지금의 구속에서 한시바삐 벗어나고만싶었던것이다.

《우리 일이 무난히 될것 같지 않구나.》

한숨소리가 정동녀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오자 쌍드는 신심을 줄듯 잡은 손을 흔들며 활기에 넘쳐 말했다.

《걱정말아요, 내가 있지 않아. 고생을 겪어봐야 행복이 뭔지를 안다고 하지. 두려워할게 없다니까.》

쌍드는 이 말을 자기에게 하고있는지도 모른다.

석양빛을 받으며 가볍게 설레는 보리수나무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마치도 금발머리를 길게 드리우고 서있는 녀인들의 모습같기도 했다.

청신한 기운이 감도는 숲속에서 새들이 기악중주를 하고있다. 이름모를 새가 마른나무를 톡톡 쪼아대며 웅글은 타악기소리를 내면 금빛새가 빗쪼르릉 빗쪼르릉 금관악기의 맑은 음역을 담당하고 이 나무, 저 나무사이로 날아예는 고운 날개를 가진 새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합쳐서 내는 화성연주를 재치있게 해대는것이다. 게다가 높은 나무에 자리를 잡았던 도요새들이 호반을 향해 날아가며 북을 쳐대는것 같은 소리로 울어댄다.

자연의 숨결에 심취된 상록은 봇나무곁에 서서 황금빛저녁노을을 바라

보고있었다. 이 시간이 오면 이따금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히군 한다.

인간생활도 자연처럼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귀찮은 일, 골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가. 꼬리를 무는 일감의 시달림이 앞에서 기다리고 뒤에서 발에 감겨돈다. 물질분해는 자신이 있는데 사람을 안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이무렵에 와서 통감하는 그였다.

인간생활의 장막속에 든 자기의 모습을 찾아볼 때면 전에 없었던 불안이 갈마들고 위기감까지 맛보게 되는것이다. 이따금 때없이 벽계수기슭에 서있던 뽀리를 드러낸 떡갈나무가 보이군 했다. 어느덧 뇌리의 한복판에는 그 나무가 자기의 운명을 암시하고있다는 생각이 맴돌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는 자신이 무너져내리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지금같이 홀로 외로운 사색에 시달리는것이다.

《아버지, 호호.》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지연이가 앞에서 뒤짐을 지고 발끝으로 선채 한들거려댔다. 싼타나와 실험실에 있어야 할 애가 무슨 일로 아버지의 뒤를 밟기나 한것처럼 산보길에 나타났는지 알수 없어 상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있고싶어서요.》

《승낙을 받았니, 싼타나선생한테서?》

《물론이지요. 1분도 빈틈을 주지 않는분인데…》

지연은 여전히 뒤짐을 진채 사뿐사뿐 따라서며 말했다. 다 큰 딸이 곁에서 걸으니 상록의 마음은 흡족해나기도 했다.

자기는 지연의 나이때 수학기초가 빈약해서 진땀을 뽑으며 책에 파묻혀 살았다. 론문집필 같은건 꿈조차 꾸지 못했던것이다. 힘들게 살면서 딸을 이만큼 키우자니 안해가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죄스러워나기도 했다.

《무슨 말씀이든 좀 하세요.》

지연이가 살짝 마음을 건드리자 상록은 일부러 시무룩이 대답했다.

《기분이 좋았는걸. 너 나를 곤경에 빠뜨릴 궁리를 하고 온게 아니냐?》

《역시 아버진 수재야. 그걸 어떻게 알아맞히세요?》

《예감이다.》

《호호호, 그럼 직판 물을게요. 아버진 비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상록은 숲속에서 무엇을 찾을듯 두리번거려대며 《그야 분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유의 형태가 아니냐.》 하고 대답하고는 딸의 다음 말은 기다렸다.

《좀더 전개해주세요.》

《너 나를 골려주려고 그러지?》

《피ㅡ 아니예요. 고견을 듣고싶어서 그러는데…》

《모를 소리다. 비교란 말이다. 내가 말하는 비교란 질량의 대비, 체적의 비교, 활성의 대비분석…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의 성질을 파악하게 되는게 아니겠니. 물질의 성질을 알아내면 속성을 포착할수 있고 결합규칙이라는 비밀도 인식할수 있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지연이가 손벽을 치며 《비밀이란 말이지요? 난 어떤 비밀을 알아낸것만 같아요.》 하고 기뻐하는것 같더니 붕 떠올랐던 기분과는 달리 시무룩해진 얼굴에 의혹짙은 표정을 그려보였다.

《너 왜 그러니?》

등뒤로 갔던 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지연은 사뭇 깊은 사색에 잠긴채 말했다.

《내가 차사고를 당할 때 말이예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은 다음 차바퀴를 바꿔달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시간도 못되여 바꿔끼운 바퀴가 빠져나갔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상록은 딸이 지금까지 언급해온 비교라는 화제를 떠나 왕청같은 소리를 하는데다 이미전에 싼타나에게서 들은 말이기에 물었다.

《싼타나선생이 무슨 말을 한게 아니냐?》

《문제를 제시했을뿐이예요.》

《그건 론문완성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지워버려.》

《아니예요. 난 풀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내가 세운 추리와 가설을 내놓았더니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나한테?》

상록은 싼타나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처녀애한테 쓸데없는 말을 해서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지 않는가. 이 철부지가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해명한다는건가. 요즘 애들은 모험심이 커놔서 무슨 일을 칠지도 모르는것이다. 이런 일을 딸을 통해 나한테 알리려는것은 싼타나에게 다

른 의도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상록선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결코 평온한게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는 자극을 주자는것인가.

상록은 자기를 위기의식도 가지고있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는것 같아 속이 좋지 않았다.

《사람들도 호상 비교의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은가요? 무척 호감이 가고 좋아보이는 녀자와 엄격하고 대상하기 힘든 녀자 …첫눈에 매력을 주는 사람은 필경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있다, 유혹은 실패에로 가는 지름길… 내가 차사고를 당한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한 일일수도 있다는거예요. 아버지, 들어요?》

딸의 산만한 추리에서 무엇인가를 감수하며 상록은 머리를 내저었다.

《넌 아직은 사건을 추리할만큼 생활체험을 못 가졌다.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지 말거라. 아버지도 모르는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지연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도 모르시는게 있나요?》

《나도 물질세계의 한 부분일뿐이다.》

《그건 아버지가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시는건가요?》

《네 보기엔 아버지가 어떻니?》

두손을 꼭 잡은 지연은 보라빛으로 변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난 아버지네 세대가 불만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계시나요? 우리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는건가요, 예? 아버지!》

딸과의 대화가 여기에 이르자 상록은 아연해지고말았다. 아무런 대답도 줄수 없었던것이다.

지연의 눈빛을 피하니 이번에는 드러난 뿌리로 하여 한층 기울어져가는 떡갈나무가 보였다.

23

음식점의 주방은 골목길같은감을 주었다. 좁은 면적에 길게 자리를 잡아서 구석마다에서 료리사들이 일하고있는것이 보이였다.

구이로 같은것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조리대들도 불편한 위치에 놓였지만 건물의 구조상 달리할 방도가 없었던 모양이다.

상록은 주인의 안내를 받으며 료리사들이 휴식도 하고 식사도 하는 크지 않은 방으로 안내되였다.

언제부터 토장국생각이 나서 오자고 한 곳인데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줄은 모르고 찾았던것이다. 마침 주인을 밖에서 만나 이렇게 남다른 접대를 받는것이다.

《선생을 이런 곳에 모셔도 되겠는지요?》

《오히려 내가 미안합니다. 이런 날에 찾아와서…》

방안에 들어서자 주인은 상록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맞은켠 조금 떨어진 나무걸상에 앉았다. 천정에 매달린 풍차날개같은 배풍기가 소리없이 돌고있다.

앞치마를 두른 젊어보이는 남자가 다반에 포도술과 잔을 담아들고 들어와서 친절한 웃음을 지으며 잔에 부어준다.

《삐짜한테 이르게. 선생이 드실 토장국을 잘 끓이라구 말이네.》

《알겠습니다.》

남자가 물러가자 주인은 상록에게 서글픈 웃음을 안겨주며 말했다.

《이 집 지붕밑에 모여사는것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인간들이지요.》

상록은 자기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에서 오늘은 어떤 사연을 알려주려 한다는 예감을 받았다.

거쿨진 체격, 류달리 길고 억센 두팔과 마주 쥔 큰손, 되는대로 기른 희끗희끗한 수염은 다스리지 않아 자라고싶은대로 자라는것 같다. 깊은 주름이 잡힌 우묵한 곳에 자리잡은 눈동자에는 수심 같은것이 그득 고여있었다.

이 음식점이라는 생활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은 출생지도 나이도 이름도 모르며 세상천지를 흘러다니던 인생들이였다고 말머리를 뗀 주인은 이

야기를 계속했다.

세상의 버림을 받은 어린 생명들은 살기 위해 무슨짓이나 다하였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들이 버린것을 주어먹으며 마침내는 도적질도 서슴지 않는 길에 들어섰다. 주인은 자기도 그런 운명을 타고났으나 고마운 사람을 만나서 오늘을 산다면서 상록에게 의미있는 미소를 던지였다.

《그 귀인이 바로 선생의 부친입니다.》

상록은 주인과 자기가 이렇게 이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일이여서 망연히 마주보기만 했다.

가지가지 인연들이 빚어놓는것이 세상사인지도 모른다. 주인의 말을 들으면 14살 난 방랑소년이 도적질을 하려고 음식점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에게 붙들렸던것이다.

《그날은 배를 너무도 곯아 참을 길이 없는데다 훔쳐먹자고 해도 맞춤한 곳이 없어 제 몸도 가누기 힘들었지요. 그러던차에 눅거리음식점이 눈에 띄길래 무작정 뒤문으로 기여들어갔습니다. 허줄한 침대 하나가 전부인 골방인데 작은 상우에 먹다남은 국 한그릇과 밥이 보이더군요. 난 도적놈이라는것도 잊고 정신없이 달려들어 퍼먹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에 그렇게도 맛있는 국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토장국이였지요. 구수하고 걸죽한 국이 창자로 흘러드니 뿌예진 눈으로는 눈물이 흐르더군요. 어떻게 다 먹어버렸던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살았구나 하고 훔쳐낼만 한것을 찾으려고 일어서니 글쎄 언제 나타났는지 침대에 주인이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이젠 도적질해먹은 봉창으로 뭇매를 당했구나 겁에 질려 떠는데 아닐세라 주인이 내 손을 덥석 잡더군요. 그리고는 말없이 이끌고 주방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도망칠 구멍 하나도 없는 곳에 이른 나는 시키는대로 공손히 앉아서 차례질 벌을 기다리는 판이였지요. 그런데 주인은 제 손으로 국을 다시 끓이고 밥까지 덥혀서 내앞에 내놓으며 먹으라는겁니다. 난 그때 매보다 더 무서운것을 기다리며 머리를 저어댔지요. 훔쳐먹으며 얻어맞고 사는게 나였으니까요. 겁에 질린 나에게 주인은 이게 토장국이라는건데 네가 이자 먹은건 식어서 맛이 없었겠지만 이젠 끓였으니 맛이 있을거라며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방랑자앞에 하느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난것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들이 오늘도 왕림하시기를 고대하는 예수그리스도가 설사 나타난대도 나에게 그런 자비는 베풀지 못했을겁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과 인연을 맺은 나는 음식점에서

일을 도와주며 함께 살았답니다. 부모와 집이란걸 모르던 이 방랑소년에게 생활의 보금자리가 생겼지요.》

주인의 눈가에 물기가 배여오르는것을 보며 서상록은 가슴이 저려왔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본 자기의 불효막심한 모습이 안겨주는것이였다. 토장국은 먹고싶어하면서도 아버지를 오늘까지도 바로 알지 못하며 살아온 이 아들이 아니였던가.

세월은 두사람에게 부자간이나 같은 정을 맺게 하였다.

아버지의 초라한 음식점은 어제날의 방랑소년에게 상속된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무렵이 아마도 상록이 대학을 졸업하고 코대를 높이던 때였을것이다. 그는 창피스럽다는 생각만 앞세우며 아버지가 일하는 음식점을 찾아가본 일이 거의나 없었다.

《선생의 아버지가 어느날 나를 앉혀놓고 말했지요. 자기 몸이 불편해서 이젠 일하기도 힘드니 좋은 벌이를 찾아갈 생각은 말구 여기에 눌러앉아서 색시도 얻어서 살아가라고 하더군요. 그후 이 배은망덕한 놈은 그때까지 은인이 어디서 사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게 접니다. 그때부터 그 음식점을 터전으로 오늘을 마련하고 삽니다. 은인의 자비가 전해지기를 바래서 나같이 굴러다니던 녀석들을 모아서 지금은 음식점간판도 <형제>라고 내걸었습니다.》

주인은 자기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운명들이 기구해도 성실하며 촉기가 빠르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 료리사들이라는 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식통들이라는것이다. 교제가 다양하니 알아내는 소식들도 희귀했다. 바로 그들이 서상록을 찾아냈던것이다. 은인의 아들이라지만 지체가 높은데다 대상하기가 어려워 오늘까지 마주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주인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사실 이 음식점에서 토장국을 끓이기 시작한것도 선생때문이였다면 믿어지지 않을겁니다. 오라고 청한대도 여기로 걸음하겠습니까. 토장국이 소문을 냈고 내가 바란대로 선생이 찾아오시더군요.》

《예, 토장국의 진맛을 보기가 힘드니까요.》

상록은 대수롭지 않은 말이지만 힘들게 번졌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한 기회에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선생은 바클리라는 사람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바클리라는 이름이 갑자기 화제에 오르자 상록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류계층이 모여드는 사교계로부터 빈민가에 이르기까지 인도주의와 자선사업을 떠들며 안 다니는 곳이 없는 사람이 바클리였던것이다. 이곳에서 그를 만난적도 있는 상록이다.

《우리 녀석들은 앞서 말한것처럼 정보를 수집하는데선 여간 날래지 않답니다. 선생은 언젠가 바젤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박물관에 들렸더라면 큰 봉변을 당할번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상록의 놀라움은 한계를 넘어섰다. 그날 음식점주인이 문가에서 맞아주지 않았던가. 듣고보니 우연한 일치가 아니였다. 의혹은 쉽게 풀렸다.

음모군들의 협박의 대상이 상록이라는 정보를 쥐자 즉시 싼타나에게 알린것이였다. 료리사들중에 싼타나와 면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것이다. 그날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였다.

《정말 무슨 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여 방안으로 토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흘러들었다.

《감자와 냉이를 두고 만든 토장국입니다. 선생의 아버님에게서 배운 기술이지요.》

주인이 감회깊이 하는 말을 들으며 상록은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간신히 눌렀다. 아버지의 구부정한 모습과 시름에 젖은 눈길이 다가들고 처절한 한숨소리가 들려오는것이였다.

저녁시간을 가까이하자 에쎈구락부는 한층 활기를 띠고 설레기 시작하였다. 고객들의 비만한 몸뚱이와 만족한 웃음이 녀인들의 교태를 품은 우아한 모습들과 세련된 조화를 이룬다.

오늘도 쌍드는 부유한 생활의 랑비가 사품치는 속을 누벼댔다. 이 녀자가 가는 곳에서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넘쳐흘렀으며 기지있는 유모아들이 샘솟았다.

한껏 정력을 소비한 그는 바클리의 모습을 찾아보고나서 얼굴에 요염한 웃음을 담고 다가갔다. 괘씸한 생각 같아서는 이 방해군의 재빛수염을 한오리도 남지 않게 뽑아던지고싶지만 서뿔리 다쳐서는 안될 작자여서 속심이라도 타진해보려고 마주서는것이다.

《바클리씨, 어떤 심오한 세계에 잠긴것 같군요. 오늘은 소크라테스를 보는 기분이예요.》

쌍드가 괴여올리는 말에 바클리가 윤기도는 재빛수염을 쳐들고 박수까지 쳐댔다.

《그것이 바로 나의 매력에 대한 발견이요. 쌍드부인, 감사합니다.》

쌍드는 이 세상에서 얼굴가죽이 제일 두껍고 질긴 사람이 바클리라고 여기면서도 그와 마주앉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고대그리스의 철학을 연구하시는가요?》

《천만에, 바클리는 현실주의자요. 나의 철학은 현대인들을 탐구하는거요. 당신을 포함해서 말이요.》

《멋있어요! 바클리씨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가요?》

기지있는 웅변으로 다가드는 쌍드의 얼굴을 지켜보며 바클리는 네년의 그 몸뚱이를 짓이겨놓을 기회가 다시 올게다 하는 속심을 품은채 고개를 끄덕댔다.

《그건 어렵지 않게 한 문장으로 정립할수 있소. <만족을 넘어선 만족을 향유하려는것이 현대인들의 속성이다.>, 어떻소? 이건 방금전에 플라톤이 계시해준 명제요.》

《그 만족이란 어떤것인가요?》

바클리는 집요하게 접근전을 시도하는 쌍드를 웃는 눈으로 노려보며 낮으나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내 네년의 뒤통수가 아니라 가랭이를 찢어놓을테다. 먼저 입가심을 한 다음!》

《별로 새롭지 못하군요. 수가 낮아요. 내 일을 방해하지 말아요. 그럼 알겠어요? 어떤 보상을 하게 될지…》

《흐흐, 조심하는게 좋아. 오늘 밤일지도 모른단 말이야.》

쌍드의 입귀가 쳐들리며 비웃음을 살짝 내뱉았다.

《고맙군요. 다시 만나요.》

쌍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바클리의 두눈은 녀자의 온몸을 삼켜버릴것처럼 노려보았다.

밤의 침묵과 정적이 다가오고있었다. 유흥가의 현혹적이던 불빛들조차 맥을 잃어갔고 거리의 골목들에는 어둠이 도적고양이처럼 찾아들고있다.

황달이 든 얼굴색같은 가로등불빛밑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녀자들, 삭

발중 같은 사내들이 나타나고 그들만이 출수 있는 지칠대로 지쳐버린 률동이 도처에 란무한다. 마약중독자들이 자기들을 살려줄 약을 찾아 거리에 떨쳐나온것이다.

에쎈구락부를 나선 쌍드는 문가에서 흠칠 놀라며 멎어섰다. 캡을 깊이 눌러쓴 날파람있어보이는 사람이 마주 달려오는것을 보았던것이다.

복면 비슷한 모자, 약간 안으로 굽어든 긴 다리…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 사위를 둘러보는 사이에 눈앞에 나타났던 사람은 간데 없이 사라졌다.

구락부앞에는 택시들도 있었다. 차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서있는 운전사들이 보인다.

쌍드는 자기 차를 타달라는 소리를 귀등으로 흘려들으며 승용차들사이로 빠져나가다 걸음을 멈추게 하는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

《부인, 소인이 모셔다드립지요.》

어조는 낮은것 같지만 억양은 거칠고 명령 같아서 한손을 내저으며 걸음을 재촉하던 쌍드는 짤막한 비명소리를 내며 차안으로 끌려들어갔다.

이어 발동소리가 울리고 어둠이라는 심연속의 어디론가 몸은 날아가기 시작했다.

쌍드는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왔다는것을 깨닫고는 승용차의 손잡이를 더듬어 찾아쥐고는 손목에 힘을 주어 돌리며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무엇때문에 나를 이렇게 다루는가요?!…》

《부인, 손건사를 잘하십쇼.》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차를 몰고있는 운전사가 약을 올리려는것처럼 지벌거렸다. 차손잡이는 닫아서 잠글수는 있어도 반대작용은 할수 없게 되여있었다.

개자식, 속으로 이를 옥물며 욕을 해댄 쌍드는 비좁은 자리가 견딜수 없어 몸을 비틀며 악이 받쳐 소리를 질렀다.

《차를 세워요! 요구하는게 뭐예요? 돈이라면 달라는대로 다 안겨줄테니 나를 내려놔주세요!》

침묵만 지키며 곁에 앉아있던 사나이가 위압적으로 말했다.

《오자와라! 조용해!》

쌍드는 흠칠 놀라며 고개를 돌리다 굳어지였다. 금시 온몸이 얼어들었던것이다.

《왜 놀라는가? 오자와라 게이꼬, 당신을 알게 되여 반갑소.》

쌍드는 차례진 현실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오래간만에 불리우는 내 이름이군요. 어디로 데려가지요?》

사나이의 어조는 차겁지만 여유작작했다.

《일본의 재능있는 인재유인명수인데 잘 모실테니 념려마시오. 발레무용수시절엔 남자들을 유혹하는 기교를 곧잘 발휘하더니 이젠 나이가 들어 그 방법은 통하지 않던가. 넌 자기의 계획을 털어놓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고도 남겠지?》

쌍드는 자기의 면사포가 벗겨졌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름과 경력까지 다 알아내고 덮쳤으니 살려둘리 만무하다.

《그건 나한테선 지나가버린 과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 바친 육체였다고 할지…》

《흠흠,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할복!》

쌍드는 금시 추워난듯 어깨를 옹송그렸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앙증스럽게 욕을 해댔다.

개자식, 너도 사내가 옳으냐. 야밤에 미인을 덮쳐가지고 할복을 요구한단 말이냐, 피를 말려 죽여치워도 시원치 않을 녀석같으니.

《칼을 줘요, 그게 정 소원이라면 내 당신이 보는 앞에서 배를 가를테니…》

《괜찮아, 그 용기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쌍드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쓸쓸한 마음에 사로잡히며 자기를 돌아보았다.

젊은 시절에 유혹한 남자들은 대다수가 학계의 이름있는 사람들이였다. 잡종강세를 바라며 시도한 놀음에 청춘은 시들어버렸다. 하지만 오늘도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서상록의 딸을 일본으로 데려가는게 내가 하려는 일이지요.》

《구체적으로!》

《난 대상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서상록의 가정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 그 인물의 안해도 두뇌가 비상한 녀자로서 쓸모있다고 봤어요. 생물공학을 전공했거든요. 비록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학위 같은것은 받은게 없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모녀를 일본으로 옮겨놓으면 서상록을 인도하기는 어렵지 않은 문제거

든요. 내 씨나리오가 마음에 드는가요?》

《그럼 우리와 손을 잡을수 있지 않는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공생하자는거다.》

《마감에 가서 내 먹이를 가로채려는거겠지요?》

《서상록을 에쎈에서 떼내는게 우리 일이다. 다른 욕심은 없어.》

《그러니까 바클리씨와 이어진 사람들이군요. 호호, 기막혀서… 그 호색한은 에쎈구락부에 있어요.》

쌍드는 살길이 나지자 두려움도 잊고 말했다.

《바클리가 잘 도와줄거다. 꼬이든 짐짝으로 만들든 상록의 딸을 날라가야 한다. 우리는 그에 필요한 하나의 련결된 고리나 같다.》

샤멜의 얼굴이 그제야 처음으로 돌려졌다.

쌍드는 소름이 끼쳤다. 온몸으로 뱀이 휘감겨드는것만 같았던것이다.

《그러지요. … 그러지요. …》

서둘러 대답하는 녀자에게 랭혈동물같은 사나이의 두눈이 다가들었다.

《오자와라, 실패하면 칼을 받아야 한다.》

쌍드는 거의나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각오해요.》

24

주차장에 차를 세운 명현은 신문매대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매대주변은 사람들로 붐비였다. 신문을 사든 그는 지면들을 건성 보면서 다시 자기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때 꽃매대곁에 서있던 한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뒤따르더니 명현의 차 뒤좌석에 들어가 앉았다.

승용차는 주차장을 벗어나 대도로에 들어섰다. 테가 큰 색안경으로 얼굴을 가리운 사람이 등뒤에 앉아있지만 명현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물질분해의 명수가 탐정으로 둔갑한것 같구만.》

《난 전화를 걸면서도 자네가 이렇게 나타날줄은 기대하지 못했네.》

명현의 흥심없는 말에 응대하는 사람은 서상록이였다.

《모든것을 의심하는게 자네의 좌우명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병적인 심리야. 왜 숨어다녀야 할 신세라도 됐나? 아니면 어디로 도주행각이라도 할 차빈가?》

명현은 후사경에 자리잡은 상록의 얼굴을 피끗 쳐다보고나서는 쓰거운 웃음을 흘리였다.

어제 밤 호텔에 있는 그의 방으로 서상록이 전화를 걸어왔다. 반갑지는 않지만 만나야 할 인물이고 만나면 첫마디부터 욕설이 터져나올 대상이기에 지금도 성격을 살리지 않으려고 애쓰는것이다.

약속한 신문매대에서는 볼수 없던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뒤자리에 도사리고있다. 놀아대는 행실머리가 무슨 수를 쓰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지만 두고볼 심산으로 참고있다.

《정말 미안하네. 명현, 사실 지금 내 심리는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네.》

이상하게도 상록의 목소리에는 거만기가 없었다. 제노라 하는 사람이 체면을 줴버렸는가. 그럴리는 없다. 누구라구, 서상록인데…

《여보게, 복면같은 그 색안경이나 벗으라구. 등뒤에 마피아두목이 들어앉아있는것 같아 어디 차를 몰겠나.》

《아하, 내 이런 실수를 … 쫓기우구 덮치우는 신세가 됐으니…》

서상록의 맥빠진 중얼거림에 명현은 코웃음을 쳤다.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서상록박사를 몰라보겠나. 황제의 위용도 무색케 할 자넨데야.》

두무릎우에 손을 얹은 상록은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한채 안절부절하며 친구의 야유를 감수했다.

세상일은 두고봐야 한다는 말이 옳다. 앞에 앉은 사람이 연구한다는 경제학에 비난인들 얼마나 했는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맑스의 《자본론》이면 됐지 무엇을 더 연구한단 말인가. 걸출한 저작의 명제들을 로골적으로 표절하여 학위라는것을 받는 무리들이 정치와 경제를 론하면서부터 세상모양이 오늘에 이른것이 아닌가.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속에 자네도 들어있다는것을 알아야 해. …

어제날에는 박정을 넘어선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은 친구를 찾아 이렇게 도움을 청하자고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였다.

상록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거듭하고나서 결심한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자기의 실책을 인정한 심리였고 제손으로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종의 모순

된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탄 승용차는 정한 곳도 없이 도시의 이곳저곳으로 달리였다. 한번 간 길을 다시 밟는가 하면 오던 길로 되돌아서면서도 그침없이 질주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나?》

《나한테 묻는건가?》

명현은 여전히 시답지 않게 대답했다. 서상록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곳에 가서 자기의 심중을 터놓고싶지만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멀미가 나게 몰아대여 어지간히 지쳤다.

《하긴 내가 방황을 하는것 같네. 이 차처럼 말이네.》

《어디로 가고싶나? 내가 든 호텔방은 자네를 앉히기엔 너무도 초라해서 그러네.》

상록은 명현이가 지금 자기의 심중을 주도세밀하게 타진하고있다는것을 그제야 느꼈다. 자기가 방금 말한대로 그의 심리는 사실상 방황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만들어낸 거만한 성격이 의지하였던 모든것이 기우뚱거리여 심리의 균형을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

사람도 물질이다. 중심을 잃으면 쓰러질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물리적 현상은 극복할수 있지만 사유기관의 균형이 파괴되면 끝장이다. 경한 경우에라야 정신병치료를 받게 될것이다.

《명현, 사실 난 매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자가당착이랄지 자체모순이랄지… 도저히 정신적으로 지탱할 힘이…》

《조난신호를 보내는건가?》

《그… 아… 아마도 그 말이 적중한가보네.》

차를 멈춰세운 명현이 상반신을 돌리였다. 상록은 마주치는 눈길을 서둘러 피했다.

《상록, 오늘은 내가 자네의 마부가 돼주지.》

상록은 명현의 언어를 읽었다. 어디든 장소를 정하라는 말이다.

그는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친구가 데리고 가는 곳이라면 마다할 생각이 없었는데 갈 곳을 대라니 한동안 멍청이처럼 앉아있기만 했다.

《분부만 하십시오, 박사선생!》

서상록은 드디여 어서 가자고 손을 내저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명현은 등뒤에서 시키는대로 조향륜을 움직였다. 그들은 마침내 도시교외의 어느 한 계곡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린 상록은 지축지축 앞섰다. 숲속으로 난 오솔길을 지나니 눈앞에 골개수가 나타났다.

물가의 기슭에 주저앉은 서상록은 여기가 어딘가 하는 눈으로 둘러보았다.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골개수건너편에는 언젠가 본 뽀리가 드러난 떡갈나무가 위태롭게 서있었다. 이 작은 산골물에 오늘은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려고 온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마도 저 나무는 나의 운명을 암시하는것이리라.

《여긴 경치가 괜찮구만. 헌데 침울한 기분을 자아낸단 말이네. 나도 좀 앉을가.》

명현은 서상록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숨조차 쉬지 않는것 같던 서상록이 움씰거렸다.

《명현, 자넨 어데서 떠나 여기로 왔나?》

까다로운 서상록의 말버릇이 살아나고있다는것을 느낀 명현은 하늘을 치받아보며 코투레질 같은 소리를 냈다.

《그런걸 다 알고싶다니 의심스러운걸.》

《의심하는건 내 속성이네.》

《그러니 변태적이라고 할수밖에…》

《대답해주게나.》

《난 산소부족증이 생길 때마다 찾는 곳이 있네. 어딘가구? 평양이네.》

눈에 뜨이게 어깨를 떨어댄 상록은 발밑에 놓인 크지 않은 돌을 차서 물속에 떨구었다. 심리에서 새로운 파동이 생긴것이 알리였다.

《거기엔 누가 있나?》

명현은 모를 박아 대답했다.

《겨레가 있지. 우리 겨레가…》

서상록의 눈길이 그제야 돌려졌다. 눈동자는 회의의 안개를 밀어내느라고 애썼다. 이전에 마주할 때와 같은 자신심을 찾아볼수 없었다.

그는 무엇을 긍정하는지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참아오던것을 토설했다.

지그프리트가 어떤 사람인가. 경제학의 술어를 빈다면 독점자본의 거두이다. 그런 인간인데도 평양을 찾아가서는 자기 동생을 찾아줄것을 청원했다. 그 동생이란 또 어떤 인간인가. 침략군의 고용병이였다.

하지만 지그프리트는 그런 동생을 찾았다. 아니, 명현이 말하는 평양에서 사는 겨레들이 찾아주었다. 이것이 인도주의일진대 그와 같은 자비가 나한테만은 차례지지 않는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싶다. 어머니의 품에 한번만 안겨볼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나한테는 자비도, 행운도 고개를 돌린채 외면하고있다.

명현은 서상록의 넉두리를 들으며 기가 막히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것을 겨우 참았다.

얼마나 무지편벽한 인간인가. 사람이란 이 모양, 이 꼴로도 되는것이다. 과학탐구에서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는 두뇌를 가졌다지만 세상리치에는 소경이나 다를바없고 무엇이나 다 할수 있다는 자만이 정신적발육부진을 초래한것이다.

《도대체 명현이 자네가 입에 올리는 겨레란 누구이고 민족이란 어떤것인가?》

서상록은 병적으로 소리쳐 물었다.

《닥쳐라! 이 어리석은 놈아!》

자리를 차고 일어선 명현이 발을 굴러대서야 서상록의 벌린 입이 굳어지고말았다.

《너는 그 입으로 어머니를 찾지 말라! 어머니라는 이름이 더럽혀진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분들인지 너는 알기나 하느냐?》

명현의 부르짖음은 추상같았다. 그는 자기가 이처럼 흥분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자기앞에 있는가.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지없이 측은해나기도 했다.

이런 자식을 기다리며 백발이 된 어머니도 있을텐가. 병신자식도 탓하지 않는 그 마음을 어찌 헤아리랴.

추연한 눈길을 든 명현은 여기로 오면서 서상록을 만나면 해주려던 유복남의 가슴아픈 인생사연을 떠올리였다.

먼곳에 있는 그 고결한 녀인이 지금 두사람곁으로 다가오고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젖먹이나 같은 어린 딸을 이웃에 맡기고 산에 올라 인민유격대에서 작식대일을 하면서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았으며 피와 살도 바쳐 부상병들을 희생적으로 구원해내고 따뜻이 돌봐주어 《우리 어머니》로 불리운 유복남이다.

전후 농업협동화시기였는데 어느날 밤 유복남을 만나려고 조합세포위원장이 그의 집에 찾아왔었다.

그들은 인민유격대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이라고 해야 할 사이였다. 한동안 아무말없이 부시럭대며 담배쌈지를 꺼내여 한대 말아문 세포위원장은 할 말을 고르는지 침묵할뿐이였다.

한참이나 동안을 두었다가 세포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복남동무, 내 나이도 어지간히 웃사람인데 이제 하는 말을 새겨들어주오.》

《어서 해요.》

《그 사람은 전쟁통에 처자를 다 잃은 사람이요.》

《세우물관리위원장말인가요?》

녀자켠에서 빨리도 되묻는 바람에 위원장은 머리만 끄덕댔다.

《중매를 서자구요?》

《나이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중매는 무슨 중매… 사람은 진국이네. 다같이 홀몸이니 의지해서 살면 좀 좋은가.》

《내가 남편이 있는 녀자라는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녀자의 성미를 아는지라 세포위원장은 진정하라고 손을 흔들면서 허거프게 웃었다.

《고집도 여간이여야지, 허허. 복남이, 그 사람은 일이 생겼다니까. 올것 같으면 전쟁때 나타나지 않았겠나. 생사를 모르면서 한정없이 기다릴 수야 없지 않은가 말이네. 임자두 나이가 있질 않은가. 첫물오이도 아닌데 너무 외로 돌아앉지만 말라구.》

유복남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눈길을 들어올렸다.

《내가 왜 자기를 모르겠나요. 정말 고마와요. 생각해주는 마음이 말이예요.》

《그러지 말게. 이젠 전쟁도 끝났는데 동무 같은 사람들도 이젠 마음속의 불행을 가시고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나.》

얼마나 진정에 넘친 말인가. 외로운 녀자를 이토록 헤아려주는 마음이 곁에서 지켜주는데야 무슨 걱정이랴 하는 심정이 가슴을 한껏 달구었다.

《세포위원장동무, 난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걸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이 어디서 시작된것인지도 알게 됐구 나처럼 아픈 가슴을 안고 사는 녀자들이 얼마나 많으랴 하는 생각도 했어요. 기다리겠어요. 남

편과 아들을… 기다리다 돌로 굳어질지라도 그 사람과 한 언약을 지킬터예요. … 내가 기다린다는것을 알고 꼭 돌아올거예요. 내가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옵니다. 난 우리 집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 어질어빠진 사람은 오늘도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어디선가 헤맬겁니다. 그 정상을 생각하면… 세포위원장동무, 다시는 나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할테니 념려마세요. 믿어주세요.》

유복남의 진정을 들은 세포위원장은 눈시울을 슴벅이며 머리를 흔들었다.

《복남인 쉽지 않은 녀잘세.》

《기다리겠어요. 이 머리 파뿌리가 되는 날까지…》

유복남은 그날 밤 동구밖에서 새날을 맞았다. …

하지만 그는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였다. 점차 나이가 들고 손에서 일을 놓을 때가 되면서부터 유복남은 집에서 많은 염소와 양을 기르기 시작했다.

늙은 몸에 힘들가봐 다들 걱정했지만 그런 념려는 말라는듯 걸차게 짐승들을 길러 젖과 고기는 농장의 탁아소, 유치원과 주변의 인민군구분대들에 보내주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짐승먹이를 마련하려고 모진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고 병들어 자리에 누우면 제 몸보다도 짐승들의 걱정을 더했다. 그 후 더운 정에 온 마을 어린이들의 할머니로 떠받들렸고 그의 집은 밤낮이 따로없이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강직하고 대바른 이 녀인앞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언제인가 농사일을 하찮게 여기며 마을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화려한 도회지생활만 꿈꾸던 몇몇 처녀들이 그에게 되게 혼쭐이 난적도 있었다.

그는 울며 용서를 비는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향을 버린 사람은 조국도 버리게 되지.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고 육신이야. 행복만을 안고 그 행복에만 도취되여있으면 너희들의 미래는 불행해져. 너흰 부모형제들과 같이 있고 나라의 은정속에 복만 누려왔으니 진짜 행복이란게 뭔지 아마 다는 모를거다.》

이때 눈길을 들어 먼산너머 남쪽을 바라보는 유복남의 마음속으로 피눈물이 흐르고있는줄 누구도 알수 없었다.

나라에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여러차례 국가수훈과 애국자

라는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었으며 신문과 방송으로도 널리 소개해주도록 하였다. …

먼곳으로 흘러갔던 상념을 돌려세운 명현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는 웅크리고 앉은 서상록을 굽어보았다.

《내 조국엔 이런 어머니도 있네. 그래 한생을 어떻게 살아오신 어머니들인데 엉석을 부리려드는건가?! 자네 같은 인간들이 이런 훌륭한 어머니들을 울린다는걸 알기나 하나?!》

서상록은 온몸을 떨며 고개를 무릎에 박았다. 애절한 통탄이 흘러나왔다.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면 얼마나 좋겠나. …》

속죄란 인간의 고통중의 고통이다.

명현은 서상록이라는 인간의 체내에 뉘우침이 남아있다는것을 보고있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인가!

그는 친구의 옆에 붙어앉으며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어머님이 생존해계실가?》

서상록은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였다.

《그러길 바라네. … 안 계신다면 이놈의 불효를 누가 씻어줄텐가.》

《어머님의 성함을 어떻게 불렀나? 고향은 어디구?》

서상록의 대답은 기가 막히게 했다. 외양녀라는 이름이나 겨우 알뿐 성씨도 고향도 모르고있었다.

명현은 자기가 조국을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것을 이야기했다. 해방전 녀자들을 천시하던 세월에는 밭김을 매다가 낳아서 고랑녀였고 부엌에서 해산하여 본 딸에게는 부엌녀라는 이름을 붙였다. 남녀평등권이 나라의 법으로 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일은 있을수조차 없다.

《어머니도 이름을 고쳐지었을거네.》

《그래도 찾는 일은 막막하구만.》

《희망을 가져야지.》

《어떻게?》

명현은 며칠후에 조국을 방문하는 한 동포기업가가 있는데 자기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가 평양에 가서 의뢰하도록 부탁하겠다고 했다.

숲을 흔들며 한줄기 바람이 시원스럽게 불어왔다.

《서상록선생!》

느닷없이 엄숙한 목소리로 찾는 명현으로 하여 상록은 일순 굳어졌다. 친구의 눈빛이 두려움을 주는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의미를 띠고 안겨왔다. 매우 심중한 말을 고르고있다는게 알렸다.

《자, 일어서라구.》

명현은 상록의 손을 억세게 잡고 움쭉 몸을 솟구쳤다. 순간 그들의 시야에서는 모든것이 내려다보였다.

《나의 민족, 위대한 우리의 조국을 잊지 말자구!》

상록은 명현의 말을 들으면서 숨이 막히는감을 느꼈다. 그것은 심장이 주는 충격이였다. 민족과 조국이라는 인식이 의식속에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고있었던것이다.

명현은 걸음을 내짚으며 말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다. 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오늘 어떻게 살고있는가.

지배와 예속의 야망이 광란하는 세계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나라도 민족도 끝장이 난다는것을 우리는 현실로 보고있다. 합법적인 정부가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민족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류혈적인 싸움을 벌린다. 패권다툼으로 지구의 시간이 흘러가고 피난민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품이 없는탓에 기아와 병마로 죽어가고있다.

력사의 이 소용돌이속에서 온갖 도전들과 난관들을 짓부시며 자주의 존엄높이 나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국이다. 그 어떤 봉쇄와 압살책동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세계를 경탄케 하는 나라가 우리의 위대한 조국이다.

나는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며 세상에 대고 소리쳐 말하고싶다.

《상록, 알아야 하네. 자네와 같은 과학자들이 지금 자기의 민족을 위해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말이네. 우리의 조국엔 진정 존경을 받아야 할 과학인재들이 많다네. 그들을 재사로 내세우며 장중보옥같이 귀해하지. 민족의 과학자, 인민의 과학자라는 고귀한 이름을 간직하고 그들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초석이 되고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한몸바치고있네. 조국과 민족의 존엄속에 자기들의 영예도 빛난다는것을 인생의 철리로 간직했거던. 정말 참된 인간들이야.》

서상록은 명현에게 의지하여 걸었다. 의식의 균렬은 더 심하게 진행되고있었다. 그것은 자기가 만족하게 구축해온 정신적지반이였다.

25

21세기가 손저어 부른다. 하지만 《자유화》라는 미명하에 지구의 곳곳에서는 인간개성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엄청난 범죄세계를 향해 정신없이 질주하는것이 일종의 류행처럼 범람하고있다. 주문살인이 하나의 정교한 직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벌거벗은 녀인들이 백주에 네거리에서 광란적인 파도를 일으킬 때 극단주의테로조직들은 《정의》를 웨치며 은행의 금고를 털어내는 정도를 벗어나 합법적인 정부를 허물어뜨릴 폭력적 음모를 실현하는 단계에 서슴지 않고 들어서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개성의 자유》에 도취될대로 도취되고 기만당할대로 기만당한 사람들이 두손을 높이 쳐들고 열광적으로 환호한 《자유화》 혹은 《세계화》라는 활극으로서 미국식《자유민주주의》가 빚어놓은것이다.

바클리야말로 자기의 말을 빈다면 현세기의 모델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산아로 불러야 할 인물이였다. 유감스러운것은 이 비반복적인 개성의 소유자가 요즘 와서 천재적인 두뇌가 마비증상을 일으키는지 자기앞에 들이닥친 현실조차 가려보기 힘들어 머리를 싸쥐고 끙끙 앓음소리를 내기까지 하는것이였다.

《바클리씨, 내가 그립지 않은가요? 만나요, 그 집에서…》

쌍드의 고운 목소리가 뜻밖의 노래처럼 들려왔을 때 온몸을 부르르 떨어댄 바클리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서 뒤통수를 얻어맞았는데 욕망을 잠재울 길 없는 녀자가 그 집으로 자기를 부르고있으니 아무리 비상한 판단능력을 소유했다는 바클리지만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련이어 상전의 짤막한 지령이 하달되였다.

《쌍드와의 성공적인 협조를 바란다.》

바클리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아연해났다. 상전의 변화무쌍한 태도때문이였다. 등을 두드려주며 부추기고는 뒤에서 놀아대는 꼬락서니를 봐주겠다는 말같이 여겨졌지만 시키는대로 움직일수밖에 없는 자기라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 그였다.

바클리는 쌍드라는 녀자가 이미 샤멜의 수중에 들어왔다는것을 의심치

앉았다. 그러니 동업자가 되였다는 소리가 아닌가.

재빛수염쟁이는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턱을 쳐들며 웃어댔다. 사교계의 녀왕처럼 흔들대던 어제날의 발레무용수가 자기와 같은 폭력배가 되였다는것이 희한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깨고소하기까지 했던것이다.

이봐, 쌍드. 우리와 같은 직업에 종사해보면 흥미가 있을거야. 네 얼굴에 복면을 씌우면 아름다움은 자취를 감출것이며 손에 칼을 쥐여주면 활극영화의 녀자깡패와 다를게 없다는걸 알아야지. 나하구 손을 잡는건 물론 더 바랄것 없는 행운이야. 그래서 나를 그 집에 불렀단 말이지? 기회는 내가 마련할것이다.

이러루한 제 생각에 매달려있던 바클리는 쌍드를 호출할 마음을 먹고 손전화기를 꺼내들었다.

쇼뻥의 음악세계는 얼마나 황홀한것인가. 은은한 달빛이 계곡으로 흘러드는 밤풍경이 눈앞으로 다가서는것만 같다. 어디선가 내물이 지절거리고 가는 나무가지 작은 잎새를 스치며 새들이 깃을 치고 고운 소리로 간단없이 흐느껴운다. 소슬바람에 몸을 내맡기고 숲이 설레이며 환희로운 노래를 부른다. 악기들의 조화로운 화성, 잘 째인 아름다운 선률은 빠르고 느리게 전개되는가 하면 반복수법으로 깊은 여운을 조성한다.

플류트가 부드럽고 우아한 음률을 담당하고 첼로의 현들이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야상곡이 흐르는 속에 앉은 상록은 상념에 잠겨있었다.

그의 심중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있었다. 명현이가 한 말이 가슴복판으로 흐르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네의 마음을 알게 되여 나도 기쁘네. 날로 이 질화되여가는 혼탁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들을 잃어가고있네. 한마디로 정신적기형아로 돼가고있지. 원인은 정신적지탱점이 없기때문일세. 민족과 조국, 이것만이 개개 인간들의 넋을 지켜줄수 있다는걸 명심하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가. 눈앞에 있는 진정한 친구는 보려고도 하지 않고 바클리 같은 인간에게 흥정당하면서 오리무중에서 헤매였던것이다.

그는 지금 자기의 몽매한 사고가 어디서 시작되였는가를 생각하고있다. 야상곡의 선률속으로 금관악기가 조용히 들어서며 물보라같은 음향을 울려줄 때 그의 망막속으로는 어린시절의 추억이 모기불연기처럼 피

여올랐다.

열대림속의 강줄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야생말떼의 울음소리, 하늘에서 내려쪼이는 뜨거운 해빛을 받으며 어린 몸은 물속에 잠겨있었다. 아버지의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이 잔등을 밀어주었다.

《여기 강물은 맑아있는 날이 없구나. 우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가자. 네 엄마가 있는 곳으로…》

어린 마음은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아버지의 말을 듣고있었다.

유럽에서 건너온 기업주들이 아버지의 음식솜씨가 마음에 들어 농장주와 계약을 했다는것이였다. 그들은 이주민일뿐 노예의 후손은 아니였다. 그러나 농노와 다를바없이 다시 흥정을 당하며 머나먼 어디론가로 가야한다는것만은 알수 있었다. 아버지가 야속한가 하면 어머니가 못견디게 그리워났다. 엄마품에 한번만이라도 안겨봤으면…

가슴속에 잠들지 못하고있던 소원을 종시 이룰지도 모른다는 감정에 휩싸여있는데 불쑥 문이 열리며 싼타나가 들어섰다.

음악을 감상하고있는 상록을 본 녀자는 놀라와하는 기색을 드러내보였다. 상록에게서는 이채로운 생활을 보게 되는것이기때문인듯싶었다. 방해가 되지 않나 하여 주저하는 싼타나에게 상록은 물었다.

《무슨 일이요?》

싼타나는 약간 다급해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불찰입니다. 자리를 비우다나니… 지연이가 말도 없이 외출을 했습니다.》

상록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방금전까지 잠겨있던 감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던것이다.

싼타나의 얼굴에는 매우 긴장한 빛이 어려있었다. 이것도 이 녀자에게서는 찾아보기 드문 표정인것이다.

문득 예감의 충동을 받은 상록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깃들고있었다.

《그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오?》

《어머니가 만나자고 해서 나갔군요. 국립도서관 앞거리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다고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안해가 찾았다니 마음은 놓이지만 날이 어두워서 혼자 돌아올 딸이 걱정되였다. 아직도 불안을 지울수 없게 하는 철부지다. 전번날 산책을 갈

이하면서 하던 말이 생각나자 상록은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났다.

《싼타나, 차를 준비시켜주오. 아무래도 찾아가봐야겠소.》

《그러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걱정하는 딸은 그 시각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정동녀는 딸의 소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흘러내린 앞머리를 훔쳐서 넘겨주었다. 론문을 마감하는 자식에게 온전한 끼식도 마련해주지 못한것이 속에 걸려있는 그였다.

《엄마, 걱정말아요. 난 아무런 불편도 없다니까. 지도교원선생이 엄하긴 하지만 다심하기도 해요. 어떤 날에는 자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기도 하거든요.》

《고마운분이구나.》

지연이가 할깃 눈을 치켜올렸다. 어머니의 잔주름이 많아지는 눈가를 바라보니 마음이 짜릿이 아파났다.

얼마나 아름다왔던 얼굴인가. 그중에서도 눈만은 정말 매력있다고 여겨왔는데 이젠 나이와 함께 아름다움도 사라지는것을 볼수 있었던것이다.

《엄마, 한번 웃어봐요. 시름에 아예 늙어버리고말겠네.》

정동녀는 딸의 부질없는 소리에 어이없어 웃으며 말했다.

《그래그래, 나도 늙는다. 허허,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이 있다더냐.》

딸은 두손을 마주잡으며 경탄 같은것을 터쳤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예요. 야, 아직은 정말 곱다. 엄마눈이 말이야. 나한텐 그걸 절반도 넘겨주지 않았어. 엄마의 얼굴에서 주되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건 선명성이예요.》

《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아무렴 우리 지연이한테 비길가. 난 그저 네 얼굴처럼 마음도 곱게 지키기만 바란다.》

어머니의 진정이 딸의 마음을 따뜻이 덥혀주었다.

지연은 어머니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인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것이다. 그렇지만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세계에는 악덕이 살판친다는것도 잘 알고있는 처녀였다. 위선과 기만, 부패와 탐욕은 어디에나 차넘친다.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은 하나의 동경에 불과한것으로 되여버린지 오랬다.

《엄만 쌍드를 만나군 하나요?》

정동녀는 딸의 느닷없는 물음에 의아해났다. 말투부터가 달라진것이 알렸다. 늘 이모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남처럼 대하는것 같았던것이다.

《얼마전에 얼핏 만나본게 전부다. 왜?》

《그저 해본 소리예요. 난 말이예요. 요즘 와서는 나의 주위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다니는것 같기도 하고…》

지연의 말에 정동녀는 눈을 가늘게 쪼프리며 한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이상하게도 속이 떨려났던것이다. 그것이 무엇에 기인된것인지 알수 없는 심리적불안이였다.

《뭘 말하자는거냐. 철부지나 같은 너를 누가? 어쨌든 정신은 바싹 차려야 한다. 한걸음을 옮겨도…》

《난 차사고를 당한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누가 사고가 나도록 조작했을수도 있다는거예요.》

정동녀의 눈은 더욱 커졌다. 딸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다 상상해보자니 끔찍한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하기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세상이다. 남을 해치는것쯤은 어렵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철부지나 다름없는 내 딸을 노리고 사고를 조작할수야 없지 않은가.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존재하는것이다. 그 원인이 목적이 아닐가. 무엇을 바라고 내 딸을 해치려 하겠는가.

그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런 무서운 생각은 하지 말아. 요즘 젊은것들은 보고 듣는것이 렵기적인것이여서 모험심만 키운다니까. 이건 너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다. 듣고있니?》

어머니의 다짐같은 물음앞에 대답하려던 지연은 무슨 영문인지 자리에서 발딱 일어서며 너무도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통에 정동녀까지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다 한손으로 입을 막았다.

음식점 출입문가에 남편이 낯선 녀자와 나란히 서있었던것이다.

《어쩌니, 엄마! 선생님이예요. 승인도 안 받고 나왔는데…》

정동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궁리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딸의 론문지도교원에게 인사를 해야겠지만 옆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낯색이 시퍼래서 서있으니 단 둘이 만날 때처럼 맵짜게 굴수도 없었다. 그런데다 딸을

꼬여낸것만 같은 죄책감까지 겹쳐들었던것이다.

싼타나가 교단으로 올라설 때와 같은 자세로 모녀에게 다가와서 정동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례의를 표시하자 두사람은 얼어붙고말았다.

《즐거운 자리에 이렇게 나타나 방해하는것을 량해하십시오. 제가 지연의 론문지도교원입니다. 책임감에 쫓기다나니 그렇게 된겁니다.》

정동녀는 싼타나의 정중한 태도앞에 어쩔바를 모르며 고개를 숙였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애를 본지가 오래서 그만…》

그들곁으로 상록도 다가왔다. 식사를 다한 식탁을 내려다보며 심드렁한 어조로 말했다.

《놀라지 마오. 실은 지연이가 밤늦게 혼자서 다니는게 걱정돼서 왔을뿐이요.》

정동녀의 안색에는 불안이 떠올랐다. 딸의 말을 들으며 한 걱정이 남편의 이야기에서 다시금 환기되였던것이다. 자기 딸의 신상에 어떤 위험이 뒤따른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는 그였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알고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타날수 없다.

여기까지 생각한 정동녀는 다급하게 물었다.

《말해요. 애한테 일이 생겼지요?》

지연은 얼른 어머니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싼타나의 눈길이 두려워 고개를 여전히 숙인채로다.

《엄만 공연한 걱정을…》

싼타나가 음식점안을 둘러보고나서 말했다.

《지연이의 론문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요. 다만 지구성이 좀 부족합니다.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답니다. 이건 믿으세요.》

정동녀는 다시한번 인사를 했다.

《자, 이젠 가기요. 이쯤하고 말이요. 당신이 타고 갈 택시는 불렀소.》

이전 같았으면 여지없이 거절해버렸을 남편의 호의지만 싼타나앞인지라 그럴수 없어 정동녀는 상록에게 원망서린 눈길만 보냈다.

정동녀를 태운 택시가 떠나자 싼타나는 어둠이 드리운 거리를 예리한 눈으로 둘러보는것이였다. 지연은 이미 차에 올라있었다.

《저 사람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담배를 피우면서 공연히 서성대는게 이상하지 않아요. 슬금슬금 우리쪽을 노려보는것이 느껴지지 않

습니까?》

곁에 선 싼타나가 얼핏 고개짓으로 가리키는 곳에서 두명의 사나이가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리는것이 눈에 띄였다.

《우리가 차에 오르면 저 사람들도 분명 옆에 세워놓은 택시에 올라탈 겁니다. 택시라는것도 유령차일건 뻔합니다.》

상록은 싼타나의 말을 들으며 차를 타려다가 다시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닐세라 두사람은 어물거리던것과는 달리 날랜 동작으로 차에 오르는것이였다. 이런 감시와 미행이 어제오늘 시작된것이 아니라는것을 상록은 알고있었다. 그래서 명현과도 류다른 방법으로 만났던것이다.

차가 떠나기 바쁘게 뒤따르는 차를 보며 상록이 뭔가 말하려 하자 싼타나는 지연이가 있기에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 우리가 약속한 질서를 지켜야 해요.》

그러자 지연은 공손히 대답했다.

《어머니가 보고싶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셨기에…》

상록은 딸의 변명을 들으면서도 뒤차창에 고개를 돌린채 따라오는 차를 노려보았다. 속에서 분기가 치밀어올랐던것이다.

자연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인간세계도 먹이사슬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이 서상록쯤은 어렵지 않게 사냥대상으로 여기고있는것이 분명하다. 노엽다고 하기에는 자신이 혐오스러워났다. 강한자만이 생존할수 있다는 리치는 이미 알려져있건만 자기로서는 너무도 늦게야 깨닫고있었기 때문이였다.

웰헬름거리—121번지의 잊을수 없는 그 집으로 바클리를 꼬여내려던 계교가 실패하자 쌍드는 은근히 마음을 조였다. 재빛수염쟁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요즘은 에쎈구락부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한번 쓴맛을 봤으니 단단히 골탕을 먹이려고 무슨 놀음을 준비하고있는것이 뻔했다. 흉물스러운 사내의 눈길이 자기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따라다닐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것을 맛보게 되였다. 그는 지금 이와나미라는 일본남자를 만나려고 약속한 장소로 가고있었다.

도시에는 어둠이 깃들고 인적도 드물어지는 시간이였다. 쌍드는 자기의 일이 생각한대로 되여가지 않는것으로 마음은 저으기 불안했다. 지연을 미끼로 큰 고기인 상록도 낚고 정동녀까지 그물에 밀어넣고는 지금까

지 해온 일도 마감지으려고 결심했지만 뜻대로 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인재유인에서 세련된 솜씨를 보여온 자기였건만 서상록의 집안과 부닥쳐서는 어려운 처지에 빠져든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이제 와서는 바클리라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했고 유령단체의 지령을 집행하지 않을수 없는 지경에 이른것이다. 유혹을 물리칠수 없게 한 서상록이라는 인간이 지금에 와서는 저으기 불안스럽다. 지나친 욕심을 부렸는가. 어떻게 되여 조선사람을 선택했는지 후회가 갈마들기도 했다. 일본은 과거에나 오늘에나 조선에 눈독을 들여왔고 도적질, 해적질을 하다못해 침탈도 서슴지 않았다. 한것은 지혜와 재능에 있어서 조선사람들을 당할 힘이 모자랐기때문이다.

쌍드ㅡ오자와라 게이꼬로서는 시샘을 넘어선 악의와 증오가 가슴에 꽉 들어차는것을 느끼면서도 대상물은 놓칠수 없기에 욕심을 부리고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번 일만은 잘되여주기를 빌며 어둠이 깃든 거리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방조자인 이와나미는 지금 조용한 강가에서 기다리고있을것이다. 그에게 자기의 신상에서 벌어진 일을 알려야 했다. 샤멜의 수중에 들었다고 해야 할 지금의 형편에서는 도움이 필요했던것이다.

유보도의 층계를 내려선 쌍드는 약속한 곳을 바라보았다. 공원등을 등진 긴 나무걸상에 한사람이 앉아있었다. 눌러쓴 모자와 팔짱을 낀 모습은 틀림없이 이와나미였다. 기다리고있었을것이다.

사나이의 곁으로 다가간 그는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한숨을 내쉬였다.

《내가 좀 늦었지요? 그럴만한 일이 생겼어요.》

마음놓고 한 말인데 상대방의 대답이 쌍드를 놀라게 했다.

《알고있소.》

《알고있다니? 어떻게 무엇을…》

놀란 반문을 하기 바쁘게 사나이의 눌러쓴 모자채양이 들리우자 쌍드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다. 바클리였던것이다. 웰헬름거리의 집에서 당했던 일이 반복되기에 눈앞이 아찔해나기까지 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얼마나 좋소. 강가의 이 고요가 말이요.》

마치 시인이라도 된듯 바클리는 감성적인 언어를 유감없이 구사했다.

《모를 일인데요. 여기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쌍드는 얼이 나가서 말꼬리를 삼키며 중얼댔다.

《모를게 뭐가 있소. 쌍드, 아니 오자와라 게이꼬. 흐흐, 당신의 개인정보는 우리 수중에 들어있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다는걸 알아야 해. 이와나미의 방조는 더욱 필요없다는걸 명심해야 한다는거요.》

쌍드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꼭 틀어쥐였다.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며 아픔을 자아내지만 그보다는 자기의 처지가 억울하여 몸서리만 쳐댔다.

바클리는 손을 내밀어 쌍드의 턱을 받쳐들고는 주의깊게 살피였다.

《오자와라, 역시 당신은 흥미있는 녀성이요. 어떻게 그런 고급한 일에 종사하게 되였는지 모르겠거던.》

《운명이라는게 있지 않나요. 조선사람들을 탐낸게 실수인가봐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확실히 좋아요. 나와 당신들을 다 합친대도 못 따를거예요.》

쌍드는 제정신없이 말하고있었다.

《그럴수밖에. 당신은 씨종자를 남기지 말았어야 할 녀자고 난 이미전에 거세당했어야 할 수놈에 불과하단 말이요. 같고같은 폐물단지들이거던.》

로골적인 모욕이지만 말하는 남자가 자기까지 포함시키기에 쌍드는 머리까지 끄덕거렸다. 그것은 부정할수 없는 진실이기도 했다. 자기를 두고 누가 녀자라고 하겠는가. 녀성의 자격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던것이다.

26

상록의 앞에 선 집사는 어떤 분부를 내릴가 하여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응접탁우에는 크기는 작아도 최신형록음기가 놓여있다. 상록은 고개를 수굿한채 집사는 쳐다보지도 않으며 자기 생각에 잠겨 눈을 감고있는데 언제 입을 열지 알 도리가 없다.

《주인님, 피곤하시면 물러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상록은 지겨워하는 집사에게 손을 흔들어대고는 록음기의 스위치를 넣었다. 가벼운 시동음향이 울리더니 어떤 남자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울려나왔다.

《형님은 정말 멋진 재주를 가지고있단 말입니다. 흐흐, 우리 주인이라는 황색종자는 린색한 녀석입니다. 돈은 많은 놈인데 집지기들인 우리한

테 줴주는걸 보면 눈이 감깁지요.》

상록이 눈길을 들어 바라보며 무언으로 누군가고 묻자 집사는 현훈이 들이닥쳐 한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비칠거려댔다. 자기가 바클리에게 해댄 수작질이 어떻게 되여 저 록음기에서 울려나오는지 알수 없어 미쳐버릴듯 신음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록음기에서는 술잔이 부딪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나왔다.

《흐흐흐, 이런걸 두고 신사적인 도적질이라고 하거던. 어떤가?》

《히히, 우리 주인녀석의 주머닐 말끔히 털어내십쇼. 히히. 그리구 내 손에도 푼푼히 쥐여주구요.》

《그래그래, 대신 넌 네 주인을 잘 돌보면서 요긴한건 제때에 알려야 해.》

《여부가 있습니까요. 그녀석이 주는 로임우에 형님이 덧돈을 놔주기만 하면야 나도 그런대로 살아가지요.》

상록이가 록음기의 스위치를 끄자 집사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앉으며 《용서하십시오, 주인님.》 하고 우는소리를 냈다.

《이건 너의 넥타이핀이다. 소중히 간수하라구.》

집사가 절망적인 눈을 쳐들고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그 핀이라는건 주인이 선물로 준것이다. 어디 나갈 때는 옷차림에 관심을 돌리라며 친절하게 배려한 물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던것이다.

《바클리한테서 보수는 넉넉히 받겠지?》

집사는 황황히 두손을 내흔들었다.

《말도 마십시오. 술이나 한잔 먹이는게 전붑니다. 그게 어떤 흉물이라구…》

《됐다. 너는 오늘중으로 내 집에서 나가야 한다.》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죽을죄를 졌습니다.》

《바클리를 만나면 말해주라. 나하구 더이상 흥정할 생각은 말라구. 알겠어?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놀음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면 후회해도 늦는다고 말이다. 이젠 가보라.》

상록이 손을 내젓자 집사는 기력이 다 빠져달아난 사람처럼 간신히 일어나더니 후줄근해져서 물러갔다. 바클리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일자리를 잃어버린것이다. 어디 가서 이 집에서처럼 건달을 부리며 배불리 살렌가. 기막힌 일을 저질렀지만 후회해도 때가 늦었던것이다.

27

승용차들의 행렬뒤로 화려한 유개를 씌운 쌍두마차가 위용을 떨치며 지나간다. 활짝 열어제낀 마차의 창문옆에 앉은 어느 귀족의 후예인듯 한 유한마담이 길가는 사람들을 흥미있게 바라본다. 바람 한점 없는 거리로 각양각색의 차림을 한 사람들이 흘러가고있다.

그속에서 눈길을 끄는것은 연갈색 짧은 치마에 눈같이 흰 양복을 몸에 꼭 맞게 입은 늘씬한 몸매를 가진 녀자다. 한손에 양산을 들고 탄력이 넘쳐나는 걸음을 옮기는 미모의 그 녀성은 오자와라 게이꼬였다. 그뒤로는 두세걸음간격을 두고 얼굴에 검은색베일을 둘러 눈만 내놓은 이슬람교계녀성이 천천히 따라선다.

《비스마르크》라는 이름을 단 호텔앞에 멎어선 오자와라는 주위를 살폈다. 미행이 없는가를 확인하는것이다. 뒤따르던 복면을 한것 같은 녀인이 어깨를 건드려대기에 오자와라는 무례함에 이마살을 찌프렸다.

《어서 걸어, 쌍드.》

베일을 쓴 녀인이 위압적인 어조로 요구하자 오자와라는 이건 또 어떤 년이야 하는 기분을 앞세우며 반응했다.

《사람을 잘못 본게 아니예요?》

《앞서라면 앞서! 대답질할 생각은 말구…》

《기막혀라. 내가 어데로 가는지 어떻게 알구 앞서라고 하는가 말이예요.》

《비스마르크호텔, 9층 11호실!》

오자와라의 낯색이 금시 변하며 자기뒤에 선 녀자를 뜯어보려 하지만 날카로운 눈길만 찌를듯이 다가들었다.

이 녀자는 누군가. 어떻게 내가 만나려는 사람이 있는 장소를 정확히 알고있는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았지만 때는 늦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좋아요, 그런데 후회하지는 말아요.》

베일을 두른 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며 호텔의 출입문을 지나 오자와라와 함께 승강기에 올랐다. 두사람뿐이기에 다시 물어보았다.

《누구예요? 꽤 담이 크군요.》

《넌 상대가 안돼.》

《흥, 범의 굴을 찾아가는데두…》

《범은 무슨 범, 너의 시라소니를 만나보자는거다.》

9층에 이르러 승강기에서 내린 오자와라를 앞세운 녀인이 희미한 벽등의 조명때문에 좀 어두워보이는 복도를 따라가다가 11호실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어서 들어가자. 네 상전은 시간을 어기는걸 제일 싫어한다.》

어깨를 으쓱해보인 오자와라가 《정말 모르는게 없는걸.》 하는 말을 내뱉고는 방문을 열어주며 《청하지 않은 손님이지만 먼저 들어가세요.》 하고 《친절》하게 말했다.

감색문발로 창문을 가리워놓아 방안은 한낮인데도 밤처럼 느껴졌다.

긴 안락의자에 다리를 엇걸고 앉은 사나이의 얼굴은 마치도 죽은 사람처럼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두눈이 맹수의 그것처럼 파란빛을 내뿜었다. 베일을 두른 녀자는 침착하면서도 도고한 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안녕한가요?》

《누군가? 이 녀자는…》

굳어진 자세로 사나이는 오자와라를 향해 사납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를 미행했고 강박까지 하지 않겠어요. 앞서라면서…》

오자와라가 제편에서 손가락질까지 하자 녀인은 베일을 거두며 자기를 드러냈다. 싼타나였다.

권하지도 않는데 태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그는 오자와라 같은것은 보려고도 안하며 사나이에게만 시선을 준채 말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드리지요.》

오자와라가 제꺽 대답해치웠다.

《서상록의 조수예요.》

《입 다물어. 내 너에게 이미전에 경고를 했지? 헛된 욕망을 버리라구. 나는 에쎈의 특사자격으로 당신을 만나려고 왔어요. 이거면 나의 신분을 밝힌셈이지요.》

사나이의 옴짝하지 않던 자세에서 약간 변화가 일어났다. 엇걸었던 다리가 풀렸던것이다.

《여기가 무섭지 않은가?》

《특등호실인걸요. 신변안전이 담보되는…》

《판결없이 처형하기도 하거던. 상소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당신 같은 무국적소유자들, 법률밖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요구한다면 이길로 데리고 가서 무기징역형을 언도받게 하지요. 우리의 자료기지에는 당신의 개인자료가 다 갖추어져있어요. 저 녀자의것도 포함해서 말이예요. 오자와라 게이꼬가 당신의 수중에 들게 되였으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인재유인에도 솜씨가 있지만 배신에서도 명수급이랍니다. 아마도 쌍드, 오자와라 게이꼬만큼 배신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많지 못할거예요.》

사나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은 오자와라는 두어깨를 흔들며 재미있는지 웃어댔다.

《싼타나, 여기로 들어오기는 제발로 왔지만 돌아갈 땐 그렇게 되지 않을거야. 호호호, 입방아를 찧어댄 값이 어떤건지 알게 돼. 호호호.》

차거운 눈길로 오자와라를 제지한 사나이가 싼타나를 금시 물어메칠듯 노려보았다.

《당신이 나를 찾아온 용건을 말하오. 그걸 들어본 다음에 나도 결심할테니까.》

싼타나는 앞에 있는 랭혈동물을 방불케 하는 남자가 무엇을 결심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듯싶었다.

그의 오늘 행동은 지그프리트의 지령에 따른것이다. 서상록본인이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랍치되였던 사실을 알고 분노를 터뜨린 에쎈의 거두였다. 그를 견제하기 위한 책동이 시간이 갈수록 험악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에쎈을 호의적으로 대하던 회사들이 이런 핑게, 저런 구실을 대면서 거래를 포기하는 태도들까지 나타나고있었다. 게다가 폭력집단까지 끼여드니 귀찮아난 지그프리트가 이번 일을 기안한것이다.

숨어서 기회를 노리는 놈들에게 주동적으로 타격을 주어 본때를 보여야겠다고 생각한것이다. 기업전략을 세우는데서 뛰여난 두뇌를 가진 지그프리트지만 모략에서도 뒤지지 않는 기질을 소유하고있었다. 그래서 주도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싼타나에게 주역을 맡긴것이다.

《간단명료하게 통지하겠어요. 에쎈의 본거지가 있는 이 도시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일체 행동을 이 시각부터 걷어치우라는거예요. 당신들은 하찮은 존재들이예요. 게다가 저 오자와라와 같이 공개된 인물들이라는것

을 알아야 해요. 에쎈은 폭력으로 대결할 준비도 되여있을뿐아니라 정부의 권력을 동원할수도 있어요. 경찰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닥쳐라! 감히 여기가 어디라구, 누굴 위협하는건가?!》

샤멜은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소리를 쳤다. 때맞춰 나비넥타이를 맨 건장한 남자접대원이 다반에 커피를 담아들고 나타나자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

《누가 그런걸 가져오라고 했어? 누가, 누가?》

접대원이 주눅이 든것처럼 굽석대면서 왕청같은 대답을 해댔다.

《이 부인님이 청했는걸요. 싼타나선생이 말입니다.》

《뭐라구?》

유령보다 더 놀란것은 오자와라였다. 촉기가 빠른 녀자는 형세가 변한다는것을 감각하고 재빨리 복도로 향한 출입문을 열어제꼈다. 문밖에는 두억시니같은 사나이 둘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있었다.

《너희들은 또 어떤 놈들인가?》

샤멜의 물음에 대답은 접대원차림의 사내가 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인데 호텔의 나 같은 접대원이나 료리사일수도 있구 옷을 갈아입으면 경찰이기도 한 그저 그러루한 사람들이지요.》

싼타나는 누구에게도 시선을 돌리지 않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루를 박아 말했다.

《내 말을 명심해요. 당신들의 일거일동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장악하고 있다는걸 말이예요. 경거망동하면 그땐 오늘과 같은 유예도 차례지지 않는다는걸 알아야 해요. 알겠어? 오자와라.》

약간 턱을 쳐들어올린채 자기앞을 스쳐 지나가는 싼타나를 보며 오자와라는 입술을 짓씹어댔다. 접대원차림의 사내가 뒤걸음으로 물러나며 약이나 올리듯 인사를 했다.

《부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차집 뒤마당 정향나무그늘밑에는 여름 한철 밖에서 식사할수 있게 크지 않은 식탁과 등받이없는 쪽걸상 몇개가 놓여있었다.

정동녀는 걸상에 앉은 어머니의 등뒤에 서서 어깨를 주물러주고있다. 딸보고 오라고 불러놓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점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지은금이다.

주무르고 정성스럽게 두드려대다 시원한가고 묻기를 몇번이나 거듭했지만 고개만 끄덕여보이는게 전부여서 정동녀는 어머니의 속내를 가늠할수 없었다.

지연이가 대학에서 기숙사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담을 좀 덜었기에 어머니를 찾아와서 일손도 돕고 몇해는 의지가 될것 같아 같이 살 의향을 말했더니 웬걸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것이다.

《이 어민 팔자가 사나와서 네 아버지를 일찍 잃고 홀몸이 됐다만 너는 무슨 맘을 먹고 나처럼 궁상을 떨려고드느냐?》

손녀가 공부를 잘해 제힘으로 이름난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좋아서 혀까지 차던 어머니가 친딸의 말을 듣고나선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기에 정동녀는 화가 치밀었다.

남편이라는 사람과 헤여져 사는지도 10년이 지났다는것을 모른단 말인가. 어머니가 고집을 세운다고 해서 자식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지도 오랬겠는데 노상 하는 말은 그 알량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이였다.

정동녀는 자기를 리해해주려고 하지 않는 어머니가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난 한을 품고 눈을 감으시던 시아버님의 모습만은 잊을수 없어요. 그 한이란 어떤건가요. 어찌하여 이 먼 이역으로 흘러왔겠어요. 그 아픈 마음을 난 다는 몰라요. 하지만 자식들이 위로하고 잘 모셔야 도리가 아닌가요. 모시기는 고사하고 얼마나 괄시했는지 어머닌 모를거예요. 아버지를 수치로 여기는 아들을 보신적이 있나 말이예요. 용서 못해요! 다시말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만을 아는 인간, 불효막심한 인간이예요.》

지은금은 딸의 절규를 묵묵히 들으며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리고는 여위여 피줄이 파랗게 드러난 손을 흔들어댔다.

《네 오늘의 행실머리를 아신다면 사돈님은 뭐라고 할것 같으냐. 그리도 사랑했구 믿어온 며느리가 집을 팽개치고 나선 지금의 꼴을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냐 말이다.》

《그만해요, 어머니!》

정동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사이 눈에 뜨이게 늙어간다. 하긴 지연의 모습을 보며 자기도 젊음이 시들어간다는것을 알게 되지 않는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괴벽스러워진다는 말도 있다.

정동녀는 지금 자기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는 어머니의 결심이 마치 황소를 다락우에 끌어올리겠다는 헛된 욕망처럼 여겨져 홀로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엄마, 오늘은 이렇게 불러놓고 무슨 욕을 하자고 벼르나?》

《너한테 무슨 귀가 있다고 욕하구말구 하겠니.》

정동녀는 기가 찼다. 꾸지람도 들을줄 모르는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는가.

《음, 알겠어요. 나야 속이 꼬부라들고 궁냥이 한뽐도 못미치는 천박하기 이를데없는 녀자니까.》

지은금이 어깨우에 놓인 딸의 손을 밀어치우며 말했다.

《듣기 싫다. 오죽 속이 넓고 트인 생각만 하는 너냐. 이제 명현선생이 온다. 너도 만나겠다니 찾은거다. 이젠 알겠니?》

정동녀는 명현을 둬번 만났었다. 대학시절 선배였던 사람이지만 기억이 삭막했다. 그것도 만나면 인사나 하는 정도였는데 자기를 만나자고 찾아오기까지 한다니 호기심도 생기고 놀랍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자부하는 녀자이기도 했다. 서상록이라는 인간을 만나는 실수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자기의 오늘은 달라졌을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그만큼 주견이 강했고 옳다고 여기는 일에서는 양보를 몰랐다. 그것은 상록과 질적인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사회와 교육이라는 환경으로 하여 류사성도 가지고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수 없었던것이다.

언제인가 차를 함께 마시며 명현은 이렇게 물었다.

《지연이 어머닌 생활에서 리해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오르자 정동녀는 몸과 마음이 한시에 흔들리는것을 느끼며 나무의자에 앉았다. 그때는 변변한 대답을 못하였었다. 자기의 신변사를 잘 알고있는 명현의 물음이 남편과 이어져있는것 같아 피하느라고 어물쩍해버리고말았던것이다.

《리해한다는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뭐. 어떤 부정을 보고 긍정한다는것도 리해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답에 말없이 웃던 명현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어머니가 기다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울렸다.

《시원한 자리에 나와들 있군요.》

어머니는 너무도 반가와 손을 흔들며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구.》 하

는데 정동녀는 방금까지 한 제 생각이 있어 면구한 낯색을 떠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것으로 인사를 대신하였다.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람이 좀 부는가보군요.》

명현은 지은금의 손을 잡은채 마주앉으며 정동녀에게 눈인사를 보냈다.

《일이 바쁠텐데 용케 시간을 냈구만.》

지은금의 말에 명현은 가볍게 응수했다.

《무사분주한 제가 아닌가요. 허허. 지연의 어머니까지 오라고 한것은 알려줘야 할 소식이 있기때문입니다.》

무척 궁금해난 지은금이 어서 말하라고 손짓을 해대는데 정동녀는 소식이라는 말자체가 귀에 설게 들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다리는 소식이 있었다면 딸의 신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것뿐이였던것이다. 세상풍문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며 지연이 하나를 위해 집과 도서관사이를 오간게 전부나 같은 그의 생활이였다.

《어머니, 난 얼마전에 상록선생한테서 긴요한 부탁을 받았답니다.》

명현이가 하는 말의 뜻도 의미도 알수 없어 모녀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남편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듣는것만으로도 은근히 속이 언짢은 정동녀였지만 낯색은 달리하지 않았다.

서상록이 자기 어머니의 생사여부를 확인해줄것을 간절히 바라기에 자기가 조국을 방문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였다는 명현의 말을 들은 정동녀는 실로 아연해난 표정을 지었다.

《그럴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얼결에 뱉는 딸에게 지은금은 말없이 손가락을 흔들어대는것으로 질책을 대신했다.

《이건 사실이요. 난 친구의 아픔을 리해하고 덜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걸음을 했소.》

《에구ㅡ 사돈님이 나한테 외양녀에 대한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했다네. 네 시어머니되는분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누나.》

정동녀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어느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시아버님이 며느리한테도 안한 말을 어머니는 어떻게 아는가.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자기 어머니를 다 생각하고 그런 부탁까지 하였단 말인가.

《옳습니다. 상록선생의 어머니의 이름이 외양녀랍니다. 그는 세상에 나

서 한번도 보지 못한 그 어머니의 품에 한번만이라도 안겨보는게 소원이라고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정동녀는 자기의 대학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남편의 화판앞에서 모델이 되기도 하지 않았던가.

어머니가 그립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상상하며 그림을 그린다고 하던 말도 금시 들려왔다.

자기의 검은 눈동자를 사랑했으며 그 눈동자속에서 어머니를 찾아보려고 한 그 시절의 남편을 보는것 같아 정동녀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중얼댔다.

《내가 상전벽해를 보는가?!》

명현의 눈길이 자못 엄하게 정동녀를 바라보았다.

《인간은 고정불변한 존재가 아니요. 모르고 살아온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알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겠소. 그렇지 않소, 지연이 어머니?》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은 달라질수 없어요. 난 믿지 못해요.》

28

창가림이 열리자 각이한 표정과 자세를 갖춘 녀인들이 애수와 절규, 수심과 애달픔, 고뇌와 눈물을 드러냈다.

주인의 기도실이나 같은 방안에서 어둠만을 누려온 녀인상들인것이다. 기껏해서 초불이라는 조명을 받으며 한사람을 위해 한자리에서 자기들만의 애수를 맛보아왔는데 오늘은 해빛이라는 혜택을 받으니 모습들도 많이 달라졌다. 립상, 흉상, 반신상으로 굳어진 녀인들이 주인을 향해 어떤 인사를 보내는것 같기도 했다.

서상록은 제손으로 만든것들을 선자리에서 잠시 둘러보다가 늘 앉군하는 나무걸상에 자리를 잡았다.

물질세계를 연구대상으로 해온 그가 조각칼을 잡은것은 안해가 결별을 선언하고 집을 나간 뒤부터였다. 그림을 그리는것으로는 성차지 않아 립체성을 가진 조형예술에로 향한것이다. 자기의 힘으로 훌륭하게 꾸려보자던 가정은 풍랑을 만난 쪽배같은 신세가 되였고 생활은 오늘까지 조난신

호를 울리고있지만 구원의 손길은 와닿지 않았다.

상록은 반신으로 형상된 녀인상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많은 얼굴들이 상상으로 구현되였지만 자기가 눈길을 보낸 녀인은 소묘종이우에 수없이 그렸던 안해였다. 약간 모로 비켜선 자세인데 그토록 사랑해온 눈동자에는 조소 같은것이 담겨있었다. 머리단은 흘러내려 앞가슴을 반나마 가리웠으며 금시라도 일어나서 그 어떤 저주를 보낼 기상이다.

안해의 결별선언은 단호했지만 상록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제가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장모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것을 안 다음에는 마침내는 돌아올 녀자로 여겼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오산이였다. 변변한 직업이 없는 녀자가 어린것을 데리고 나갔지만 해를 넘기며 버티기에 두루 알아보니 기가 막혔다. 어느 대학의 도서관 사서라는 일자리를 얻고 세방살이를 하고있었던것이다.

상록은 안해가 산다는 볼품없는 집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였다. 속에 없는 말이지만 용서도 빌어보고 하소도 해보았지만 들을리 없었다. 그의 걸음이 잦을수록 자기들의 생활을 보여주는것이 자존심이 상했던지 안해는 매정스럽게 찾아오지 말것을 요구했다. 딸애의 양육비만은 받아달라고 했더니 안해의 얼굴에는 서리가 내돋았다.

《우리를 동정할 생각은 하지 말구 자기 생활을 찾기를 권고해요. 훌륭한 녀자들은 많아요. 남자가 어떻게 지금처럼 살겠어요. 당신의 명성과 물질적으로 만족한 생활의 담보라면 녀자들이 밀려들거란 말이예요. 우린 제힘으로 살아나가겠어요. 그리구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요.》

《좋소, 그럼 지금처럼 살아갑시다. 하지만 지연이 생일 같은 날에는 만나볼수 있게 해주오.》

상록도 한번 마음먹으면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였다. 녀자는 확실히 남자보다 지구성이 약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정동녀는 지쳤는지 딸을 만나보는 정도의 양보를 하였지만 그 이상은 받아들일 잡도리가 아니였다.

두사람사이에 중간지대라는 만나는 장소를 제기한것도 안해였다. 서로가 살고있는 도시의 중간지점에서 한해에 한번정도 실무적인 상면을 하는 생활은 이렇게 오늘까지 흘러오고있다. 양보도 타협도 모르는 안해와 가정을 기어이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놓으리라는 속심을 품은 남편의 외교적인 절충태도로 하여 불안정한 별거생활자들은 류다른 생활을 오늘까

지 해오고있는것이다.

상록은 지금 싼타나와 함께 지연이가 걱정되여 찾아갔던 식당에서 본 안해의 눈빛과 앞에 놓인 녀인상의 눈을 마음속으로 대비해보고있었다.

대학시절 정동녀의 눈동자는 한쌍의 흑진주를 방불케 하였다. 백설같은 흰자위에 동실하게 자리잡고 언제나 촉촉히 젖어있어 그지없이 청신했다.

그에 비해보면 식당에서 한껏 원망을 품고 바라보던 눈동자는 색은 바래지 않았어도 지쳐버린 삶의 몸부림같이도 보였다.

젊어서는 아름답게만 보아온 검은 눈동자였건만 오늘에 와서는 자기를 지켜내는 힘을 간직하고있었다는것을 느껴본 상록이다. 그는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안해가 옳았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었건만 뉘우칠 대신 녀자란 나약한 존재라는 타성에 사로잡혀 마음을 돌려세울 어리석은 궁냥만을 해왔던것이다. 10년이 넘도록 조난신호를 울리고있는 가정을 회복하자면 자기가 안해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것을 이제야 깨달은 상록이였다.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상록의 자존심이 아직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럴수밖에 없다. 명예와 재부라는 그의 사상루각은 이미 기울어가고있지만 여전히 존재하였던것이다.

상록은 자기를 보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있지만 랭철하게 투시할수 있는 능력까지는 소유하지 못하고있는셈이였다.

서상록은 상념의 키를 돌리였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 많은 녀인상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그려본 그의 환영이다. 세상에 나서 한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였던것이다. 안해를 원망하며 조각칼을 들었고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찾으며 만들어낸 녀인상들이다.

어머니, 어디에 계시옵니까. 외롭고 가련한 이 아들을 보살펴주시오이다.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는데도 어머니는 어찌하여 저를 찾으실줄 모르십니까. 이 아들도 사람일진대 낳아주신 어머니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소이까. 분명 이놈은 죄많은 인간입니다. 불효를 너무도 늦게야 깨도했으니 어머니는 용서하지 않으실겁니다. 부친의 별세를 재촉한것이나 같은 이 불효자를 용납하지 않으실테지만 벌을 받아도 어머니앞에서 받고 그 품에서 죽고싶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마지막소원이나 같으니 가엾이 여기시여 받아주소이다. …

29

때맞춰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말처럼 지은금이 그렇게 상록의 집에 나타났다. 연구소에서 살다싶이 하는 그가 오늘은 집에 있었던것이다.

장모인 로파의 출현은 당혹감을 지울수 없게 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죄스러움이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다.

지은금은 소복차림이였다. 이것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있다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위축되기도 하는 상록이다.

《어머님이 오실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격에 맞는지 모를 인사를 차린 상록은 자리를 권하며 시종 장모의 안색만을 살폈다. 앓는다기에 한번 찾아가본것이 전부여서 속이 켕기기도 했다. 몸이 불편할텐데 이런 걸음을 한걸 보면 필경 무슨 일이 생겼다고 여기며 상록은 불안한 마음으로 솔잎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사람은 집이 좁아서 못사는게 아니라 마음이 좁아서 못산다는 옛말이 그르지 않네.》

자리를 잡고 앉자 지은금이 한숨에 섞어하는 말을 들으며 상록은 오늘은 어떤 말로 자기를 꾸짖을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집안건사도 바로 못하는 사내라고 두고두고 나무라고있을 늙은이가 아닌가. 자기 딸은 매정스럽다 할만큼 물리치면서도 사위라고 해야 할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골라 알아듣게 말해주는 장모였다.

상록은 제손으로 끓인 솔잎차를 자기 집의 가보나 같다고 해야 할 청자차잔에 담아서 놓아주었다.

지은금은 김과 함께 서리여 풍기는 향기를 잠시 맡고나서 차잔에 담긴 파르스름한 차물을 감회를 가지고 내려다보며 말했다.

《앉게나.》

상록은 그제야 아버지가 장모를 맞을 때마다 지금과 같이 차대접을 했다는 짜릿한 추억에 휩싸였다. 사실은 례의를 지켰을뿐 아버지생각은 못했던것이다.

동쪽으로 흐르는 작은 벽계수의 흐름소리가 유정하던 계곡의 목조건물, 그 집에서 만나면 두 늙은이는 솔잎차를 마시며 날을 저물리고 달을 벗

삼아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 늙어가면 이야기거리도 많아지는듯싶었다.

《내가 이렇게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거네.》

차향기에 취해있던 지은금은 상록의 대답을 바라지 않는지 혼자소리같이 말하고는 꺼지게 한숨을 쉬였다.

《임자 아버진 세상 무던한분이셨지. 한뉘 그 모진 아픔을 혼자 안고 살자니 시름인들 오죽이나 컸을가. 불행을 걸머지고 자식에게 어머니를 찾아줘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허위단심 살아왔건만… 참으로 어질어빠진… 허허, 이건 자네 어머니가 노상 아버지에게 한 지청구였다더군. 정말이지 가슴에 눈물동이를 안고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조차 못해보며 사신분이였지. 한데도 임자는 아버지의 만단사연의 한귀퉁이두 들으려고 안했지. …》

지은금은 갈려나는 자기의 목소리가 잠겨들자 저고리고름으로 눈귀를 누르면서도 상록의 존재는 느끼지 못하는듯싶었다.

목조건물에서 풍기는 시큼매캐한 곰팡이냄새를 맡으며 산마루에 걸렸던 달에 기원을 보내던 토장내나는 늙은이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것이다.

고향에 가야 할텐데. 집사람이 저애를 기다린다오. 다 이 못난 내탓이지 뭐요 하고 소매깃으로 눈물을 훔치던 그 모습이 보이는것 같아 지은금은 설분을 못 참으며 말했다.

《임자가 그래도 저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름은 기억하더군. 내가 이처럼 걸음을 한건 자네가 모르고 산 어머니의 체취를 느끼게 하고싶어서네. 사돈님이 하신 이야기를 빌어서…》

고개를 수굿한채 상록은 죄의식에 잠겨 듣기만 했다. 명현이가 장모를 만난것이 분명했다. 그래달라고 하지는 않았어도 그래주기를 바라기도 한 그였다.

장모한테서 어떤 욕을 먹는것은 일없지만 안해한테서 구정물벼락을 맞고싶지는 않았던것이다. 아직도 속은 살아있는것이나 마찬가지다. 뭔가 알아듣고 자기를 리해해주면 그 기회에 진심의 용서를 빌어 체면은 그런대로 유지하고싶었다.

지은금은 서글프면서도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자 아버진 늘 저희들부처간은 세상에 바뀌여 났어야 맞춤했다고 말했네. 세월을 잘 만났으면 복을 누렸으련만… 내 자네한테 어머니의 얼

굴은 못 보여줘도 성품만이라도 들려달라나?》

지은금의 눈길이 얼핏 스치자 상록은 고개를 숙인채로 잦아드는 소리를 냈다.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날이 온가부네. 이 늙은인 자네한테 할 말이 가슴에 꽉 차있었다네. 오늘은 보지 못한 임자 어머니지만 사돈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전해주고싶네.》

지은금의 이야기가 시작되였다.

상록의 아버지 서필몽이 아들에게는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연이였다. 생리별의 모진 아픔을 아들의 가슴속에 안겨주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 고통일진대 혼자서 당하는것으로 족하다고 여긴 늙은이였다. 상록의 어머니이름은 외양녀라고 불렀다. 이것만은 상록이도 알고있는것이다.

…깊은 밤, 탐조등불빛이 산판을 누벼대는 속에서 총성이 울부짖었다. 그 불빛에 드러난 목표물은 허둥지둥 도망치는 두 남녀였다. 총알들이 바위에 부딪쳐 도탄되여 여기저기서 시뻘건 포물선을 그어댄다. 이들이 왜놈들의 살벌한 경계를 어떻게 뚫고 철조망을 돌파했는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왜놈들은 패망의 날이 다가온다는것을 느끼고 죽음의 징용터들에서 비밀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사람들에 대한 집단학살만행을 서슴지 않고있었다.

야밤에 도주한 조선인남녀를 추격하여 일본군 한개 소대가 동원되였다. 죽을힘을 다하여 탐조등불빛을 벗어난 두사람은 바위벼랑을 기여올랐다. 놈들은 기관총까지 끌어다놓고 몰사격을 퍼부었지만 끝내 놓쳐버리고말았다. 이들이 서필몽과 외양녀였다.

《왜놈의 세상도 망하는가봐. 내가 귀동냥을 했거든요. 마른 북어짝같은 이시하라중위놈이 야마다십장한테 패전은 기정사실이다, 저 조센징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구 모조리 없애치워야 한다… 이렇게 살이 뻗쳐 지껄여댔어요.》

《나두 놈들의 눈치가 이상하다 했어. 여기서 죽기는 정말 억울하구나.》

《흥,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죽여줍소 할테야?》

《그러니 무슨 방도가 있어?》

《며칠 있다가 장교놈들이 모여 벌리는 뭐라든가 응, 연회라는게 있어. 그날 밤 내가 전기철조망의 전기를 끌테야. 그담 우리 둘이 도망치자요.》

《자신있어? 배전반에두 보초가 있는데…》

《내가 그놈을 얼려서 술을 먹일테야. 노상 부엌에 와서 치근거렸으니까.》

《에라, 죽기는 마찬가진데 한번 용이라도 써봐야지.》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한다는 궁리란… 내가 알려주면 빨리 함바에서 나와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여 두사람은 약속을 하였고 며칠후 어느날 밤에 탈출을 시도했다.

서필몽은 외양녀의 지혜와 도담한 성격을 믿고 따라선것이였다. 하늘이도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들은 잡히면 끌장이라는 공포감보다도 죽지말고 고향에 가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혼슈의 깊은 수림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1945년 여름에 있은 일이다. …

산속에 숨어서 지낸 그들은 나라가 해방되였다는 소식을 해를 넘겨서야 알게 되였다. 서필몽이 나이 30살을 바라보는 청년이라면 외양녀는 20살을 넘긴 그때로서는 과년한 처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배필걱정은 안해도 되였다.

원시림이나 같은 수림속의 동굴에서 짐승같이 살아온 그들이 마침내 시모노세끼라는 항구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배를 타면 해방된 제 나라로 가게 된다는 희열로 하여 두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렸다. 살아서 고향의 정든 사람들과 만날수 있게 되였으니 꿈만 같았던것이다.

서필몽은 련락선 배표를 사러 간 외양녀를 기다리면서 소나무그늘밑에 누워있었다. 그는 태평무사한 사람이였다. 모든 일은 외양녀가 하자는대로 하면 등탈이 없다고 여긴다. 죽음터에서 천행으로 살아난것도 처녀가 충동질했기때문이다. 깊은 산속의 혹한을 이겨낸것도 당돌한 외양녀가 곁에 있었으니망정이지 제 혼자라면 어림도 없었다고 여기는 사내였다. 녀자쪽에서 물렁팥죽이라고 놀려대도 흥흥대며 난 살아가는 걱정은 안해도 되는 사람이야, 나한텐 차돌같은 색시가 있거던 하고 대답하군 했다. 그럴 때마다 외양녀의 종주먹이 떡판같은 잔등을 아프도록 두들겨댔다. 그럴 때조차 어이 시원하다고 맞아주는 서필몽이였다.

《아유ㅡ 팔자도 정말 늘어졌네. 어서 일어나요. 배를 갖다대는게 보

이지 않아요?!》

눈앞에 나타난 외양녀가 서둘러대지만 서필몽은 기지개를 켜며 늘어진 하품까지 해댔다.

《빨리 가긴 가야 해. 내가 난사람이라는걸 보여줘야지. 징용갔다 색시까지 얻고 싱글벙글 들어서는 나를 보면 부러워들 할테지.》

때아닌 자리에서 생벼락 맞을 소리를 한다고 외양녀가 나무라지만 남자켠에서는 그저 좋다고 히쭉벌쭉이다.

《고향땅에 발을 짚으면 내 생각이 달라질수도 있을지 몰라요. 녀자속은 조석으로 변한다는데 이제 가면 흔한 남자천지겠는데 저 같은 물렁팥죽한테 매워살가.》

《그야 안되지. 머리는 올리지 못했어두 속잔치는 어련히 해봤으니…》

서필몽의 능글맞은 수작에 외양녀가 기가 차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잔뜩 어질어빠졌어도 제 욕심은 다 채웠노라고 배를 내민 소리를 하지 않는가.

《아이, 기막혀라. 한뉘 이 서방치레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나 없으면 하루 세끼 죽물도 건사 못하겠으니…》

외양녀가 앞서며 속에 없는 탄식을 하자 서필몽은 팔자걸음으로 따라서며 흥에 떠서 말했다.

《밭일은 걱정마우. 내 사흘갈이를 하루에 다 번져놓지 않으리. 그저 떡돌같은 아들들만 무우뽑듯 해주구려.》

《그 욕심에 구들고래 무너앉겠네.》

말은 그렇게 해도 좋은 날이 찾아왔으니 잘살아보고싶었다. 제땅이 꺼지도록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 수북이 낳아 키우면 좀 좋은가. 그날을 보자고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았고 이렇게 제 나라를 찾아가는것이다.

련락선에 오른 두 젊은이는 꼭 붙어앉아서 수평선너머에서 나타날 고국산천만을 그려보았다.

마침내 부산항에 이르자 외양녀가 서필몽의 손을 잡아이끌며 빨리 내리자고, 남보다 먼저 제땅을 밟아보자고 덤벼쳤다. 그들은 남해기슭의 대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절을 해대며 소리내여 울었다.

여기가 내 나라, 내 땅이다! 여기가 우리를 기다려준 조국이다!

항구에는 미군장교들과 병졸들이 거만하게 서있었지만 두사람은 그들앞으로 자기들의 감격을 안은채 걷고있었다.

해방된 나라에 와서 고향을 찾아가는 두사람의 앞길에는 곡절도 많았다.

청주를 지나 하신대마을의 로상에서 서필몽이 꺼꾸러졌다. 음식물은 고사하고 약을 달인것도 삼키지 못하며 말끔히 토해버리는것이였다. 마을인심이 후덕해서 늙은 량주가 사는 집에 들어 의원에게 보이니 오래 앓아온 속탈이 로독과 겹친것이여서 한두달은 보양을 해야 한다면서 절대 안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되여 외양녀는 하신대마을에 눌러앉아서 서필몽을 간호하느라 여간 고생하지 않았다.

원체 건강하고 일손이 장정을 찜쪄먹을만 한 외양녀여서 늙은이들의 밭농사를 혼자서 하다싶이 하면서도 산에 올라 갖가지 약초를 캐다가 의원이 시킨대로 매일 달여서 서필몽의 병구완을 하였다. 하지만 사람의 성미가 늘어진것처럼 병털고 일어나 앉기도 무던히 힘들어했다.

마을사람들은 그들을 부부간으로 알고있어 외양녀로서는 어쩌는수없이 혼례라는 말도 갖추지 못한채 색시노릇을 하는수밖에 없었다. 이왕 차례진 복덩이남편이니 자기가 일으켜세워가지고 시집이 될 집대문에 들여세워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무슨 일이나 손에 잡히는대로 다하였다. 그러니 얹혀사는 주인집 늙은이들이 좋아하는것은 물론 그의 일솜씨가 하도 걸차서 동네칭찬이 늘어가는 속에서 그 집에 찾아드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마실온 사람들은 저녁이면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하는데 38°선너머에선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들 했다.

올해 봄에 토지개혁을 해서 땅없던 농사군들이 무상으로 땅을 분여받아 첫 파종을 했다는것이다. 외양녀로서는 38°선이라는 말도 생소하지만 가난뱅이농사군들이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말에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들의 고향인 룡강에는 옥야가 아득히 펼쳐졌지만 가난한 농사군이 부쳐먹을 땅뙈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 집이나 소작살이로 한숨을 지었고 철도 들지 않은 자식들을 빚값으로 머슴살이를 시키는가 하면 평양에 있는 제사공장에 직공으로 보냈다.

서필몽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니 어느덧 계절은 가을에 들어서는데 이번에는 아직은 명색이 처녀인 외양녀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속이 덜컹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세상에 얼굴을 들고 나설수 없는 일을 친것이였다. 남편이 될 사람은 눈이 내릴 때쯤에는 행보를 할수

있게 되였지만 대신 외양녀는 숨길수 없는 병을 보라는듯 내보이며 남자가 드러누웠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이듬해 정월에 그들은 혼례도 못 치르고 아들을 보았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시집문전에 들어서보지도 못하게 됐으니 말예요. 기막혀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담.》

외양녀가 속이 타서 눈물까지 흘리면 서필몽은 마치도 장한 일이나 한 듯이 말했다.

《아무 걱정마우. 우리 집안은 모두 마음들이 편안한 사람들이요. 색시만 아니라 아들까지 업고 나타나보오. 좋아서들 입들이 함지박이 될 테니.》

외양녀는 이제는 의지하고 살 사람이 서필몽인지라 그 말을 믿고싶었다.

그래주었으면… 인륜법도를 거역한 죄인으로만 여기지 말아주면 머리카락을 잘라 서씨문중에 올릴 마음까지 먹었다.

룡강땅에서 대대로 살아온 자기 집안의 사내들은 하나같이 범같은 사람들이였다.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갈범처럼 날뛰며 일찌기 칼을 뽑아들고 집을 뛰쳐나갔다. 그렇게 간 남자들중 외양녀가 징용으로 끌려갈무렵에는 태반이 저세상사람들이 되고말았다.

이듬해 여름이 다가들자 두사람은 서둘러 길을 떠나 서울에 이르렀다.

조선봉건왕조의 도읍은 하신대마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그들에게 펼쳐보이였다.

형형색색의 시위대렬이 거리를 메웠고 백주에도 총성이 울리며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외세와 그에 야합한 친미, 친일이 해방전이나 다름없이 애국을 탄압하는 비극이 빚어지고있었던것이다.

젖먹이를 안은 두사람은 북으로 가는 길을 찾아헤맸고 38°선을 넘으려다 몇번이나 변고를 당했다. 그들로서는 대세를 바로 볼수 없은탓에 눈먼 걸음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군 했던것이다.

외양녀는 이러다 받아줄지도 모르는 서씨가문의 피줄을 로상에서 잃을것 같아 걸음을 멈추었다. 일단 서울이라는 악마구리 끓듯 하는 곳에 몸을 붙이고 형세를 봐가며 움직일 생각을 했던것이다.

엄청나게 번창한 도회지라도 벌이를 할 일감을 찾기가 헐치 않았다. 외양녀는 젖먹이를 업고 두부장사, 콩나물장사를 시작했으며 서필몽은 매일 다닥치는대로 날품팔이에 시달렸다.

급한 사람에게는 날도 서둘러대는것 같았다. 어느덧 또 한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속이 다급해나는것은 외양녀였다. 그러느라니 서필몽이 죽도록 미워났다. 입이 있어도 남자에게 말을 할 형편도 못되여 혼자서 속을 앓으며 살자고 허둥거려야 했다.

외양녀는 마포쪽에서 물고기를 받아다 되넘기는 일을 하면서부터 북으로 드나드는 밀선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며 그와 줄을 잇자고 무던히 애를 썼다. 남편이라고 해야 할 사람을 믿어서는 어느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겠다고 여긴 그는 점점 무거워지는 몸을 가지고도 밤길을 헤매다니였다. 그렇게 애를 써서 밀선과 약조를 하니 어느덧 한해를 또 넘기고 초봄에 접어들었다.

어느날 한밤중에 판자집에 들어서니 서필몽이 어린애를 안고 허둥거려대고있었다.

《웬 일이예요?》

다급한 물음에 서필몽도 그답지 않게 배포유한 소리를 내지 못했다.

《애가 맥을 못 추며 다부라지는게…》

서둘러 포대기속의 애기를 들여다보던 외양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들애가 홍역을 앓기 시작하는것이였다. 목이며 가슴에 빨간 구슬이 벌써 내돋고있었다.

《아니, 왜 그러오?》

외양녀는 손을 내저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던것이다. 가야 하는 길인데 막아서는건 절벽강산이구나 하는 암담한 생각이 덮쳐들자 그는 쉽지 않은 눈물까지 흘리였다. 그제야 아이의 병을 알게 된 서필몽은 모든게 제 잘못인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쩌는수가 없구려. 홍역은 구슬이 곱게 잦아야 한다는 말을 나도 들었소. 해방이 되였는데 왜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기 힘든지.》

《답답하기만 한 소린 그만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밀선이 있다면서…》

외양녀의 결심과 분부만을 기다리는 서필몽이였다.

《별수 있어요. 주저앉는수밖에. 우리 일은 왜 이리도 꼬이는지…》

서필몽은 처음 남자답게 결심하고 말했다.

《맥을 놓으면 우린 못 가오. 그렇게도 살기 좋아졌다는 고향을 지척에 두고 걸음을 멈추면 안되지. 우리 아이들을 잘살게 하려면 가야 하오.》

외양녀는 서필몽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사람의 목숨을 천명이라고 하지 않는가. 아무렴 쉽게야 죽을텐가. 그럴것 같으면 징용터에서 도망치던 그밤에 벌써 끝장났을게다.

외양녀는 아들애의 색동옷을 밤새워가며 지었다. 아직은 날이 차서 어린것에게 바람을 가릴 온전한 옷을 입혀야 했지만 자기가 왜 색다른 옷을 짓는지 알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무사하기만을 빌었다.

밀선은 이틀후에 떠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되기에 떠날 날을 기다리느라 속에 재가 들어앉을 지경이였다.

날이 어둡자 외양녀는 여느때없이 서둘러댔다. 차비를 하는 서필몽의 행동거지가 하도 굼벵이같아서 두마디안팎에 짜증을 내면서 사내를 들볶았다.

《우리 집안 장손인데 바람을 맞으면 안되지. 허허. 덤비지 마오.》

《에그ㅡ 늘어지기란… 배를 놓치면 어쩔려구 그래요.》

《약조를 해놨는데 기다리지 않을라구.》

보퉁이를 꾸려서 방구석에 밀어놓은 외양녀가 아들애를 업는 서필몽의 시중을 들며 그냥 안달아했다.

《밀선이라는게 무슨 밴지 알기나 하구 그래요. 몰래 장사질을 하는 사람들이예요. 시간이 늦어지면 달아빼요. 세상물정을 이렇게도 모르니…》

《원, 그럴리야 있소. 배값까지 물었는데…》

아무리 말해야 입이 아프다고 여겼는지 외양녀는 사내의 등을 막 밀어대며 집을 나서서는 제가 앞장에 섰다. 바다기슭까지는 한참 걸어야 할 길이였다. 어둠속에 드러난 바위들을 밟다가 미끄러지면서도 걸음을 다그치는 외양녀에게 서필몽이 말했다.

《그러다 다치겠소. 조심히 걸을게지. 전에없이 덤벼치는구만.》

《속이 편해서 좋겠네. 급하지 않게 됐나 말이예요. 내 배속에다 아이를 또 만들어놓구선…》

외양녀는 하지 않으려던 말을 종시 터놓고야말았다.

《원, 이런. 내 재간이 그렇게도 좋았는가.》

《실없는 소린 작작하구 따라서기나 해요. 이 판에 무슨 놈의 재간타령이예요. 기가 막혀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등불이 반짝이는게 보였다. 좀더 가까이 가니 발동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크지 않은 배에는 밀수품을 잔뜩 실은데다

사람들까지 한데 섞여 타고 떠날 시간만 기다리고있었다.

외양녀의 불안이 현실로 다가들었다. 배주인이 만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서 두사람을 태울 자리가 없다고 막아섰다.

기막힌 일이였다. 부부간인데 사정을 봐달라고 애걸해보았지만 들어줄리 만무했다.

배를 보라, 이제 중량을 초과하면 바다복판에서 무리죽음을 당한다.

배주인이 거품을 물고 떠들어대자 먼저 탄 사람들까지 야단을 해댔다. 서필몽이 사정하여 외양녀만을 겨우 배우에 올려놓았다.

《내 걱정은 말구 혼자서 먼저 떠나오. 애를 받소. …》

《어서 타라요! 날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

외양녀가 정신없이 웨칠 때 등뒤에서 난데없는 개짖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이어 저 멀리서 전지불까지 번뜩거려댔다.

《경찰이다!》

배안에서 겁에 질린 소리가 터져나오자 정황은 돌변했다.

서필몽은 이 순간 등에 업은 애만은 어미품에 넘겨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손발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군견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점점 가까와오고 밀선은 기슭을 떠나기 시작했다. 외양녀가 바다에 뛰여들려고 몸부림치는것을 사람들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우릴 갈라놓다니… 하늘도 무심하구나!…》

외양녀의 가슴을 에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서필몽은 아들애를 안은채 바다에 첨벙 들어서다가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멎어섰다.

붙들리면 안되는 형편에 놓인 밀선은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고있었다. 그속에서 정신없이 웨치는 외양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당신만 믿어요. 애를… 우리 애를… 상록일 꼭 데리고 와야해요. 기다리겠어요! 들어요?…》

서필몽은 어린 아들의 생명이 자기한테 달렸다는것을 깨닫고는 개짖는 소리와 반대쪽으로 허둥지둥 내달렸다. 모든것을 맡기고 의지해온 외양녀는 더는 곁에 없었다. …

상록은 무릎우에 고개를 묻고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지은금도 저고리고름으로 눈기슭을 누르며 반백이 되여가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두사람이 자리잡은 방안은 형언할수 없는 슬픔과 비분에 잠겨들었다.

상록은 마음속으로 불러온 어머니를 자기 눈앞에 세워보며 인간이 당

할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맛보고있었다. 어찌하여 이런 불행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에게 차례지는것이였는가. 모든 불운에는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속에서는 이런 울분이 차넘치지만 그것을 자기앞에 앉은 늙은이에게 물을수도 없었다.

《세상에는 기막히고 억울한 사연들이 너무도 많다는것을 나도 사돈님의 말을 듣고서야 알수 있었다네. 가슴속에 피맺힌 한을 품고 사는 조선사람들이라는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할걸세.》

《어머니, 이 못난놈을 일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련히 알고 살았어야 할것들을 눈감고 외면한 미련한 녀석이 저라는걸…》

《사돈님이 들려줘서 나도 알게 된 그뒤 이야기를 마저 할테니 들어보라구. 그러면 자넨 부친을 알게 될걸세.》

지은금은 갈린 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30

서필몽은 외기러기같은 신세가 되였다. 그들 두사람은 징용에 걸려 현해탄을 건늘 때부터 오늘까지 한시도 헤여져본 일이 없었다. 사지판이나 같은 공사장의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도 눈빛은 언제나 서로 떨어진적이 없었다. 외양녀가 함바에서 식모살이를 했기에 서필몽에게는 대두박 한덩이라도 더 차례질수 있었다. 어떤 날 밤에는 부엌아궁앞에서 외양녀가 기울이는 남다른 정을 받기도 했다. 그것이 시래기국에 조밥일망정… 그런 자리에서는 외양녀가 혀를 차며 나무라군 하였다.

《식당에 찾아와서는 왜 눈건사도 바로 못하나요. 들어오면 나부터 찾아보고 눈을 맞춰야지요. 그래야 나두 준비를 하고 밥 한술이래두 눌러서 더 담을게 아니나요. 남자라는게 잔뜩 어질어빠져가지구 어떻게 사나요?!》

《생겨먹길 그런걸 뭐.》

《뚝심이라도 있어야지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구 휘저어대라는데요.》

《그건 안돼. 배운게 없거던. 말할줄두 모르구.》

그럴 때면 외양녀는 물렁팥죽도 밉지 않게 흘겨보며 제편에서 속상해

하였다. 세상살이할 앞날이 걱정되지도 않는가고 하면 그저 해대는 말은 《나한텐 외양녀가 있지 않아.》라고 하는것이다. 사리에 밝고 마음먹으면 무슨 일이나 해내고야마는 외양녀는 서필몽에게 있어서 장님의 지팽이격이나 같았다.

《어떤 녀자가 맞다들겠는지 속개나 썩겠어요.》

두사람사이에 자주 벌어지군 하는 싱갱이질은 마감에 외양녀의 이런 말로 끝나기 쉬웠으며 그때 하는 물렁팥죽의 대답은 여전했다.

《나한테야 외양녀가 있는데 뭐.》

《누이동생으로 여긴다더니 이제 와선 뭐라구요?》

처녀의 눈길이 모가 서서 달려들려면 《그렇게 부르다가 그렇게 되는거지 뭐.》 하고 중얼거리는게 고작이다.

물렁팥죽의 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은것을 보며 처녀는 억이 막혀했다. … 그것은 피눈물속에 정을 나눈 그리운 사람의 모습이였다.

외양녀와 기가 막힌 생리별을 당한 서필몽은 의지를 잃은 자기를 보았으며 피덩이같은 아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만 하며 뛰여다녔다. 마침내 어느 사립병원에서 허드레일을 할 일손이 필요하다기에 품삯을 받지 않는 대신 자식의 병만 낫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더니 들어주었다.

어린 자식을 입원실이라고 하는 방에 들여놓은 그는 죽을힘을 다해 병원일을 하였다. 손수레를 끌고 약품과 약초를 나르고 돌아서서는 장작을 패야 했다. 아들의 생사는 자기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렸다고 여기며 궂은일은 다 맡아안았다. 지어는 물을 긷고 부엌일까지 하였는데 배워주기만 하면 무슨 음식이든 못 만드는것이 없었다.

사립병원 주인내외는 서필몽을 두고 식모라고 하기는 아깝고 료리사로 부르자니 부족하다는 롱말까지 하였다. 그사이 어린 자식의 홍역발진은 곱게 가라앉고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던 서필몽은 이렇게 아들의 병을 고치였다. 아들의 병을 고쳤으니 외양녀의 당부는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이제는 빨리 38°선을 넘어가야 했다. 밀선이라는걸 찾아보았지만 자기 수완으로는 그런 배를 부리는 사람의 그림자도 만날수가 없었다.

서필몽은 인간생활이 사람들사이의 교제라는것을 모르고있었다. 그의 궁냥은 점점 암담해가기만 했다. 고작 생각해낸것이 개성 두문동에 6촌벌되는 사람이 산다는 어느 왕년에 들은 소리여서 막연한 기대를 안고 찾

아갔다. 그런데 생각밖에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살림살이는 넉넉치 못해도 인정은 남아돌아가는 집안이여서 며느리가 선뜻 제 자식처럼 아들을 안고 젖꼭지를 물려주는것이였다. 저녁상을 물리니 오랜만에 친척붙이가 왔다고 집안사람들이 모여앉았다.

년세가 많은 늙은 내외는 미닫이문을 연 웃방에 상좌를 정했고 6촌벌되는 형님과 형제들이 서필몽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아녀자들은 열어놓은 정지문너머 부엌과 마루에 널려앉아 저마다 서필몽의 아들을 안아보며 귀엽다고 웃고 떠들어댄다.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할 이야기판에는 시세를 가늠할수 있는 말들도 오갔다.

서울은 5월의 단독선거라는것을 앞두고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해가고있었다. 38°선이남에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미국과 리승만의 압제와 전횡은 극도에 이르러 총칼을 휘두르고 테로가 판을 쳤다. 온 겨레의 지향과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분렬을 초래하고야말 《단독정부》를 조작하고 권력을 틀어쥐자는것이 리승만의 속심이였다. 애국과 매국사이에는 더는 물러설수 없는 혈전만이 가로놓여있었다.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시위투쟁은 매일과 같이 벌어졌으나 리승만도당은 항거하는 민중의 웨침을 등진채 민족반역과 권력찬탈을 노리는 악마로 변해갔다.

38°선은 조선사람들이 제 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넘어오고 넘어갈수 없는 《국경선》같이 되여버렸고 북을 침략하기 위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무력이 가득 뒤덮인 군사지역으로 화하여 그곳에서는 매일과 같이 북을 반대하는 무장도발행위들이 그칠새없이 일어난다고 했다.

서필몽으로서는 들을수록 암담한 이야기뿐이였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수도 없었다. 그로서는 시국형편이 어떻든 아들을 제 어머니품에 안기게 하는것이 아버지된 사람의 도리로 되는것이였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만 듣다가는 언제 가도 소원성취를 할것 같지 못해 속에서는 불이 일었다. 늘어빠진 성미인 사내가 이러자니 얼마나 안타까왔으랴.

며칠후 서필몽이 부득부득 길떠날 차비를 하자 집주인이 그를 앉혀놓고 타일렀다.

《알아듣게 말도 해줬네만 여기 눌러앉아서 형편을 봐가며 움직이게. 그 어린것을 둘쳐업고 어디로 간다구 그러나. 사람이 고집도 류만부동이

라니까. 마음을 고쳐먹게나.》

서필몽은 머리만 내둘렀다.

《이 사람아, 항간에선 인차 전쟁이 터질거라는 말까지 돌고있네.》

《설마 그런 일이야 있을라구요. 제 고향 찾아가는게 무슨 죄라고 막아서는지 모를 일이군요. 집사람은 애를 낳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릴텐데… 하루가 새롭수다.》

《허허, 조상도 모르게 로상에서 자식 둘을 벌었으니 얼뜬하면서도 제 욕심 밝은게 자넨가부네. 임자 고집에 나도 손들었네.》

이렇게 서필몽은 외양녀를 찾아가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허위단심 길을 떠났다. 행여나 로상에서 길동무가 생기기를 바랐으나 삼엄한 림진강 상류근처의 한 마을에 이를 때까지 나타나주지를 않았다.

그 마을에는 려인숙도 없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문을 두드린것이 점쟁이네 집일줄은 몰랐다. 고삭은 대문 아닌 대문이 찌글써 열리더니 백발일망정 깨끗이 몸을 거둔 로파가 맞아주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의심스러웠다.

《길손이 오니 어제 밤 현신한다던 그 객이로구나.》

서필몽은 아들애를 마루에 눕히고나서 기저귀부터 갈았다. 걸음마는 뗀다지만 오줌갈이는 못하니 무명포단에 흠뻑 갈겼다.

《그놈 고추가 제물에 절었구나. 세월을 잘 만나면 크게 되련만… 어웃, 점괘가 외로 굴러가니 오늘길은 위태로워도 열린 길이로다.》

제잡담 지껄이는 로파의 말에 서필몽은 불안한 눈길을 들었다.

《내가 어데로 가려는지 묻지도 않고 그건 무슨 말이나요?》

로파는 우멍하니 패인 눈확속의 재빛눈알을 굴리며 다 안다는듯 웃었다.

《한발 넘기면 갈 곳은 보일테지만 잘못 디디면 열린 고추가 물러앉으리다. 고추없이야 찾아간들 곱게 맞아주고 만난들 살 재미가 바이 없으리니…》

《됐수다, 원. 방정맞은 소린 그만하시라요. 앤 제 어미를 못 본지 석달도 지났어요. 하루가 새롭수다.》

《하루가 모자라는게 사람의 운수라더라.》

점쟁이로파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서필몽은 아이를 업고 어둠서린 길을 나섰다. 강을 따라 곧추 가라던 로파의 말대로 하였다. 개버들을 헤치고 올라서니 길이 험해지면서 산세가 높아지는게 알렸다. 오솔길도 끝

이 난 곳에 이르러 사위를 둘러보아야 괴괴하고 이따금 밤새가 날개치는 소리만 들렸다.

등에 업힌 아이는 엄마를 찾아간다는것을 아는지 마음놓고 잠을 잤다.

허둥거리며 잡관목을 헤치고 오르던 그는 걸음을 뚝 멈추었다. 금시 눈앞이 밝아지는것이였다. 38°선표말이 망두석처럼 기우듬히 서있지 않은가.

얘야, 다 왔다. 조금만 가면 엄마를 만난다!

가슴속에서 터져오르는 기쁨을 안고 걸음을 옮기는데 등뒤에서 거센소리가 밤의 정적을 동강냈다.

《섯!》

서필몽은 다리 잘리운 사람처럼 홀지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에게 38°선표말을 보게 한것은 전지불빛이였던것이다.

나무가지를 짓밟는 발걸음소리가 다가왔다. 철컥철컥 맞부딪치는 장구류소리… 이어 그는 자기앞에 벋치고 선 군화발을 보았다.

《일어서라!》

서필몽은 무작정 앞으로 어푸러지며 군화발을 두손으로 그러안았다.

《사정 좀 봐주시우다. …》

그의 볼로는 껍질껍질한 눈물이 흘렀다. 안할 말을 하고있었지만 자기들부자의 사연을 들으면 불쌍히 여겨주리라 생각했는가.

등에 업힌 아이도 엄마를 찾으며 울어대기 시작했다.

《일어섯!》

눈물과 애원으로는 달랠수 없는 무정한 고함소리가 다시 울렸고 서필몽은 총대에 몰리워 산을 내렸다.

한걸음한걸음이 외양녀와 천리만리로 멀어지는 걸음을 걷고있었다. 가슴속에 자리잡았던 선량한 마음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져나갔고 다가서는것은 무서운 절망이였다.

포천헌병대에 끌려간 서필몽은 이틀동안 취조를 당했다. 북과 내통한것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 인간이 안고 사는 아픔과 소원 같은것은 들으려고조차 안했다.

사흘째만에 그는 취조실이 아닌 다른 방으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미군장교가 있었는데 아이를 업고 들어서는 서필몽을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까딱하지 않고 선채 노려보았다. 이런 차림으로 월북을 기도하는 사

람은 처음 보았던것이다.

통역은 검은테안경을 낀 장교가 하였다. 이름이며 난 곳과 무슨 일을 했는가를 차례로 물었다. 이젠 하도 입에 올린 말이여서 기계적으로 대답하자 미군장교가 제자리에 가서 앉았다.

《당신 어제 밤 아들과 함께 죽었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가?》

서필몽은 맥없이 머리만 저었다.

《<자유세계>를 떠나면 살수 없다는것도 모르는가?》

《…》

《고향도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것이 아닌가. 이북은 <빨갱이>들의 땅이 되였다. 거기엔 당신이 농사를 지어먹을 한뙈기의 땅도 남아있지 않는데 찾아갈 까닭이 뭔가?》

《가얍지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외다. 내 고향은 황해도 봉산이거든요.》

《석방하면 또 월북을 기도하겠는가?》

서필몽은 아들애를 안은채 무릎을 끓고 앉으며 마지막 하소연을 하였다.

《불쌍한 이 어린것을 생각해서라도 사정을 봐주십시오. 이놈이 밤걸음을 한것은 애오라지 자식에게 어미젖을 찾아주자고 한 일입니다. 땅이 없어 굶는대도, 일본에 끌려가 한 고생보다 더한 고역을 치른대도 일없습니다. 제발 덕을 베풀어 우리 부자에게 살길을 열어주시우. 어미를 모르는 자식이 안되게 해주면 하늘인들 무심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우. …》

서필몽은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알아주기만을 바라고있었다. 평생 항거를 모르며 짓눌려 살아온 인간이였기에 자기의 비굴함을 느낄 힘은 더 우기 없었다.

미군장교가 천천히 다가왔다.

《기어코 북으로 가겠는가?》

《난 가야 해요. 이 몸은 38°선에서 죽어 돌이 되여도 좋으니 내 아들만은 제 어머니품에 안기게 해주시우!…》

《좋다. 이놈을 보내주라!》

그것은 자비가 아니였다.

나라가 해방이 되여 제 고향으로 가려던 사나이, 아직은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조차 모르는 어린 아들에게 그 어머니를 찾아주려는 애절한 소

원앞에는 형무소의 철대문이 기다리고있었다.

서필몽은 아들을 어느 한 민가에 맡기며 며칠만 봐달라고 간청했다. 젊은 녀인은 하도 정상이 가엾었던지 그러마 약속하고는 집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었다.

서필몽은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절통한 피눈물을 흘리였다. …

그후 사람들이 우려하던 전쟁은 일어나고말았다. 인민군대의 반격으로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이 해방되고 형무소도 깨여져나갔다. 감옥에서 나온 서필몽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갈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정신없이 아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아들을 맡겼던 녀자도 란리통에 어디론가 피난을 갔는데 그를 찾는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혼신의 힘을 모아 헤매다니였다. 어린 자식이 제 엄마를 찾는 소리가 귀전을 두드릴 때면 한밤중에도 일어나 인적있는 곳이라면 안 찾아본 곳이 없을 정도로 육신을 바쳤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군이 인천상륙을 감행하자 리승만의 군대에 붙들려 강제징집되게 되였는데 이태동안 무서운 전장으로 끌려다니다가 다리를 부상당하여 간신히 제대된 후 전쟁이 끝난 이듬해에 가서야 아들을 찾게 되였다.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어느날 저녁, 락수물이 흐르는 어느 집 처마밑에 외롭게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것 같은 아이의 얼굴에서 서필몽은 어릴적 아들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었다. 그것은 감옥과 전란으로 이어진 수난속에서도 머리속에 새겨넣고 산 혈육의 모습이였다.

서필몽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며 물끄러미 마주보기만 하는 아들을 껴안고 울었다. 그들곁에는 어린것을 돌봐준 고마운 녀인이 서있었다.

서필몽과 그의 아들이 안해와 어머니를 찾아갈 길은 여전히 막혀있었다. 38°선은 분계선으로 이름이 바뀌였고 민족의 가슴에 형언할수 없는 아픔을 새겨주는 원한의 분렬선으로 되여버렸다.

철이 없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서필몽의 새로운 고행이 시작되였다.

북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은 돌려세울수 없는 그의 유일한 의지나 한가지였기에 분계선이 가까운 마을들에 자리를 정하고 차례지는 일이면 무엇이나 하였다. 천분이였던지 음식을 잘 만들어 식당들에 채용되여 일하면서부터 아들애의 배는 곯지 않게 됐다. 기회만 엿보는 서필몽이여서 여러차례 분계선을 넘으려다 붙들려 온갖 고초를 겪었다.

그때마다 사람은 제 피줄을 찾아 살기마련이 아닌가, 자식이 어미품으로 가겠다고 하는걸 막는게 옳은 처산가, 이렇게 수없이 항거해보았지만 들어주는 귀는 어디에도 없었다.

당시 리승만《정부》는 전후 여지없이 파괴된 경제와 실업대군이 늘어나는데 당황하여 고아들과 실업자들을 해외에 이민을 보내는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로동력수출의 한 형태로 감행되였는데 그 집행은 온갖 감언리설과 회유기만의 방법으로 하였다.

배운것이 없는 서필몽은 좋은 일자리를 얻어준다는 속임수에 넘어 이민대상으로 등록되였으며 강제로 배에 실렸다. 그제야 자기들부자가 어디로 간다는것을 안 그는 발버둥쳐보았지만 허사였다.

아들을 품에 안고 멀어져가는 고국땅을 바라보며 서필몽은 원통하여 가슴을 쳤다. 나라를 잃었을 때는 왜놈들에게 강제로 끌려갔기에 고향을 떠났지만 오늘은 제 《나라》라는것이 있는데도 남의 땅으로 쫓겨가야 하니 이런 일도 있느냐!…

지은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두손으로 머리를 싸쥔 상록은 뇌리에서 일고있는 우뢰소리를 들었고 번쩍이는 번개불을 보았다. 피덩이같은 눈물이 볼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눈앞으로는 그지없이 어질고 선량한 아버지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뻐꾸기소리를 들려주던 마지막모습이 회오리치며 다가들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어미품을 찾아주지 못한 나로구나. …》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시인듯 들려오자 상록은 차탁에 머리를 찧어대며 고통을 삼켰다. 울음을 터치고싶지만 울 자격도 없는 자기를 보았던것이다.

제 4 장

31

에쎈구락부는 여전히 신사숙녀들로 흥성거렸다.

정객들, 기업가들, 언론의 유명짜한 신사들이 진을 치고 유럽의 정치정세와 미구에 들이닥칠 금융위기를 전망하며 분석하고있는가 하면 신문과 통신들의 로골적인 허위보도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서상록은 여기에 오면 앉군 하는 그 자리에서 거만한 무리들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안색은 전에없이 밝았고 주위를 관망하는 눈빛도 여유작작하였다. 변한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늘 손에 들고있던 려송연이 보이지 않는것이였다.

신사숙녀들이 유유히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에쎈의 전도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놀라게 됩니다. 예상외의 도전들을 유감없이 헤쳐나간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결집력을 가지고 내적인 불안정을 해소하는가 하면 외부적인 저항들도 전술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있는데 이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천만에! 결코 순탄한 길을 걸을수 없는 지그프리트요. 에헴, 두고보시오. 에쎈이라는 함대는 침몰되고야말거요.》

《어떤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요?》

《해상경보요! 핫핫핫.》

호기로운 웃음소리를 따라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숙녀다운 차림새가 무색하게 녀자의 허리가 꼬이면서 풍만한 궁둥이가 떨어댔다.

《기지가 있어요. 계속해요.》

《정보의 가치는 항용 만족할 보수를 요구하지요. 무엇을 지불하려오?》

남자의 얼굴이 탐욕을 띠고 녀자의 턱밑으로 다가들자 대답은 더욱 멋들어진것이였다.

《어느 부분을 요구하시나요. 호호호, 마음놓고 요구하세요. 어서요.》

사나이의 상반신이 뒤로 젖혀지며 주먹을 틀어쥔 손이 높이 쳐들렸다.

《최근에 입수한건데 워싱톤이 에쎈에 대한 제재결의를 준비하고있다는 정보가 있소.》

그 소리에 항거하는듯 한 웨침이 울려나왔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요.》

《백악관과 월가의 주인들에겐 벗도 원쑤도 따로 없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의 세계전략과 리익만이 있을뿐이요.》

기염을 뿜어댄 사나이가 앞에 선 녀자에게서 이미 받아낸 약속대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의 허리를 끌어안더니 보기 좋게 입을 맞추고나서 말했다.

《당신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우린 가서 춤이나 춥시다.》

한바탕 광기어린 추태에 출연한 사람들이 우글벅작 흩어지는것을 바라보던 상록은 저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있는 한사람에게 눈길을 모았다.

WM의 리사 다울링이였다. 점잖게 차려입고 무엇인가를 찾아낼듯 둘러본다. WM이라는 포장을 하고 자기와도 상종한바 있는 인간이였다.

에쎈구락부에서 류통되는 정보들은 반드시 엄격한 분석을 거친다. 방금전에 지껄인 말들이 어느 정도 진실을 내포한것일가 하고 상록은 생각했다.

오늘의 세계에서 적대국이나 설사 동맹국일지라도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대상들에게 상시적으로 가하는 제재는 미국이 상투적으로 활용하는 수법이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오만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도 오랬다. 합법적인 국가를 무력으로 붕괴시키고도 자유와 정의를 《수호》했다고 떠들어대며 마피아들을 지원하고 무장한 국제테로조직들이 내전을 도발하게 부추기면서도 자기들을 《평화의 사도》라고 공공연히 자처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중심의 리익과 가치관으로 인류를 질식시키고있다.

상록은 비로소 자기와 자기 가정이 당하고있는 불행의 원인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있는것이였다.

한편 이곳에 오면 볼수 있었던 인물들이 자취를 감춘것이 의문을 자아냈다.

쌍드의 활무대였던 에쎈구락부가 아닌가. 매혹적인 용모와 발레무용수로서의 자태를 시위하던 녀자인데 종적을 모르게 사라진것이 참으로 이상하였다. 그런가 하면 바클리의 거간군다운 모습도 찾아볼수 없다. 자

기 입으로 말했듯이 유쾌한 도적질마저 싫증났단 말인가.

더이상 앉아있고싶지 않아 일어나려던 상록은 자기곁으로 다가오는 WM의 리사라는 사나이의 모습을 띄여보고는 이상야릇한 흥미를 가졌다.

저녀석의 진짜 신분은 무얼가. 골프장에서 만났고 그후에도 상면하였지만 가늠을 할수 없게 하는 인물이였던것이다. 폭력배들과 련결된 인물로 보기에는 너무도 점잖았다.

《안녕하십니까, 상록선생.》

《어서 오시오.》

상록은 반갑지 않은 사람이지만 자리를 권하는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두손을 펼쳐보인 사나이는 기묘한 웃음을 지었다.

《우린 이젠 구면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다울링씨?》

상록의 질문에 다울링은 잘 다듬은 수염을 쓸어올리며 긍정했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친구가 되기도 하지요.》

《어ㅡ 그럴가요? 그럼 한가지 물어도 될가요?》

상록이 의미있는 눈길을 보내자 상대는 호기심을 가지고 머리를 끄덕였다.

혹시 우연한 자리에서 놀라운 리득을 볼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있는지 몰랐다.

《다울링씬 바클리를 잘 알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돌발적인 물음이였지만 다울링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골프장에서 느꼈던 능청기는 볼수 없는데다 어딘가 랭철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얼굴이다. 한때는 서상록과의 협조를 바랐는데 이젠 거기에도 흥미없어하는게 알렸다. 목적에 따라 심리를 조절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록선생, 생활이야말로 흥미있는 세계가 아닐가요?》

물음에 물음을 제기한 다울링은 마주앉으며 이야기를 펼치였다.

사람은 생활속에 존재하지만 그 생활이 안고있는 비밀은 다 알수 없다. 억만장자는 자기가 몇시간후에 자살하게 될수도 있다는것을 모르기에 만족해하며 만인지상의 절대권력자라고 자처하는 대통령도 오늘 밤에 저격당할수 있다는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인간세상이라는 삼라만상을 리해하고 꿰뚫어본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것이라고 말한 다울링은 궤변에서 현실로 급격히 전환하며 물었다.

《상록선생은 나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록은 자기가 이 사람을 피상적으로밖에 모른다는것을 인정하며 고개를 저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자기에게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제의해오는 그 어떤 도움도 필요없다는것만은 알고있었기에 마음은 평온했다.

《다울링씨는 언제나 남에게 호의적인가요?》

《바클리나 쌍드 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그럴수 있지요.》

《WM과의 협조를 바라시는가요?》

《상록선생은 지연전술로 이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까.》

상록은 상대가 생각한것보다 로회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 사람은 바클리나 자기를 랍치했던 폭력배들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추정하며 말했다.

《기회를 옳게 판단한다는것은 어렵지요.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야 사실상 허약하기 이를데없는 학자들이거든요. 잘못 고용되면 연구소 같은것이 뭐겠습니까. 다울링씨가 말했듯이 억만장자도 파산당하거든요.》

다울링의 눈길이 한층 다가들었다.

《상록선생은 기회가 아니라 세력균형에 대한 감각을 바로가지는것이 필요합니다.》

서상록은 시무룩이 웃었다.

《고급한 협박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선생에게 하게 되는 진심의 권고입니다.》

다울링은 낮은 소리로 설명을 했다.

에쎈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모험적인 계획을 실행할수도 있다. 그것도 가까운 시일안에… 바클리나 쌍드가 자취를 감춘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흑막속에서 꾸며지는 모략이 무엇이겠는가는 누구도 모른다.

에쎈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떠들어댄 사나이도 여기에 목적의식적으로 나타난것이나 같다. 바로 그가 말하는 제재범위안에 당신과 당신의 연구소도 들어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나는 참혹한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기에 당신에게 알려주는것이다.

《이것은 상록선생에게 알려드리는 새 소식입니다.》

서상록은 이전 같았으면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지금은 꿈만했다. 자기에게 이런 배심이 어디서 생긴것인지 알수 없었다.

《다울링씨, 당신의 권고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떤 강요를 하려는데 대해서는 접수할수 없소.》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를 하는 서상록을 다울링은 자못 예리한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찌를듯 한 눈빛에서는 후회가 없기를 바라오 하는 무언의 경고가 흘러나오고있었다.

어느덧 호수의 수면에는 노을이 내려앉고있었다. 여러 종류의 물새들이 깃을 치며 날아오르는가 하면 날개를 펴고 물면을 스치며 살처럼 날은다. 물속의 고기들도 자기들의 재간을 보여주려는지 공중교예나 하듯 비늘을 자랑하며 솟구쳐올랐다가 물에 뛰여들기를 하는것이 보인다.

두사람은 얼마쯤 거리를 두고 앉아서 낚시질을 하고있다. 서상록과 지그프리트였다. 그들의 안색을 보면 기분이 좋다는것이 알렸다.

《여보게, 산대를 가지고 오라구! 어서!》

낚시대에 힘을 주어 당기며 지그프리트가 상록에게 소리쳤다. 아주 큰 놈이 물린 모양이다. 산대를 찾아든 상록이 달려오자 지그프리트는 줄을 당겼다 늦추었다 하더니 잠시 맥을 보고나서 획 쳐들어 걸린 고기의 주둥이가 수면우로 올라오게 하고는 다시 놓아주었다. 처음엔 요동을 쳤는데 이젠 맥이 빠져버린것이 알렸다.

지그프리트가 천천히 줄을 당기자 잔등을 드러낸 팔뚝만 한 잉어가 공손히 끌려 기슭에 이르더니 힘을 모아 꼬리를 쳐댔다. 상록은 익숙된 날랜 동작으로 산대를 들여밀어 고기를 퍼올렸다. 제법 큰 놈이 풀판우에 나동그라져서 펄쩍거려대는게 볼멋이 있었다.

《어떤가, 내 솜씨가?》

《두세키로는 실히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물속을 들여다보는 시야도 가지고계시는줄은 몰랐습니다.》

《허허허, 이런 놀음이나 하면서 살라면 얼마나 좋겠나. 천적들의 무리속에서 리윤을 지켜싸운다는건 참으로 힘겹다니까.》

《차례진 운명인걸요.》

상록의 말에 부정을 못하며 고개를 끄덕인 지그프리트가 숲속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싼타나가 모닥불을 피우고 낚시질한 고기를 손질하여 굽고있었다.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이젠 한잔 마시자구. 낚시질은 매우 유익한 휴식이네. 다른 측면에

서는 풀지 못해 고심하던 문제들을 매듭짓는가 하면 새로운 문제를 도출해내기도 하거던.》

두사람은 싼타나가 마련한 자리에 가서 앉았다. 사람은 자연과 가까이 한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두 남자는 어린시절처럼 제손으로 잡아서 구운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아무런 격식도 없이 맨손으로 입가장자리에 숯검댕이를 묻히기도 하고 뜨거워 후후 불어대며 씹는 맛이란 무엇에도 비길데가 없었다.

상록은 먹는데만 열중하는것 같은 지그프리트를 이따금 넘겨다보며 시간은 황금이라는 론리에 충실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여간 궁금하지 않았지만 먼저 묻고싶지도 않아 싼타나를 넘겨다보았다.

조용한 자태를 갖춘채 모로 비껴앉은 그의 모습이 오늘은 유난히도 눈길을 끈다. 얼마나 사색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녀자인가. 지나친 정숙이 흠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상냥하고 발랄한것만 조금만 섞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고 엉뚱한 궁리까지 하였다.

손수건으로 입을 대충 문질러댄 지그프리트는 모닥불을 잠시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떤 호화스러운 연회도 나한테 지금과 같은 만족을 준적이 없었네.》

싼타나는 약간 놀라는 눈빛으로 지그프리트를 바라보지만 몸가짐은 조금도 달리하지 않았다.

《진수성찬도 마음이 편해야 하거든요.》

《옳은 말이네. 난 상록선생과 싼타나에게 사의를 표하자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네.》

지그프리트는 저으기 흥분하였으며 듣고있는 두사람도 그의 다음 말을 은근히 기다렸다.

첨단제품개발경쟁은 더욱 치렬하게 진행되고있다. 에쎈은 상록의 연구소에서 내놓은 집적회로에 기초하여 새로운 형의 콤퓨터를 생산하고있는데 기능과 용량에 있어서 비약적인 진보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시장과 기업체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이번에 공개한 에쎈의 정보기술제품들은 인기를 독점하다싶이 하고있으며 주문량이 날로 증가하여 다른 독점체들이 아우성을 지르는 형편이다. 벌써부터 기술협력을 요청해오고있으며 거래를 가지기 위해 저자세를 보이며 접근해오고있다. 이것은 에쎈에 막대한 리

윤을 추구하게 하는 한편 경영전략실현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있다.

《에쎈에 난관을 조성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해질수 있다는 위기를 느낀단 말이요.》

자기도 알고있는것을 새삼스럽게 말하는 지그프리트를 바라보며 상록은 생각이 많았다.

과학과 기술이 오늘날 독점체들의 패권다툼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핵심으로 되고있다는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새 제품개발이 에쎈의 위기극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다. 공연히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 손해만 볼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린접한 독점체들에서 생겨나고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유리한 국면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지그프리트였다.

《미국의 제재결의라는 말까지 나돌고있답니다.》

잠자코 있을것만 같던 싼타나가 조심히 말을 꺼냈다.

《랑설로만 들을게 아닌것 같습니다.》

상록이도 우려를 표시하자 지그프리트가 모닥불을 헤쳐놓으며 자신있게 말했다.

《그건 우둔한 힘의 론리요. 모든 힘은 상대적이란 말이요. 아인슈타인을 모르기때문이거던. 손해를 주려면 저도 손해를 봐야 하는거요. 힘이 센 망나니가 천하를 얻었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소. 하하하. 싼타나, 기지를 발휘하오.》

담담한 얼굴로 듣기만 하던 싼타나가 힘을 받았던지 가볍게 응수했다.

《그런 망나니가 나타나서 골목대장노릇을 하려는것도 이 세계의 현실인걸요.》

녀자의 비유가 마음에 들어 상록도 한마디 했다.

《혼자서 수많은 적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 에네르기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풀에 넘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땐 일으켜세워줄 사람도 없을테니까요.》

《바로 그거요, 하하하.》

호반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고 지그프리트가 먼저 떠나자 상록은 싼타나와 함께 자기들의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두사람은 다같이 기분이 좋았다. 싼타나가 상록의 팔을 살며시 끼며 머리를 어깨에 가져다댔다. 저녁바람이 싱그럽게 불어오며 녀자의 머리카

락을 조심스럽게 날리였다.

《선생님, 전 왜선지 이따금 불안해진답니다.》

싼타나의 음성은 알릴 정도로 떨렸다.

상록은 이 녀자의 심중이 야릇하게 변하는것을 여러번 감수한바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동요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로서는 자기가 의지해야 할 녀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였던것이다.

《내 걱정을 너무하지 마오.》

싼타나의 입김을 타고 속삭임같은 말이 귀전으로 흘러들었다.

《이렇게 어디까지든 걸으면 좋겠어요.》

《싼타나에게도 이런 정서가 있었는가!》

《느끼지 못할뿐이지요. 선생님이…》

차의 뒤문을 열어 싼타나가 편안히 오르도록 도와준 상록이 말했다.

《차는 내가 몰겠소. 눈을 감고 앉아서 명상에 잠기오.》

밀실에 모여든 사람들은 마치도 우리에 갇힌 짐승들처럼 서로 마주보기만 했다.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을 가진 샤멜이 이따금 갱핏한 턱을 내흔들면 뱀처럼 도사리고 앉은 오자와라가 할기죽거리고 바클리는 앉아있기가 지겨워났는지 하품을 하려다 입을 손으로 막았다. 문가에서는 장승처럼 벋치고 선 두사람이 뒤짐을 지고 지켜본다.

오자와라는 지금과 같은 두문벌을 받아보기가 처음이였다.

얼마나 황홀한 자기의 모습이였던가. 게걸든 남자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바라는것을 안겨주면 미친듯이 날뛰였다. 쾌락을 만족의 극치로 여기며 목적을 이루어왔건만 지금은 숨어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여버린것이다. 생각할수록 씹어삼키고싶은 싼타나였다. 그때문에 저 흡혈귀같은 녀석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였으며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이 꼴로 되지 않았는가.

기분상태는 바클리도 오자와라와 다를바없었다. 도적놈으로부터 은행강도로 성장한 그는 감옥살이도 밥먹듯 해왔다. 형기를 받고 살면서 새로운 형기를 받을 범죄를 준비해온 그였다. 살기는 그때가 좋았다고 여기는 바클리다. 특수한 조직의 특수한 계률이 항시적으로 목을 조이고있으니 질식되는것만 같았던것이다.

샤멜은 이따금 여윈 손가락마디를 소리를 내여 꺾어댄다. 그것이 신경을 자극할 때마다 오자와라는 눈을 감았고 바클리의 피발이 선 두눈은 상전을 금시 물어메칠듯 노려보았다.

두 장승이 벋치고 선 문으로 한사람이 들어섰다.

오자와라와 바클리는 저들의 상전에게 다가와 종이장을 내미는 사람을 마뜩지 않게 노려보았다.

《결심을 승인한다. 방법과 수단은 당신의 판단에 맡긴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성공뿐이다.》

지령문을 읽은 샤멜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변화도 없었다.

바클리와 오자와라는 무슨 말이 나올가 하고 가슴을 조였다. 소리없이 걸음을 옮겨 창문쪽에 이른 상전이 문발을 거두었다.

방안은 한층 밝아졌지만 그것이 공포감을 불러들이는것만 같았다. 꼿꼿이 서서 밖을 내다보던 유령이 얼굴을 돌렸다. 입은 움직이는것 같지 않은데 이를 갈아대는것 같은 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로서는 매우 불리한 정황에 부닥쳤단 말이요.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걸 알아야 하오. 에쎈의 첩자들도 움직일거요. 당신들은…》

말허리를 꺾은 유령이 바클리와 오자와라를 시야에 잡아당기며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이미 감시대상이 됐단 말이요. 유감이요, 오자와라.》

지명을 당한 녀자켠에서는 자기도 모를 일이라는 의미를 표시하려고 맵시있게 몸을 흔들었다. 상전은 이번에는 바클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클리씨도 다를바없소. 확실히 당신들은 너무 로출된 인물들이요. 따라서 잠복해야 하며 면밀한 계획밑에 움직여야 하오.》

오자와라가 팔짱을 끼며 어깨를 으쓱해보인다.

《나의 랍치계획은 변함없어요.》

샤멜의 창백한 얼굴에서 만족해하는 기운이 섬찍하게 흘러갔다.

《서상록은 내가 장악하고있는 인물입니다. 일거일동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있거든요.》

《좋소, 아주 좋소.》

문가에 선 두 장승과 지령문을 가져온 사람까지 손짓으로 내보낸 샤멜

은 바클리와 오자와라의 앞으로 다가왔다. 탁자우에 놓인 위스키병을 기울여 잔들에 붓고나서 어서 들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바클리는 사약을 마주한 기분을 느끼며 잔을 집어들고는 한모금 마셨다.

《최종적인 결심도 당신들이 내리시오. 행동결심말이요. 왜냐하면 정황이 류동적일수 있기때문이요. 그러되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오. 오자와라의 랍치계획을 바클리가 잘 도와야겠소. 그 다음은…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서상록은 대담하게 제거해버리는거요. 에쎈을 위기에 몰아넣는데서 이건 매우 중요한 고리요.》

오자와라가 잔을 들었다. 샤멜의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가봐 근심했는데 자기의 목적과 부합되기에 얼굴색까지 밝아졌다.

32

과학적인 환상의 원천은 열정이다. 그것이 《뉴톤의 사과》를 낳았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열이야말로 모든 발견과 발명의 출발점으로 되기때문이다.

서상록은 완성된 딸의 론문을 읽으며 참으로 의미심장한 충동을 받았다.

아버지와 딸은 유전적으로 혈친관계이지만 서로 다른 세대로 나뉘여지기마련인것이다. 자기의 자식이 갖춘 안목에 내심 놀라면서도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한것은 딸애의 밝은 앞날을 내다볼수 있게 하기때문이였다.

《누가 더 많은 자료 즉 정보를 소유하는가가 과학기술발전의 척도로 될것이다. 따라서 자료기지를 구축할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의 완비, 정보처리를 최대화, 최적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연구사업이 진행되여야 한다.》

상록은 지연의 론거에서 아직은 철부지라고 여겨온 딸의 과학적리상과 목표를 느끼면서 가슴이 후더워나는가 하면 은근히 걱정도 되였다. 인재도 때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는 이무렵에 와서 자기를 더한층 랭철하게 투시해보기 시작하였다. 치부와 명예에 대한 갈구가 전부나 같았던 과거의 생활을 부정할수 없었던것이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다 해도 자기처럼 살수밖에 없는 딸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서상록은 딸이 자기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자기에게 그의 앞날을 인도해줄만 한 능력이 있는것도 아니였다.

그는 지금 싼타나와 함께 있을 딸을 찾아 실험실로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무엇을 알자고 해서도 아니고 어떤 조언을 주려는것도 아닌 맹목적인 행동을 하고있지만 상록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싼타나가 지연의 론문에 만족을 표시한 상태이고 딸은 며칠후엔 대학으로 돌아가는 시각이 다가오기에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안락의자에 기대여 책을 보고있었다.

《휴식은 사업에도 절박하게 필요한거요.》

방에 들어서자 이런 말을 하는 상록을 바라보며 싼타나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례의를 표시하지만 지연은 책에서 눈도 떼지 않으며 말했다.

《오늘은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점심식사에 초대하자고 하는건 아닐게구 사색의 긴장을 풀었다구 나무라시려는게 아닌지…》

싼타나가 상록에게 자리를 권하며 지연을 가볍게 질책했다.

《지연, 응석을 부릴 나이가 지났어요.》

그제야 책을 내려놓은 지연이 자세를 바로하는데 지어먹은 동작이다.

《그건 전번에 보던 한시집같지 않구나.》

《아니예요, 아르쎄느 루뺑!》

지연의 대답에 싼타나는 무색해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너야 처년데 렵기적인것을 좋아해서야 안되지.》

아버지의 나무람을 들은 지연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왕청같은 소리를 했다.

《콜룸부스도 해적이 아니였나요.》

《허허, 넌 언제 봐야 엉뚱한것만 궁리해내는구나.》

상록이 웃자 싼타나는 마음이 놓이는지 지연의 옆자리로 옮겨가 앉았다.

《이 나이때가 심리적으로 제일 불안하답니다. 호기심, 즉흥, 용감성, 무분별… 녀자로서 실수하기가 제일 쉬운 시기라고 해야지요.》

《그런가봐요. 못할 일이 없을것 같거든요. 꿈도 기막힌것만 꾸니까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행성에 찾아가는가 하면 번개를 길들여 전기를 생산하는 놀라운 기적도 창조해요. 대양의 제일 수심이 깊은 곳에다 멋진 궁전을 짓고 녀왕이 되는 꿈은 정말 황홀해요.》

지연은 조금도 구속이 없는 자기의 감정과 세계를 드러냈다.

《그건 꿈이라기보다 인간의 리상이 되여야지. 아버진 너의 론문을 보고나서 궁금한김에 찾아왔다. 너의 정보통신망은 앞으로 어떤 발전의 길을 걷게 되는지 알고싶구나.》

《그건 자신있게 설명해드릴수 있어요. 지금은 1998년 8월이예요. 이미 비약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선 정보통신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생활령역에서 보다 유익한 환경을 마련하여줄겁니다.》

지연은 정보통신기술의 현실적발전추세와 결부하면서 자기의 리상과 목표를 설명하였다.

《어떻소? 싼타나. 우리애의 꿈이 말이요.》

《정말 꿈이 아니지요. 치렬한 경쟁은 벌써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꿈이 아니예요.》

《너의 론문의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

상록의 말에 지연은 머리를 까딱댔다.

《아버지도 인정하시는군요. 쉽지 않은 일인데…》

과학적인 진리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스콜라학파도 오래도록 천동설을 주장해왔지만 마침내는 지구가 돈다는 자연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암흑의 세월을 거슬러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학자들과 선각자들이 종교재판으로 처형되였는가를 알수 있다. 력사란 이렇게 이루어졌고 과학은 가혹한 폭정속에서 자기의 법칙들을 완성해왔다고 해야 할것이다.

상록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 딸의 장래를 놓고 우려감을 지울수 없었다.

《아버지, 무슨 근심이 생겨서 찾아오신건 아니예요?》

느닷없이 불쑥 묻는 지연의 말에 먼저 놀라는것은 싼타나였다.

상록은 태연하게 웃지만 마음은 딸의 생각과 다름이 없었다.

《걱정없는 사람은 없다. 원체 생활이란 그런거니까. 한가지 권고하마. 싼타나선생이 세워준 생활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싼타나는 상록의 당부를 들으며 지연의 안색을 살폈다. 이 령리한 처녀의 머리속에 무슨 궁리가 자리를 잡고있는지 알아낼수는 없는것이다. 론문지도에서는 별일이 없는것 같지만 생활에서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수 없게 한다. 이것은 지연에게서 남다른 호기심과 모험심도 발견한 그의 불안감이였다. 머리가 좋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지

만 본인은 자기 주위환경을 알지 못하고있기때문에 위험하다고 간주하기에 싼타나는 마음의 긴장을 풀수 없었던것이다.

…그 시각에 정동녀는 쌍드의 전화를 받으며 이상한 의혹을 품게 되였다.

《언니, 나예요. 쌍드.》

변함없는 정다운 목소리지만 정동녀는 별스럽게 낯선 소리같이 들리였다.

《오래간만이구나. 어떻게?》

《지연이가 론문을 끝냈다는걸 알고있어?》

정동녀의 심중은 까닭없이 께름직해나기까지 했다. 그 리유를 알수 없어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사람에게는 예감이라는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그였다.

《모르고있었어. 정말이야.》

《이상하게 군다. 무슨 일이 있은건 아니예요?》

《일은 무슨 일!》

《목소리가 어딘가 무겁다.》

《별소릴. 그런데 어디서 전화를 하지?》

《좀 먼곳에 왔어. 인차 갈게. 지연이가 보구싶어.》

《좀해서 시간을 못 내는구나.》

《지도교원이라는 녀자가 애를 너무 얽매둔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며칠후에 돌아갈테니 기다려요, 언니.》

통화를 끝낸 정동녀는 자기의 손에 들린 손전화기를 한동안 내려다보았다.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불안이 갈마드는것을 물리칠수 없었다.

살림집인지 점방인지 형체를 가려볼수 없는 방안에는 가구래야 나무침대가 하나이고 벽에 매놓은 당반우에는 만들다만 인조꽃송이들이 놓였는가 하면 식탁 비슷한 탁자에는 먹다남은 빵과 고기순대가 되는대로 널려있는데다 술병과 귀떨어진 접시, 마사진 전자제품의 부속품들까지 보인다. 구석에도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음직한 작은 지함들이 쌓여있다.

주인이라는 사람은 동이를 올려놓을만 한 큰 배를 안고 비좁은 사이를 겨우 오가며 무엇이 마깝지 않은지 혼자서 제김에 화를 내군 한다. 이 사람이 상록의 집사노릇을 해먹던 작자이다.

비만증이 위험준위에 이른 몸을 간신히 움직이던 그는 나무로 만든 팔

걸이의자에 엉덩이를 부리우고나서 더위로 하여 헐떡댔다. 하는 일도 없이 배를 두드리며 살던 때는 지나가버린것이다.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먹여줄 사람이 없는 각박한 세상이다. 굶자니 배가 너무도 컸고 채워넣자니 그 량이 한정없었다. 참으로 살아갈 일이 암담해진 사나이다.

《바클리때문에 쫄딱 녹았거던. 이 모양이 된것을 알렸는데 돌아보는척도 안하는 개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바보라는거지.》

살진 턱을 흔들며 혼자서 투덜거려댄 사나이는 털부숭이팔을 내뻗쳐 술병을 쥐고는 병채로 몇모금 마시고나서 입술을 문질러댔다.

《이놈의 세상, 벼락이나 콱 맞아라. 바클리 같은것들이 뒈지면 내가 좋아하지 않으리.》

술기가 오른 그는 천정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계십니까?》

어떤 녀자가 찾아들며 인사말삼아 묻기에 사나이는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멍청히 바라보았다.

채양이 넓은 초물모자를 썼는데 어디서 본 녀자 같기도 했다. 양초빛 바지와 같은 색갈로 지은 웃옷을 단정하게 입은게 지체가 있어보였다.

《뉘신데 누굴 찾아왔는가요?》

녀인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으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남자만 있는 방안에 들어섰지만 행동거지가 얼마나 침착한지 위압감 같은것을 주기에 사내는 눈만 뜨부럭거려댔다.

《절 모르시겠어요?》

《글쎄요.》

《한스라고 부르지요?》

사나이는 입을 쩍 벌렸다. 례절을 갖춘줄 알았는데 남자인 자기 이름을 우습게 불러대기에 화가 치밀었던것이다.

《그렇게도 못 알아보겠는가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남자의 배심을 살린 사내가 신경질적으로 되물었다.

《참, 한심도 하지. 연구소에도 왔던것 같은데, 서상록박사네 연구소에…》

그제야 눈을 크게 뜬 사내가 싼타나를 알아본듯 살진 턱을 흔들어댔다.

《실업을 당한것이나 마찬가지군요. 이런 곳에서 살줄은 몰랐어요. 여

긴 이 도시의 빈민촌이나 한가지지요.》

그야말로 바란적 없는 녀자가 나타나 약을 올리는것이다. 하지만 제꼴이 적라라하게 드러나는지라 할 말이 없어서 사내는 쓴입을 다시였다.

《이야기를 좀 해볼가요?》

싼타나는 걸상의 먼지를 손수건으로 털어내고는 모서리에 앉았다.

《화를 돋굴 생각은 마시우. 난 지금 신경계통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요.》

《이봐요, 한스씨! 살아가는데 필요한 첫째가는 요령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난 이미 경고했소. 날 놀릴 생각은 말라구.》

한스가 바닥에 내려놓은 술병을 다시 들자 싼타나는 놀라는 기색이란 전혀 없이 말했다.

《얼굴을 보니 아직 알콜중독은 오지 않은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 적게 마시세요. 남자들은 그 물에 자기를 망친다니까.》

얼마나 친근한 타이름인가. 녀자이긴 해도 범접 못할 기상이 느껴진다.

한스는 제 꼬락서니가 가긍하여 술병을 든채 마시지 못하고 흐흐 웃어댔다.

《물어보자요. 바클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한스의 큰 배가 움씰거렸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개자식이요.》

《내가 알려줄가요?》

《아니!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소. 너무 가죽이 두꺼운 놈이 돼서…》

싼타나는 상대의 기분엔 개의치 않으며 말했다.

《웰헬름거리 121번지에 있어요. 한때는 발레무용수로 인기가 있던 어떤 미인과 함께…》

한스는 《흠ㅡ》 하는 코소리를 쓰겁게 내뱉을뿐이다.

《한스씨가 날 도와야겠어요. 그렇게 해야 해요.》

달리는 될수 없다고 그루를 박는 싼타나의 말에 한스는 멍청해졌다. 이년도 바클리처럼 나를 부려먹자는게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한 그 집을 잘 감시해야겠어요. 그러되 철저히 위장하고 말이예요. 그에 대한 보수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 매일 드리지요. 어떤가요? 만족할텐데…》

싼타나는 위장방법과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알려주었다. 한스의 태도는 곰상스러워졌고 계약은 쉽게 이루어졌다.

《이번 일을 잘하면 직업문제도 해결받을수 있다는걸 명심해요.》

한스는 문가에까지 나와서 싼타나를 바래웠다. …

도시중심의 대도로에는 각양각색의 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린다. 승용차의 조향륜을 잡은 싼타나는 앞선 차들을 천천히 따르며 자기의 상념에 잠겨있다.

인생이란 얼마나 다양한것인가.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가 대학을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상록의 연구소에서 일한지도 10여년이 지났다. 오늘의 행운은 지그프리트가 마련해준것이다.

지그프리트는 머리가 비상한 이 녀자에게 특수한 교육을 주었다.

에쎈이라는 대독점체는 자체방위와 기술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정신육체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선발하기도 하고 특수하게 양성도 하고있었던것이다.

싼타나는 연구사인 동시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거친 능력있는 정보요원이였다. 그의 임무는 서상록의 연구소를 영원히 에쎈이 장악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는 지그프리트의 지령에 따라 적수들의 준동을 사전에 파탄시키기 위해 오늘은 서상록의 집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집사를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험한 대상들인 바클리와 쌍드의 거처지를 비밀리에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잠복상태에 들어간 두 인물이 그에게는 불안한 그림자를 던지고있었다.

33

신문매대에는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다. 무더위에 지친 늙은이들도 신문을 사려고 나온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도이췰란드의 남부에 자리잡고있는 이 도시는 자기 특유의 전통을 보존하고있었다. 그것은 아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책이나 신문을 보건 안 보건 손에 들고다니는것을 하나의 멋으로 삼고있는것이였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런 풍속도 점차 퇴색되여가고있지만 여하튼 사람들은 책읽기를 좋아했다. 그중에서도 신문은 사실이건 외곡된것이건 새 소식을 전한다는데로부터 여전히 호기심을 끌고있으며 심심소일로 화제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처럼 찾아드는것이다.

다만 오늘은 구매자들이 눈에 뜨이게 많았다.

서상록은 차례가 되자 여러종에 달하는 오늘호 신문을 사들고 세워두었던 승용차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싼타나가 재빨리 일어나 나오더니 문을 열어주었다.

뒤좌석에 자리를 잡은 상록은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싼타나에게 운전대까지 맡기니 정말 미안하오.》

시동을 건 차를 천천히 몰며 싼타나는 무심한것 같지만 새겨듣게 말했다.

《맡긴게 아니라 맡았답니다. 선생님에게 자극이 되겠지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상록은 머리를 주억대며 신문의 기사제목과 내용들을 읽어내려갔다.

한면을 보는데 불과 몇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속독은 그의 읽기방법이였다. 주정부의 예산집행에서 드러난 비행, 마피아두목의 화려한 감옥생활, 별처럼 솟아올랐던 헐리우드명배우의 자살사건, 일상다반사나 같은 권력자들의 성추문행위, 주식시장의 파동… 흥미거리기사들이 너무도 비좁게 들어앉아 글자들이 넘쳐나다 못해 쏟아질 지경이다. 신문쟁이들의 생존경쟁은 종이장우에서도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상록은 기사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싼타나에 대한 사색을 하고있었다. 맡은 연구과제수행보다 자기의 신변에 대한 걱정을 더하는 녀자다. 그것은

지그프리트의 요구가 보다 엄격해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에쎈이 처한 환경이 긴박해진다는 의미도 가지기에 신경이 날카로와지는것이다.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오기마련이다. 에쎈의 반대세력들은 준비를 갖추고 기회를 노리고있을것이다. 언제 어느때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가. 자기나름대로의 추리와 가설을 세우던 그의 시야에 신문의 새로운 기사제목이 나타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성발사, 성공.》

제목과 달리 기사의 내용은 객관보도로서 린색하기 그지없었다. 그조차 통신의 보도를 전재한것이지만 상록은 그 짧은 기사로 하여 심장이 꿈틀대는것을 느꼈다. 동맥을 따라 내뻗친 피가 되돌이하여 세차게 심장을 다시 두드려댔다.

싼타나에 대한 사색은 더는 이어갈수 없게 되였다. 이와 같은 대뇌활동은 처음 있는 현상이나 다름없기에 자신도 그 원인을 해석하기 힘들었다.

등받이에 기댄 서상록은 눈을 감았다. 후사경에 자리잡은 자기의 얼굴을 싼타나가 주시하고있다는것도 알지 못했다.

이 위성발사에 대해 세상에 알리면서도 속통이 삐뚤어진 목소리들이 그의 귀전에서 들려오고있다.

우주산업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돌리는 분야로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억제할수 없는 자주적권리인것이다. 또한 고도과학기술이며 국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연구개발사업이라는것도 상록은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입심사나운 언론을 앞세우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것들이 누구인가도 어렵지 않게 짐작했다.

지구상에서 패권을 다투는 싸움을 하다못해 그 전장을 우주에까지 옮겨가는셈이다. 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아있으라는 론리를 내려먹이는것이나 다름없다. 강자들의 오만은 파렴치성에 있어서 극치를 이루지만 많은 나라들은 힘이 모자라 맞서지 못하며 굴종적인 길을 걷고있다.

서상록은 명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하던 말이 과학적론증을 하는 변론처럼 울리고있었다.

힘이 없으면 밟혀야 하고 망하게 된다.

아무런 분식도 없는 말이지만 진리라는것만은 명백했다. 오늘까지도 전쟁이나 분쟁의 참화에서 헤여나지 못하는 나라들과 종족들의 운명이 그

것을 보여주고있지 않는가.

배불리 먹으며 잘살기를 바라기 전에 자기를 지킬 힘부터 먼저 키워야 한다. 비단을 씌웠어도 굴레는 굴레다. 이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망각하면 민족의 령토와 존엄을 지키기는커녕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하여 조국의 동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 일떠선것이다. 자기의 힘을 믿는 인민은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상록은 명현의 말을 다시금 음미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먼곳에 있는 자기 민족이 사는 나라가 가깝게 다가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후회와 죄책의 조수가 가슴을 덮으며 밀려들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괴롭고도 착잡한 감정의 뒤엉킴이였다. 낳아준 부모들을 리해하고 안해를 긍정한 심리와도 다른 무거운 중압감을 동반한것이여서 그의 내면세계는 세찬 파도우에서 기우뚱거리는 배전처럼 되여가고있었다.

《선생님, 다 왔습니다.》

싼타나가 알려서야 상록은 눈을 떴다. 연구소에 도착한것이다. 차에서 내리는 그를 싼타나는 유심히 살피였다.

《난 조용히 혼자 있고싶구만. 싼타나.》

그 말에 고개를 숙여보이면서도 녀자의 시선은 의문을 앞세우고 따라섰다.

…상록은 숲속길을 잠시 걸어 작은 호수가에 이르렀다. 사방은 숨을 죽인듯 고요했다. 이따금 작은 물새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칠뿐이다. 자리를 가리지 않고 호수가에 주저앉은 그는 어디라 없이 먼곳을 바라보았다.

외롭게 물가를 날으는 작은 저 물새가 엄마를 찾아 우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자 상록은 마음이 한층 쓸쓸해났다.

어딘가 먼곳에서 들려오는 배고동소리, 그것은 자연의 음향중에서 제일 듣고싶지 않은 소리였다.

망망한 바다를 건너 정처없이 흘러가던 운명의 쪽배가 보이는것만 같았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제 고향에서 살고싶은 소망이 전부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갈라져야 했고 아버지와 아들은 남의 나라 땅에 버려졌다. 그 고행은 알프스산줄기가 뻗어내린 만리타향으로 계속 이어졌다.

살아서 안해가 기다리는 고향땅으로 돌아가고파 몸부림을 쳤건만 그 고향사람들에게 일시나마 본의는 아니더라도 외세가 쥐여준 총부리를 겨누

었던 죄의식때문에 무한한 그리움으로 생을 마지막시각까지 깡그리 태우면서도 끝끝내 아버지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불우한 그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전학적견지에서 놀라운 갑작변이가 아닐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선대를 닮기마련이건만 서상록이라는 인간에게는 유전되지 않았단 말인가. 어떻게 되여 오늘의 이 모양으로 변했는가.

상록은 가혹하게 자기를 돌이키고있었다. 사람은 이렇게 어느 한 계기에 자신을 랭철한 눈으로 들여다보는것이다.

그는 오늘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속에도 자기와 같은 과학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세계를 향해 터쳐올리는 위대한 탐구와 성공의 포성을 들었던것이다.

그리고 자기만족으로 포만해진 의식이 한시에 허물어져내리는것을 보았다. 제손으로 만들어 쓴 면류관은 한갖 겉치레에 불과한것이였다.

그의 명예란 이런것이다. 어데서나 자기를 찾는 사람들은 리윤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이 허용된다고 부르짖는 억만장자들이 아니였던가. 그렇게도 자부해온 천재적이고 눈부신 발명이 누구를 위해 복무했는가. 비단굴레를 쓰고 채찍밑에서 밭을 가는 한마리의 소가 바로 자기였음을 비로소 깨닫고있는것이다.

서상록은 물속에 자리잡은 자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제손으로 그린 사람들의 얼굴은 얼마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 얼굴을 그릴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그의 시각은 조형적으로 제 얼굴을 분석하는것이 아니라 정신을 파고들어 분해하고있었다. 자기의 머리속엔 온통 루추한것만이 들어차있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자 절로 신음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자기 인식의 모든것이 기형적이였다.

아버지에 대해 오해했다고 용서를 바란다면 세상이 웃을것이다. 오해란 몰리해에서 출발하는것이다. 몰리해, 그것이 무지가 아니란 말인가. 인간세상의 불효는 이와 같은 씨앗에서 움터나는 악의 한 형태다.

물질세계의 한 부분은 리해한다고 자처한 자기이지만 이렇듯 사람이 갖춰야 할 초보적인 품성마저도 일찌기 상실하고 살아온것이다. 일이 바로되지 않으면 부모탓이고 잘되면 제 잘나서라고 여기는 인간들은 모두 불효한 자식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제 와서 낳아준 어머니를 찾으며 다시한번 용서를 빈다는것도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다. 후안무치란 말이 왜 생겼는가.

서상록은 지금 자기를 놀라게 한 조국의 과학자들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들이 조국의 대지에 발을 붙이고 오늘은 우주를 향해 위성을 쏴올렸다면 래일은 그 조국을 위해 더욱 거대한 힘을 발휘할것이다. 그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 탐구의 열정과 두뇌를 바친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상한것인가. 인생의 시작은 어슷비슷한것 같지만 마감에 이르면 이처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수면에 새겨진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상록의 마음은 공허감으로 하여 적막하기 이를데없었다.

《아버지!》

외로움을 달래기라도 할듯 딸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상록은 고개를 돌렸다.

아직은 티 한점 오르지 않은 자식의 모습이다. 저 얼굴에 아버지와 같은 참담한 후회가 그늘로 남지 말아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그는 이 순간 안해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 내 딸은 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닮을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을 놓을수 있었다.

《여기서 무슨 생각을 혼자서 하세요?》

지연은 의혹을 품고 묻고있었다. 상록은 어색해난 웃음을 띠우며 공연히 몸둘바를 몰라했다. 있어본적 없는 군동작을 하며 옆에 와앉으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왜 그러나요? 아버지, 얼굴색이 좋지 않아요.》

이번에도 상록은 얼빤한 손짓으로 수면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아버지를 찾아보렴.》

《예? 어디서 누굴 찾으라구요?》

지연은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말뜻을 헤아릴수 없는데다 비정상적인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던것이다.

딸의 심중을 짐작한 상록은 마음을 눅잦혀주려고 웃어보이며 제 듣기에도 풀이 죽은 소리로 말했다.

《놀랄건 없다. 물속을 들여다보려무나. 아버지얼굴이 보이지?》

지연은 천천히 눈길을 옮겨 수면우로 던지였다. 그리고는 살래살래 머

리를 저어댔다.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수 없다는 몸짓이 구김없이 드러났다.

《하필이면 물에 비낀 얼굴을 보라고 하나요?》

《나로선 처음 보는 내 얼굴이기때문이다.》

《리해하기가 어려워요.》

지연은 마주 모은 무릎우에 두손을 포개고 턱을 고인채 대답했다. 사실 싼타나가 알려주어서 호수가에 나왔던 그였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는데 막상 아버지를 보고나니 생각과는 달리 어떤 불안이 갈마드는것이였다. 한시에 늙어버리는듯 한 모습이 아닌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버지의 거만은 어디로 가고 물속에 잠긴 얼굴조차 초췌하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가.

《지연아, 난 저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그려볼 결심을 했구나. 네가 사람이 눈을 왜 가지고 사는가 묻던 말이 생각나기도 했다.》

아버지의 침중한 목소리가 울리자 지연은 생각이 깊어진 눈길을 들어올렸다.

《명백한 화제가 되였으면 해요.》

딸이 무엇을 바란다는것을 뒤늦게야 알아차린 상록은 허거픈 웃음소리를 내면서 《그래그래, 내가 저만 아는 소리를 하는구나.》라고 말하고는 들고있던 신문을 내밀면서 무겁게 말을 이었다.

《이 아버지는 오늘에 와서야 자기를 보았다. 서툰 재간을 가졌다만 이제라도 내 진짜 얼굴을 그려보련다.》

흔하게도 나도는 신문이여서 무심히 기사의 제목들만 대충 읽어가던 지연은 마침내 한곳에 시선을 모았다. 이어 처녀의 가슴속에서 경탄이 울려나왔다. 그것은 흥분과 충동에 떠밀려 솟구친 감정의 분출이였다.

아버지와 딸이 받아안은것은 죄책과 동경이라는 차이는 가지고있었지만 말없는 지향은 한곳에 가있었다.

《너도 이 말은 들었을게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도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어떻니?》

지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는 알수 없었다. 다만 한가지 지금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괴로워하는가를 리해할수는 있었다. 현실로 느끼기에는 너무도 먼곳에 있는 생활이지만 처녀의 심정은 금시 눈물로 차오르는것이다.

《아버지!…》

상록은 자기의 품에 얼굴을 묻는 딸의 작은 어깨를 꼭 그러안았다.

《사람이 자기를 아는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는걸 이제야 깨닫는구나! 우리 지연에게는 나 같은 후회가 없어야 한다. 내 말을 듣니?》

아버지의 품에 안긴 딸은 목이 메여 머리만 끄덕거렸다.

호수의 수면우로 두마리의 물새가 정답게 찾고 부르며 날고있다. 어미새를 찾은 기쁨을 노래하는것일가.

이 두사람은 기이한 인연으로 서로의 리익을 위하여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된듯싶었다.

오자와라가 간교한 녀자라면 바클리는 음흉한 남자였다. 그들은 지금 한 굴안에서 자기들의 음모를 실현하기 위한 기발한 착상을 준비하고있었다.

바클리가 고용한 젊은 녀석은 레씨버를 끼고 앉아서 남의 목소리를 가지고 음성가공을 하고있다.

오자와라는 안락의자에 몸을 잠근채 눈을 감고 귀를 도사리고있었다. 며칠전 정동녀와 손전화기로 대화하면서 록음한 목소리를 반복하여 듣고있다.

《소리색갈은 비슷한것 같은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요. 이 녀잔 차분한 억양을 가지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말하거든요. 말끝을 맺을땐 가볍게 력점을 찍으면서 한숨을 살짝 내쉬군 하는 특징도 있어요.》

고용자의 재능을 믿고 배포가 유하게 들어앉은 바클리는 위스키잔만 기울인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먹을알이 없는 놀음에 끼여들었다는 불만이 쉼없이 흘렀다.

서상록과 흥정을 하며 뜯어낸 돈보다도 못한 보수를 받으며 지금 무슨짓을 하고있는가. 활개치던 세상을 등지고 숨어서 사는 신세다. 언제까지 이 꼴로 지낸단 말인가.

침울한 눈으로 오자와라를 넘겨다보며 바클리는 생각했다. 겉보기와는 달리 얼마나 간흉한 일본계집인가. 제 욕심을 차릴수만 있다면 무슨짓이든 다할 년이다. 기막힌것은 바클리라는 사내가 저년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서상록의 딸을 꼬여내는 일이 지금 같아서는 순조로울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로서는 일본계집이 앞에 나서서 일을 꾸미는것이 께름직하기만 했다.

저년은 만사를 사내만지듯 쉽게만 여기거던. 오자와라, 네가 원하는 일이 잘되는것도 바라지 않지만 그르쳐서도 안되기에 내가 이렇게 강건너

불보듯 하는거다. 흠흠. 이번 놀음은 너의 머리로 고안해낸것이니 책임도 네가 져야 한다는걸 알아야 해. 넌 샤멜과 우리 무리들이 자기의 계률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모른다. 이제 그 맛을 보면 고통속에서 후회를 할 거다. 네가 자랑하며 다닌 육체가 갈가리 찢기는것을 맛보면서 말이다.

오자와라를 눈에 담은 바클리는 이런 궁리를 하며 이따금 소리없이 웃어댔다.

《다시한번 들어보자요.》

가공된 음성이 울린다.

《지연, 나다. 이모야. 왜 이렇게도 만나보기가 힘드니? 여기 언니도 와있다. 응, 바꿔줄게.》

소음이 흐르는 속에 정동녀의 목소리가 재생된다.

《그새 잘 있었니, 엄마다. 론문을 마감지었다지? 용타. 정말 수고했다. 이모와 함께 있으니 시간을 내여 나오렴. 보구싶다. 전번에 네 얼굴이 축간걸 보구 잠이 다 안 오더라.》

오자와라가 손벽을 치고나서 바클리를 바라봤다. 자기의 기지가 어떤가고 묻는것이다.

《기술적진보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오.》

재빛수염을 쓸어만지며 바클리가 시큰둥한 소리를 내자 오자와라가 코웃음을 쳐댔다.

《여기엔 당신이 나설 연탁이 없어요.》

《우린 동물로 퇴화되고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거요.》

《그야 바클리씨지요.》

《나와 함께 동물세계에로 려행을 가지 않겠소?》

오자와라가 듣다못해 짜증이 나서 손을 홱 저어댔다.

이 방은 에쎈회사의 정보분석실이다. 따라서 규정된 인원외에는 누구도 출입하지 못한다. 대독점체의 전략이 론의되고 행동지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다. 표면상의 기업활동과는 달리 경쟁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것을 분석하고 대상의 약점을 찾아내며 시장과 원료원천지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책 등 기업의 생존전략을 연구하는 특수한 방인것이다.

지그프리트는 회전의자에 앉아서 현시되는 화면을 보면서 싼타나의 보

고를 청취하고있다. 서상록의 동향변화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문제들이 간단명료하게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모국을 외면해온 사람에게서 표면화되는 새로운 태도에 대한 분석에서 싼타나는 그답지 않게 약간 흥분하며 말했다.

《서상록은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는 서울에서 온 외교관의 검질긴 상면요구를 거절했을뿐만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서울방문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조선에 시각을 돌린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두손을 포개여 무릎우에 올려놓은 지그프리트는 침묵을 지키며 듣기만 하였다.

《사장님, 그 사람이 어떤 기회를 노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쌍드와 바클리는 어떻소?》

지그프리트의 물음이 자기의 의도와 방향을 달리하자 싼타나는 한걸음 나서며 대답했다.

《웰헬름거리의 121번지에 들어박혀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시는 주야로 엄격히 진행하고있습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내니 쥐들이 숨어버렸는가. 위험은 그것들에게 있소. 물론 상록의 동향도 철저히 장악해야지.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벗이요. 때문에 사소한 자극도 주지 않는게 필요하오. 알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에쎈을 둘러싼 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될것입니다.》

《그렇소. 제일 우려하게 되는건 원료원천지를 봉쇄당하는거요.》

《어떤 방법으로 봉쇄환을 형성할가요?》

지그프리트가 현시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의 경쟁자들을 발동하여 원천지에 대한 쟁탈전을 벌리게 할수도 있고 수출국들에서 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지. 그러면 계약을 지킬수 없게 되거던. 다음은 제재를 발동해서 압박하는거요.》

싼타나는 지그프리트가 안고있는 고충이 너무도 큰것이여서 이렇다할 분석도 판단도 할수 없었다. 기업전쟁의 규모를 알수 있었다. 힘이 모자라면 파산을 면치 못하는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경쟁일뿐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오늘의 세계다.

《사장님, 전 물러가겠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비가 내린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오.》

《알겠습니다.》

싼타나가 자리를 뜨자 지그프리트는 회전의자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서상록의 그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였다. 어머니를 찾자고 그럴것이다. 자기가 동생이 살아있다는것을 알고 기뻐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그도 인간이 아닌가.

그러나 상록이 조선이 쏴올린 인공지구위성에 대해 감격을 금치 못했다면 놀라지 않을수 없다. 그건 확실히 그의 정신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싼타나는 옳게 판단하였다. 다만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를 주지 않았을뿐이다. 어쨌든 녀자는 녀자인것이다. 얼마나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가도 녀자이기때문에 잘 가늠해야 하는것이다.

지그프리트는 상록의 변화에 대처할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34

마침내 완성된 론문을 대학에 제출한것으로 하여 지연의 마음은 푸른 숲처럼 설레였다. 자기도 과학이라는 실로 거대한 세계의 문어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된다는 자부로 들먹이는가 하면 자연을 정복할수 있는 힘을 지니고 먼 앞날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수 있게 되였다는 긍지로 하여 가슴은 한없이 부풀어오르는것이였다.

아버지가 한 말이 의미깊게 되새겨지기도 했다.

너는 자기의 두뇌를 어디에 바쳐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명백하지는 않았지만 암시적인 표현에서 이 령리한 처녀는 미지의 세계를 그려보기까지 했다. 그것이 현실로 되여준다면 아낌없이 자기를 바치리라 마음다지였다.

싼타나는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외출한 상태였다.

지금시간은 정각 16시다. 환희에 잠긴 처녀는 자기의 침실에 놓인 피아노앞에 마주앉았다. 눈을 감은채 어느 곡을 선정할것인가 생각하던 지연은 디디개우에 발을 올려놓고 고개를 살며시 숙이고나서 건반을 눌렀다.

바다쥐흐스까의 《처녀의 기도》의 아름다운 선률이 조화로운 균형을

갖추고 울린다. 단조로우면서도 은은한 제시부의 반복, 선률전개에서 독특한 굴곡… 18살에 세계명곡을 창작한 처녀작곡가의 모습을 불러오는것이다.

지연은 피아노연주곡으로서는 이 곡을 제일 사랑한다.

얼마나 절절하게 무엇인가를 기원하는가. …

원하는 선률속에 그는 자기의 마음도 실어보내고있었다.

내 만약 소원을 성취한다면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서 나와 같은 나이의 처녀들에게 뻐꾸기이야기를 들려줄테야.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는 그 이야기를…

갑자기 손전화기에서 호출음이 울렸다. 시간은 16시 20분.

쌍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지연은 반가왔다. 그것은 한순간의 감정이였다.

만나본지 오래서 찾는단다. 엄마도 함께 있다면서 바꿔준다.

론문을 끝냈다니 용타고, 수고했다고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지연은 밝은 웃음을 지었다.

쌍드가 만날 장소를 알려주었다. 지연은 쾌히 승낙하며 통화를 끝냈다.

쌍드가 어머니와 함께 있다. 나를 만나고싶어 기다린다. …

이런 생각을 굴리던 지연은 어떤 충동을 받았던지 한자리에 서서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싼타나가 준 주의경보를 떠올렸던것이다.

주유소, 차바퀴를 갈아주던 사람, 령길, 상상도 못해본 차사고, 병원에 찾아온 생명의 은인, 쌍드가 기념으로 안겨주던 신형콤퓨터…

사고전까지의 일들이 돌발적이라면 사고후의 일들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맞물리는가. 쉽지 않은 인연인데 오늘은 의혹을 품게도 한다.

자기 아니면 남인 몰인정한 이 세상에 쌍드와 같은 녀성이 있다는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 녀자가 일본으로 갈것을 권고한 리면은 무엇인가. 반대에 부딪치자 이번엔 미국을 선택하라고 했다. 이건 어머니에게 한 말인데 나에게 전달되였다.

지연은 왜선지 시계를 자주 보게 됐다. 어느덧 17시가 되여온다. 이미 약속한것이니 가야 했다. 쌍드가 어떤 녀자인가를 오늘은 알아낼테다. …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그대신 마음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며 방을 나서려다 다시 시계를 보았다. 17시 09분이다.

강변의 모래불에 발자국을 새기며 두사람은 손을 잡고 달리였다. 젊음은 약동하고 사랑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하여 돛배들이 흘러가는 모양을 바라보며 속삭였고 산정에 올라서는 끝간데 없는 하늘을 향해 희망에 넘친 노래도 불렀다. 교정의 숲속 오솔길도 함께 걸었고 도서관의 층계에 자욱도 같이 새겼다. 헤여져서는 못살 감정으로 두 심장을 묶어놓고 얼마나 굳은 언약을 다졌던가.

이것이 꿈인가, 아니면 명상인가. 명상이라기에는 가볍고 꿈이라고 여기자니 너무도 생동한 지나간 일들이였다. 그렇다면 추억이라고 해두지.

상록은 자기가 이런 감상적인 세계에 빠져드는것이 마냥 즐겁게 생각됐다. 가슴속에서는 안해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있었다.

《이봐요, 무슨 엉뚱한 궁리를 하는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당신은 껑충 놀랄거요.》

《모르겠어요. 고집스럽고 단순한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요, 나로서는 지금처럼 심중하게 결심한 때는 없었소.》

《말해봐요, 뭐예요?》

《난 우리 지연이의 전도를 결심했소.》

《조금도 새롭지 않군요. 안돼요! 말하지 않은들 내가 모를것 같아요?!》

《들어보오, 그앤 당신이 줄곧 외우는 할아버지가 꿈속에서도 그리던 동쪽으로 보내야 하오. 여기서 그애의 앞날은 나를 떠나지 못하오.》

《어떻게 된 일이예요? 지금 한 말을 변경시키지는 않겠지요?》

《이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결심이요.》

상록은 마음속으로 안해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나서 솔잎차를 한모금 마시였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손녀를 품에 안고 먼곳을 손으로 가리킨다.

지연은 천진한 얼굴에 어른스러운 표정을 짓고 바라본다. 대를 두고 그리워하고있는 동족이 사는 나라다. 그 땅을 잊고 산것은 이 못난놈 하나라는 자책을 하지만 상록은 그것이 조금도 싫지 않았다.

지연아, 너는 제 민족의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상록은 딸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쌍드가 만나자고 한 곳은 성당앞에 자리잡은 오락장이 있는 곳이다.

지연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인도를 따라 걷고있다. 그는 자기의 주위

가 이상할만큼 조용하게 느껴졌다. 오가는 차들의 경적소리조차 멀리서 들려오는것만 같다. 위구심이 그와 같은 감각을 초래하고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해, 어머니의 전화가 말이야. 목소리는 옳은데 말투가 어딘가 달라. 그래, 우리 엄만 좀 찬데가 있거던. 나를 키우면서도 잔정을 피했어. 어려서부터 자립성을 키워주려고 무던히 애썼던거야. 소학교때 너무 풀기 힘든 수학문제가 있어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과제는 반드시 제힘으로 해야 해, 하루밤 자지 못한다고 죽지 않으니 밤을 새우면서 백번 풀어보라고 했지. 종내 내 머리로 과제를 하고나니 날이 밝던게 지금도 생각나. 그런 어머닌데 오늘 전화에선 너무나 다심했거던. 자식을 용타고 하는건 우리 엄마 말이 아니야. 그리구 축간 얼굴을 보고 잠을 못잤다는것도 어머니의 표현방식이라고 할수 없어.

지연의 머리속에서는 론리적인 부정이 진행되고있었다. 사색이 날카로와질수록 걸음이 떠지고 경계하는 눈초리로 재빨리 주변을 살피였다.

만약 이렇게 가정한다면, 쌍드는 내가 차사고를 일으키도록 고의적으로 준비했다. 무엇때문에? 지금처럼 나의 이모가 되기 위해서지. 그건 론리적으로 모순이 없는것 같아. 그렇다면 목적은? 나를 통해 우리 아버지와 가까와지려고 했을수도 있지 않을가. 그건 어방없이 틀리는 판단이야. 쌍드는 이미전부터 아버지를 알고있었고 비교적 깊은 교제를 나누고있었거던. 그렇구나, 목적이 뭘가? 나를 일본에 보내자는것일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가능성일뿐이야. 부모들의 동의, 나의 결심… 이런 조건들이 일치된다는건 어렵거던. 그리구 나 같은 햇내기 대학졸업생을 탐낸다는것도 리치에 맞지 않아. 이거 점점 생각이 혼탁이 되는구나. 어쨌든 쌍드는 결코 좋은 녀자가 아니야. 따라서 그를 경계하며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해.

앞쪽에 성당의 지붕이 나타나자 지연은 한층 긴장된 걸음을 옮겼다. 그는 길을 건너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도로가 그리 넓지 않은데다가 오가는 차들이 많지 않아 기다리는 장소에 나와있을 쌍드를 먼저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것이다. 종탑의 시계는 17시 30분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정동녀는 자기앞에 선 처녀대학생을 바라보았다. 지연의 나이또래인데 유족하게 사는 집안의 자식이라는게 첫눈에도 알렸다. 값비싼 화장품들만 써서 얼굴살갗에서 우유빛윤기가 돈다. 시력은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안경을 꼈다. 그조차 아주 멋진것이다. 대출하는 책들이 너무도 많아서 전공이 어느 부문인지를 알수 없게 한다. 열람실을 찾아오는것이 하나의 멋부림인지도 모른다.

대출받은 책을 가지고 자리를 찾아 앉는 녀대학생의 모습을 보며 정동녀는 지연을 생각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날이때까지 키우면서 맛있는 음식을 별로 먹여보지 못했고 남의 자식들처럼 잘 입혀 내세우지도 못했다는 애달픔이 가슴에서 샘솟는것을 누를길 없었다.

그게 언제였더라. 옳아, 지연이가 5학년에 진급할 때였다. 그것도 한학년을 뛰여넘었던것이다.

정동녀의 기쁨은 형언할수 없었다. 유일한 살붙이이며 의지인 딸이 머리가 비상하여 학교에서 수재로 인정받고있으니 그것이 곧 어머니의 자랑이였다.

한학년을 뛰여넘어 진급한 날 정동녀는 지금 살고있는 집마당의 그네우에 앉아서 책을 보는 지연에게 기념으로 될것을 사가지고 왔기에 기쁨을 앞세우고 불렀다.

《지연아, 엄마가 새옷 사왔어. 어서 들어가 입어보자.》

지연은 책을 무릎우에 놓은채 말똥말똥 바라보기만 했다.

《어서!》

《나하군 아무 말도 안하구선.》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누가 내 옷 사오라구 했나.》

항의하는 딸의 말에 정동녀는 아연했다.

《난 지금 입는 옷하구 책만 있으면 된다구 말하지 않았어. 돈이 생기면 엄마신발을 사야 한다구. 나야 공부만 하면 되는 학생인데 일나가는 엄마가 잘 입어야 하지 않아.》

정동녀는 억이 막혔다. 너무도 일찍 철이 드는 딸의 모습이 기쁘기보다 가슴을 찢는것 같았다. 자기가 이런 생활고를 빚어냈구나 하는 아픔이 치밀어올랐던것이다. …

그 딸이 이젠 대학을 졸업한다. 모두들 수재라고 하니 이런걸 두고 고생끝에 락이라고 하겠지.

정동녀는 딸을 생각하며 다시금 그의 장래를 두고 근심하기 시작했다.

오락장앞 주차장에 검은색벤즈승용차 한대가 들어서서 멎었다. 차안에서 오자와라가 두명의 사나이를 데리고 내렸다. 바클리는 운전대를 잡은채 웅크리고있다.

간편한 여름옷차림을 한 오자와라가 기민한 눈길로 오가는 사람들을 살핀다. 시간은 정각 18시.

…성당 맞은켠 인도를 따라 걸어오던 지연이 걸음을 멈췄다. 길건너편에 나타난 쌍드의 모습을 보았던것이다. 검은색승용차앞에 서서 주위를 살피는데 그옆에서는 색안경을 낀 두명의 남자가 어슬렁거린다.

어머니가 함께 있다고 했는데 왜 보이지 않는가. 의혹이 뇌리를 찌르는 순간 쌍드가 지연을 발견하고 손을 쳐들고 맵시있게 저어댄다.

《지연! 나 여기 있어. 어서 와.》

정답게 불러주는 목소리다.

그러나 긴장된 지연의 머리속으로 (가면 안된다!) 하는 경보신호가 울렸다. 어머니대신 데려온 저 사나이들이 의심스럽다. 나를 유괴하려고 할수도 있지 않을가. 그런 일은 너무도 많다. 승용차까지 가지고 온걸 보면 틀림없다고 봐야 한다. 내가 행동을 달리하면 진상은 드러날게 아닌가.

심장은 세차게 뛰지만 처녀의 모험심은 자기나름대로 추리를 계속했다.

《지연이, 빨리 오라니까.》

쌍드의 부름소리가 다시 울리는 순간 지연은 몸을 홱 돌리며 반대방향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반달음쳐 얼마쯤 가다가 돌아보니 색안경을 낀 두 사나이가 건늠길도 아닌 차도에 들어서서 횡단하려고 했다.

오가는 차들이 방해하여 몹시 당황해하는 모습을 띄여본 지연은 금시 머리속이 텅 비여버리는것 같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하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터뜨리면서 그는 종주먹을 쥐고 내달렸다. 랑만적인 생각은 공포심에 다 날아가버렸다.

지연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표도 없이 허둥거리며 뛰기만 했다. 발을 헛짚을 때마다 몸의 균형을 잃으며 비명을 질렀고 마주 오는 사람이 덮칠것만 같아 한절반 울면서 이리저리 좌왕우왕 발이 나가는대로 달린다.

차도를 건너선 색안경을 낀 두 사내가 달리다가는 슬슬 걸으며 지연이와의 거리를 점점 좁히고있다. 맞춤한 곳에서 붙들려는 심산같았다.

고개를 돌리고 쫓아오는 남자들을 본 지연은 문득 바라보이는 음식점에 뛰여들어갈 궁리를 했다.

길가에서는 저것들이 도적이라고 소리쳐서 자기를 잡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낸것이다. 역시 령리한 처녀였다.

길을 따라 내달리던 지연이가 불시에 방향을 바꾸어 음식점으로 향하자 따르던 남자들은 얼떠름해서 잠시 서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주시하던 오자와라가 차안에 앉은 바클리에게 내뱉듯 말했다.

《그애가 음식점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더 좋지, 흐흐.》

《바보같은 소리말아요. 그안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찰이 나타날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좋지 않지.》

《저것들에게 알려요. 음식점엔 들어가지 말라구. 당신이 혼자서 그앨 데려내와요. 수단을 부려야지요.》

바클리가 손전화기로 지시하자 지연을 따르던 남자들의 걸음이 떠졌다. 허둥지둥 내달려 음식점안으로 지연이가 뛰여들어갈 때 오자와라가 탄 승용차도 그 앞길에 나타났다.

승용차에서 내린 바클리는 점잖은 걸음을 옮겼다. 음식점의 출입문앞에 이른 그는 뒤를 돌아보며 두 사나이에게 손짓으로 지시를 했다.

저녁시간이 되여선지 음식점으로 출입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함께 걷는 어린애가 보이자 바클리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층계를 올라서 음식점안으로 들어갔다.

식탁마다에 오붓이 둘러앉은 사람들이 담소하며 음식들을 들고있다.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와 가볍게 부딪치는 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왔다.

바클리는 침침한 눈길을 휘둘러댔다. 처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음식점은 크지 않아서 식사칸이 불과 두서너개인데 창문은 모두 거리쪽으로 나있다. 그러니 빠져나갈데도 없는것이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른 칸들에도 들어가보았지만 거기에도 처녀는 없었다. 어느 구석에 숨어버릴 자리도 없다. 귀신이 곡할노릇이 아닌가.

어떻게 구슬려 데려내갈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아 그것만 생각하던 바클리는 증발해버리기라도 한듯 종적을 감춘 처녀로 하여 한동안 멍청히 서있었다.

잔뜩 겁에 질려 도망치다싶이 한 유괴대상이 이렇듯 맵시있게 꼬리를 감출수도 있는가.

잠시 머리를 굴려대던 바클리는 음식점의 주인이 떠오르자 이마를 치며 돌아섰다. 계집애가 주방에밖에 들어갈데가 없다고 여긴 그는 천천히 식탁사이로 걸음을 옮겼다.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가에 이른 바클리는 고개를 기웃하며 휘장을 제끼였다. 조리대를 마주한 사내들이 운두가 높은 흰 모자를 쓰고 하나같이 날이 번들거리는 칼을 든채 불청객을 마뜩지 않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안녕들 하시우? 흐흐, 여기에 내가 찾고있는것이 있을상싶어서…》

비위살좋게 문턱을 넘어서려는데 도마에 칼을 던져꽂은 감때사납게 생긴 료리사가 마주 나오며 길을 막았다.

《여기가 어딘줄 알아?!》

《고기를 삶아내는데지. 흐흐. 좀 보세나. 내 제일 비싼 료리를 먹은 값을 물테니, 히히.》

바클리가 그냥 너불거려대자 시퍼런 칼들을 한손에 움켜쥔 사내들이 금시 빙 둘러쌌다.

《이보시오, 점잖은 손님! 우린 공짜돈은 받지 않소. 다른데나 가보라구요.》

《여, 놀리는가? 한칼에 배를 쭉 갈라서 구이로에 처넣어줘야 알겠어?!》

바클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상대들의 눈에 어린 살기가 보이자 간이 졸아드는것만 같았다. 이것들은 매일 짐승들을 토막내고 살을 저미여 온갖 료리를 만들어내는 족속들이 아닌가. 이놈들의 칼이 진짜 내 배를 가를지도 몰라.

급해난 바클리는 두손을 쳐들고 흔들어댔다.

《가겠소. 나갑지요, 예예.》

어깨를 추겨올리고 돌아서던 바클리가 그답게 한마디를 더했다.

《그 계집애를 공동관리하려는군.》

안할 수작질을 한탓에 바클리는 보기 좋게 엉덩짝을 걷어채우며 주방문밖으로 쫓겨났다.

랑패였다. 잘 준비한 랍치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쓴맛을 보며 바클리와 오자와라는 차안에서 음식점을 노려보았다.

《그애를 감추어둔게 분명해요. 꼭 나타날테니 감시를 잘해야겠어요. 주야로 말이예요.》

바클리는 여전히 벌레를 씹은 상통을 하고있었다.

《그것들이 날 돼지만큼도 안 여기더란 말이야. 젠장, 내 무슨 놀음을 하는지 더러워서… 퉤퉤.》

35

싼타나가 연구소에 돌아온 시간은 정각 21시였다. 불과 몇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그를 맞아준것은 대경실색할 사건발생이였다. 지연이가 실종된것이다.

상록이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그는 이것이 우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것을 직감했다. 실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녀자는 너무도 잘 알았다. 유괴가 아니라 랍치라고 단정하는 싼타나다. 유괴라면 그 시간에 어떤 흥정을 하려고 했을것이다. 결국 오자와라가 노린 목적이 랍치방향에서 실현된것이라고 그는 확신하였다.

지연의 방에서 피아노타는 소리를 들었다는 연구사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17시경까지는 여기에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니 경과한 시간은 4시간정도다. 밤을 리용하여 오자와라가 지연을 어디로 옮겨갈지는 알수없는노릇이다.

순간이나마 방심한탓으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빚어낸것으로 하여 싼타나는 치를 떨었다.

내 네년을 그냥 둬두지 않을테다.

그는 바클리와 오자와라를 추적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선자리에서 돌아섰다.

…웰헬름거리의 121번지 건물 맞은편에는 2층짜리 유흥장이 자리를 잡고있다. 아래층은 디스코춤을 추는 무도장으로 리용되고 웃층에는 당구장과 도박장이 갖추어져있어 사람들이 밤늦도록까지 흥성거려댄다.

당구장 카운터에서 싼타나가 고용한 한스가 일하고있다. 거기서는 앉아서도 121번지 건물을 육안으로 감시할수 있었다.

싼타나가 카운터의 의자에 와서 앉자 한스가 큰 배를 내밀고 다가왔다.

《오셨는가요?》

《재미가 좋아요?》

랭커피를 받아놓은 싼타나가 눈길도 들지 않으며 묻자 한스는 살진 턱을 보기 좋게 흔들었다.

《괜찮습죠. 덕분에…》

《별다른건 없었어요?》

《왜 없겠습니까. 숨어있던 바퀴새끼들이 기여나왔는걸요.》

《언제, 어느 시간에?》

싼타나의 목소리가 낮으나 날카롭게 울리자 한스는 한손으로 눈두덩을 밀어올리며 대답했다.

《정확히 17시 30분에 그 년놈들이 함께 나와서 대기시킨 차를 타고 가버렸지요.》

《돌아왔어요?》

한스가 머리를 흔든다.

《알렸어야지!》

《했습지요. 손전화기로… 전원이 차단되여 받지를 않더군요. 그러니 낸들 어떻게 합니까?》

싼타나는 이번에도 자기의 실책을 인정하는수밖에 없었다. 별일없겠거니 하고 긴장을 일시나마 풀었던것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였는가를 그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생각해봐요. 바클리가 잘 다니는 곳이 어덴지를 몰라요?》

함지같은 배우에 한손을 올려놓은 한스가 어질어질한 모양새로 고개만 내흔들었다.

싼타나가 침묵속에 대답을 기다리자 머리를 쥐여짜더니 중얼거렸다. 바클리가 다니는데는 자기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낼 장소들이라는것이다. 에쎈구락부, 씨리우스캬바레, 고급료정들을 꼽아대면서 흘깃흘깃 녀자의 안색만 훔쳐본다.

《좀더 머리를 굴려요.》

《그 사람은 이따금 수수한 형제음식점도 찾군 했지요.》

싼타나의 눈빛이 번쩍거렸다. 지금까지 료해한데 의하면 자그마한 그 음식점이 매우 흥미있었다. 음식을 만들어 팔아서 살아가는 그 집 지붕밑에는 사내들만 모여서 사는데 모종의 결사와 류사하다. 봉사업체라기보

다는 정보수집장소같기도 했다. 불과 몇명 안되는 료리사들이라지만 하나같이 날고뛰는 솜씨가 여간이 아닌 사내들인것이다. 그들중에는 무술시합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폭력배들과 연줄을 가지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인물도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외형상 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제낄수 있는 모모한 인물들이 모인 곳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 음식점이 싼타나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것은 그곳에 서상록이 자주 드나들기때문이였다. 알아보니 조선음식인 토장국이 먹고싶을 때면 찾는 것이여서 리해는 되였지만 바클리까지 나타난다는것을 알고는 조사를 심화시켰던것이다.

싼타나는 즉시 차를 돌려세워 그곳으로 향했다. 영업시간이 지날가봐 조바심했는데 다행히도 문은 닫지 않았다.

음식점안에는 손님이 몇사람 되지 않았다. 식사를 끝낸 늙은 부부와 한 녀성이 자리를 뜨니 싼타나만 혼자 남았다. 그런데다 때마침 주인이 접대를 하려고 나타났다.

《뭘 드시렵니까, 부인?》

싼타나는 생각나는대로 청하고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창밖에서 비쳐드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이상야릇한 정적을 불러온다. 거리의 소음조차 숨을 죽인듯싶다.

그는 누군가의 시선이 자기를 지켜보는감을 느끼며 어깨를 추켜세웠다.

주인이 료리를 차려놓는것을 보며 싼타나가 불쑥 물었다.

《절 알아보지 못하시는가요?》

단도직입이여서 놀랄줄 알았는데 주인의 대답은 평온하기 이를데없었다.

《압지요. 나도 한번 본 사람은 기억한답니다. 게다가 부인은 특징을 가진 녀성이거든요.》

얼마나 독특한 언어를 소유했는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이니 여기에 모여든 사내들이 어떤 인물들이겠는가는 짐작이 갔다.

음식점은 작아도 어느 정객과 줄을 잇고있는지 모르며 간판과 다르게 사설탐정사무소를 운영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잘 흥정하면 이 집에서 어떤 단서를 쥘수 있다는 예감을 받으며 싼타나는 이번엔 친절한 어조를 갖추고 말했다.

《전 주인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싶은데요.》

주인은 낯색을 조금도 달리하지 않으며 주저없이 마주앉았다.

《무엇을 알고싶어 오셨는가요?》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뻔히 알면서 유유히 앞지르는 물음같아 싼타나는 대화에서 자신이 피동에 빠지는듯 한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대담하거나 수가 높을수 있어.

말재간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보겠다고 생각하며 싼타나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오늘 저녁시간에 여기로 바클리가 오지 않았던가요?》

주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옆구리에 칼을 들이박아도 그리 놀라지 않을 사람이라는게 알리였다.

《바클리라면 그 재빛수염쟁이 말인가요?》

반문하는 목소리조차 무심했다.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 얼굴을 본지도 퍼그나 오랬는걸요.》

싼타나는 머리를 끄덕여보이며 다시 물었다.

《여기에 한 처녀가 온걸 보지 못했는가요? 혼자일수도 있겠는데… 정확한 시간은 17시이후에 말이예요.》

이것은 생각없이 싼타나가 우연히 던진 물음이였다. 그런데 덤덤하기만 하던 주인의 턱수염이 흔들거렸다. 그것도 불과 1초정도…

이것이 이 사람에게서는 변화라고 봐야 한다. 싼타나가 예민하게 포착했지만 주인의 안색에는 더이상 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요. 그 시간에도 지금처럼 내가 접대를 맡았거든요. 손님은 여느 날보다 좀 많은 축이였지만 혼자 온 처녀는 없었지요.》

《키가 늘씬하고 아주 사랑스럽게 생긴 처녀랍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더 인상에 남았을텐데요.》

싼타나로서는 부득불 어떤 방법을 리용해서라도 접근을 시도할수밖에 없었다.

《주인님은 서상록선생을 아시지요? 이 음식점의 단골손님이 아닙니까.》

주인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다.

《압지요. 토장국을 좋아하는…》

《그 선생의 딸이 실종되여서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에 말입니다. 전 이 음식점에 대해서 일정하게 알고있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주인이 되는대로 자래운 수염을 한손으로 쓸어만지면서 마주앉은 녀자를 퍼그나 유심히 보더니 말을 했다.

《나도 부인을 파악하고있지요. 싼타나선생, 선생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변을 당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요.》

《예?!…》

《세상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나를 포함해서지요, 허허.》

싼타나는 이상할만큼 압박감을 느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심리적파동이였다. 무엇을 얻으려 하다가 도리여 잃은것 같아 마음이 허전해났다.

이 음식점의 주인이라면 주인이고 접대원이라면 접대원인 사람이여서 하찮게 여겼던가. 아니다.

처음부터 긴장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패를 했다는 생각이 갈마들자 그는 은근히 화가 나기도 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주어서…》

더이상 앉아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싼타나는 일어났다. 마치 그러기를 기다리기나 한것처럼 주인이 인사말을 하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싼타나선생!》

상록은 자기의 몸이 지지점을 잃고 마구 흔들리는가 하면 심한 현훈증으로 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손으로 머리를 싸쥔채 앉아있었다.

그는 정황을 개괄하는 싼타나의 말은 거의나 듣지 않고있었다.

두손을 깍지껴서 배우에 올려놓은 지그프리트는 날카로운 턱을 쳐든채 허공을 노려보며 이따금 불만섞인 소리를 냈다.

상급들이라고 해야 할 두사람과 원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싼타나는 돌발적인 사태에 대한 분석을 하고있다.

쌍드, 본명은 오자와라 게이꼬라고 하는 녀자는 일본의 인재유인전문가인데 서지연을 목표로 삼은지는 오래되였다. 그의 첫번째 행동계획은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수재급의 대상인물들을 유혹하여 일본으로 데려가는것이였다. 이 목적을 수행하자면 첫 단계에서 지연은 물론 그의 가정과 친밀해지는것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일으킨것이 차사고였다. 생명의 은

인으로 되여야 했던것이다. 이 일은 비교적 순조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였으나 난관이 조성되였다.

딸의 장래에 대한 문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데다 어떤 외부적인 작용도 있은듯싶다면서 싼타나는 이렇게 계속했다.

《오자와라는 지연이만 일본에 데려가면 어머니는 물론 서상록선생도 어렵지 않게 유인할수 있다고 믿었을겁니다. 일석삼조, 이것이 그의 구상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와나미라는 일본인방조자도 있습니다. 면밀하게 세운 계획이 실패한것은 에쎈의 조선에로의 진출을 막으라는 지령을 받은 유령세력의 행동선과 충돌했기때문입니다. 거의나 단독으로 행동해온 오자와라는 폭력배들의 위협을 받고 손을 잡았는데 자기의 리해관계에 저촉되지 않는만큼 제휴할수 있다고 보았던것입니다.》

상록은 싼타나의 론리정연한 분석조차 귀찮게 들리기만 했다. 속은 마른나무에 불이 달린것처럼 타들어갔다. 무지막지한 폭력배들의 무리속에 들어있는 연약한 딸의 모습이 그려질 때면 가슴을 쥐여뜯고만싶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안해는 지금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있지 않는가.

모든것은 자기가 저질러놓은 일이였다. 말로는 제노라 해온 아버지이지만 위급하기 이를데없는 지금의 마당에선 속수무책이다. 자기로서는 회복할수 있는 가정이라는 희망을 가지고있었다.

이 며칠전부터는 딸의 장래를 놓고 얼마나 흥분했던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결심한 희망이 물거품으로 되여버렸다.

《우리는 실책을 인정해야 하지만 반드시 만회해야 하오.》

침묵속에 듣고있던 지그프리트가 모를 세워 말했다. 그의 얼굴은 노기로 해서 이그러져있었다. 싼타나는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기에 머리속으로 자기가 생각한 절충안을 굴려보았다. 신문 같은것을 통해 에쎈이 조선과의 협조를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할수도 있을것이다.

오자와라의 리해관계와는 달리 지연을 수중에 장악한 폭력배들은 상전들의 지령을 기다릴것이다. 에쎈의 태도변화에 따라 지연의 운명도 결정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차후의 일들을 다 예견할수도 없으며 무엇을 담보하기는 더욱 어렵다. 어쨌든 법과 인륜이라는것을 모르는 폭력배들이 아닌가. 그에 못지 않게 간교한 오자와라인것이다. 무슨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싼타나는 자기의 계교를 선뜻 내비치지 못했다.

《저로서는 지연이 아직은 이 도시의 어디에 있다는것만은 확신합니다. 돈이나 바라고 유괴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주시할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속생각을 에둘러 암시하는것이지만 싼타나로서는 달리 말할수 없었다.

《바로 그거요. 시간은 있소. 최선을 다해 거처지를 알아내는거란 말이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지시손가락을 세워든 지그프리트가 력점을 찍어 말하자 싼타나는 고개를 숙여 공감을 표시했다.

《아니요, 난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소! 경찰에 신고할테요! 그편이 믿을만 하단 말이요. …》

상록은 아무 말도 듣지 않고있다가 발작적으로 소리를 쳤다.

지그프리트와 싼타나는 딸을 랍치당한 아버지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무슨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한단 말인가.

싼타나가 조용히 말했다.

《경찰까지 알고 부산을 피워대면 사태가 돌변할수도 있어요. 마음을 진정하세요. 지금은 참으면서 견디여내는게 필요하다고 봐요.》

상록은 두손을 내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다가 원탁앞으로 맥없이 꺼꾸러졌다. 싼타나의 동작은 실로 번개같았다. 몇분도 걸리지 않아 강심제를 주사했던것이다.

…머리를 풀어헤쳐 누군지 알아볼수 없는 얼굴을 한 녀자가 온몸을 떨며 다가온다.

한걸음, 두걸음… 뢰성이 운다. 번개불이 번쩍이는 순간 녀자의 얼굴이 확 덮쳐들었다. 안해였다. 무섭게 또 한걸음을 다가섰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겐 불효자!》

《아, 아!…》

입안에서는 비명소리만 울린다.

《사랑앞에서는 유린자!》

《어, 어ㅡ》

무엇을 아니라고 하자니 혀가 제것이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의 운명까지 짓밟은 가해자! 네가 무슨 아들이고 남편이며 아버지란 말이냐?! 추악한 인간!》

《으흐흑…》

안해의 판결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터치던 상록은 소스라치며 눈을 떴다. 악몽이였다.

문가쪽에 간호원인듯 한 녀자가 고개를 떨군채 졸고있는 모습이 뜨이자 그는 머리에 얹혀있는 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다.

인기척을 감촉했던지 간호원이 고개를 들어올린다. 나이가 어지간한 녀인이였다.

《가서 좀 눈을 붙이십시오. 난 일없으니…》

상록이 이렇게 권유하는데 손전화기의 호출음이 울렸다. 이밤에 누가 전화를 하는건가. 환자라고 해야 할 사람이 몸을 일으키자 녀인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나서 자리를 떴다.

손전화기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상록선생입니까?》

상록은 흠칠 몸을 떨었다. 딸을 유괴해간 놈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것이다. 이것들이 어떤 요구조건을 내놓든지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을 먹으며 다시 시계를 보았다. 3시 5분이다. 이런 시간에 전화로 찾는다는건 정상생활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랭담하려고 애쓰면서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은 누구요?》

《선생님, 저우다. 형제음식점 주인…》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여 상록은 입만 벌린채 다음 말을 미처 할수 없었다.

《이 시간에 전화할수밖에 없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되겠기에… 미안하우다.》

황황히 머리를 저어댄 상록은 이상한 감촉을 받으며 서둘러 말했다.

《일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정확히 확인하느라고 애썼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연인 여기에 있수다.》

《뭐라구요?! 그애가… 정말인가요?》

《지연이와 바꿔드리지요.》

상록은 금시 심장이 흉곽을 뚫고 밖으로 쏟아져나오는것만 같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아버지, 나예요. 호호호…》

분명 딸의 음성이다. 속에 재가 앉은 아버지와 달리 천진스럽게 웃어대고있지 않는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였다.

《네가 진정 지연이가 옳으냐? 너 지금 어데 있지? 바른대로 말해라.》

《정말 좋은분 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길 얼마나 눈물나게 들었는지 몰라요.》

목이 꽉 잠겨들어 상록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딸이 폭력배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것을 확인한것이다.

《아버지, 걱정했지요?》

상록은 쏟아져나오는 울음을 겨우 참았다. 그러자니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려났다.

《어이구! 속을 그만 태우려무나. …》

《아버지, 우는게 아니예요? 내가 딸구실을 잘할테니 두고보세요.》

《그래그래, 고맙다. 어서 주인님과 전화를 바꿔라.》

상록은 이루 형언할수 없는 심정에 빠져있었다.

《마음을 놓으시우다. 필몽아바이의 손녀가 정말 똑똑하군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우.》

주인은 딸의 신상에서 있은 일을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바클리가 음식점의 주방에까지 뛰여들었던 사실, 싼타나가 나타났던 이야기를 하고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선생의 좌우명이 <모든것을 의심하라.>라는것도 알게 됐수다. 의심해야 합니다. 더우기 이제부터는 말이우다. 믿을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거든요. 싼타나를 포함해서 말이우다. 이젠 선생이 결심하시우. 지연일 어떻게 할가요? 선생의 주위엔 온통 뭔가를 노리는 놈들뿐이니 말이외다.》

상록은 말뜻을 알수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결심을 바로할 때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쌍드와 바클리의 패거리들이 자기와 안해를 미행할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음식점주변에도 감시하는 놈들이 계속 어슬렁거린다지 않는가.

그로서는 방도가 하나밖에 없었다. 장모에게 딸을 맡기는것이 제일 안전할것이다. 그러나 자기나 안해가 지연을 거기로 데려가서는 안될것 같았다. 이런 걱정을 음식점주인에게 말했더니 대답은 시원스러웠다.

《선생이 내놓은 방도가 제일 마음에 드우다. 지연일 안전하게 데려가

는건 념려마시우. 우리녀석들은 귀신같으니까요. 그리구 차집주위에 믿을만 한 애들로 감시와 보호를 조직하도록 하지요.》

《주인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 그런 말 마시우. 내 필몽아바이한테 입은 은혜를 잊으면 무슨 사람이우. 하지만 누구한테도 절대 내색을 말아야 하우다.》

상록은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전화를 끝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들어올렸다.

그의 두볼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36

정동녀의 불안은 아침부터 시작되였다. 쌍드의 부탁을 받았다는 웬 젊은 남자가 나타나 친절한 웃음을 지으며 꾸레미 한개를 주고 갔다. 그속에는 지연이 같은 처녀들이 가을철에 입기 맞춤한 옷 한벌이 들어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소박한 성의같지만 정동녀는 가슴이 섬찍해났다. 보다더 의심을 품게 되는것은 자기소개를 하고 몇마디를 하는 짧은 순간에 젊은 남자가 코구멍만 한 방안을 무던히도 깐깐히 살펴보던 눈길이였다. 심부름이 아니라 뭔가 렴탐하러 온것 같은 인상을 받은것은 그 사람이 간 뒤였다.

우리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것이 아닐가 하는 사위스러운 생각까지 들자 방정맞은것 같아 마음을 애써 진정하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싼타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인 론문을 완성했으니 인차 대학으로 돌아가야 해요. 어머닐 만나고 갈것 같지 못합니다.》

《그건 왜요? 아무렴 그렇게도 시간을 낼수 없는가요?》

《시간이 허용하지 않는가봐요.》

이렇게 대답한 싼타나는 서둘러 통화를 끝냈다.

정동녀는 온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진정할수 없게 했던것이다. 하도 심사가 어수선하여 상록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았다.

저녁이 되여오니 마음은 한층 무거워나면서 이밤을 혼자서 어떻게 보

내랴 하는 겁이 나기까지 했다. 10년이 되도록 홀로 지나보낸 밤이였지만 별로 고독을 느끼지 않던 그였다.

손전화기로 상록을 반복하여 찾았지만 그쪽에서는 여전히 반응이 없다. 래일은 어떻게 해서나 찾아가서라도 만나리라 마음먹고 집에 들어서던 정동녀는 기절초풍할번 하였다.

《어떻게 된 일이예요?! 당신이…》

전화로 그렇게 만나려고 한 남편이라고 해야 할 사람이 방안에 들어앉아있을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열쇠가 나한테도 있다는거야 알지 않소.》

상록의 천연스러운 얼굴과 말로 하여 정동녀는 화가 치밀지만 마음은 이상할만큼 안정되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는 일부러 자리에 앉지도 않고 좁은 방안을 이리저리 오가다 부엌으로 갔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리유는 뭔가요?》

《당신이 안타깝게 전화로 찾지 않았소.》

능청스럽기란…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았구나.

정동녀는 제편에서 약점을 잡히운것 같아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왜 왔는지나 말해요.》

《중간지대에서 만나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왔소.》

《어떤 비상한 구상이라도 내놓으려나요?》

《그렇소. 딸의 장래문제요.》

정동녀는 고개를 홱 돌려 상록을 쏘아보더니 천천히 방안으로 들어와 마주섰다.

《이젠 결정적으로 간섭할 때가 왔다는건가요?》

《간섭이 아니라 실천단계에 들어서야 하기때문이요.》

《정말 당신답군요.》

상록은 안해를 조금도 놀래우지 않으며 자기 가정을 둘러싼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고심하고있었다.

《여보, 지연인 지금 외할머니와 함께 있으니 마음을 놓소.》

연구소에서 갇히워 살다싶이 한 애가 어떻게 어머니한테로 갔는가. 아침부터 시작된 불안과 이 사실이 어떤 련관성을 가지는것은 아닐가.

예감 비슷한것이 찾아드는듯 하지만 실머리를 잡을수 없어 정동녀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당신 말은 믿을게 하나도 없군요.》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하는 때가 있는거요.》

상록은 먼저 쌍드의 정체에 대하여 근거를 안받침하며 선명하게 그려주었다. 목적의식적으로 차사고를 일으킨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연을 일본으로 꼬여가기 위해 양의 가죽을 뒤집어썼던 그 녀자의 본명이 오자와라 게이꼬라는것을 알려주자 정동녀의 온몸이 휘청거렸다.

《당신을 닮아선지 우리 지연인 참으로 총명하오.》

안해의 심리변화를 포착한 상록은 오자와라의 교묘한 랍치그물에서 지연이가 빠져나간 이야기를 소설책을 읽어주듯 했다. 재미있는 유모아도 섞어가며 마음이 여린 녀자에게 충격을 주지 않도록 상록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정동녀는 가냘픈 신음소리를 내며 자리에 무너져내렸다.

《여보! 진정하오, 진정해. 위기는 이미 지나갔소. 우리 지연이가 슬기롭게 이겨냈단 말이요.》

상록은 정동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나무걸상에 앉히였다. 그리고는 형제음식점에 대해, 그 고마운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무릎우에 머리를 묻은 정동녀는 온몸을 떨어댔다.

《아버님!…》

흐느낌을 타고 울려나오는 안해의 목소리를 들으며 상록은 저도 모르게 눈가에 손을 가져갔다.

《아버님은 이 세상에 안 계셔도 손녀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선량하신분, 너무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분… 죄많은 이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

정동녀는 오늘도 마음속에 간직되여있는 시아버지와 이야기하고있었다. 하도 마음이 고운분이니 하늘도 알아봤으리라.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보답이 차례지는것 아닌가. 그 음식점주인은 저세상에서 시아버님이 우리 딸에게 보낸 은인일거야. …

이런 생각을 이어가며 정동녀는 슬피 울고있었다.

서상록은 안해의 모습을 보며 깊은 죄의식에 빠져들어갔다. 남편이라고 해야 할 사람을 끝없이 저주해온 녀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아버지를 볼수 있었다. 무지몽매한 늙은이로만 여겨왔고 낳아준분이지만 수치로만 여겨온 이 아들이 아닌가. 딸마저 오늘까지 잊지 못하는 할아버지인데 그 딸의 아버지인 나는 어떤 인간인가. 무엇을 몰랐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안해의 말이 옳았다. 민족을 알자면 자기를 알아야 했다. 얼마나 단순한 론리인가.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정말 사상루각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것이다.

만일 중력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발명가로서의 뉴톤은 탄생하지 못했을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법칙을 따르면 인간의 생명활동에서 민족은 중력과 같은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자기의 얼빠진 넋으로 제 피를 흐려놓은 인간이 바로 나였다.

마음을 좀 가라앉혔는지 정동녀가 머리를 쳐들었다.

《헌데 지연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상록은 수건을 꺼내여 안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정동녀는 그조차 거절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안전이 필요하기때문이요.》

정동녀는 딸의 신상에 초래된 일들을 알게 되자 나름대로 분석을 할수 있었다. 쌍드가 오늘 아침 사람을 보낸것도 지연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 집에 와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려 했을것이다.

이어 싼타나도 전화로 거짓말을 한것이나 다름없다. 론문지도교원이였다는 녀자가… 우리 주위에서는 위선자, 기만자들이 기회만 노리고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상록에게 말했다.

《당신이 위기의식을 가졌으니 됐소. 지연의 일은 너무 걱정마오. 지금은 그애의 안전이 첫째요.》

정동녀는 남편이 반복하는 말뜻을 알수 있었다.

《다음은요?》

《이 자리에서 그걸 결심해야 하오. 당신과 내가 말이요.》

정동녀는 처음으로 상록을 마주보았다. 잊어먹으려고 무던히 애써온 남자다.

멋없이 건방진 행동거지며 얼굴표정, 마주한 사람을 바로 보지도 않으며 짓군 하는 보기조차 역겹던 거만한 웃음이 자기 남편에게서 사라진것을 느낄수 있었다.

진지한 저 태도는 내가 대학시절에 보지 않았던가. 아득한 세월의 저쪽기슭에 서있는것 같은 남편이였다. 절대로 달라질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온 남편인것으로 해서 정동녀는 이번에는 자기를 돌이켜보려 하였다.

난 살아보자고 무던히 애썼다. 그건 아마 이 사람도 알거야. 나로서는

쉽게 만날수 있는 남자가 아니였기때문이였어. 그래서 참았다. 이겨내려고 몸부림쳤어. 아버님이 생존해계셨다면 난 뛰쳐나오지 않았을거야. 그분의 별세와 함께 남편에 대한 혐오와 환멸은 극단에 이르렀고 내딴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수 없었던거지. 녀자지만 나도 사람이 아닌가. 조상도 몰라보는 오만방자한 남자의 밑에서 한뉘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살아, 그랬던거다. 결국 나는 오늘까지도 자기만이 옳다고 하지 않는가.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보기 어려운것이다. 자기를 알라는 말의 의미를 나도 모르고 살아온것이나 같다. 나라고 왜 잘못이 없었겠는가.

자기앞에 앉은 사람이 오늘같이 되자니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을가 하는 생각이 치밀자 정동녀는 마주잡은 두손우에 턱을 올려놓았다.

《어떤 결심인지 들어보자요.》

《당신이야 나보다 총명한 녀자가 아니요.》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나 말해요.》

《어머니를 찾아가보면 알게 될거요.》

정동녀의 눈이 의혹으로 커졌다. 딸의 장래에 대해 결심하자면서 늙은이를 꺼들이는 까닭은 뭔가.

《뭘 말하자는거예요?》

《당신이 오래전에 한 말을 나는 기억하오. 아버지는 전통의 전달자라고 한… 난 그 말의 뜻을 오늘에 와서 깨달은가보오. 어느 사람의 피나 민족의 혈맥을 타고 흘러야 한다는것을 당신이 가르쳐준것이나 같소.》

눈길을 접어내린 정동녀는 머리만 저어댔다. 언젠가 그렇게 말한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체험을 할수 없었던 자기였다.

내가 말했다면 아마도 알게, 모르게 시아버지한테서 받은 계시일것이다.

나는 사람이란 자기 민족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파란만장의 인생을 거친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에게서 배웠다. 고귀한 그 진리는 나에게 사람은 자기의 피줄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었다.

《래일쯤이면 명현선생이 올거요.》

정동녀는 턱을 고였던 두손을 가슴우로 옮겨갔다. 남편의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았던것이다. 그것은 자기로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운명의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상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자리에 오래 앉아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자리를 비웠으니 싼타나가 그 좋은 머리로 추리

를 하여 이곳을 생각해낼수도 있었던것이다. 이 집은 오자와라와 바클리의 감시를 받고있을수도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했다.

《난 가겠소.》

정동녀는 무엇에 이끌린듯 따라 움직였다. 얼마나 하고싶은 말이 많은지 알기나 하는가. 남편의 행동이 고집스러운가 하면 무정하게도 여겨졌다. 그것은 오래동안 잊고 산 감정이였다.

《이밤에 날 이렇게 혼자 두고 가요?》

상록은 한껏 외로움을 느끼는 안해를 조심히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내가 우리 집안의 우환단지였소. 내가 여기에 있으면 노리는 사람들이 찾아낼거구 당신이 움직이는데도 방해가 될건 뻔하지 않소. 여보, 난 당신을 믿소. 당신의 랭철한 의지와 지혜를 말이요. 나한테 당신 같은 녀자가 차례진것은 하늘이 준 복이요. 당분간 어머니한테 가있소. 그래야 안전하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과 지연인 한동안 거기에 있어야 할것 같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친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한 일이요. 당신이 고맙소.》

남편의 품에 안긴 정동녀는 움켜쥔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두드려대며 자기의 심정을 터뜨렸다.

《내가 당신을 몰랐는가요? 예! 아니면 알려고 안했단 말인가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사람이 당신이였던가요?!》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소. 아마 영원히 얼빠진 놈으로 살지도 모를거요. 당신이 나의 허울을 벗겨냈고 이렇게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낸거요.》

격정이 북받쳐오른 정동녀는 두발을 번갈아 굴러대며 목메여 말했다.

《아버님이 그리워요. 막… 못견디게… 우리 겨레가 살고있는 그 땅으로 그리도 가고싶어하셨는데…》

《진정하오. 그리구 날 부디 용서해주오.》

상록은 안해의 얼굴을 두손으로 싸쥐고 들어올렸다. 자기가 그리도 사랑한 검은 눈동자가 눈물속에 잠겨 간절한 빛을 뿜고있었다.

정동녀는 자기의 가슴에는 재만 차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재가 아니라 숯이였다. 눈물속에 찾은 진리가 발화제가 되여 그의 심장은 타번지기 시작했다.

사랑을 다시 찾은 녀자는 두팔로 상록의 목을 끌어안으며 발뒤축을 들

어올렸다. 그리고는 뜨겁게 달아오른 입술을 남편의 볼에 가져다대고 속삭였다.

《당신을 믿어요, 믿겠어요.》

37

침대우에는 값진 악어가죽으로 만든 트렁크가 배를 쭉 가른채 놓여있다. 그속에서 꺼내여 되는대로 내던진 녀자옷가지들과 화장품따위들이 여기저기 나딩군다.

오자와라는 약이 올라 머리를 쥐여뜯다가는 행여나 하여 다시 뒤지기를 거듭하지만 자기가 찾는것이 눈에 뜨이지 않자 주먹을 움켜쥐고 침대를 두드려댔다. 자기가 하늘처럼 믿어온 일본사나이 이와나미가 알속은 다 뽑아내여가지고는 내뺐다는 사실을 확인한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도적을 맞힌셈이다. 굶은 개처럼 덤벼들어서는 못하는짓이 없더니 이제는 볼 재미를 다 봤다고 《사요나라.》 하고 인사를 보내며 꽁무니를 사린것이다.

일본인의 타고난 기질이니 누구를 탓하랴. 배신을 피로 물려받은 무리들이 일본수개들이다. 계집과 권력만 쥐면 그만이라는 사무라이들이 만들어낸 녀자가 자기라는것을 오자와라는 다시금 절감했다. 돌아가며 남좋은 일은 다해주고 껍데기만 남은 제 모습이 보이자 이가 갈렸다.

《이와나미, 내 네놈을 기어이 찾아낼테다. 그때엔 네 손으로 배를 갈라야 한다.》

그의 일은 걸음마다 맵시있게 꼬이면서 하나도 바로되는게 없었다.

서지연을 랍치하기 위해 얼마나 품을 들였는가. 잘 째인 각본을 가지고 발레무용과 같은 재치있는 기교를 발휘했는데 수포로 돌아갔다. 그 쬐꼬만 계집애가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으니 놀라지 않을수 없다.

형제음식점을 며칠동안 감시했지만 허사다. 실패했다는것은 명백하였다. 그 음식점것들을 혼쌀내고싶지만 알아보니 건드릴 적수가 못되였다. 잘못 다쳐놓았다가는 제 목숨도 건사하기 어렵다는것을 안 오자와라는 더이상 이 도시에 남아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려는데 이와나미라는 녀석한테 귀중품과 많은 돈을 깨끗이 털리운 신세가 된것이다.

여지없는 패배감을 안고 트렁크를 갖춘 오자와라가 자기의 온갖 비화들이 얼룩진 방안을 둘러보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불청객이 나타났다. 샤멜이였다.

창백한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채 천천히 다가서는게 목을 길게 뽑은 코브라같아 오자와라는 오싹 몸을 떨었다.

《어델 가려구?》

《여기에 더는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난 떠나야겠어요.》

《그 필요성은 자기가 결심하는게 아니지.》

오자와라는 다가서는 샤멜의 턱에 밀리워 고개를 뒤로 젖히였다.

《난 당신의 부하가 아니예요. 우린 일시 손을 잡았던게 아닌가요?》

샤멜이 목소리를 낮추어 타이르듯 뇌까렸다.

《우린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과는 헤여지는 법을 모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지? 오자와라!》

오자와라는 이놈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덮쳐들자 없는 웃음을 지어냈다.

《내가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어요.》

《아무렴, 그래야지.》

《흐흐흐.》

샤멜의 등뒤에서 킬킬대는건 바클리였다. 언제 보나 주린 눈길을 던지며 매달리는 재빛수염쟁이에게 맵짠 시선을 찔러댄 오자와라는 들었던 트렁크를 내려놓았다.

《이 집이 감시를 받을수 있다는걸 예견했어요?》

샤멜은 여윈 손가락마디를 신경질적으로 꺾어대고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침대에 걸터앉았다.

《아무 일도 칠줄 모르는 당신 같은것들을 따라다녀선 뭘 하겠는가. 가랭이에 바람찬 년이나 그런 년들한테 미쳐버린 녀석이나 대가리들은 쓸모없는 돌덩이나 한가지다.》

오자와라나 바클리는 자기들에 대한 샤멜의 평가로 하여 몸서리를 쳤다. 둘 다 저마끔 뛰여난 재간을 가졌다고 자부해오지 않았던가.

오자와라가 치욕을 맛본다면 바클리는 공포같은 감정을 받아안았다. 예리한 감각을 가진 재빛수염쟁이는 쓸모가 없어지면 자기네 족속들에게 차례지는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던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것도 누구나 할수 없는 그런 일을… 이번까지 실패하면 그때에는…》

샤멜이 살기띤 눈을 가운데로 모으면서 턱을 신경질적으로 저었다.

《흠흠, 대가를 치르어야 해. 이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에쎈의 거두를 제껴버리는거다. 그래야 해.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듣지를 않거던. 고집을 부리라지. 그래야 마지막길을 앞당길뿐이니까. 오자와라, 당신한테로 어떤 사람이 찾아올거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 그때 차후의 일감을 주지. 알겠는가?》

고개를 쳐들어올린채 건방진 자세로 앉은 오자와라가 불쾌한 웃음을 숨기지 않으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러지요.》

《바클리, 너는 말이다.》

오자와라앞에서 보라는듯이 일부러 바클리를 하대하는 샤멜이다. 눈을 칼끝같이 만든 상전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비굴해진 바클리는 엉거주춤 따라 일어섰다. 굴욕을 당하더라도 살고보는것이 중요한것이다.

《당신들이 랍치하려던 대상물을 서상록이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클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것처럼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상록이라는 천재적인 《바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랍치계획은 오자와라가 세운것이며 자기는 함께 집행했을뿐이다. 그 과정은 자기가 잘 안다. 상록의 딸은 형제음식점에서 증발해버렸다. 의심스러운것은 괴물들만 모인 그 음식점이라는 소굴이다. 상록이 그곳을 찾군하지만 주인과 결탁하여 어떤 음모를 꾸밀 위인은 못된다. 한심하기란… 어디서 걷어들인 정보이기에 믿는지 알수가 없어 그는 머리만 주억댔다.

《바클리는 서상록을 면밀히 주시하라. 그가 이번 우리 일에 방해를 놀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해. 알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서상록은 사흘째 식음을 전폐하고 연구소의 자기 방에 누워있다싶이 하였다. 안타까워난 싼타나가 재간껏 음식을 만들어 날라오지만 입도 대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긴 안락의자에 누워서 신문을 보고있다. 머리맡에는 10종

도 넘는 신문들이 되는대로 놓여있었다.

조심히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싼타나가 상우에 가져온 음식들을 차렸다.

큼직한 사기그릇에 담긴 토장국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자 상록은 싼타나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제음식점에 주문해서 송달해온 토장국입니다. 식사야 하셔야지요.》

다심하게 걱정해주는 녀자의 모습을 스쳐보며 상록은 생각했다.

얼마나 고충이 큰 녀자인가. 지그프리트에게서 받는 추궁만 하여도 녀자로서는 견디기가 어려울것이다. 지연의 행처를 찾으려고 밤낮으로 모대긴다. 에쎈의 촉수들이 일제히 떨쳐나섰지만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고있다. 랍치자들로 추측하는 쌍드와 바클리의 모습은 안개속에 잠겨버렸다.

사건의 진상을 알고있는 사람은 자기이지만 사실을 밝힐수가 없었다. 그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된다는 음식점주인의 말대로 행동하고있었다. 자기의 침묵만이 사랑하는 딸의 신변을 지켜줄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상록이 보고난 신문들을 간종그려놓자 싼타나는 소리없이 한숨을 쉬였다.

이 모든 사태가 자기의 잘못으로 빚어진것으로 여기는 녀자다. 하여 상록을 마주하면 전에없이 안절부절하는것이다.

《국이 식겠는데…》

《식으면 뭐라오. 무슨 새 소식이 없소?》

싼타나는 감히 서상록을 마주보지 못했다.

《선생님, 다울링을 기억하시지요?》

《WM의 리사라는 사람말이요?》

《그건 위장신분입니다.》

얼마전 에쎈구락부에서 만난바 있는 인물이다. 자기가 알고있는것보다는 훨씬 로회한 인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골프장에서 첫 상면을 했을때와는 딴 사람을 만난 기분이였다. 일종의 협박을 가해오는데 단수가 높았다. 자기를 랍치한바 있는 녀석들과는 달랐다.

싼타나가 입수한 다울링의 자료를 놓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WM의 리사는 고정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필요되지 않는 장소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인물인 다울링이 미중앙정보국산하 유럽지역 어느 한 정보기관 책임자라는것을 알아냈다. 또한 그가 이 도시에서 어떤 작전을

계획하고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분석확인중이라고 싼타나는 말했다.

에쎈구락부에서 만난 다울링은 상록에게 그것과 류사한 암시를 로골적으로 하였었다. 그러니 자기의 딸을 랍치하려던것과는 다른 음모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봐야 하는것이다.

《싼타나, 조심하오.》

상록의 근심어린 목소리를 들은 이 정숙한 녀자는 눈빛을 가볍게 떨기까지 했다. 내심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운 모양이였다.

《다울링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의 다음번 목표가 우리 에쎈일수도 있다는겁니다.》

《그건 너무 어마어마하구만.》

《에쎈이라면 커보이지만 개별적인 사람은 작은걸요.》

서상록은 싼타나의 위구를 어느 정도는 리해할수 있었다. 자기들의 의도를 실현할수 없게 된 적수들은 극단적인 모험도 서슴없이 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을수 있다.

《우리 연구소와 나를 노리는게 아닐가?》

두손을 마주 모아 꼭 잡은 싼타나가 힘겹게 고개를 쳐들었다.

《그걸 부정할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미 지연을 랍치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다울링과 같은 인물이 일단 손을 대면 더 큰것을 노린다는것도 예견하고있어야 합니다.》

싼타나의 우려가 이미 계선을 넘어섰다는것을 상록은 알수 있었다. 사태가 험악해진다면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피동에 빠져 얻어맞기를 기다린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서상록은 불의에 대한 분노를 참을수 없었다. 하지만 이 대결은 연구사업과는 다르다. 물질분해는 연구대상이 명백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수들과 맞서야 하는것이다. 그로서는 싼타나의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였다.

《선생님은 더이상 마음을 쓰지 마시구 연구소에서 한걸음도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소. 대신 정황을 제때에 알려줄수야 있지 않소. 나도 도움을 줄지 알겠소.》

싼타나가 손을 저으며 일어섰다. 식어가는 국그릇을 만져보고는 《덥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방에서 나갔다.

웰헬름거리에 들어서는 입구의 도로에는 각종 매대들이 무질서하게 널려있다. 여기서는 음료와 과일, 당과류며 맥주 같은것을 팔아주는데 그 속에는 꽃이나 금붕어 지어는 아이들이나 좋아할 인형 같은것을 진렬한 매대들도 있었다. 판매원이라고 해야 할 사람들도 형형색색이다. 젊은 금발머리녀자가 있는가 하면 머리가 하얀 로인도 보이고 꼬부장한 로파와 차림새가 집씨 같은 남자들도 있었다.

제일 손님이 찾아들지 않는 잡화매대에 흰 수건을 눌러쓴 녀인이 한가로이 앉아서 부채질로 파리를 쫓아댄다. 오자와라가 이런 궁상을 떨고있는것이다.

그는 참으로 기가 막혔다. 사교계에서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떨치던 자기인데 이 꼴로 앉아있었다. 매대도 옷차림도 접선표식이다.

샤멜의 손탁에 들었으니 별다른 도리가 없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121번지에 자기 밀월의 장소였던 집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내들을 끌어들였고 쾌락을 맛보았던가. 지금의 자기는 인형이나 다름없다. 지령대로 입고 벗어야 하며 얼굴모양도 달리해야 하는것이다.

가슴 한가득 차오르는 불만을 이기지 못해 씨근거리는데 매대앞에 어떤 남자가 다가선다. 인상이 무척 점잖아보인다. 사람들은 아직 무더위로 벌거벗다싶이 하고 다니는데 이 신사는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맸다.

윤기가 도는 까만 수염은 잘 손질하여 호감을 자아냈다. 연한 밤색안경알속에서 사나이의 엄한 눈빛이 굴절되는게 보였다. 자기가 차려놓은 허줄한 매대나 찾을 사람같지 않은데 스스럼없이 다가온것이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접선암호가 들려오자 오자와라는 흠칠 놀라며 의혹을 품은채 대답했다.

《9월하고도 엿새 지난 날이지요.》

점잖은 신사로 여겼는데 매대안으로 손을 들여밀더니 라이터 하나를 집어들고나서 오자와라의 얼굴앞에 대고 불을 켰다.

《내 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넌 머리가 좋지? 오자와라.》

접선자이기는 해도 초면이라고 해야 할 사내의 무례한 말투에 발끈 화가 난 오자와라이지만 위압적인 눈길에 눌려 고개만 끄덕였다.

《너의 샤멜에게 전해. 래일 준비를 하라구 말이다. 내 차번호는 이거다.》

사나이가 종이쪽지를 재빨리 건네주었다.

《내앞의 차가 목표물이다. 대형벤즈승용차, 이게 번호다.》

오자와라는 이번에도 받아 차번호를 기억했다.

사나이는 다시 불을 켜서 내밀며 말했다.

《태워버려! 그리구 잘 들어둬. 움직이기 한시간전에 나의 위치를 알려주겠다. 샤멜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전달하라. 알겠는가?》

《시간은…》

《바보인체 하지 말어. 오자와라, 이번 일을 잘해야 해.》

사나이는 오자와라의 볼을 장난감처럼 만져주고는 간다는 소리없이 사라졌다.

《기가 막혀라. …》

오자와라는 사나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얼굴을 만지며 모욕감으로 하여 입술을 피가 나게 옥물었다.

택시를 리용하여 고속도로선상의 운하거리 220구역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서상록은 뒤따라온 승용차에 올랐다. 음식점주인과 약속한 시간을 1분도 드팀없이 맞물린 움직임이였다.

《주인님, 웬 일로 이렇게 만나자고 하셨는가요?》

운전대를 잡은 음식점주인은 상록에게 은근한 미소를 보내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지연을 랍치하려던 놈이 바클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놈이 음식점의 주방에까지 얼굴을 들이밀었기때문이다. 그때부터 주인은 바클리를 찾아내기 위해 자기네 젊은 사람들을 동원하였다. 제노라 하면서 한다하는 장소에만 나타나던 놈인데 어디에 숨어버렸는지 알아내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런 재빛수염쟁이가 어제 저녁에는 제발로 찾아들다싶이 했다.

지연을 랍치하려다 실패한 놈들이 아직도 음식점을 감시하는 낌새를 보이기에 《쏘스》라는 별명을 가진 젊은 료리사가 하루나 이틀쯤 처녀접대원들을 몇명 데려다 일을 시켜보자는 별로 신통치 못한 의견을 내놓자 밑지는셈 치고 하자는대로 했다. 형제음식점이 생겨서 녀자접대원을 둔 일이 없는지라 소문이 짜하게 퍼진 모양이였다.

첫날에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튿날 저녁무렵에 바클리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것도 어찌나 변장을 잘했는지 하마트면 놓칠

번 하였다. 녀자접대원들속에 혹시 지연이가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듯 했다.

허줄한 차림의 늙은이로 가장했던 바클리는 취조를 당하면서 자기가 귀신도 모르게 죽을수 있다는데 겁을 먹고 얼마 못 견디고 모든것을 털어놓고야말았다. 그 내용은 샤멜이라는 폭력집단의 두목이 가까운 시일안에 그 어떤 대상을 노리고 모종의 테로행위를 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좀더 조여대니 샤멜도 웃사람의 지령을 받게 되는데 그 장소에는 오자와라가 나간다는것까지 진술하고야말았다.

은밀한 방법으로 오자와라의 접선장소를 감시하여 알아낸데 의하면 샤멜에게 지령을 준 인물은 WM의 리사 다울링이였다. 오자와라에게는 목표물인 승용차의 번호와 자기가 몰게 될 차의 번호만을 넘겨주었다.

다울링의 지령이 내려지는 즉시 로상에서 그의 차번호를 식별하고 추적하면 그앞에서 달리는 목표물을 발견하게 된다는것이다. 어찌 보면 맹랑한 소리로 들릴수도 있었다.

이 도시에 있는 차량이 얼마인데 승용차의 번호를 어떻게 빨리 확인하겠는가. 그리고 목표물인 차에는 누가 타며 감행하려는 테로의 수법은 무엇인가. 저격인가, 압살인가, 그것도 어느 시간에…

서상록은 무수한 의문이 떠오르는 속에 주인의 이야기를 기다리였다.

《지그프리트사장의 일정은 비밀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움직임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문득 나타나고 문득 생각난듯 찾지요. 나는 그와 약속하고 만난 일이 거의나 없습니다.》

《그러나 싼타나는 알수 있지 않을가요?》

상록은 긍정했다.

《가장 믿는 녀자니까요.》

《가장 안전하다는 곳에 위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련한 지그프리트지만 실수를 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음식점주인은 매우 침착한 사람이였다. 그는 이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암시하는것으로 자기의 의도를 전달했다.

서상록은 정신이 펄쩍 들었다. 폭력배들의 목표가 지그프리트란 말인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대독점체의 거두를 테로하려고 한다는것이 믿기 어려웠던것이다. 하지만 지그프리트가 무슨 큰 존재인가 하는 판단이 곧

뒤따랐다. 오늘날의 테로행위는 한 나라의 국회의사당에서도 서슴없이 감행되고있으며 국회의원이건, 정부의 수반이건, 대통령이건 가리지 않는다.

《다울링은 자기의 지령에서 행동개시날자를 래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서상록의 심각해진 사색을 조용히 흔들었다. 래일이라는 말에 정신을 차린 상록은 얼결에 뱉아놓았다.

《래일 에쎈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에쎈의 조선에로의 진출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것으로 예견되여있습니다.》

《그렇군요. 알만 합니다. 그러니 그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래일 즉 이 시간으로부터 24시간내에 에쎈의 새로운 대외진출방향이 결정되는것이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있었다. 정확한 때는 래일 저녁일수 있다.

서상록의 마음은 금시 긴장되였다. 지그프리트의 주장이 실패하면 놈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철회할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기정사실로 되는 경우에는 계획대로 움직일것이다.

《상록선생, 중요한것은 지그프리트가 어디서 어느 시간에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가를 아는것입니다.》

서상록은 심중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자기가 알아서 알려주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기도 했다. 어려운 일같이 여겨지지 않지만 결코 쉽지도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그프리트는 매우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그의 성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기였다. 그러나 정황이 정황인것만큼 에쎈의 거물을 조종해야만 위기를 극복할수 있었다.

《정확한 시간과 경로는 내가 알려드리지요.》

주인은 주차장에서 차를 돌려세운 다음 오던 길로 다시 몰아갔다.

고속도로에는 땅거미가 깃들고있었다. 전조등불빛들이 엇갈리며 부딪친다.

상록은 지금의 정보를 싼타나에게 알려주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굴려댔다. 옆에 앉아 차를 운전하는 주인이 비밀이 루설될가봐 동의하지 않을것 같아 마음을 바재이였다.

《선생은 싼타나를 생각하는게 아닌가요?》

서상록은 흠칫 놀라기까지 했다. 어떻게 자기 심중을 꿰뚫어보고 묻는것인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주인이 입가에 미소 같은것을 띠우는것이 알렸다.

《작은 힘도 도움이 되지요. 그 녀잔 잘 훈련된 첩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녀자는 녀자지요. 나와 우리녀석들이 선생을 도울테니 이 시간부터 긴밀한 련계를 가집시다. 그런데 선생은 왜 지그프리트를 지지합니까?》

뜻밖의 물음이였다.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였던것이다. 그렇지만 솔직한 대답을 하여야 했다. 딸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나 같은 사람이기때문이였다.

《나야 조선사람이 아닙니까. 에쎈의 조국에로의 진출을 바라니까요.》

주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끄덕거렸다. 못내 만족해하는것이 알렸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주시니… 난 필몽아바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것처럼 두견차집 주인도 어머니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딘가 갈린듯 한 목소리로 주인이 말했다.

《예?! 우리 장모도 알고계셨습니까?》

상록은 자못 큰 충격을 받은것으로 하여 놀라움을 터뜨렸다. 주인이 턱수염을 한손으로 만지며 웃었다.

《선생의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오. 정말 좋은 어머니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있는 힘껏 돕는답니다. 나나 우리애들은 부모의 얼굴도 모르지만 어머니가 있다고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모릅니다.》

폭력배들이 살판을 치고 부패와 타락풍조가 만연되여가는 유럽땅에도 정직한 우리 동포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하여 서상록의 가슴은 그들먹이 차올랐다.

38

하루의 절반도 안되는 시간을 서상록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나날보다 더 지루하게 느끼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쉼없이 밀려드는 압박감과 함께 호흡장애까지 찾아드는것만 같았다.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가지지 못하고 방안을 빙빙 돌며 오가기만 했다. 보려고 손에 들었다가 던져버린 책들이 상우에 널려있다.

지그프리트와의 통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체 전화를 받지

않는것으로 하여 그의 심리는 극도로 초조해났다. 벌써 저녁시간이 되여오지 않는가. 음식점주인은 련락을 애타게 기다릴것이다.

지그프리트가 움직이는 시간을 알아내지 못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폭력배들이 목적을 실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빚어낼것인가를 상상해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어대는 상록이다.

불안과 초조속에 시달린 그는 더는 자기를 지탱할 힘이 없어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와 동시에 손전화기의 호출음이 울렸다.

자리에서 뛰쳐일어난 그는 다급하게 상대방의 번호를 확인하였다.

지그프리트였다. 심장의 피가 한순간에 뿜어나오는것 같아 숨이 차기까지 했다.

놀랍게도 지그프리트의 기분상태는 매우 좋았으며 그것으로 하여 상록의 심리는 더욱 긴장되였다. 주주총회에서 지그프리트의 계획이 통과된것이다.

그와 같은 성과를 거둔것으로 하여 지그프리트의 목소리는 한층 우렁찼고 말마디들은 방자하게까지 들렸다.

내가 누군가, 지그프리트다 하고 웨쳐대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서상록은 온종일 준비하고 기다려온 물음을 조심스럽게 외웠다.

《사장님의 저녁시간일정은 어떻게 예견하고있습니까?》

지그프리트는 기분이 뜬지라 아무런 의문도 없이 선뜻 대답했다.

《주주들과 리사회성원들이 참석하는 소연회가 있네. 축배를 들어야지, 안 그런가. 그 다음은 집에 들어가 푹 쉬려네. 힘이 들구만. 나이는 속이지 못하겠네. 하하하.》

《사장님, 저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긴장하게 보내시는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회가 끝나는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겠네. 그렇게 하지.》

통화를 마친 서상록은 시간을 보았다. 17시 50분을 넘기고있었다.

그는 한초라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다급히 음식점주인을 찾았다.

대기하고있었던 상대는 즉시 응답했다. 상록은 간단명료하게 에쎈의 주

주총회결과와 저녁시간에 있게 될 소연회에 대해 알려주고 지그프리트는 연회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성미가 아니므로 따라서 연회는 길어야 한시간정도일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지그프리트의 시간과 움직이는 경로를 알고있는 한 우린 놈들의 기도를 꺾어놓을수 있지요. 선생은 움직이지 마시우다.》

서상록은 에쎈이 공식적으로 차리는 연회장소를 알고있다. 감히 연회장을 기습하지는 못할것이다. 그렇다면 에쎈의 본거지로부터 지그프리트의 집까지의 로상에서 놈들이 행동할것이라는것은 명백했다.

그는 이 사실을 싼타나에게도 알렸다. 녀자의 대답은 매우 침착했다. 자기가 아는 정보를 이미 수집한것이 분명했다.

싼타나는 연구소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다시한번 상록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상록은 남자라는게 닥쳐드는 위기를 알면서 제 몸건사나 하자고든다면 무슨 사내냐 하는 의협심이 고개를 쳐들어 자기대로의 행동계획을 세웠다.

세사람은 각기 구석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에서 뛰쳐나갈 궁리만 하는 짐승들처럼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지금 당장 무도홀에 세워도 손색이 없는 차림을 한 오자와라가 대각선 방향에 도사리고 앉은 사내녀석들을 이따금 할기죽거리며 살핀다면 바클리는 공연히 턱수염을 신경질적으로 뽑아대며 굶주린 짐승처럼 킁킁댄다. 하지만 샤멜은 갱핏한 턱을 쳐든채 얼음조각처럼 찬 기운을 풍기며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다울링에게서 정보와 지령을 받은 후부터 독이 뻗쳐오르기 시작한 샤멜이다. 바클리 같은것들은 자기의 살생부에 올리면 임의의 시각에도 저승행을 해야 한다. 수하에 악한들을 모아들이고 자기가 세운 계률에 복종시키는것으로 만족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난데없는 놈한테서 지령을 받았던것이다. 그조차 목숨을 내대야 하는 일을 직접 하라고 하니 처음 당해보는 굴욕이였다.

오자와라가 꽤 달콤해하는 표정으로 구두지령을 외워댈 때 그는 일본계집의 몸에 손이 뻗쳐나가는것을 겨우 참았다. 생각 같아서는 꺼꾸로 매달아놓고 부끄러운것을 모르는 그곳에 채찍을 안겨 죽이고싶었다.

샤멜은 얼어붙은 자세지만 오자와라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따금 닿는

것을 감촉할 때면 래일은 네년이 다시는 궁둥이를 저으며 나돌아치지 못하게 만들테다 하고 별러댔다.

다울링의 처사가 화를 돋구지만 꼭같은 내용의 지령이 다시 내려졌다.

실패를 더이상 허용할수 없다. 오늘 저녁 계획은 현지에서 샤멜이 직접 집행하라. …

그때부터 이 랭혈동물의 혈관속에서는 야수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일을 망치는 날에는 오자와라를 꺼꾸로 매달기 전에 자기의 숨통이 먼저 끊어져나간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지금 다울링의 신호를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다. 얼굴조차 모르는 그녀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목표물이 대형벤즈승용차라는것만 제시했다. 아직까지 행동을 개시해야 할 시간조차 결심할수 없으니 샤멜의 차거운 심장마저 시계추처럼 뚜걱거려댔다.

손전화기에서 호출신호음이 울리자 제일먼저 파들짝 놀라는것은 오자와라였다. 바클리도 음침한 눈길을 돌렸다. 샤멜의 손전화기화면이 열렸다.

다울링이 자기 위치를 알리는것이다. 이어 랭담하면서도 거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행동개시시간은 정각 20시 30분, 임무완료시간은 21시. 내 차앞에서 달리는 차에 목표물이 타고있다. 알았는가?》

샤멜은 현재시간을 확인했다. 20시 15분이다.

《알았다.》

샤멜이 배암처럼 꿈틀거리자 오자와라와 바클리도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죽을 곳이라도 상전을 따라다녀야 하는것이 그들의 운명이였다. …

한편 형제음식점 주인은 날파람있게 생긴 젊은 동료와 함께 음식점을 나서기 바쁘게 승용차쪽으로 재빨리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에쎈의 연회장에서 무슨 소식이 온게 없나?》

《아직은… 아, 신호가 울립니다.》

젊은이가 손전화기를 꺼내들며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을 차지했다. 손전화기에서는 연회가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었다. 20시 30분.

젊은이의 옆자리에 앉은 주인은 상록을 찾았다.

《상록선생, 연회장으로부터 지그프리트의 저택에 이르는 로상이 사건발생지역으로 될겁니다. 시간은 저녁 20시 30분부터 대체로 21시까지 사이로 보입니다. 나는 출발합니다.》

《주인님, 조심하십시오.》

에쎈이 차린 연회장에는 형제음식점의 료리사 한명이 이미 가있다. 그곳에서 지그프리트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알게 된것이였다.

에쎈의 적수들이 로상에서 지그프리트를 암살하려고 한다는것은 거의나 확정적이였다. 놈들이 제2의 방안이 있어서 계획을 변경시킨다면 그때는 수습하기 어려울것이라고 주인은 우려했다.

다울링과 같은 인물이 사건에 개입했다는것은 매우 위험한것이다. 지금과 같이 계획된 테로를 전문가의 두뇌로 집행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음식점주인은 가능한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 샤멜의 패거리들을 추적하며 그것들이 차를 리용하는 경우 고장나게 만들라는 지시를 믿을만 한 재간둥이에게 주었던것이다.

39

도시의 한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들이 출동하였다. 충돌하였거나 전복된 차량이 10여대나 되였다. 사고의 발생원인이 고의적으로 통행규정을 어긴 대형화물자동차때문이라는것을 현지에서 확인한 경찰은 수사진을 폈다. 화물자동차에 탔던 운전사와 그 일당이 도망쳐버린것이다.

구급소생실의 침대에 싼타나가 누워있다. 눈같이 흰 백포를 덮고 눈을 감은채 창백하기 그지없는 얼굴만을 드러냈다. 경건하고 정숙하던 자태는 더는 찾아볼수 없었다.

그앞에 서상록과 지그프리트가 앉아서 녀자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하루밤사이에 모든 생활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듯싶었다.

남은것은 적막일뿐 운명은 괴로움을 안고 영원한 리별의 손을 저어보이고있다. 이렇듯 가버리는것이 인생이건만 어떤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악을 써대며 서로 물어뜯어대는것이다.

서상록은 싼타나의 모습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무엇을 알자는것인지 자신도 몰랐다. 다만 사람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만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인간은 오늘도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것만은 알수 있었다.

하여 바클리나 오자와라 같은 무리들이 살아남고 싼타나처럼 오래 살아야 할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것이다.

서상록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머리속으로는 불과 몇시간전에 지나가버린 일들이 악몽과 같이 회오리치며 밀려들었다.

…어둠이 깃든 도로를 따라 차들이 달리였다. 평범한 날처럼 여기며 꼬리를 무는 차량들속에는 살륙을 생업으로 하는 악마가 대형화물차를 미친듯이 몰아대고있었다. 그뒤를 상록과 음식점주인이 서로 다른 차를 타고 따르고있다.

전조등불빛으로 앞에서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였다. 대형벤즈의 꼬리를 문 승용차가 보이자 주인이 상록에게 손전화기로 알려주었다.

《앞에 목표물이 나타난게 보이지요? 벤즈승용차의 뒤에 선것이 다울링이라는 놈의 차가 분명합니다. 선생은 내뒤로 물러서야겠수다.》

《주인님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일은 내가 맡아하렵니다.》

손전화기로 이렇게 대답한 상록이 조향륜을 왼쪽으로 비틀며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승용차 한대가 맹렬한 시속으로 차체를 스치면서 앞서나가는것이였다. 그통에 상록의 차가 주춤거렸고 앞서서 미친것처럼 달리던 대형화물차도 주로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허우적거리는것이 보였다.

돌발적인 정황이였다. 대형화물차를 선행한 승용차가 목표물을 혼동하게 만들었던것이다. 벤즈의 뒤에서 바투 따르는 두대의 승용차로 하여 급해난 대형화물차가 그때부터 이상한 주행을 하였다. 조향륜이 말을 안 듣는지 방향을 종잡지 못하는데다 속도가 떨어지더니 선행한 승용차를 맥없이 들이받았다. 공중에 날아올랐던 승용차는 그앞으로 달리는 차의 유개를 짓이겨놓고는 한덩어리가 되여 길옆으로 나딩굴었다. 대형화물자동차에 의해 빚어진 교통사고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암살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한 인물과 심복부하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이것 또한 희귀한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간세상의 삶과 죽음이란 이렇게 뒤바뀌기도 하는것이다.

살아남은 오자와라와 바클리는 경찰의 끈질긴 추격에 끝내 붙잡히고 말았다. 그 괴한들이 이제 입을 열면 비밀의 장막도 벗겨지게 될것이다.

싼타나는 조용히 잠들어있다. 그지없이 평온한 모습이다. 인간세상의 모든것을 잊고 래세로 흘러가는것이다.

잠시후 서상록과 지그프리트는 싼타나의 림종을 목격하였다. 출혈과 쇼크상태를 극복할듯 하던 녀자가 급작스러운 패혈증으로 손쓸 사이없이 숨이 졌던것이다.

서상록은 새로운 의식의 충동으로 환각에 사로잡혔다. 금시 싼타나의 얼굴이 화광에 물드는것처럼 보였다.

흠칠 몸을 떨던 그는 이번엔 무섭게 솟구쳐오르는 불길로 하여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 같은것을 냈다. 귀전으로는 폭발음이 어지럽게 들려왔다.

그것은 참혹한 방화현장이였다. 불바다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처음으로 목격하는 불바다인것이다. 시약들과 실험재료들이 잇달아 폭발하여 소방대원들도 접근하지 못한다. 붉은 화광속에서 폭음이 울릴 때마다 검푸른 불길이 솟구치는가 하면 류황빛을 띤 불기둥이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토했다.

환각에 빠졌던 서상록은 누군가의 손이 자기의 어깨에 닿는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지그프리트의 말없는 눈길이 바라보는것이다. 흰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구급소생실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지그프리트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다.

어느덧 계절은 가을을 알리고있었다.

하늘은 높아지고 잎새들은 색갈을 바꾸기 시작했다. 수확기가 다가오는것이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한해동안 바친것을 거두어들이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한절기가 바야흐로 다가온다. 해빛은 나무우듬지들과 잎새들을 헤치며 가을빛을 띠기 시작하는 잔디밭을 물들였다.

두사람은 깊은 상념에 잠겨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마흔두살, 아까운 나이야.》

지그프리트의 갈린 음성을 들으며 서상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을 알게 해준 녀자였습니다.》

《싼타나가 없는 생활은 허전할거네.》

상록의 마음은 금시 외롭고 쓸쓸해났다. 곁에 있을 때는 다 몰라도 헤여지면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는것이다. 싼타나가 바로 그런 녀성이였다.

생전에 살뜰한 말을 별로 해주지 못한것이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인간의 후회가 보상할 길 없는 결과를 초래한 다음에 찾아든다는것을 서상록은 괴로움을 안고 느끼고있었다.

걸음을 멈춘 지그프리트가 늙은이다운 다심한 눈길로 상록을 바라

봤다.

《난 앞으로도 평양과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네.》

상록은 저으기 놀랐다. 마음속으로는 《지그프리트, 당신은 남자요.》라는 말을 하면서도 심중한 낯색을 지었다.

《이번에 당할번 한 화를 생각해보셨습니까?》

늙은이답지 않게 늘씬한 허리를 쭉 펴면서 지그프리트는 눈길을 쳐들어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싼타나의 죽음이 날 지켜보네. 지금의 정황에서 만일 내가 주저앉는다면 싼타나뿐만아니라 내 동생 칼도 용서치 않을거네. 죽음이나 위협공갈이 두려워 리상과 계획을 포기한다면 지그프리트가 아니지. 설사 에쎈이 앞으로의 도전에서 실패한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거네.》

《사장님의 결단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난 싼타나와 자네한테서 깊은 감동을 받았네.》

두사람은 병원의 정원길을 오래도록 걸었다.

승용차 뒤좌석에 앉은 어머니와 딸은 차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고있다. 너무도 익숙된 거리이고 집들이며 사람들이지만 그들 두사람의 눈에 비끼는것들은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있는듯싶었다. 불과 몇달 남짓한 사이에 이곳에서 겪은 일들이 되새겨지는것이였다. 모르고 살아온 많은것들과 새로운 인식이 모녀의 운명을 변화시켰다. 그것은 과거와의 영원한 리별이다.

정동녀와 지연은 방금전에 형제음식점을 찾아 고마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주인은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시우.》

어머니와 딸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생명의 은인들이고 정의로운 량심을 간직한 사람들인것이다.

이제는 이런 훌륭한 우리 동포들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에게 의지하여 조국과 겨레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결심이였다.

《아버지, 어디로 가나요?》

딸의 물음에 정동녀는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남편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전보다 무척 수척해진 모습을 오늘에야 비로소 발견한것 같아 이상하게도 가슴이 쓰려났다.

남편은 말없는 웃음을 짓군 하는데 그 색조에는 고뇌와 자책이 슴배여있는것을 가려볼수 있었다. 어찌 보면 오늘까지 가정을 지탱해온 남자라고 해야 할것이다.

정동녀는 지금 서상록의 뒤머리를 유심히 살피며 한숨을 내쉬였다. 흰서리가 수북이 덮인것을 보았던것이다.

《아버지, 내 말을 듣나요? 우린 어딜 가나요?》

조향륜을 잡은채 자기의 생각에 잠겨있던 서상록은 그제야 후사경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궁금하냐? 보여줄게 있어서 그런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의문을 품는데 습관된 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어머니에게 눈길을 돌렸다.

《우릴 어디로 데리고 갈것 같아요?》

정동녀는 딸의 어깨를 싸안으며 다독여주었다.

《어디 네가 맞춰보렴. 아버지의 생각을…》

《그건 불가능해. 얼마나 복잡한 사유기관을 가지셨다구.》

승용차가 호반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상록은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복잡하다는것은 가장 단순한 법칙을 찾지 못했을 때 느끼게 되는 생각이다. 어떠냐?》

지연은 어머니의 턱밑에 입을 가져다대며 소곤거렸다.

《봐요, 내 말이 틀리나. …》

정동녀는 딸의 어리광이 마음에 들었던지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을 쓸어내려주며 《새겨들으렴. 의미를 깨달아야지.》 하고는 조용히 웃었다.

《네가 이 아버지를 교훈으로 삼기를 바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거다.》

승용차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숲속의 공지에서 멎었다.

눈이 커지면서 제일먼저 놀라는것은 지연이였다.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완연히 대조를 이루는 폐허가 눈앞에 나타났던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버지의 연구소는 어디로 갔는가. 너무도 처참한 현실과 의혹이 놀라움을 터뜨리게 했다.

《어머니, 여긴…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예요?!》

경악을 뿜어댄 지연은 한손으로 입을 막았다. 자기가 론문을 마감한 아버지의 연구소가 아니였는가.

보리수나무들과 참나무, 봇나무와 너도밤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자리잡

았던 아담한 3층건물이 전쟁이라도 겪고난듯 이런 모양을 하고있는것이 도저히 믿을수 없었던것이다.

무너져내린 층막들과 벽체들, 타다 남은 잔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가을바람이 불어칠 때면 재더미로 변한 곳에서 검은구름 같은것이 피여올랐다.

거리에서 지그프리트를 암살하려는 악랄한 기도가 감행되고있을 때 서상록의 연구소도 불도가니속에 들었다.

다울링이 계획한 음모는 두곳에서 동시에 실행되였던것이다.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모가들과 폭력배들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였다.

정동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상록의 팔을 꼈다. 그로서는 오래간만에 와보는 남편의 연구소였지만 참혹한 재난을 겪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여보, 이것이 바로 내 손으로 그린 내 얼굴이요. 달리는 될수 없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서상록은 더 말을 하지 않고 안해와 딸의 팔을 량옆에 꼭 끼며 나직이 말했다.

바로 이것이 립신양명했다고 자부하며 오늘까지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이다. 사람이 민족이라는 뿌리에서 자라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자초하는 운명의 비극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성공의 조각상은 이렇게 허물어졌다. 나는 그날 밤에 나를 태우는 불길을 보았으며 그것으로 내 얼굴을, 마지막얼굴을 그렸다. 내가 숭상하던 명예와 재부, 그것은 사상루각이나 같은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기초를 가지지 못했기때문이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남의 얼굴을 수없이 그려왔다. 조각칼까지 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며 원망과 저주를 보냈다. 내 손으로 완성했던 조각상들은 나의 령혼이 어머니를 부른것이다. 하건만 그밤에 타번진 불길과 함께 내 손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녀인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네가 지금처럼 살면 우리 어머니들의 자식이 될 자격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것이라고… 나는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정동녀는 서상록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첫사랑을 약속하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처음으로 들어보는 처절한 고백이였던것이다. 인간이 이처럼 자신을 뉘우칠수도 있는가.

그는 더럭 겁이 났다.

《여보, 진정해요.》

《아버지!…》

너무도 가혹하게 그리고 절통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서상록으로 하여 정동녀와 지연은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난 잃은것보다 더 큰것을 얻었다. 그게 뭔지 아니? 지연아.》

《뭐나요?》

서상록은 안해와 딸의 어깨를 꼭 그러안으며 격정에 넘쳐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게 된거다.》

숙연해진 정동녀의 얼굴에서 한줄기의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시아버님과 어머니가 그리도 바란 가정이 인정만이 아니라 넋으로 다시 이어진것이다.

민족이란 개념의 의미가 오늘처럼 단순명백하면서도 쩌릿이 감수된 때는 없었다. 민족을 안다는것은 조상을 안다는 말인 동시에 자기의 미래를 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 그보다 심오한 진리는 없을듯싶었다.

서상록은 폐허로 변한 연구소를 바라보며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너무 걱정말아라. 그자들은 오산했다. 아버진 이미전부터 이 연구소보다 더 첨단화된 새 연구소를 구상하고 그 준비단계에 들어간 상태란다. 이제 몇달후면 그 연구소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게다. 그 연구소는 여기에 있지만 아마 조국과 겨레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할수도 있을게다. 너랑 어머니랑 우리 함께 일해보자꾸나.》

《아버지, 그게 정말이나요?》

지연이나 정동녀의 얼굴이 놀라움과 환희로 한껏 달아오르는것을 보며 서상록은 말을 이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기억하고있니?》

《그것만은 잊지 못해요. 뻐꾸기라는 새는 남의 둥지에서 알을 깨운단다. 그런 뻐꾸기지만 날기 시작하면 꼭 제 무리를 찾아간다. …》

서상록은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만시름을 잊은듯 말했다.

《그 말의 참뜻을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것 같구나.》

40

하늘은 끝없이 맑고 푸르다. 구름 한점 없는 무한한 대기공간으로 려객기는 고요히 흐르고있었다.

서상록은 기창을 통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해빛을 받아 고기비늘처럼 반짝거리는 구름들이 보인다. 어떤것들은 더미를 이루고 신비경을 펼치는가 하면 선남선녀가 되여 마주보며 손을 내밀며 안타까이 찾고 부르는것만 같다.

얼마나 자유로운 하늘인가. 그 하늘밑에 사람들이 살고있는 땅덩이도 식별할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 순간조차 전쟁이 그칠새 없고 폭력이 살판치고있으며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펼쳐지기도 한다. 피난민행렬이 강물을 이루고 재난이 꼬리를 문다. 억만장자들의 치부를 위해 미성년들인 어린것들이 노예와 같은 로동력으로 취급되고있으며 병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시시각각 죽음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왜 일찌기 하늘에서 살 생각을 못했는가. 얼마나 자유로운 무한대한 공간인가.

서상록은 이런 생각을 해낸 자기가 철부지가 되는 기분에 사로잡히며 속으로 웃었다.

그는 어제날의 자기를 떠나 새 생활을 찾아가고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있었다.

어제 밤 꾸었던 꿈생각이 났다. 배고동소리가 울리는것으로 보아 바다기슭 같은데 둘러보니 이상하게도 심산유곡이였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음향들중에서 배고동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했다. 그런데 골안의 바람소리는 여전히 진저리를 치게 하는 그 소리를 내며 어디론가 그의 마음을 이끌어가는것이였다.

이런 산속에도 성당이 있는가. 아찔한 바위벼랑우에 자리잡은것은 분명 성당인듯싶었다. 자기는 아무런 신앙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기도를 올린 일도, 참회를 해본적도 없지 않은가. 그런 나였기에 하느님을 찾아 여기로 올수는 더우기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선가 일진광풍이 불어쳤다.

수림을 이룬 나무들이 일시에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지르고 눈앞에 나타났던 성당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바람소리는 여전히 배고동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비로소 수림의 몸부림에 맞춰 신음소리를 냈다. 구원을 바라며 찾은것은 한번도 입밖에 큰소리로 내보지 못한 어머니였다.

그러자 거목을 등진 한 녀인이 흰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성당이 자리를 잡았던 곳에 나타났다.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라는 부름이 터져나오지만 마주선 녀인의 얼굴엔 자애라고는 찾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뚫어지게 자기를 바라보는지 창날이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것만 같았다.

《네가 어머니를 찾았느냐?》

《내 어머니가 옳지요?》

《나한텐 너 같은 아들이 없다!》

《상록이예요. 나한텐 어머니가 지어주신 색동옷이 있어요.》

《왜 혼자 왔느냐?》

《저… 그건…》

상록은 맥없이 주저앉았다. 할 말이 없었던것이다.

《네 아버지는?》

《용서해주소이다. …》

백발녀인이 손을 쳐들어올리더니 바람소리를 내고는 죽은듯이 움직이지 않는 상록을 무섭게 내려다보며 발을 굴러댔다.

《나한텐 너 같은 아들이 없다!》

두번째로 같은 말을 반복한 백발녀인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어머니!…》

자기의 처절한 울부짖음소리와 함께 꿈에서 깨여났다. …

서상록은 자기가 꿈에서 본 현실을 찾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주저와 두려움을 몰랐다. 어머니의 손에서 매질을 당하고 그 손에서 죽을수만 있다면 바랄것이 없었다.

죄와 벌은 한가지에서 자란다는 말이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각오한지는 오랬다. 아버지와는 달리 강직하고 눈먼사랑을 기울일줄 모르는 어머니가 계신다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조국이 가까와올수록 그 땅에서 반백년동안 피눈물을 가슴에 안고도 끝까지 기다렸을 어머니앞에서 죄값을 청산할수 있는것만 해도 행운으로

여기는 서상록이였다.

려객기안내원처녀가 잠시후에 착륙한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승객들은 안전띠를 매며 즐거운 려행의 만족과 함께 밝은 웃음들을 뿌리며 기창밖을 바라보았다.

려객기는 기수를 낮추더니 활주로우에 내려앉았다.

얼마나 먼길을 왔는가. 지구를 한바퀴 돌면서 방황하다가 찾은 조국이다.

서상록은 자기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철부지나 같은 시절에 걸어다녔을 땅을 머리가 희슥해오는 나이에 다시 밟아본다는 감개무량함이 가슴을 쳤다.

민족을 몰랐기에 민족을 떠나 산 초라한 내 얼굴을 내 손으로 그리지 않았던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의 아들답게 살리라. 이 나이를 먹으며 오늘처럼 후회와 부끄럼이 없게 민족의 토양에 한줌 거름이나마 되리라. 비록 이역만리에 있어도 이 성스런 땅에서 원한의 분계선을 걷어내고 조국의 통일과 겨레의 단합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리라.

그때의 내 모습은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딸 지연이와 같은 후대들의 손이 그리게 될것이다. …

승강대를 내린 승객들속에 끼워 걸음을 옮기던 서상록은 자기를 찾는 힘찬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처음에는 의아해서, 그 다음은 믿기 어려워 손으로 채양을 하고 바라보았다.

명현이 한 로파의 팔을 끼고 서있는 모습이 보이자 서상록은 무작정 걸음을 다그쳐댔다.

어머니시다! 어머님이 이 못난 아들을 맞아주려고 나오셨다.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서 달려갔다. 마가을바람에 백발을 날리며 어머니도 두손을 내밀고 마주 온다.

서상록은 걸음을 뚝 멈췄다. 그리고는 무너져내리듯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불효막심한… 놈이 왔습니다. …》

어머니도 멎어서서 한동안 찬찬히 여겨보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두팔을 벌렸다.

《상록아!… 그 먼먼길을 용케도 어미를 찾아왔구나. …어디 보자, 내 아들아!…》

무릎걸음으로 기여가 어머니의 발과 치마자락을 더듬으며 서상록은 그토록 그리워한 어머니의 품에 몸을 맡기였다.

—끝—

장편소설 자 화 상

저 자 온 영 수
편 집 정 성 남
장 정 리 성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9(2020)년 12월 26일
발 행 주체109(2020)년 12월 30일

ㄱ－1492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31－9